

강원  
역사

12

## 천리안 매직콜 CUG 개설 이용안내

1. 본 협회에서는 6월부터 (주)데이콤에서 운영하고 있는 천리안 매직콜 서비스에 CUG(Closed User Group : 폐쇄 사용자 그룹)을 개설하였습니다.
2. CUG란 이용이 허락된 회원들이 집단을 형성하여 상호 업무연락, 문서교류 및 정보제공, 전자회의 등을 할 수 있는 PC통신 서비스입니다.
3. 본 협회에서는 CUG를 이용하여 협회현황 알림, 각종 현상공모 알림, 관련법률 제공, 각종자료 제공, 설문조사 등을 할 예정입니다.
4. CUG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 협회 CUG담당자(사업부 빈흥기)에게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이용 신청을 한 후 본 협회의 허락을 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 신규 가입을 원하는 회원의 경우  
뒷면의 천리안 매직콜 가입 신청서를 본 협회 CUG담당자에게 송부하면,  
(주)데이콤의 천리안 매직콜 이용 권한과 본 협회의 CUG 이용 허락을 받아 사용.
  - 나. 천리안 매직콜에 이미 가입하고 있는 회원의 경우 (별도의 이용요금 없음)  
천리안 ID, 성명, 사무소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본 협회 CUG담당자에게 송부 (FAX:586-8823) 한 후 본 협회의 허락을 받아 사용.
  - 다. CUG 연결방법 : 천리안 매직콜에 접속한 후 "GO KIRA" 입력  
(본 협회의 허락을 받아야 연결이 가능함)
5.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기 위하여 개설한 본 협회 CUG를 모든 회원께서 유용하게 이용하시기 바라며, 보다 많은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각 회원께서 가지고 계신 정보를 CUG에 업로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본 협회의 CUG에 가입하면 (주)데이콤에서 제공하는 천리안 매직콜의 모든 정보를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천리안매직콜(CUG) 이용신청서

(천리안 매직콜 신규가입자용)

## 1. 고객사항

|                      |    |                                |                                                                   |
|----------------------|----|--------------------------------|-------------------------------------------------------------------|
| 신청자<br>(요금납입<br>책임자) | 개인 | 성명 :<br>주민등록번호 :<br>이용자와의 관계 : | □□□-□□□<br>주소 :<br><br>수취인 :<br>부서 :<br>전화 : (    )-(    )-(    ) |
|                      | 법인 | 성명 :<br>주민등록번호 :<br>이용자와의 관계 : |                                                                   |

## 2. 서비스 신청사항

| 희망 ID명 | 희망비밀번호 | * 천리안 매직콜의 희망 ID명 : 3~8자리의 영문 또는 숫자 조합<br>(첫자는 반드시 영문이어야 하며 대,소문자 구분은 없음)<br>* 비밀번호 : 5~8자리의 영문, 숫자, 특수문자의 조합)<br>* 이용자번호(ID)가 다른사람과 중복된 경우 변경하여야 함 |
|--------|--------|-----------------------------------------------------------------------------------------------------------------------------------------------------|
|        |        |                                                                                                                                                     |

## 3. 요금납부방식 (해당란에 0표를 하시고 필요사항을 기입)

| <input type="checkbox"/> 신용카드   |  | <input type="checkbox"/> 자동이체 |                     |
|---------------------------------|--|-------------------------------|---------------------|
| 카드번호                            |  | 거래은행지점명                       | (    )은행 (    )지점   |
| 카드유효기간                          |  | 계좌번호                          |                     |
| 카드예금주                           |  | 예금주명                          |                     |
| <input type="checkbox"/> 지로GIRO |  | 예금주와 상기<br>신청자와의 관계           | 1.본인 2.가족 3.직원 4.기타 |

서비스 이용약관 내용에 따라 위와같이 서비스 이용을 신청합니다.

1996.    .    . 신청인 : \_\_\_\_\_ (인)

(법인인 경우 직인 또는 명판날인)

**주식회사 데이콤 귀중**  
DACOM CORPORATION

**가입비** : 10,000원(신규 가입시 1개 ID에 대해서만)

**이용요금**

- 기본이용료 : 6,000원(기본정보 월 10시간까지)

※ 월 이용시간이 없을 경우 기본 이용료 부과

- 추가이용료 : 초과시간당 1,000원(기본정보 월 10시간 초과시)

**신청접수처** : 대한건축사협회 CUG담당자(사업부 정보자료과 빈홍기)

FAX 02) 586-8823 · TEL 02) 581-5711~4

**상세한 내용 문의** : (데이콤) TEL 02) 581-3340(대) · FAX 02) 581-3467

**대한건축사협회**

## 건설기술자 경력신고 · 취업 및 퇴직상황 분기별보고 촉구안내

건설공사에 참여한 건설기술자의 책임의식을 고취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건설기술의 기술자격자에 대한 보호육성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 2의 규정 및 건설기술자 신고업무등 분담조치(건교부 기정 58010 - 408( '96.4.4))에 의하여 건설기술자 신고제도를 운영합니다.

금번 건설교통부 건설관련업체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대책회의( '96.10.11) 및 자격증 대여 등 불법행위 제재에 대한 회의( '96. 11. 13)에서 '96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경력신고 미신고자 · 사용자 미보고업체 · 이중등록자 · 사망자에 대하여 위법사항을 엄중히 의법조치한다는 정부방침임을 알려드리오니 다음사항에 따라 신고하시어 미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기술자 경력신고

#### 가. 신고대상자(법 제6조의 2)

- 건축사사무소 소속 건설기술자
- 건축사(임의 신고자)

#### 나. 대상자 및 신고기한(시행규칙 부칙)

- 기술계자격 취득자(기술사, 기사) : '96. 6. 30
- 학력 · 경력자(건설관련학과 졸업자) : '96. 9. 30
- 기능계 자격취득자 : '96. 12. 31

※ 대상자별 신고기한 미신고자는 즉시 신고 바람

#### 다. 신고기관 : 대한건축사협회 각 시 · 도 건축사회

- 안내전화 : 각 시 · 도 건축사회

#### 라. 신고방법

건설기술자 경력신고서를 작성 첨부서류와 함께 신고(등록비 납부)

#### 마. 참고사항

한국기술인협회에 기신고한 자는 의법조치 처분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건설기술자 취업 및 퇴직상황 분기별 보고(사용자의 보고)

#### 가. 신고대상자(법 제6조의 3)

건축사사무소 대표

#### 나. 신고기한(시행규칙 제4조의 3)

매분기 말일 기준으로 작성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 다. 신고기관

대한건축사협회 각 시 · 도 건축사회

#### 라. 신고방법

- 원칙 : 사무소별 보고서식 2부와 Diskette을 함께 제출
- 보고대상인원이 적은 경우 자기 Diskette에 입력하지 않고 보고서식만 하여도 가능

### 위법사항 의법조치 내용

이중등록자 및 사망자 보유업체

- 업체 : 번취소 · 정지 200만원이하 과태료

- 허위신고자 : 자격정지 · 자격취소 · 50만원이하 과태료

건설기술자 경력 미신고자 · 취업 및 퇴직상황 미보고 업체

- 업체 : 200만원이하 과태료

- 신고자 : 50만원이하 과태료

※ 미보고 횟수에 따라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증액부과

## 관계법령 의법조치사항

### 취업 및 퇴직상황 미보고업체

- 가. 미보고업체 : '96. 9월말 현재 회사에 근무중인 전체기술자의 현황과 '96. 9. 30까지의 신규입사자와 퇴사자 현황
- 나. 기보고한 업체 : 매분기 신규입사자 및 퇴직자 현황을 매분기별 익월말일까지 제출
- 다. 서식 : 소정양식("분기별 취업 및 퇴직상황 보고" 기재포)
- 라. 미보고업체에 대한 제재조치
  - 사실확인
  - 사실확인 결과에 따라 관련 행정기관에 처분의뢰 : '96. 11월초부터 '96. 12월말까지
  - 관련행정기관에서 적법절차에 따라 과태료부과 : '97. 1월말까지
  - ※ 허위보고 및 미보고업체 : 과태료 200만원 이하
  - ※ 미보고회수에 따라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증액부과

### 건설기술자 경력 미신고자

- 가. 일제신고기한
  - 기술계자격취득자 : '96. 6. 30까지
  - 학력·경력자 : '96. 9. 30까지
  - 기능계자격취득자 : '96. 12. 31까지
- 나. 기술경력 변경신고
  - 근무처 변경, 학력, 자격증, 기술경력추가, 거주지 주소 및 사망 등 변경이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 다. 미신고 건설기술자의 조치
  - 미신고자에 대하여 경력신고 이행까지 개별 촉구
  - 일제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건설기술자에 대하여는 관련 행정기관에 의뢰하여 과태료부과 조치
  - ※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자 : 과태료 50만원 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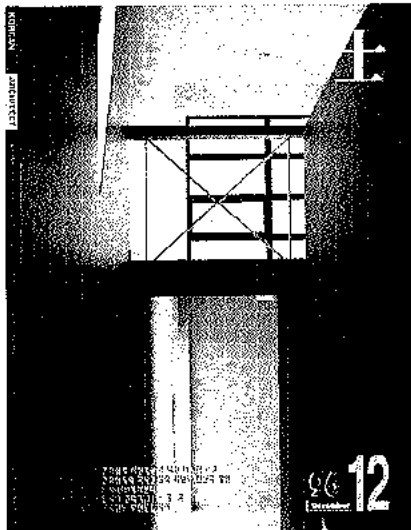
### 자격증 불법사용 업체

- 가. 사망기술자 및 이중등록기술자의 자격을 사용한 업체에 대하여는 이미 당해기술자와 관련업체에 소명 자료를 '96. 10. 15까지 요청하였음.
- 나. 소명자료 검토후 계속 자격증 불법사용 업체로 분류되면 관련 행정기관에 의법조치 의뢰
- 다. 자격증 불법사용 금지
  -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자 경력수첩"을 불법으로 대여하거나 이중취업하는 일은 위법사항으로 금지되어 있음.
  - ※ 허위보고업체 : 과태료 200만원 이하
  - 허위 신고자 : 과태료 50만원 이하
  - 자격증대여자 : 자격정지·취소

1996. 11

대한건축사협회장

# 建築士



표지사진 / 동양복지문화원

발행인: 김영수

편집장: 편집위원회

위원장: 조정상

위원: 방철린, 송호상, 심영섭, 원대연

편집·취재: 양원석, 정호상, 조한국, 윤대일

발행처: 대한건축사협회

(협회장리일: 1965년10월23일)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

우편번호: 137-070

전화: 대표 (02)581-5711 ~ 4

팩시밀리: (02)586-8823

등록번호: 서울 라26(창간)

등록: 1967년 3월23일

U. D. C: 69/72(054-2) : 0612(519)

인쇄인: O 동수/정문사 (02)266-4555

Publisher: Kim Young-Soo

Editor: Editorial Committee

Chairman: Cho Jeong-Sang

Member: Bang Chul-Lin, Seung Hchich-Sang,

Shim Young-Sub, Won Dai-Yun

Assistant Editor: Business Expansion Department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1603-55 Seocho-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137-070

Tel: (02)581-5711 ~ 4

Fax: (02)586-8823

Registered Number: Seoul Ra-26

Registered Date: 23, March 1967

U. D. C: 69/72(054-2) : 0612(519)

Printer: Lee Bong-Soo(Cheong Moon Printing Co.)

(02)266-4555

- 월간 '건축사'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본지에 게재된 기사나 사진의 무단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

차례

1996년 12월호 통권 332호

취임사:

취임에 즈음하여 / 김영수

30

칼럼

건축설계 시장개방에 대한 비판적 소고 / 이강업

32

성곽보현희 / 건축설계의 국제경쟁력 확보와 전문화 방안

34

제1주제 발표: 건축설계의 국제경쟁력 확보 방안 / 최찬환

35

제2주제 발표: 건축설계의 전문화 / 박경립

38

이종리뷰 / SBS탄현제작센터

SBS 탄현제작센터 / 김석철

44

대담 - 근원적 급진론과 건축가 / 성인수

51

비평 - 좋은 건물과 양식적 일치의 문제 / 엄석재

61

특은작품

(주)농심 신대방동 사옥 / 송가덕

66

동국합섬 음성공장 사무동 / 최관영+정동명

70

전북농지개발조합 / 노형래

74

동일복지문화원 / 김영섭

78

비전 22 / 이천복

82

기획연재

한국의 건축가(7) - 강 윤(완) / 김승재

86

집중건축

한국전통 주거공간의 마당구성원리(2) / 최동호

90

연구

노인주거의 설계기준(완) / 강병근

96

현상설계

고속철도 부산통합역사

102

뚝섬 실내빙상장

106

알파벳생각하기

워리 불리울까 / 전재근

107

리포트

제7차 아시아건축사대회 참가기(2) / 조성룡, 조인숙, 이근창

108

통계

96년도 10월분 설계도서신고 현황

114

학의발전동향

116

96년도 건축사기 출판지

120

흔히 건축계 소식

122

# CONTENTS

VOL. 332

DECEMBER 1996

Inaugural Address / Kim Young-Soo

30

A Critical Essay on the Opening of Architectural Design Market / Lee Kang-Up

32

Plans for International Competitive Power of Architectural Designs / Choi Chan-Hwan

35

Specialization of Architectural Designs / Park Kyung - Rip

38

SBS Tanhyon Drama Studio / Kim Seok-Chul

44

Interview - Architect and a Radicalist / Seong In-Soo

51

Critique - The Problem of Good Architecture and Stylistic Consistency / Yim Seock-Jae

61

Nongshim Co., Ltd. Building / Song Kee-Duk

66

Tongkuk Synthetic Fibers Co., Ltd Eumsung Factory / Choi Kwan-Young

70

& Cheong Tong-Myeong

Chunbuk Improvement of Farmland Association Building / Ro Heoung-Rae

74

Dongil Cultural - Public Welfare Center / Kim Young-Seop

78

Vision 22 / Lee Cheon-Bok

82

Korean Architects(7) - Kang Yoon(E) / Kim Seung-Je

86

A Study on the Structural Principle of Madang Based on Korea Traditional Dwelling Space(2) / Choi Dong-Ho

90

Design Guidelines for Elderly People(E) / Kang Byoung-Keun

96

Pusan High Speed Train Station

102

Ttukseom Ice Link

106

The Name that Each Calls the Other / Jeon Jae-Kun

107

Report on the ACA-7 / Cho Seong-Ryong, Cho In-Suk, Lee Keun Chang

108

114

116

120

122

##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상달일 안내

■서울특별시건축사회/(02)581-5715~8

서대문구건축사회/(333)6411 · 관악구건축사회/884-0048 · 강북구건축사회/903-3425 · 영등포구건축사회/632-2143 · 강동구건축사회/484-6840 · 강서구건축사회/604-7168 · 광진구건축사회/446-5244 · 동대문구건축사회/823-8213 · 종로구건축사회/735-0905 · 마포구건축사회/333-5261 · 송파구건축사회/423-9158 · 중구건축사회/231-5748 · 용산구건축사회/717-6607 · 서초구건축사회/552-8488 · 은평구건축사회/388-1486 · 동작구건축사회/815-3026 · 강남구건축사회/517-3071 · 노원구건축사회/933-8076 · 양천구건축사회/653-2692 · 중랑구건축사회/437-7356 · 성북구건축사회/822-5117 · 구로구건축사회/852-2275

■부산광역시건축사회/(051)633-6677

■대구광역시건축사회/(053)753-8960~5

■인천광역시건축사회/(032)437-3381~4

■광주광역시건축사회/(062)521-0025~6

■대전광역시건축사회/(042)485-2813~7

■경기도건축사회/(0331)47-6129~30

수원지역건축사회/(0331)43-6662 · 안양지역건축사회/(0343)49-2698 · 부천지역건축사회/(032)664-1554 · 성남지역건축사회/(0342)755-6445 · 의정부지역건축사회/(031)876-0458 · 용인지역건축사회/(0333)666-6153 · 고양지역건축사회/(0346)63-8902 · 구리지역건축사회/(0346)63-2337 · 이천지역건축사회/(0336)635-0545 · 광명건축사회/(02)684-5345 · 안산건축사회/(0345)80-9130 · 시흥지역건축사회/(032)694-4121

■강원도건축사회/(0361)54-2442

춘천지역건축사회/54-2442 · 원주지역건축사회/(0371)43-7290 · 강릉지역건축사회/(0391)41-7371 · 속초지역건축사회/(0392)33-5081 · 삼척지역건축사회/(0394)31-8708 · 영월지역건축사회/(0373)374-2659 · 철원지역건축사회/52-3307

■충청북도건축사회/(0431)56-2752 · 53-7342

충주지역건축사회/(0441)847-3082 · 제천지역건축사회/(0443)43-6253 · 옥천지역건축사회/(0475)33-3502

■충청남도건축사회/(042)256-4088

천안지역건축사회/(0417)651-4551 · 홍성지역건축사회/(0541)32-2756 · 부여지역건축사회/(0463)835-2217 · 보령지역건축사회/(0462)34-3367 · 공주지역건축사회/(0416)54-3355 · 서산지역건축사회/(0456)64-6500

■전라북도건축사회/(0652)87-6007~8

익산지역건축사회/(0653)52-3796 · 군산지역건축사회/(0654)452-5815 · 남원지역건축사회/(0671)33-2000

■전라남도건축사회/(062)365-9944 · 364-7567

목포지역건축사회/(0631)72-3349 · 순천지역건축사회/(0661)743-2457 · 여수지역건축사회/(0662)33-2000

■경상북도건축사회/(053)744-7800~2

포항지역건축사회/(0562)44-8029 · 경주지역건축사회/(0561)772-4710 · 구미지역건축사회/(0546)51-1537~8 · 안동지역건축사회/(0571)57-7464 · 김천지역건축사회/(0547)434-2541 · 영주지역건축사회/(0572)34-5560 · 문경지역건축사회/(0581)53-6677 · 상주지역건축사회/(0582)32-5868 · 경산지역건축사회/(053)812-6721 · 칠곡지역건축사회/(0545)974-7025 · 양천지역건축사회/(0586)34-8256

■경상남도건축사회/(0551)46-4530~1

울산지역건축사회/(0522)74-8836 · 진주지역건축사회/(0591)745-6403 · 통영지역건축사회/(0557)645-7420 · 김해지역건축사회/(0525)35-5692 · 밀양지역건축사회/(0527)355-4848 · 거창지역건축사회/(0586)43-6090 · 양산지역건축사회/(0523)84-3050 · 거제지역건축사회/(0558)635-3432 · 삼천포지역건축사회/(0533)33-9779

■제주도건축사회/(064)52-3248

서귀포지역건축사회/(064)62-2233



취임사

전국에 계신 회원 여러분!

또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매사에 如意하시고 幸運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저는 지난 10월 29일에 개최된 본협회 제31회 정기총회에서 우리 건축사협회 제22대 회장에 선출되었습니다. 이 지면을 빌어 절대적으로 지지해주신 대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성원해주신 회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취임에 즈음하여

Inaugural Address

김영수 /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by Kim Young-Soo

회장에 출마하면서 저는 회원의 생존권 확보, 건축사의 자존심 회복, 협회 발전 장·단기 계획수립, 한국건축의 세계화 등 크게 네가지 공약의 실천을 다짐한 바 있습니다.

이 공약은 그동안 서울시건축사회장, 종합건설업면허 저지를 위한 본협회 특별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내면서 제나름대로 정립한 협회 운영방향과 정책목표입니다. 이와같은 저의 協會觀은 지난달 전국적으로 개최된 시·도건축사회 정기총회에서 격려사를 통해서도 충분히 전달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정책방향에 대한 설명보다는, 우리 협회를 중심으로 한 건축계의 문제점을 짚어 보고 앞으로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 협회가 설립된지도 올해로 31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30여년의 역사를 이어오는 동안 질적, 양적으로 많은 성장을 계속해 왔다는 것도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세대를 접은 우리 협회로서는 현재 안팎으로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음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지금의 협회는 몸집만 비대할 뿐 건축전문조직으로서의 기능은 점차 상실돼 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부 회원들 또한 실리는 물론 명분마저 없는 편파적 아집과 소모적 논쟁으로 방향 감각을 잃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현마디로 말해, 지금의 협회는 몸집만 비대할 뿐 건축전문조직으로서의 기능은 점차 상실돼 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부 회원들 또한 실리는 물론 명분마저 없는 편파적 아집과 소모적 논쟁으로 방향 감각을 잃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설상가상으로 WTO출범과 OECD가입 그리고 이에 따른 각종 「법률 및 제도 개선」의 여파는 우리의 무거운 어깨 위로 또다른 짐을 지우고 있습니다. 실로, 우리 6,000여 건축사의 사회적 지위를 어렵게 만들고 우리 협회의 전문적 위상을 흔들여 놓는, 그야말로 시험대에 올려진 모습이라 감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이제 더 이상 自中之亂, 內憂外患이라는 부정적 카테고리에 얽매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지혜와 용기로 반드시 탈출해야만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 그동안 우리는 많은 논의와 연구를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方向에 대해서는 모두들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아직도 「실천」으로 옮기지 못하는



고 안타깝게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연구하여 훌륭한 발전방안을 마련하더라도 이것을 실천에 옮기지 못한다면 「그림의 떡」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는 우리의 실천명제와 같은 건축, 건축사 그리고 건축사협회와 관련된 다음 세가지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한 저의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첫째, 건축과 건축문화에 대한 인식제고에 힘쓰겠습니다.

현재 건축계의 현안이면서 행정개선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 「법률 및 제도」관련사항들도 결국에는 건축 및 건축문화에 대한 우리 사회의 총체적 인식부족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건축을 「문화논리」가 아닌 「경제논리」로 풀어가는 건축정책의 부재, 건축문화의 왜곡에서부터 이 모두가 확대, 재생산되어 왔음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저는 문화역량과 건축역량의 집약체로서의 건축문화가 우리 사회에서 갖는 예술문화적 가치가 일반인들에게 올바르게 이해되고, 평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매스컴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시민건축대학과 종합상담실 등 대국민 서비스 확충에도 전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3단체와 긴밀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건축의 해, 건축사의 달 지정 등 공동관심사에 대해서는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내년 가을에는 전국건축사대회를 개최하여 우리 6,000여 건축사들의 지성과 단합을 재확인해 보이는 기회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카시아(ARCASIA)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 건축비엔날레의 추진도 그 일환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둘째, 사무소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 건축사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불경기 속의 생업대책과 개방화 속의 지구책 마련이, 현재 우리 회원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임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건축문화 창달의 주체자인 건축사의 생활터전이 안정적이지 못할 때, 「건축문화 창조자로서 건축사의 자존심」은 결코 세워질 수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건축사사무소의 전반적인 경영실태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단기적이 아닌 장기적인 경영합리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WTO대책 수립, 감리제도의 정립과 공탁제도의 추진, 설계수수질서의 확립 및 세율인하 관철, 공제조합설립 등이 그 구체적 방법이 되겠습니다.

셋째, 건축사협회를 한국건축문화 및 건축관련정책의 산실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우리 건축사협회는 우리 건축사와 우리 국민들이 진정 함께 할 수 있는 조직이 될 때 바로 그 존재의미가 있습니다. 기업형 행정체제를 연구, 도입하여 조직유지를 위한 단순행정조직으로서의 협회체질을 과감하게 개선해 놓겠습니다.

또한 건축센터로서의 건축사회관 재건립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건축정보센터, 건축연구소 설립은 조기에 완성하여 회원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의 대한건축사협회를 위해서도 회원과 더불어 국민에 봉사하고 국민에게 건축의 아름다움을 즐기게 하는 명실공히 한국 건축정책 및 건축문화 창달의 중심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금년안에는 반드시 강력한 추진기구를 발족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제가 이루고자 하는 이 모든 것은 회원 여러분의 도움 없이는 그 어떤 구상도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되어 부정적 사고를 말끔히 씻어내고 긍정적인 인식에서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21세기를 목전에 둔 지금의 시대상황은 우리 건축사들에게 무한한 인내와 과감한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되어, 국민의 信賴와 愛情을 바탕으로 한 미래지향적 건축사像을 정립」해 나갑니다. 이는 바로 우리 건축사의 시대적 召命이자, 역사적 實務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서로 和合하고 團結합시다.

만일 우리의 잘못된 慣行이 아직도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아낌없이 清算합시다.

6,000여 전국 회원들의 협조가 밑받침된다면 저 또한 그 기대에 반드시 부응하는 회장이 될 것이며, 우리나라 건축의 미래를 수준높게 펼쳐가는데 그 어떤 밀기름도 기꺼이 감수하겠습니다.

끝까지 믿는 것은 바로 회원 여러분입니다. 저에게 激勵과 勇氣를 주십시오. 허심탄회하고, 솔직한 고견을 언제든지 보내주십시오. 그 어떤 채찍과 비판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끝으로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빌면서 새해인사를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宅內에도 언제나 幸運이 함께 하길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 건축설계 시장개방에 대한 비판적 소고

A Critical Essay on the Opening of Architectural  
Design Market

이강업 / 한양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by Lee Kang-Up

기존의 국내건축사가 지니고 있는 세계적인 수준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기술적 차원 뿐만 아니라 행정적 차원에서도 제도의 개선이 시급히 요망된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무턱대고 개방을 통하여 자생적으로 건축분야에서 기술적 발전을 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꼴이 되는데 기술적 발전을 위한 제도적인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1997년 1월을 기해 한국의 건축설계 시장이 곧 개방될 예정이라는 시점에서 볼 때, 현재 국내 건축계와 외국 설계사무소와의 관계는 자못 우려와 문제점으로서의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실제 국내의 상황은 설계개방이 있기도 전에 이미 상당부분 개방되어 있는 실정이며 그것도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문제는 건축인들로 하여금 건축설계 개방이 갖는 기존 국내 건축계에 미칠 영향을 우려 섞인 눈으로 바라보게 하고 있다.

근래, 외국의 웬만한 유명세를 타고 있는 건축설계사무소에서 한국의 대형 프로젝트를 맡고 있는 것은 이미 일반화되어 있을 정도이며 일부 건축주들은 외국의 설계사무소와 국내 설계사무소와의 합작을 조건으로 설계를 의뢰하고 있다. 더욱이 굵직한 건축설계경기의 심사에 임해보면 웬만한 규모의 현상설계에 출품된 작품중에는 순수히 외국에서 설계한 것으로 보이는 작품수가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을 실감한다. 예를들면 얼마전에 치루어진 고속철도 부산통합역사 설계경기에서는, 응모작 19점 중

외국설계사무소와 합작한 작품이 무려 15점이나 되었고 입상작 4점과 입선작 4점중 국내 설계사무소의 단독 작품은 1점 뿐이었다. 물론 설계테마가 고속철도역사라는 특수시설이어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외국회사와 합작한 사무소 비율이 높았지만 이것이 앞으로의 주요 설계경기에서의 전례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벌써부터 대부분의 설계사무소에서는 앞으로의 주요 설계경기에서 외국회사와 합작하기 전에는 당선권에 들기 힘들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을 정도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을 놓고 단지 국내 건축 설계개방에 부정적인 측면만이 있다고만 할 수도 없다. 정부가 세계화를 주요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외국 설계사무소의 국내 진출은 설계시장의 잠식이라는 부정적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국내 건축계에 많은 자극을 주어 궁극적으로는 한국건축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려되는 것은 개방화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사전준비가 미비한 상태에서의 개방은 국내 건축계에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시장의 개방은 국내산업이 세계와 겨룰 수 있는 경쟁력이 있을 때 무리없게 수용될 수 있다. 그동안 비약적인 경제발전으로 인해 한국의 건축계는 엄청난 규모의 건축을 소화해 내면서 많은 발전을 해 왔다. 하지만 주로 질 보다는 양에 치중하였고 국내의 건축풍토가 한 건축가의 개성이 충분히 존중되고 발전해 나갈 여건이 못 되기 때문에 개성있는 국제적인 건축가를 양산해 내지 못하였다. 더욱이 국내의 건축교육도 선진국의 건축교육수준에 비하면 아직도 과거의 기술교육 위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 있다. 건축사면허를 따기 위한 유럽의 6년제 교육이나 미국의 대학원중심 교육에 비해 한국의 건축사 면허제도는 대학원교육을 장려할 특별한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건축교육은 학부에서 끝난다. 고등교육이 경쟁력의 원동력이라면, 우리는 교육과정에서부터 건축가의 교육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기 때문에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도 건축설계의 질 향상보

다는 정책방향이 기술의 경쟁력으로 몰아 가는 인상을 준다. 특히 삼풍백화점 사고 이후 건축의 안전시공에만 역점을 두어 건설회사가 설계까지 해야 한다는 발상이 나와 정책차원에서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놓고 볼 때, 국내의 건축실정에서 외국 설계사무소를 찾는 건축주가 늘어 가고 있는 것은 어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이유는 국내의 설계비가 국제적인 수준에 비해 아주 저렴한 것도 아니고 개성이 강한 이미지를 트레이드 마크로 내세울만한 국내의 설계사무소도 드물기 때문이다. 더욱이 백화점에서 외제브랜드가 판치는 세상에 건축이라고 국산품 애용이라는 등식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런데다 매스컴에서는 부실시공에 대한 기사가 자주보도 되면서 마치 건축사가 설계를 잘못해서 그런 것 같은 인상을 갖게 하여 더욱 그렇다.

그러나 앞서도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외국 설계사무소의 국내진출로 인해 우리 건축계에 미칠, 매우 긍정적인 면도 있다. 우선 건축에 하이테크의 응용이 날로 늘어가고 있어서 선진기술의 도입이 수월케 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선진국 설계사무소의 경영방식과 설계 발전 과정 등은 우리의 설계 관행에 많은 참고가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 한국의 건축설계사무소의 세계화에 일조 하리라고 본다. 하지만 요사이 이루어지고 있는 외국과 한국의 설계사무소간의 합작에는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합작이라면 어느정도 동등한 자격으로 상호 협력하에 이루어지는 것을 뜻하는데 작금에는 일방적인 설계 의뢰를 합작이라고 한다. 설계실장들이 외국에서 팩스를 통해 보내주는 도면이나 기다리고 있는 모습은 이제 별로 낯설지도 않다. 중요한 대형 프로젝트들을 이런 식으로 진행시켜 나가면 설계를 구상하여 발전시켜나갈 기회를 외국에 내어 주므로써, 실장들과 같은 국내의 중견 건축가들의 실력과 능력을 키워나갈 기회를 상실하게 되며 이렇게 외부에 의존하다 보면 각 설계사무소들의 앞으로의 자발적인 경쟁력에 한계가 있게 됨은 자명하다고 할 수 있다. 용병에 의존하다보면 후에 용병들에게 모든 것을 내주게 되는 역사적 교훈도 되새겨 볼 만하다.

건축에 있어 기술력의 강화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건축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특정한 성격이 반영된 건축공간이 모여 한 나라의 건축문화가 정립되며 이것이 나아가 문화를 상징하고 대변하게 된다. 외국의 유명한 건축가에게 설계를 의뢰하면 자동적으로 훌륭한 작품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중대한 맹점은, 이질적인 문화에서 살았던 외국의 건축가가 자신이 겪었던 경험과 전혀 다른 문화를 해석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건축가들

간에 르 꼬르뷔제가 인도에 설계한 찬디가르가 현대건축의 역작이라는 것에 이의를 달 사람은 별로 없으리라 생각할 수 있으나, 인도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 결국 우수한 르코르뷔제의 건축은 있되, 우수한 인도의 근대 건축은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미국 건축가 프랭크 게리가 운현궁 바로 옆에 대규모 미술관을 설계중에 있다고 해서 건축계 일부에서는 드디어 서울에도 볼만한 건물이 들어선다고 기대하고 있다. 게리가 훌륭한 건축가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개성이 너무나도 강한 그의 건물이 문화제가 산재한 지역에 들어서서 주변과 조화를 이루기는 힘들 것 같다. 훌륭한 건물이란 주변과의 조화를 통해 지역의 장소성 확립에 대한 기여로 볼 수 있으므로 건물 개체가 갖는 뛰어난 조형성 자체가 오히려 조화를 깨는 부정적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건축에 있어서 국수주의적 자세를 고수하기 위해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에 내포되어 있는 문화적 요소가 너무나도 간과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도 그동안 세자르펠리와 같이 유명한 건축가들의 작품이 더러 있지만 이들의 작품이 특별히 성공을 거두지 못한 이유는 기존의 도시문화와 대지가 갖고 있는 장소성에 대한 깊은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건축과 도시문화 정착은 누구보다도 우리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한국의 건축가들에게 책임지어질 수 밖에 없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외국설계업체의 국내 시장 개방은 이러한 일방적인 관계로 이루어져서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일단 이러한 관계로써는 국내 건축계에 커다란 발전적인 전망을 가져다 줄 수 없다. 더욱이 기업의 무분별한 외국 설계업체와의 작업은 국내건축문화 전반에 역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좀 더 발전적인 방향이라면 기존의 국내건축사가 지니고 있는 세계적인 수준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기술적 차원 뿐만 아니라 행정적 차원에서도 제도의 개선이 시급히 요망된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무턱대고 개방을 통하여 자생적으로 건축분야에서 기술적 발전을 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꼴이 되는데 기술적 발전을 위한 제도적인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리고 교육적 차원으로서 국내 대학의 역할을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대학의 설계교육 실정상 외국과의 경쟁은 사실상 어렵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급한 정부의 행동과 그에 따라가지 못하는 제도적 행정적 조치들, 그리고 실무건축가들의 자구적 노력의 부족과 대학에서의 교육실정의 열악화 등 이상과 같은 문제를 가지고 내년 초 두로 다가온 국내 설계시장 개방이라는 파도와 맞서게 된다. 건축문화의 신 식민주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지 아니면 선진국 진입의 문턱에서 한국 건축문화가 정립될 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손에 달려 있다.

# 건축설계의 국제경쟁력 확보와 전문화 방안

Plans for International  
Competitive Power & Specialization  
of Architectural Designs

우리 협회는 지난 11월 26일 오후 2시 협회 대강당에서「건축설계의 국제경쟁력 확보 및 전문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WTO출범과 건축설계시장개방 등 급격한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처해 있는 우리 건축계의 국제경쟁력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쟁력 확보를 위해 건축설계사무소마다 다양한 전문분야를 확보하고 ▶건축설계 생산성 향상을 위해 설계업계와 구조, 설비 등 관련 전문분야가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하며 ▶건축의 상품성과 문화예술성이 함께 고려된 건설관련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서울시립대 최찬환교수는 「건축설계의 경쟁력 확보 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해외건설업계의 국내진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설계사무소가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전문영역을 크게 주거, 상업시설, 공공시설, 교육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교통 및 운수시설 등으로 구분하였다. 최교수는 또 외국업체에 의한 국내시장 잠식을 막고 우리가 해외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해외건설업체와 협력해 정보와 기술, 경험 등을 지원받아야 하고 R&D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축설계의 전문화」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 강원대 박경림 교수는 국내 건설관련문제점 개선과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재 입법추진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이 건축설계의 독자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에대한 보완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박교수는 또한 건축설계분야가 갖고 있는 전문성과 함께「건축문화」라는 사회문화적 측면의 중요성이 인식돼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박교수는 이밖에도 사회발전에 따른 새로운 전문영역의 개발로 실내설계와 도시설계를 예로 들었으며 정보화에 맞게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Network체제를 구축하고 그 핵심은 건축사협회에 정보Network를 구축하여 활용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주제발표 후에는 약 3시간여에 걸쳐 이문보(동국대 교수), 손세관(중앙대 교수), 이병담(현대산업개발 부사장), 김인호(국방부 건설기술과장), 유경철(삼육건축사사무소 대표), 이관영(본 협회 이사)씨 등 건설·건축관계자들이 참가한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는 사회의 인식에 앞서 건축계 내부적으로 전문성과 효율성의 확보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무한경쟁속에서 우리 건축설계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되었다.

본지에서는 이번 토론회의 주제발표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게재한다.



토론회 광경

## 건축설계의 국제 경쟁력 확보방안

Plans for International Competitive  
Power of Architectural Designs

최찬환 / 서울시립대 건축공학과 교수

### 1. 서론

밖으로는 국제화, 세계화, 개방화의 거센 물결속에 안으로는 각 분야에서 경쟁력 10%높이기를 국가정책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치열한 생존경쟁에 살아남기 위해서 거품건어내기, Re-structuring, down-sizing, Re-engineering 등으로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자기구제의 몸부림을 치고 있다. 건축설계분야도 이런 개혁과 변화의 예외지대(例外地帶)가 되지 못할 뿐 아니라 정보화, 다원화, 전문화 사회가 이와 같은 개혁과 변화를 더욱 촉진시키게 된다. 건축설계·감리 그리고 건설시공 분야의 개방화는 이미 시작되었으며, 97년부터 완전개방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의 대형설계회사가 국내설계를 한 것은 이미 오래된 일이며 외국인의 5개 대형건설회사(CM)가 국내에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긴장과 걱정 그리고 두려움이 앞설 뿐 도대체 어떻게 난관을 극복해야 할 지 뚜렷한 방안이나 대책도 별로 없다. 지금까지는 건축설계업무가 해외 진출이 거의 없는 대신 외국기업의 국내진출도 금지함으로써 국내시장이 보호되었기 때문에 거의 독점적 상태에서 국내 건축사 사무소가 쉽게 업무를 수주할 수 있었다. 또한 오랫동안 GNP 증가율이나 건설물량의 증가율이 건축사협회 회원의 증가율보다 높았기 때문에 경기변동에 따른 기복현상은 있었지만 업무량의 꾸준한 증가와 함께 법적보호에 따라 안주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 건축계가 설계와 공사감리를 업역으로 하는 설계사무소와 시공을 담당하는 건설회사로 업역을 분장하여 업무의 전문화와 함께 상호 보완적 관계를 가지도록 오랫동안 시행되어왔다. 국내 건설시장은 설계와 시공을 막론하고 거의 보호되어 왔다.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건설시공분야는 대외경쟁력을 가진 성장산업으로 국가 경제성장에 견인차 역할을 해온 대외지향적(對外指向的)이고 진취적(進取的)이었다고 볼 수 있으나 국내 설계용역 부문은 창의적 디자인, 기술수준, 자본 등에서 외국업체에 비해 열악한 실정일 뿐만 아니라 소규모 영세 설계사무소가 난립하여 건설 시공부분과는 반대로 외국에 진출하기는 커녕 외국의 설계사무소가 국내 대형 건축물의 설계를 맡게 되어 국내 설계용역 시장을 잠식당하게 되는 수세에 몰려 있는 형편이다. 대외적으로 국제화 개방화의 거센 물결과 싸워야 하고 국내적으로는 고유업무 이외에 행정위탁 업무의 확대, 감독 및 처벌의 강화, 지나친 행정규제

와 함께 까다롭고 복잡한 인, 허가 업무의 대행, 건축사의 자격 강화, 기술 및 기능인력의 부족, 잦은 정책과 제도의 변경, 통제된 저가의 보수요율, 과당한 수주경쟁과 덤핑, 이로 인한 부실설계와 설계의 질적수준저하, 국민들의 설계에 대한 인식이 낮은 등 복잡하게 얽혀 있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내외외환(內憂外患)의 매우 어려운 현실 여건에 직면해 있는 실정으로 이를 획기적으로 변혁시켜 새로운 환경여건의 조성, 체질개선, 생산성향상 등 지금까지의 관행과 비효율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 2. 건축사의 업무

건축사의 업무는 건축법 및 건축사법에 규정하는 건축설계와 공사감리를 주종으로 하고 이에 부수되거나 보조하는 현장조사 검사대행 업무, 인·허가, 중간검사, 준공처리 대행업무 그리고 처리기준이 없는 민원, 조사, 진단, 평가 등의 여러 업무가 있다. 건축사로 하여금 고유업무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행정고유업무인 현장조사 검사대행업무나 인·허가 등 행정절차, 그리고 사무소 경영에 따르는 수주활동 등에 지나친 시간이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부담을 줄여야 한다. 또한 전문업역인 구조, 설비, 토목, 조경, 방재, 인테리어 등 전문업체의 전문성을 높이고 이들 업체와의 상호 협력체제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다양한 건축설계업무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전문화는 건축설계분야 뿐만 아니라 여러관련 분야에 대한 고품질의 유지와 개발 및 발전에 필수적인 요건이고 이것이 경쟁력확보에 제 1의 요건이다.

### 3. 건축계의 현실

93년도 1인당 업무를 보면 연간 허가건수는 34건, 허가면적은 29,563㎡로서 1건의 평균규모는 253평 정도이고 한달에 약 2.8건을 9명의 설계보조원의 업무보조를 받아 처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건축설계용역의 시장 규모는 연간 1조 2천억에서 1조 5천억 정도로 추정(93년말)되고 있으며 1개 설계사무소의 연간 평균 수주액이 2억 5천만원 ~ 4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연도별 건축경기 변동에 따라 기복이 심하여 설계물량의 차이가 있을뿐 아니라 실제과당경쟁으로 법적요수요율보다 낮은 설계비로 덤핑수주하는 경우가 많다는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할 때 건축설계시장의 규모가 크지 않으며 이를 96년 11월 현재 등록된 4,620여개의 건축사사무소에 6,259여명의 등록건축사와 50,000여명의 설계보조인력이 활동하고 있다. 이는 2,800여개 건설업체(시공회사) 중 상위그룹에 속하는 1개 건설회사의 연간 수주 및 매출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로서 95년도 S 건설회사의 수주 및 매출목표액이 각각 5조원으로 건설경기가 극히 저조한 불경기임에도 9월말 3조 2,000억원의 실적을 올렸음을 비교할 때 건축설계업이 중소기업 종의 특수전문화 업종임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회사의 독립·대규모 건설회사의 종합건설업으로 설계와 시공의 통합추진, 외국회사에 대한 선호경향으로 대형건축물의 기본설계를 외국설계사무소에 의뢰하는가 하면 국내업체의 불신으로 공사감리를 외국업체에게 높은 감리비를 지불하면서까지 공공연히 맡기는 등 외국건축관련회사의 국내진출 확대와 국내시장의 잠식이 날로 커지고 있다. 한편, 국내설계사무소는 국제경쟁력을 거의 갖추지 못하여 해외진출은 엄두도 못낼 뿐만 아니라 국내 설계시장을 고수하기도 역부족이다. 따라서 해외진출은 설계사무소가 해외건설업체와 동반적 협력자로서 정보, 기술, 경험 등을 긴밀히 협조,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으며, 국내시장은 개혁적인 조치로 비효율을 과감히 견어내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법 이외에 다른 대책이나 묘안이 없다고 생각한다. 건설분야의 경쟁력확보를 위한 정책중 Turn-key입찰을 더욱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것은 전문화된 설계사무소와 시공회사의 공동협력에 의한 Partnership의 좋은 예이다.

#### 4. 설계사무소의 전문성과 그 영역의 확대

사회가 고도화, 다원화, 다양화될 수록 직업의 분화 및 업무의 전문화가 촉진된다. 설계사무소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건축사자격이 모든 건축물을 설계하는 것을 국가가 법적으로 인증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는 전문화에 역행하는 것이다. 우리사회에서 고도로 전문화가 되고있는 기술집단(예, 전문의, 첨단기술분야, 스포츠선수, 예술 등)이 많으며 이는 경쟁력 확보에 제일 첫번째의 요건이다. 건축사가 그렇게 많은 종류의 특색있는 건축물을 모두 잘 설계할 수 없으며, 전문성없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전문의 중에서도 다시 수많은 전공분야로 나뉘며, 한 종류의 운동경기에서도 각 선수가 전문적 위치(포지션)와 역할을 맡아 팀 플레이로 최대의 협력과 조화를 가질 때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다는 평범한 사실을 보고 느낄 수 있다. 설계업무도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매우 다양한 전문분야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주거(아파트, 기숙사 등), 상업시설(백화점, 호텔 등) 공공시설, 교육문화시설(학교, 도서관, 공연장 등) 사회복지시설(병원 등), 교통운수(공항, 역사, 터미널 등) 등 계열로 구분하고 계열안에서도 건물 종류별로 전문성을 가질 수 있다. 사람이 가지는 능력과 시간의 한계 때문에 1인 만능의 동시다발적 업무처리는 점점 어렵고 경쟁력이 없다. 업무의 고도한 전문성과 이들 전문화된 분야가 각기의 역할을 충분히 해내면서 상호 유기적 조화를 이룰 때 최상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각기 다른 악기연주자가 그 역할을 다하면서 서로 화음을 맞출 때 훌륭한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오케스트라와 마찬가지로, 따라서 설계사무소도 그 성격에 따라 특성의 유형구분을 하고 시급히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 설계사무소는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다음의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는 방법이 생각된다.

#### 〈유형 I〉

건축행정과 대민 서비스를 주로하는 설계사무소 인·허가를 포함한 현장조사검사, 확인 등의 다양한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가 있으며 소규모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는 물론 건축물의 개·보수·유지관리에 이르기까지 대국민 건축서비스를 디자인, 기술 등의 전문가로서 담당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소형건축물을 등한시 하고 있는 경향이 있으며 건축업무가 극히 제한된 소수의 건축주에게 서비스를 하고 그렇지 않는 다수의 국민들에게 전문가로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면 힘을 잃는다. 실제 소형건축물에 대한 업무, 기존건축물에 대한 개·보수를 포함한 유지관리 등의 시장은 클 뿐만 아니라 당연히 건축전문가가 담당해야 할 업무영역이다. 건설업법에서 규정한 등록 건설업체가 시공할 수 있는 규모가 주거용건축물 200평이상, 비주거용 건축물 150평으로 지나치게 낮게 되어있어 현실성이 없고 실제로는 명의 대여의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를 현실화하고 비전문가가 주도하는 이 분야를 설계사무소가 CM의 형태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CM은 계약방식에 관한 문제이며 CM회사는 용역비를 받고 건축주의 역할을 대행해주는 CM for Fee의 형태와 업무를 수주하여 전문업체에게 맡기고 관리하는 개발자의 역할인 CM at Risk가 있으며 우리나라의 소규모건축물의 개발자도 CM의 형태가 많다.

#### 〈유형 II〉

아프리에 같은 성격의 소규모 전문화된 설계사무소로, 건축사 개인의 창작능력과 작품성을 중요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무소를 운영하는 유형이다. 건축물의 설계가 개별 건축물별로 다양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 주문에 대응하여 맞춤형식의 설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장인정신에 따라 작업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건축사 개인의 창의적 그리고 기술적인 능력에 의존하는 유형으로 전문화된 설계사무소이다.

#### 〈유형 III〉

중규모이상의 기업형 설계사무소로, 대형설계과제를 System에 따라 운영하게 된다. 여러 전문 설계전담부서를 두고 자체 또는 외부의 전문설계업체와 공동, 협력, 분담하는 방법으로 설계를 하고 외국의 대형설계사무소와 엔지니어링회사와 기술경쟁력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관련분야가 점점 전문화되어 가는데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업무영역이 점차 좁아지고 업무도 줄어들게 된다. 얼핏 생각하면 좁은 특성분야에서 전문화하게 되면, 업무가 줄어들 것 같으나 그 반대로 전문화가 이루어질수록 기술력, 업무효율, 생산성 등이 높아지고 과당경쟁은 줄어들며 협력체제를 이루게되면 전문분야전체로 보면 업무영역이 확대된다. 건축설계사무소의 과다경쟁, 덩핑수주, 부실설계, 국민의 인식부족, 안정적 사무소경영의 어려움, 대외경쟁력의 취약성 등 여러문제의 근원이 전문화가 이루어지지 못한데 기인하고 있다고 본다.

## 5. 생산성 증대와 효율 극대화 방안

### 1) 공동사업의 활성화

설계사무소의 특성으로 보아 개별사무소 단위의 독립적인 활동으로는 그 한계가 있을뿐 아니라 업무효율이 없다. 따라서 건축사협회 등의 조직에 의한 공동화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는다.”는 말이 설계사무소에 절실한 구호이다. 설계사무소의 업무특성이나 조직상 자율, 분권 등 일치된 통합보다 다양한 개별행동이 있기 쉽다. 의견은 다양하게 제시하고 개선하되 갈 길이 결정되어 행동통일을 하여 단합된 모습으로 추진해야 한다. 근년에 건축설계업무의 육성책과 지원방안 등에서 건축사협회가 시행하기로 한 건축정보센터, 건축연구소설립·운영, R&D사업의 확충 등 일련의 대 정부 약속이 전혀 이행되지 않았으며 건설교통부도 아예는 큰 추진력을 가지지 못한 것 같다. 정부와 협회가 범건축계의 힘을 빌려 추진하여도 힘든 일인데 아무도 큰 관심이 없는 듯 하니 안타까운 일이며 이것이 건축설계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기초적이며 필수적인 판단이다. 한 예로 국내 H건설회사가 연구소를 설립하였는데 410억원을 투자하고 박사 25명을 포함한 72명의 연구인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여러 회원의 중심역할을 해야 할 대한건축사협회가 연구개발 투자를 거의 하지 못하고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정보센터는 각종 정보와 자료를 Database화 하여 여러 사무소에 지원공급할 수 있다. 이는 개별사무소 단위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거나 설치·운영 경비로 인해 비경제적이다.

따라서 각 사무소가 중복투자하는 비효율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예를 들면 개별사무소에서 단순 Data에 해당되는 도면 등은 공동화하여 처리하고 실제 저작권, 기술보호 등에 유효한 기획, 아이디어, 첨단기술 등의 개발에 전력해야 한다. 설계사무소가 단순 기능인력의 부족에 애로를 겪고 있으나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다. 추정하건대 전체 설계도면의 약 80% 이상이 단순직업이기에 이는 공동화에 따른 Data-Base 구축으로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또한 기초연구와 응용연구 등의 끊임없는 수혈과 순환작업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다. 디자인, 기술개발, 경영개선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R&D사업이 확대되어야 한다. 투자는 하지 않고 수확을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개별사무소 또는 건축사협회를 통한 공동화사업에 어느정도 R&D사업투자를 하였는지 생각해 볼 문제이다. 우리나라 제조업체의 평균 R&D 투자비율이 매출액의 1.8% 수준임에 비해 일본은 14%에 달하고 있는 점을 참고로 할 때 경쟁력확보를 위한 선결조건과 그 준비는 R&D 투자의 확대라고 볼 수 있다. 건축설계는 일반제조업에 비하여 그 특성상 디자인과 지속개발이 중요하여 투자비율을 높여야 한다. 제조업 평균에 해당되는 2% 가량인 연간 300억원 정도는 투자되어야 한다.

### 2) 협력체제의 구축

설계업무는 어느 한사람의 초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건축과정으로 볼 때 기획, 계획, 설계, 감리, 시공, 유지관리 등의 일련의 과정에서 많은 전문분야의 참여와 상호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전문영역별로는 계획설계, 구조, 설비(기계 위생, 전기통신, 소방 등) 토목, 조경, 인테리어 등 많은 전문분야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건설사공에 있어서도 3,798개의 일반건설업체가 17,000여 전문건설업체와 상호협력하여 건설공사를 수행하고 있다. 이와같은 전문분야와의 최상의 조화로운 결합이야말로 고효율 저비용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다. 각 전문분야는 앞으로의 정보화 미래사회에 살아남기 위해 High-Touch(고디자인)와 High-Tech(고기술)에 매진해야 한다. 한마디로 전문화, 협업화, 공동화하여 규모경제와 고효율구조를 가져야 한다.

### 3) 기타

부족한 기능인력의 장기적,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학교교육의 개편, 기능인력의 공동양성, 인력의 full제 운영, 전문인력의 지속적 교육훈련과 이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전문기관의 설치가 따라야 한다. 또한 자격있는 건축사가 설계 및 공사감리의 건축사 고유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입찰방법과 수의계약 인정, 계약제도 개선, 저작권 보호, 설비정산 건축설계용역요율의 실시, 보수요율의 현실화 등이 따라야 한다. 특히, 공정거래라는 명분으로 가격입찰을 시행하는 폐단과 한푼의 작업비용도 지불하지 않으면서 여기저기 설계아이디어를 빼내어가는 문제, 수많은 기획설계 및 기본구상 등 설계기초작업을 한뒤에 질해야 운 좋게 설계를 맡아야 하는 불이익과 비효율, 설계에 투입되는 인력의 수준이 다르고 소비하는 시간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책정된 보수요율과 품질을 도외시한 일률적인 보수요율체계 등은 고품질에 장애가 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공사감리에 대한 산발적 업무분산, 설계감리와 공사감리 그리고 감독에 대한 역할과 업무분담의 불명확성, 부실공사에 대한 처방이 그 원인처방은 하지 못하고 공사감리의 강화와 공사감리의 처벌강화로 운영되고 있는 점, 감리강화가 설계인력과 건설시공현장의 기능인력이 감리로 이동하는 바람에 기술인력의 부족으로 도리어 품질이 뒤떨어지면서 고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악순환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모든 업무가 고유의 전문화가 이루어지고 그 역할에 따라 권한과 책임 그리고 의무가 주어지며 충실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다.

주문생산의 특성상 수요공급의 심한 기복은 설계사무소의 연합 등 인력의 공유제로 해결해야 하며 지나친 법적규제와 감리강화는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지주적, 자율적으로 조정될 수 있어야 하며 빠른 시일안에 시행되어야 할 보험보증제의 도입 그 과도적인 단계로서 공제제도의 시행, 기획의 강화, 업무에 대한 권한과 품질에 대

한 책임부여, 고유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풍토와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건축사는 기존의 업무이외에도 기획업무, 컨설팅, 개발투자 등 신규업역을 확대해야 하며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국민에게 전문가로서 더욱 봉사할 수 있어야 한다.

## 6. 결론

급변하는 내외환경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생존을 위한 여건을 갖추고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 건축분야에서도 엄청난 변화를 맞이하고 있으며 현재 수많은 내외적 도전에 많은 시련을 겪고 있다. 설계의 경쟁력확보는 공통적으로 가지는 기업경영원리와 같다. 디자인 및 기술향상을 통한 품질경쟁과 가격경쟁, 그리고 인력의 양성, 마케팅 전략, 홍보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모두가 그리고 모든분야에서 세계에서 이길 수 있고 이를 잘 조직화 할 수 있을 때 개방화에 따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경쟁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정책과 제도개선은 정부에 강력히 요구해야겠지만 스스로 해야 할 일이고 잘못된 것이라면 거듭나는 아픔이 있더라도 과감히 체질개선과 구조개편을 해야 한다. 결국 문제의 근원은 남에게 있다기 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남을 탓하거나 해주기를 기대하지 말고 스스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자기개혁을 할 필요가 있다.

## 주제발표 2

### 건축설계의 전문화

Specialization of Architectural Designs

박경립 / 강원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 1. 머리말

몇 년동안 우리는 귀가 아프도록 건축문화 창달의 주역인 건축사들의 자질 향상과 건축사협회의 의식개혁과 체질개선에 관하여 들어 왔다. 이미 그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여론 환기를 위한 토론의 장도 여러 차례 마련되었다. 어쩌면 세삼스레 이같은 논의를 반복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이제는 정말로 실천이 필요한 때이기 때문이다.

그간의 논의되었던 방안들은 여러 건축사들이 스스로 참여하여 내놓은 방안이므로 현실적으로 매우 의미 있을 뿐만 아니라 실천 가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이 제시한 좋은 방안들은 아직도 대부분 구호에 그치고 있으며 후속 조치들이 효율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는 건축사들과 대한건축사협회의 노력 부족에도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못지 않게 도움을 아끼지 않아야 할 관련 단체 및 업계의 이해부족과 집단이기주의적 발상과 행동 때문이기도 하다.

몇달전 시장개방에 따른 국내 건설업의 경쟁력 제고와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건설교통부가 입법 추진 중인 건설산업기본법(안)에 대하여 각계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안으로는 건설에 관련된 분야의 문제점을 정비하고 밖으로는 밀려오는 개방화 시대의 경제압력에 대한 대응력을 키우려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 취지를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니지만, 건축설계 같이 중요한 분야를 건설의 범주속에 넣어 해결하려는 발상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이날 공청회에서 이미 건축설계의 독자성과 전문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법안이 추진된 데 대한 오류가 지적되었다고 한다. 그 이후로도 건축문화의 중요성과 독자성을 논하며 우리의 건축문화를 지키려는 많은 글들이 쓰여졌다. 이는 건축문화의 창달의 주역인 건축사들로 하여금 다시한번 건축사의 사회적 역할과 의무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아직도 건축설계분야의 전문성과 사회문화적 중요성을 감안하지 못한채 여러가지 형태로 건축설계의 향방이 논의되고 있어 심히 우려되는 바이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설명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은 없다.

사회는 급격한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그에 따라 삶의 양태도 바뀔 것이고 사람에게 삶의 그릇을 마련해 주는 건축가의 의식과 건축관도 바뀔 것이다. 그리고 변화, 발전하는 과학기술도 여러 형태로 건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건축의 영역성과 전문성에 대한 정의도 바뀌리라고 본다. 문제는 우리가 처한 현실과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 하는데 있는 것이다.

#### 2. 사회 변화에 표류하는 건축

근 몇 년 동안의 국내외 정세와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우리 사고와 행동 반경을 한탄도에 국한시킬 수 없게 하고 있다. 특히 세계무역환경의 재편은 여러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그리고 이에 못지 않게 과학기술의 발전은 광범위하게 사회변동의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국내 과학·기술계의 지적, 사회적 기반이 매우 취약한 가운데 경제성장을 지상 목표로 추구하던 정부에 의해 과학기술을 통한 "최단시일 내에 최고의 경제효과"를 얻으려는 정책이 추진되어 왔다. 이같은 경향은 정부의 정책에서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과 전문가에게도 이같은 시각을 깊게 자리잡게 하였다. 이같은 도구적, 경제 중심적 과학기술관은 자연스레 건축 분야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짧은 공기, 저렴한 생산비용은 우리의 목표이자 자랑이 되었다. 그러나 한 세대가 지나가기도 전에 우리는 이같은 자랑의 부정적인 면들을 확인하게 되었다. 최근 들어 나아진 우리의 국력에 걸맞는 건축환경 창조를 시도하지만 오랫동안 몸에 배인 습성은 쉽사리 고쳐지지 않고 있다. 이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숨조차 쉴 수 없게 몰아치는 국제 환경의 압력이다. 더 이상 우리들끼리 오붓하게 살게 내버려 두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지금의 시기는 산업혁명 때 못지않게 급격한 사회변동의 시기로 정의되고 있다. 탈산업사회, 정보화사회 등으로 정의되기도 하는 이 시기는 우리가 계속 과거와 같은 발전 속도를 유지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담보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로운 사회를 이해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퇴보의 나락으로 떨어질 지도 모른다. 미국 MIT의 미디어연구소 설립자이며 소장인 네그로폰테 교수는 『디지털이다』(Being Digital)라는 베스트셀러에서 정보화 사회에서는 탈중심화(Decentralizing), 지구촌화(Globalizing), 조화력(Harmonizing), 권한부여(Empowering)의 네가지 특성이 궁극적인 승리를 거둘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개진하고 있다. 이같은 변화는 생활 전 분야에 걸쳐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고 건축도 예외일 수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이같은 논의는 우리 현실 생활하고는 관계없는 고준담론으로 치부되었으나 근자에 들어 이같은 변화가 피부로 느껴지기 시작하였다.

최근에 건축사에 합격한 사람 대부분은 컴퓨터를 사용하여 도면을 그릴 수 있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이다. 그러나 몇몇의 특별한 사람을 제외하고 10년 이전에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대부분은 컴퓨터 사용에 익숙지 못할 것이다. 대부분의 설계사무실에서 제도판은 이미 사라졌고 컴퓨터가 자리를 차지한 지금,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하는 건축사와, 건축은 아직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나 컴퓨터 사용에 익숙한 건축사보가 함께 설계에 임하고 있다. 이들간의 건축적 대화의 단절은 컴퓨터사용 유무보다 훨씬 심각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문제가 되는 것은 건축설계를 만들어 나가는 도구에 의해 건축언어가 간섭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도구사용의 미숙은 디자인의 어휘를 한정시키며 자유로운 창작의지를 방해하고 있다. 설계공모와 같은 경우 일부 건축가에 의해 Computer Aided Design이 이루어지기도 하나 대부분 컴퓨터는 Computer Aided Drafting 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빠른 변환으로 여러가지 대안 설계를 할 수 있는 컴퓨터의 장점이 일부만 한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3차원의 CAD작업을 활성화시켜 대안 마련의 시간을 줄이면 도구에 의한 건축설계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으리라 본다.

지금까지 건축은 자본주의적 경제질서의 토대인 개인의 사적 소유와 이윤 동기가 감춰진 채 예술, 문화, 사회적 공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건축은 대부분 부동산의 가치이거나 건설상품으로서 다루어져 왔다. 이같은 이중적인 태도는 건축가들 뿐 아니라 일반인들이 건축을 대하는 태도에도 영향을 끼쳐 건축의 사회적 가치에 혼란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었다. 우리가 살고있는 자본주의 자유경쟁 사회 체제에서는 모든 것이 상업적 가치로 평가되기도 하지만 건축의 상품성만을 강조하는 상업성만이 만연될 때 우리

는 우리의 삶을 책임질 그릇이자 원동력인 건축문화를 잃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변화하는 세상에 개인적 가치와 공공적 가치를 보전하여 줄 상업성을 마냥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다. 보다 균형잡힌 접근이 요구되는 바이다.

우리는 건축이 건축가 혼자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경쟁력 강화에 대하여 이야기 할 때 우리는 주로 건축가의 자질향상과 전문성 제고에 대해서만 국한하여 이야기할 때가 많다. 자신의 이익추구뿐 아니라 공공의 이익이라는 공익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좋은 클라이언트와, 법제정의 의미를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건축가의 설계의도가 잘 반영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전문성이 높은 관계공무원은 좋은 건축, 환경창조의 필수요소라 할 수 있다. 즉, 건축가의 전문성 제고를 통한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건축가의 전문성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갖는 사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것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우리의 삶 속에서 건축환경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는 환경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는 데서 비롯될 수 있다고 한다. 환경의 본질에 대한 분석은 여러가지로 정의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의 주변환경은 영역적, 사회적, 문화적 요소들로 구성된다고 한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의 사회적 체제 내에서 활동한다고 한다. 사회적 체제는 직·간접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규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상호 작용하는 일단의 사람들로 구성된다. 어떤 개인의 환경은 많은 사회적 체제로 구성되기도 한다. 각각의 체제 내에는 구성원들의 역할과 행동에 관한 공동의 기대치가 있으며, 개인의 역할은 사회적 체제의 규범을 반영한다. 문제는 사회가 건축사라는 전문성을 지닌 전문인에게 무엇을 기대하여 왔고 건축사들은 그들에게 어떻게 대답하여 왔느냐 하는 것이다. 최근 몇 년동안 나타난 부실건축물 때문에 건축사들의 신뢰도가 많이 훼손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건축사들 또한 그렇게 만든 사회의 책임은 논하지 않고 마지막 결과만을 건축사들에게 묻는 지금의 현실에 대하여 억울한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회는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건축사들이 이루어 놓은 우리땅의 건축문화에 대하여 질책만 할 것이 아니라 그간의 업적을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하여야 한다.

좋은 문화는 문화창출자가 좋은 사회적 대우를 받을 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건축가들에게도 열심히 작업하기 위해서는 동기가 필요하다. 건축설계를 한다는 행위 자체가 보상이 되기도 하지만 재정적 보상이 더욱 강한 동기로 작용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실은 건축가의 설계 의지를 좌절시킬 뿐만 아니라 재정적 보상은 커녕 손실을 초래케 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더욱이 시간적 제약은 건축가들의 의욕을 꺾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같은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경우 좋은 건축환경을 창조하려는 건축가들의 의지는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며 이럴 경우 상업적 가치로서만 건축 설계를 수행하려는 경향에 경도 되기 쉽다. 한편 건축가도 설계에 관여하는

여러 관련분야의 참여자로 하여금 충분한 시간을 주며 건축목적에 부합하는 일관성 있는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하며 이러한 과정은 합리적인 합의를 토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 3. 침해당하는 건축의 전문성과 영역성

건축이 사회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면 지금 우리 건축인들이 겪고 있는 이 변화는 분명히 사회변화에 의해 이루어진 것일 것이다. 전문성과 전문가의 정의도 바뀌고 있으며 전문가가 되는 과정도 바뀌고 있고 전문성을 발휘하는 환경 또한 바뀌고 있다.

모든 건축이 건축가에 의해서 설계되어지는 않는다. 아직도 많은 건축들이 건축가의 손을 빌리지 않고 지어지고 있다. 우리는 버나드 루돌프스키의 <건축가없는 건축>으로부터 건축가의 손을 빌리지 않은 건축의 아름다움이 세계의 곳곳에 펼쳐져 있는 것을 보고 확인 한 바 있다. 한편, 고도로 훈련받은 건축가에 의해 지어지는 건축들이 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만을 부여하여 지어진 건축들이 있다. 부실공사나 행정제재를 받는 건축들 대부분이 바로 이 세 번째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속칭 허가방이라고 불리어지는 사무실에 의해 가장 기본적인 설계도서만이 작성되며 시공책임자가 없이 시공됨으로써 사회의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든 정비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은 이같은 행위자체는 우리의 시대적 산물로서 무조건 경멸 당해서는 아니된다는 것이다.

앞으로 많은 건축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설계에 참여함으로써 우리의 주변환경은 보다 나아질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표준시방서와 상세도를 마련 보급함으로써 최소한의 허가행위에서 비롯되는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으리라 본다. 더불어 이 기회에 저렴한 가격으로 허가만을 내주는 행위자체를 전문성을 지닌 행위로 간주할 수 없는지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아직도 도시의 저소득층에게는 지금의 설계비가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란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문제는 누가 전문성을 제대로 갖고 있는지 판단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검증은 건축 전반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지어진 건축에 대한 건전한 비평이나 거주후 평가 등이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우리의 현실은 설계에 대한 사회적 책임감을 무의미하게 하고 있다. 양적 생산에만 급급한 나머지 사회적으로 전혀 독이되지 않는 건축을 양산한 사람들이 오히려 실적이 많다하여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모든 것이 물량의 개념으로만 따져지고 있는 것이다.

그간, 유일하게 전문성을 보장해 왔던 것이 건축사자격증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국가가 보장했던 최소한의 기준에 대한 신뢰도가 흔들리고 있는데 있다. 지난 30년동안 국가는 건축사들의 고유영역

을 인정하고 그들의 집합체인 대한건축사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만이 설계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왔다.

이는 엄연한 역사적 사실로써 존중되어야 한다. 이를 바꾸어야 할 근본적인 상황이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삼풍사고와 같은 어처구니 없는 대형사고가 난 것에 대하여 건축사들도 책임은 통감하고 있으나, 그렇다고 전문성을 갖는 고유업무를 다른 기관에서 관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 건설회사나 타업체에서 건축사를 고용하여 설계를 할 때 좀더 효율적인 건설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새로운 법이 한때 제안되었으나, 설계는 결국 건축사가 하는 것이기에 건축사 개인의 존재이유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곳에서는 질적향상을 기대하기란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위의 경우 건축사의 고유업무가 보장되지 못하여 건축설계가 자율성을 잃고 질적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소지는 더욱 클 것이다. 이제 이런 소모적인 논의는 그만 할 때가 되었다. 정부는 이런 사태의 핵심을 정확히 이해하는 바탕위에서 건축설계의 경쟁력 확보 방안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와 아울러 대한건축사협회는 이러한 사실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협조를 구하여야 한다. 한편 전통적으로 건축에 속해 있던 분야가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하며 독립해 나가는 것도 있다. 그 중 가장 큰 분야 중의 하나가 실내디자인 분야이다. 지난 세기 현대 건축의 1, 2 세대의 유명한 건축가중 가구를 설계하지 않는 사람은 드물었다고 할 정도였다.

그러나 지금은 몇몇의 건축가를 제외하고 건축설계시 가구까지 디자인을 하려는 사람은 없다. 그리고 어느 사이에 실내디자인이라는 커다란 시장을 형성하고 그들 영역의 독자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세는 실내디자인을 할 때 자연스럽게 건축가 대신 실내디자인을 찾게 되었다. 어찌 보면 건축가의 영역 상실로 보이지만 보다 전문화된 건축의 분화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한편, 도시설계의 문제도 새로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점점 거대해지는 건축구조물들이 도시환경에 끼치는 영향은 지대한 것이다. 드디어 도시 내의 건축물들이 도시설계라는 이름으로 조정되기 시작하였으며 얼마 전에는 법제화하려는 움직임까지 있었다. 도시와 건축의 조화는 당연히 추구되어야 하나 법의 제정은 보다 신중하여야 한다. 도시설계에 관한 법은 건축이 그들의 정당한 논리와 질적 향상을 통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도와줄 뿐이지, 각 개체 건축물의 다양한 개성 표출을 억제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와 같은 영역의 분화는 각 분야의 전문가를 필요로 할뿐만 아니라 영역사이의 문제를 조정할 수 있는 전문가의 육성과 세밀한 연구를 통한 법적 뒷받침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다 내주고 나면 건축가에게 남는 일은 무엇인가? 그러나 건축가에게는 조형의 탐구를 통한 공간의 창조라는 큰 역할이 있다. 즉, 삶의 그릇이라는 골격을 만들어 주는 가장 중요한 일이 남게 되는 것이다. 설계란 건축가의 머리 속에 들어 있는 축적된 모든 아이

디어, 미의식, 기술적 축적들이 건축주라는 구체적인 개인을 통하여 사회속으로 구체적인 형태를 갖고 표출된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다. 현재로는 소프트웨어의 가치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그릇이 문제이다. 이는 아직도 산업사회의 구조 속에 길들여져 지금 얼음장 밑으로 흐르는 탈 산업사회의 징후를 감지하지 못하듯 세계의 급격하는 변화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변화하는 생활에 맞추어 조절될 수 있는 공간의 창출이라는 Software의 High Game에는 인고의 세월을 거쳐 고도의 훈련받은 사람들만이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즉, 역사, 문화, 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건축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건축생산과정을 훈련받은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건축가의 시대를 바라볼 줄 아는 안목과 그에 따른 인식의 전환과 건축적 대처 노력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산업혁명 이후 한때 건축가들은 새롭게 요구되는 산업시설물 설계를 외면한 채 그들의 영역을 전래의 건축에 묶어 둔 적이 있었다. 사회의 새로운 요구를 한편으로는 이해하면서도 건축가의 사회적 신분저하와 품위손상을 우려하여 새로운 산업구조물에 등을 돌렸던 것이다. 20세기초에 들어 건축가들이 공장설계를 건축적 과제로 인식하여 다시 출발할 때까지 오랫동안 이들의 설계는 엔지니어와 조경가의 몫이었다. 산업혁명 이후 건축의 전환점으로 각광받았던 1851년 세계박람회장이었던 수정궁은 조경가의 작품이었고, 유명한 파리의 에펠탑 설계자는 토목기술자였던 구스타프 에펠 이었다.

전문성은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며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사람들의 몫인 것이다. 주어진 자격에 안주하며 끊임 없이 노력하지 않는 전문가는 당연히 자리를 잃게 마련이다.

앞으로의 시대는 좀더 세밀한 전문성을 요구하는 시대로 진입한다고 한다.

건축사들도 국가에서 준 자격증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전문성 제고에 힘써야 할 것이다.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건축사자격 취득 후에도 또다른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는 업무도 있다. 고건축보수설계가 바로 그것이다. 고도의 훈련을 받은 사람만이 고건축설계를 할 수 있다는 판단이 현실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유일한 분야이다. 마치 이는 전문의 제도와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다. 현대 건축설계 중에도 고도의 전문성을 지녀야 하는 분야가 있을 것이다. 이 같은 제도를 현대 건축설계 분야에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문제는 그리 간단치 않을 것이다. 전문성이란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으로 의사의 전문의 제도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의사시험 합격 후 인턴과정을 통하여 전공목을 두루 섭렵하게 되고 그 이후 한 과를 선택하여 레지던트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같은 수련과정을 거친 후에야 특정분야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다.

이제는 의술이 점점 발달하여 한 과 내에서도 다시 여러 분야로 세분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Professional이란 단어의 의미에 가장 가깝게 분류되고 있지만 현실은 그들에게 전문분야만을 취급해 하지는 않고 있어 의사들도 그들 진료환경 개선을 바라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예약이 꼭 차 진료를 받으려면 2년 이상 기다려야 한다는 의사가 우리나라에도 생겨나게 되었다. 이는 고도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사람의 희귀성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물론 이러한 것은 Professional Service를 하는 유사한 집단으로서 건축과 비교를 할 수는 있으나 서로의 환경 설정이 너무나 달라 곧바로 의료제도와 같은 방법을 건축에 도입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오랜 세월의 고된 훈련 끝에 취득한 건축사 자격위에 또다른 자격 시험을 부가할 경우 또다른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리라 본다. 건축가란 어떤 종별의 건축이건 간에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공간형성과 그를 만드는 조형체를 형성하는 기본적인 방법을 훈련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정한 건축 종별로 창작의 범위를 좁혀놓는 것은 옳지 않는 일이다. 그리고 어느 나라에서도 구체적으로 건축 종별을 구별해 전문면허를 발급하지는 않고 있다.

전문성 제고의 문제를 자격으로만 묶으려는 시도는 될수록 지양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오히려, 건축사들로 하여금 본인들이 관심이 있고 많이 수행하는 건축별로 분과를 구성하고 각 분과별로 관련 정보를 수집, 공동 활용함으로써 전문성을 높여가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미국에서는 실제 전문분야별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한다. 예를 들면 주거설계위원회, 위락시설설계위원회, 병원설계위원회 등으로 구성하여 각 분야에서의 정보교환, 제도개선, 세미나를 통해 설계발전에 기여하며 매년 활동 성과물을 제출한다. 또한 위원회의 위원 선임은 각 위원의 희망과 경력 등을 참조하여 자발적인 참여로 유도한다. 각종 연구는 위원회 위원들이 각자 시간을 할애하여 직접 봉사하고 특별한 경우에만 외부용역을 의뢰한다.

한편, 각 개인의 건축가들의 질을 높이는 노력 못지 않게 건축가들의 집단인 대한건축사협회 자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요즈음 들어 대한건축사협회가 국제화 시대에 발맞추어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심도있는 논의와 연구를 시도하고 있다. 이를 위한 각종 위원회가 설치되고 좋은 아이디어들이 제시되고 있으나 아직도 미진한 점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오랫동안 설계사무소나 개인의 건축사들이 할 수 없는 연구사업을 협회가 시행하여 회원들의 설계활동이 수월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필요성만 절감할 뿐 아직도 제대로 실천되지 않고 있다. 좀더 적극적인 실천이 요구되는 바이다.

#### 4. 피라미드 구조에서 Network체제로 변환을

앞으로의 사회는 지식과 정보가 중시되고 상품화되는 정보사회이다. 이러한 사회체제 안에서의 '정보의 독점과 공유'라는 문제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쟁점이 된다고 한다. 정보사회라고 해서 모든 사회구성원이 모든 정보에 똑같이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컴퓨터와 같은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발달로 소규모 설계사무실들도 설계도면 생산이 용이해지고 정보기기 사용 선택의 폭이 넓어진 것도 사실이지만, 기기와 관련 프로그램들을 위한 비용지불 능력의 차이 때문에 새로운 서비스의 혜택이 경제적, 문화적 기득권 집단에게 편중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부분은 사무소의 규모와 재력에 따라 많은 편차가 있겠으나 국력 차이에 따른 국가간의 차이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과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

정보정의(Information Justice)의 기본원칙은 정보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에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정보의 보편적 접근이라는 문제는 상업화와 연결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정보사회에서의 사회적 불평등과 관련지어진다. 진정한 건축적 능력의 유무와 관계없이 자본의 규모에 따라 건축설계시장이 형성되지 않게 협회가 중심이 되어 Network을 구성하고 공동사용 하므로써, 정보사회속에서 바람직한 건축설계시장을 정착시킬 수 있으리라 본다.

처음부터 끝까지 체제를 구성하고 그에 상응하는 인력을 다 갖추어야 탄탄한 회사가 된다는 신화는 이제 끝나가고 있다. 모두들 군살빼기를 하고 다가오는 정보화사회의 빠른 전환성에 적응하려고 하는 시대로 돌입하고 있는 것이다. 피라미드 구조는 여러 면에서 안정성을 갖추고 있기는 하지만 반대로 변화에 대처해야 하는 적응성은 뒤떨어진다. 정보화사회에서는 피라미드 구조가 Network의 체제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 이를 연구하는 대부분 학자들의 분석이다.

Network 체제로의 전환과 Software의 고부가 가치 사회에 적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건축조직 또한 Network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Network 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도화된 전문성의 확보이다.

WTO에 의하면 설계의 단계는 3단계로 구분되어 있다. 우리는 이 3단계를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그에 상응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일례로, 현재 음성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하청의 개념이 아니라 협력업체로서의 정당한 대우가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상세도 작성자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그들을 파트너로서 대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WTO 내용에서 다른 항목으로 구분지어 나타나는 것은 각 영역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이는 비록 우리의 특수성을 감안한다 하여도 세계협약의 보편성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현실에 있어 선진국들은 축적된 경험의 귀중성을 인식하고 일정 분야를 공략함으로써 상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우리 건축의 경쟁력 향상은 설계의 품질확보, 적절한 서비스비용, 철저한アフター서비스를 통하여 이룰 수밖에 없다. 설계의 품질확보는 건축가의 전문성을 보다 높임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으며 여타 관련분야와의 조화있는 대응의 협력으로 더욱 효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는 보다 효율적인 협력시스템도 구축하여야 한다. 모든 분야를 다 갖추어 효율을 기한 때도 있었으나 시장의 급격한 변화는 이의 효용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하청의 의미로 기피되었던 협력업체들을 파트너 내지는 여소시에이트와 같은 이름으로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5. 맺음말

국내 건축경기의 침체와 외국기업들의 국내진출은 건축설계시장을 심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어렵게 하고 있다. 변화에 대처하려는 여러가지 노력들이 법과 제도의 개정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여파가 어떻게 이어질지 몰라 많은 건축가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실은, 우리 모두가 같이 고민해야 할 과제들인데 본인들만 억울하게 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건축설계의 품질을 클라이언트가 설계도면만으로 판단할 수 있으면 설계 사후에 발생하는 문제를 많이 줄일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대부분 건축주는 과장된 투시도나 조그만 축소 스케일로 만들어진 모델에 현혹되게 되며 실질적인 설계 내용이야 어떻든 컴퓨터로 잘 그려진 도면에 만족하게 된다. 갈고 닦은 고도의 훈련을 바탕으로 하여 보다 좋은 설계를 위하여 투여된 시간이 뻔 노력들은 도면 속에 용해되어 잘 보이지 않게 마련이다. 이같은 설계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이 현실 세계 속에서 평가받지 못한다면 이같은 논의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정보화사회에 들어설수록 개인의 역량은 한정될 수밖에 없다. 혹자는 대한건축사협회가 작은 조직으로 축소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본인의 생각으로는 오히려 조직강화를 통하여 회원들에게 합리적인 제반 정책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회원의 손과 발이 될 뿐 아니라 두뇌역할을 충실히 하는 정보Network구축활용의 중추적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와 아울러 과감한 After Service 개념의 도입과 평생학습사회에 걸맞은 평생교육제도를 통하여 건축사의 전문성을 끊임없이 유지시켜 주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끝으로 건축설계분야의 전문성은 확보돼야 하지만 건축이 실현되는 과정에 연관되는 많은 부분들이 존재하는 만큼 인접 관련분야의 영역성을 존중하며 상호협력에 임하여야 한다. 이와함께 WTO를 비롯한 국제 관련법을 철저히 조사 연구하여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그간 건축문화의 중요성을 건축인들끼리만 논의하였지 국민들에게 널리 인식시키지는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같은 논의를 계기로 건축문화향상의 주역인 설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 SBS 탄현제작센터

SBS Tanhyon Drama Studio

김석철 / 종합건축사사무소 아키반

Designed by Kim Seok-Chul

대지위치 / 고양시 탄현동 산79-1 외 32필지

주용도 / 방송통신시설

도시계획사항 / 지역·지구·개발촉진지역, 시설용지지구

규모 / 연면적 - 34,090.57㎡

지상 - 26,936.12㎡

지하 - 7,154.45㎡

건축면적 - 10,743.11㎡

건폐율 - 11.53%

용적률 - 332.43%

층수 - 지하 1층, 지상 4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용도 별 면적 / 본관 - 28,246.96㎡

체육관 - 3,128.64㎡

방송아카데미 - 2,572.58㎡

온실 - 120.00㎡

경비실 - 22.37㎡

조경면적 / 법정 - 13,982㎡

계획 - 22,511㎡

부설주차장 / 법정 - 137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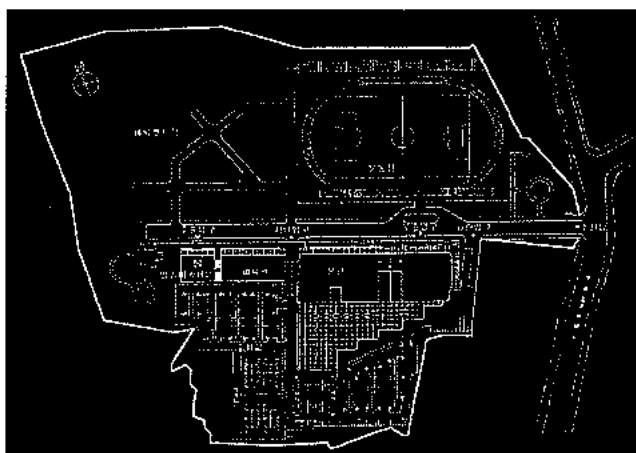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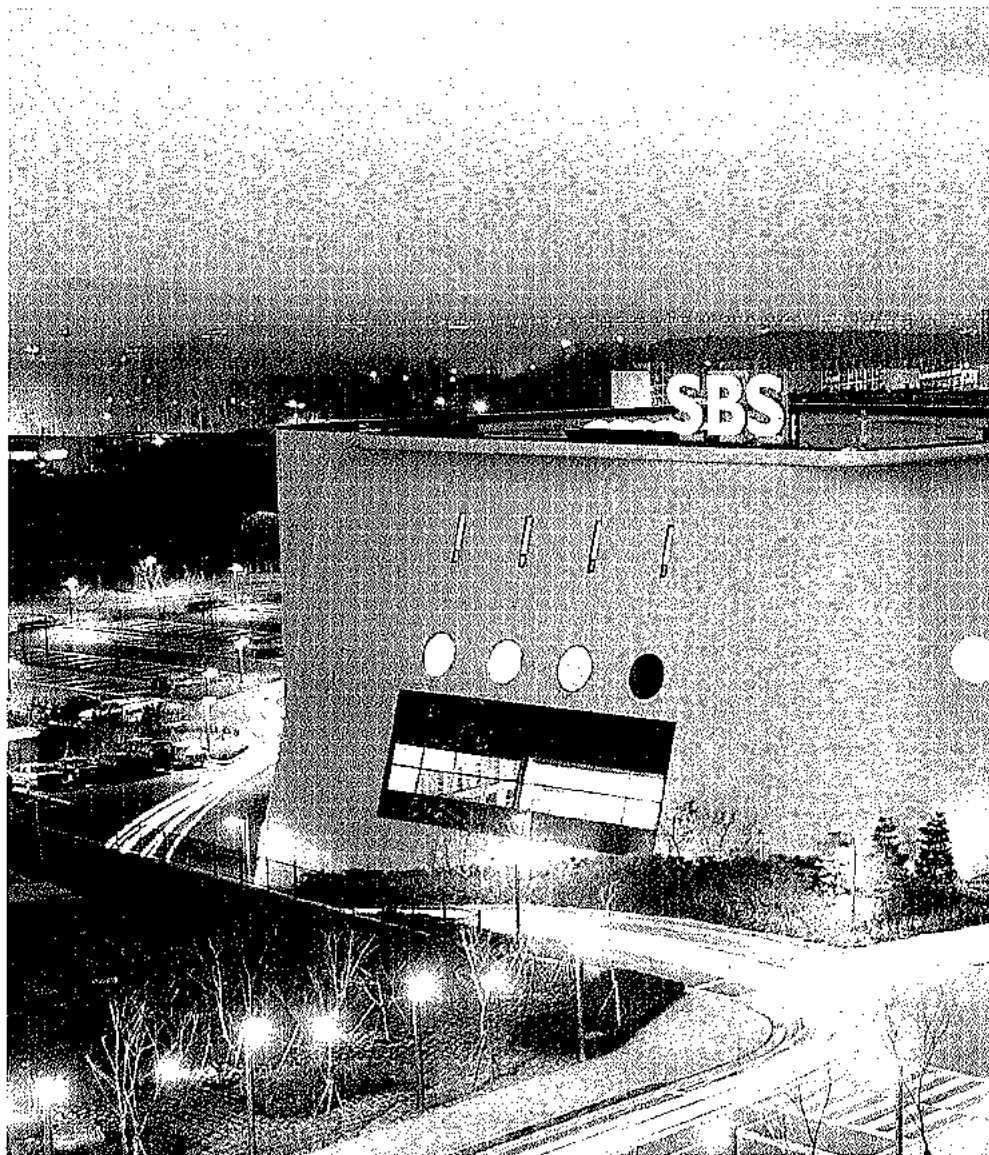
계획 - 361대

주요외장재 / GRC, ALC+테라코타벽철

공사기간 / 1992. 6~1995. 11

건축주 / (주) 서울방송

시공자 / (주) 태영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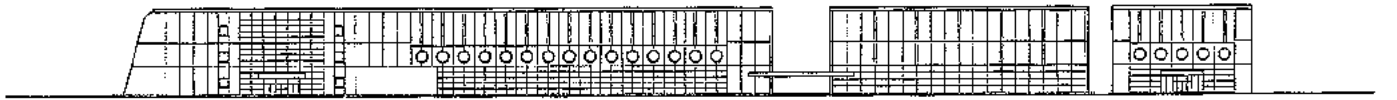
전경(야경)



본관 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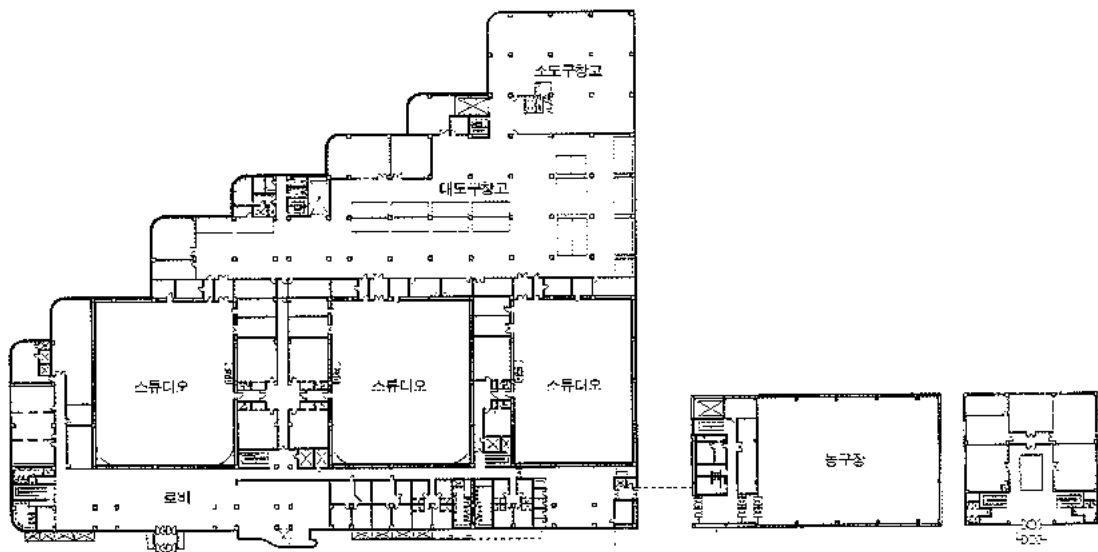
라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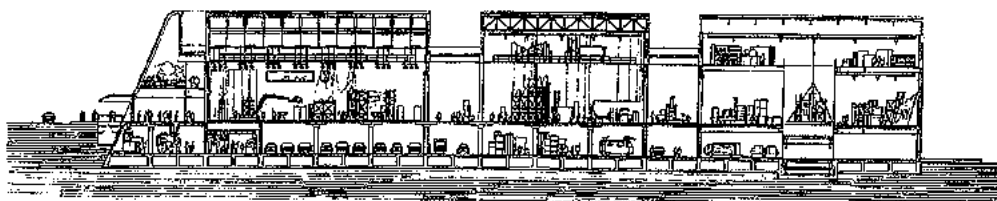
전체 입면도



식당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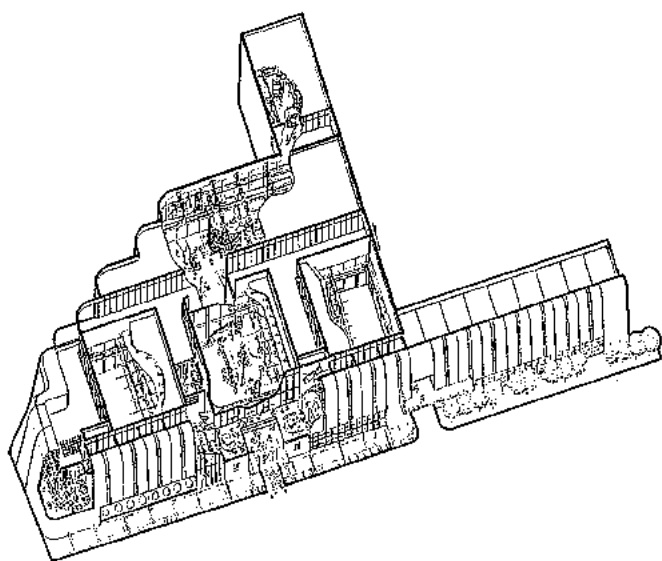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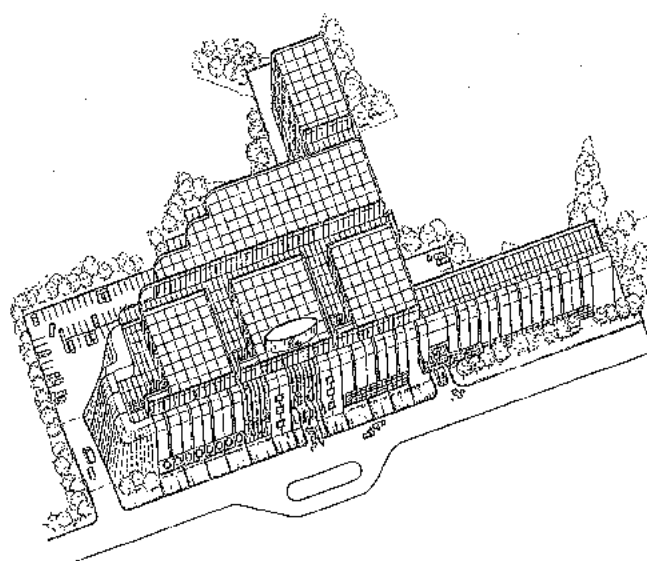
단면 스케치



단체 분장실



내부 엑소노메트릭



외부 엑소노메트릭



SBS의 탄현 드라마 스튜디오는 수준높은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고 현대적이며 기능적인 시설을 도입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스튜디오를 근간으로 한다는 점에서 건설한 공학적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SBS 드라마 스튜디오가 드라마를 만드는 '공장'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드라마틱한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을 설계의 중요한 과제로 삼았다.

또한 SBS 드라마 스튜디오 건물 자체가 하나의 야의 스튜디오 세트로 활용될 수 있도록 외관을 설계하고 주변지형을 정비하였다.

## 토지이용

전체 토지를 3분하여 생각한다.

주진입로의 남측 삼각구역과 북측 정방형 구역과 서측구역으로 큰 틀을 생각한다.

남측 삼각구역을 자립구역으로 상정하여 장치의 개발에 독립된 입지를 성립토록 한다.

남측이 낮고 접근로가 동측에서 서측으로 이어지므로 남측에 주차장과 제작장을 두어 동일 레벨에서의 물류이동을 시도하고 사람의 접근을 전면 광장으로부터 이어지게 한다.

## 건축

충분히 계량되고 조정된 최적의 메카니즘 속에 드라마를 만드는 드라마틱한 공간을 연출한다.

기술공간이며 주공간인 세 스튜디오를 방음벽으로 차단하여 병렬하고 북측 전면 200m의 거대한 성벽과 세 스튜디오사이에 드라마를 만드는 사람과 장치가 준비되고 후면 한층 낮은 옥외 주차장에 기계화 된 저장공간을 가진 Set 제작장과 창고를 둔다.

200m 성벽의 동측코너에서 자동차는 한층 아래 후면 주차장 제작장 레벨로 진입하고 200m성벽의 서측벽 뒤에는 농구코트가 들어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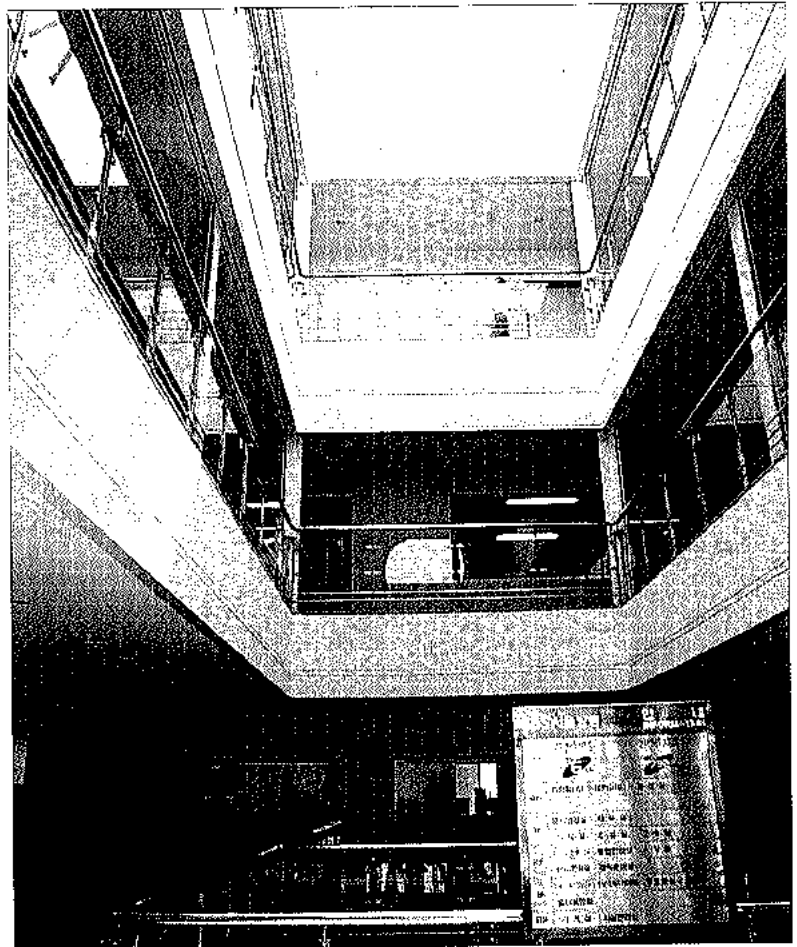
## 기술

스튜디오에 각각의 기술관련시설을 접속시켜 드라마를 만드는 독자적인 '공장'처럼 설계하였으며, 세트장의 운반과 저장을 쉽게 하기 위하여 랙시스템을 도입하였다.

## 설비

냉·난방과 관련된 기계실은 '사람들의 공간' 아래부분에 집약시켰으며, 스튜디오가 기계실이 발생시키는 소음과 진동 등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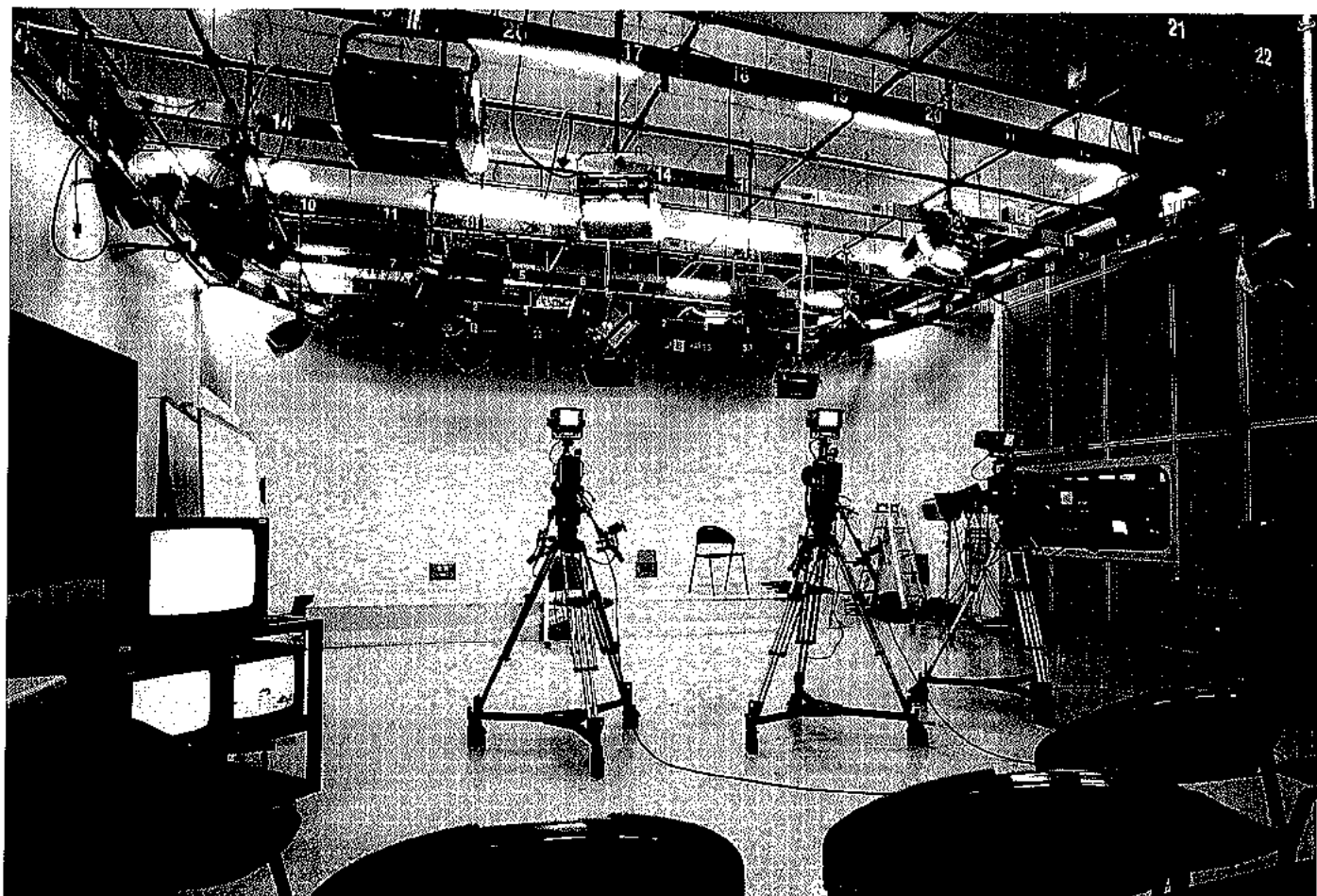
각 스튜디오에 개별 공기정화 시스템을 연결하였으며, 냉각기와 공기조화시설을 수직선상에 위치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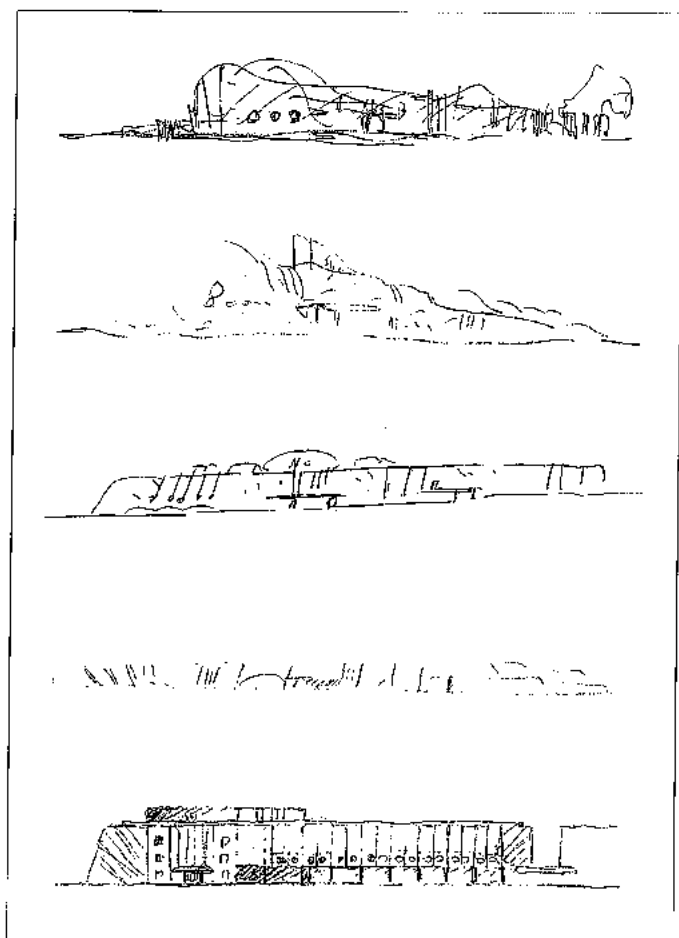
방송아카데미 홀 상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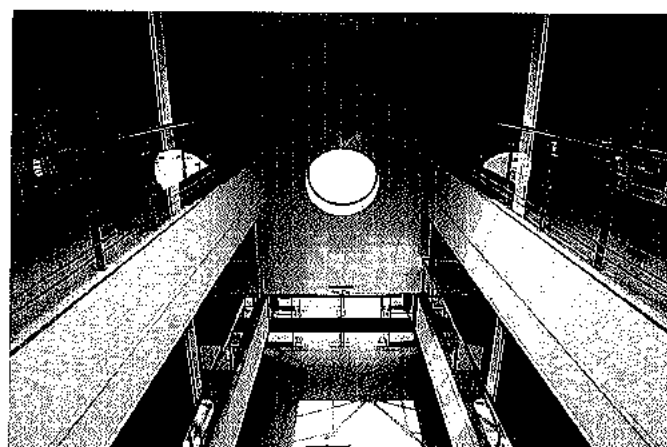
본관 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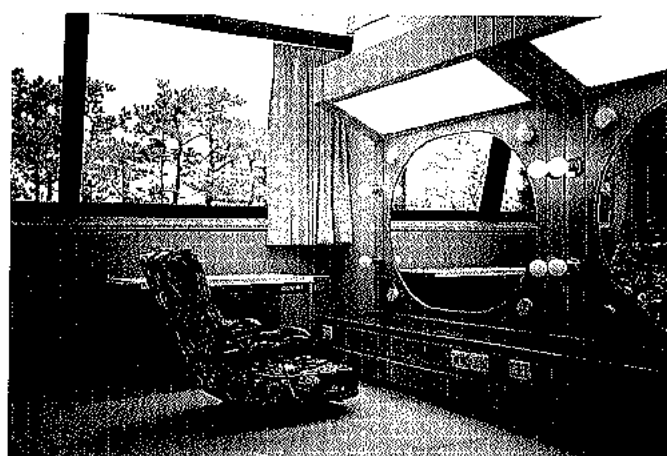
방송아카데미 내 스튜디오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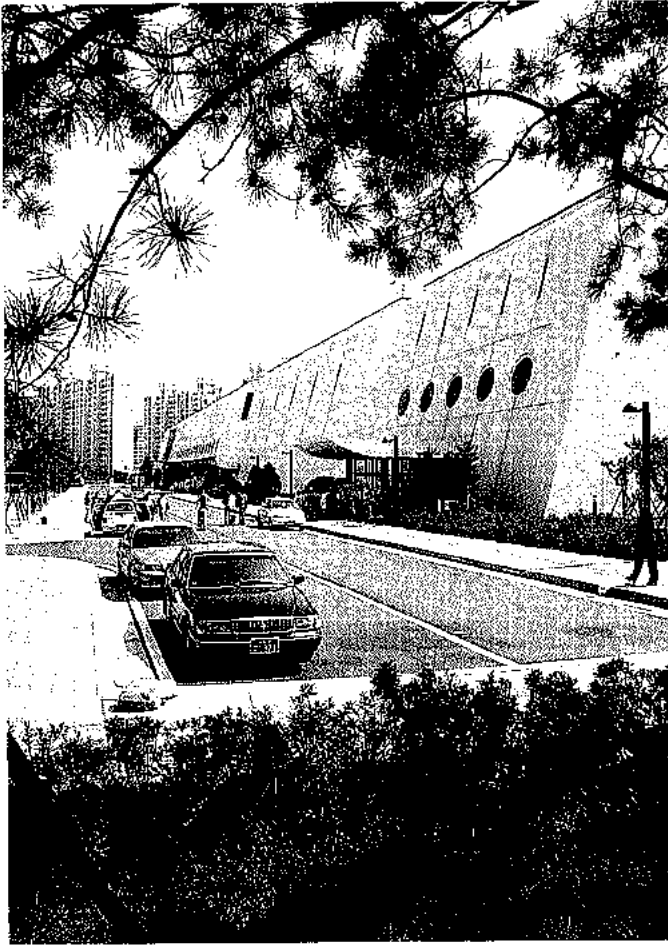
개념 스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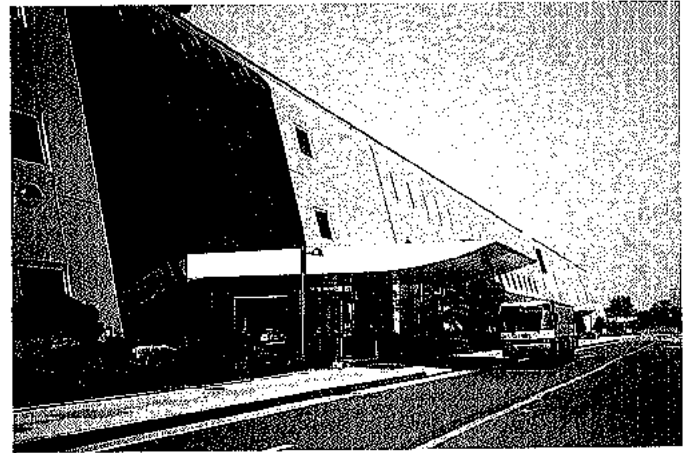
방송아카데미 3층에서 본 출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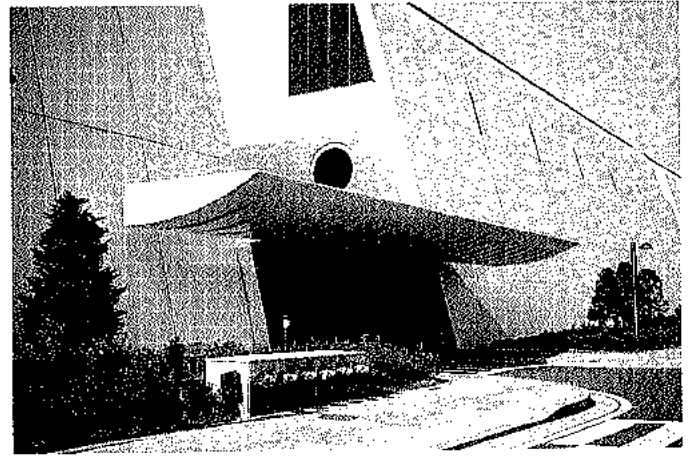
개인 한실 분장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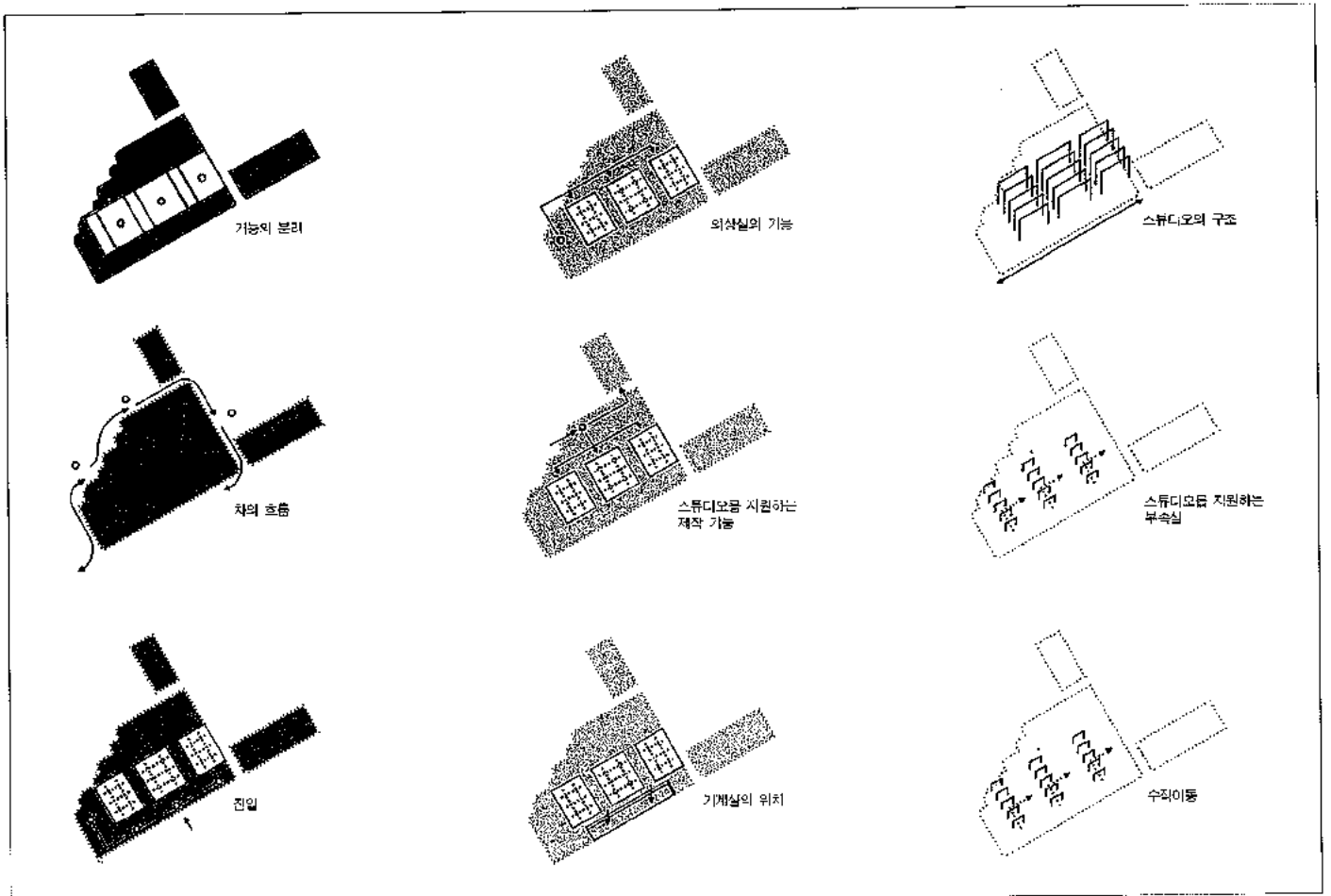
아외 정원에서 본 전경



본관 출입구 및 캐노피



본관과 체육관 연결 캐노피



기능 분석도

## 근원적 급진론과 건축가

Architect and a Radicalist

대담자 : 성인수 울산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장 소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아키반

일 시 : 1996년 11월 7일 1000~1230



(좌:김석철, 우:성인수)

성인수: 어느 잡지에 실린 '건축단상'에 보면, "술을 멀리하고 새로운 각오로 일하겠다"고 다짐한 부분이 있었다.

김석철: 대학배부터 술을 많이 마셨는데, 3년전부터는 잘 마시지 않는다. 독립하기전 혼자서 아무일 없이 건축을 공부할 때였던, 정릉시절의 맑은 기억이 하도 좋아서, 지금도 그 순간을 간직하려 한다. 당시 세 가지 요건이 구비되면 독립하려 했는데, 첫째는, 일이 전혀 없을 때 독립한다, 둘째는, 몸담았던 사무실과의 관계를 완전히 청산할 수 있을 때 독립하려 했고, 나머지 제일 중요한 한가지, 자기 말을 할 수 있을 때 독립하려 했었다. 일본 건축가들은 자기 말이 있는데, 우리들은 그렇지 못했다. 그러나 여러가지가 여의치 않아, 떠밀리다시피 독립한 이후 사정이 어려웠다. 모여드는 사람은 많고 일은 없고, 건축가의 스튜디오라기보다는 개인적으로 양산박의 대장격으로 지냈고, 술을 마시고 토론하고 그렇게 몰두하게 되니까, 초기에 논의가 진지해지고 많은 이야기가 이어졌다. 당시 진지한 논의를 자주 했다. 그러나 지금은 술을 마시는 시간도 아깝고, 깨는 시간은 더 아깝고, 그래서 자제하고 있다. 요즘 술을 마시면 모두 다 진지한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술을 마시면 논리는 실종되고, 건축적 사건이 개입되고, 그 다음부터는 건축론보다 사건을 이야기하게 된다. 아직도 정릉시절 3년간의 수련기간이, 맑은 정신에서 비롯된 감성적 측면이 최의식을 느끼게 하여, 나를 구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성: 건축론을 깊이 생각하는 때는 주로 언제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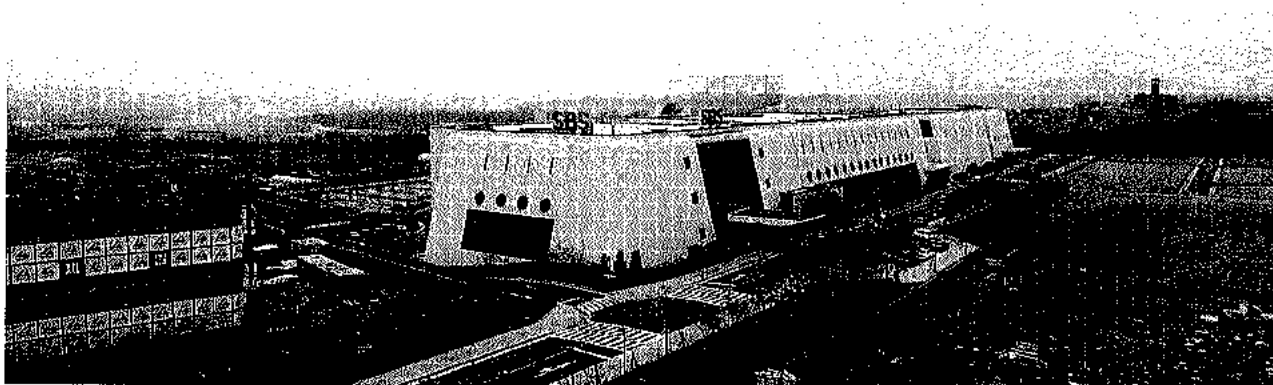
김: 그럴 때, 자신의 무능력을 절감할 때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초기 스케치를 할 때 건축론을 생각한다.

성: 계획단계 초기에 스케치가 많이 등장하는데, 스케치

는 어느 단계에서 하게 되는가?

김: 그것은 경우마다 다른데, 익숙한 경우나 같은 주제 반복시 대지를 보고 바로 스케치를 하고, 명보극장의 경우는 두, 세달 공부한 후에 스케치를 했고, 명농보다 잘 아는 지역인 대구에서 잘 아는 대지에 극장을 설계할 때는 스케치를 바로 시작했다. 주제에 대해 공부하여야 할 경우, 예를 들어 공간에 있을 때, 사무실 일이 아니라 내 개인적으로 한 경우지만, 김포공항을 할 때 1년이 지나서야 개인적으로 스케치를 낼 수 있었다. 요사이 다른 사무실에 근무할 당시 담당했던 것을 자기의 것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는 건축의 속성을 모르는 사람이다. 건축가의 역할은 아이디어를 내고 판단과 영감을 보이는 일이다. 결국 남의 것을 훔쳐내서 판단과 영감을 보인다면, 그것은 자기언어가 부족한 사람의 경우 일 것이다.

성: 자기언어가 확실한 김석철에 대한 다른 분의 평가를 보면, "현실주의자보다는 이상주의자나 낭만주의자"(김영섭), "고고학적 미래파"(김경수)로 지적된 내용을 보면, 건축가 김석철의 취향과 태도를 엿볼 수 있다. 이 중에서 용어 "고고학적 미래파"는 실현시키지 못한 꿈을 지녔던 1920년대 이탈리아 미래파가 처했던 도시와 그 상황을 연상시킨다. 대비되는 두 가지 취향을 지적하므로써 김석철의 건축에 내재된 복합적인 성격을 표현하려는 용어로 보인다. 하나의 건물, 건축과 도시에, 너무 대비되는 건축적 내용을 담으려 하는 작가의 태도를 지적한 용어로 보인다. 현재 건축적 고고학의 발굴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출발점이 약화되었을 것이고 또 한국 미래파는 현실과의 괴리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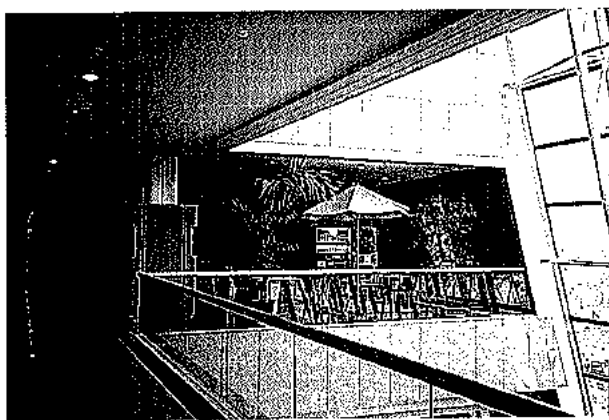
인하여, 아직 결과를 보일 수 없다. 본인이 스스로를 규정한다면 어떤 말로 대변할 수 있겠는가?

김: 베니스에서 전시회를 할 때, 베니스 대학 교수들중 여러 분이 내게 관심을 가진 부분은, 내가 그린 그림 중에서, 신기하게도 정릉 3년간의 스케치 그림이었다. 지난번에 필립 존슨도 당시 그림은 지금의 그림과는 다르다는 것을 지적했다. 이탈리아 교수들은 “어떻게 이런 그림을 그린 사람이 예술의 전당을 그렇게 밖에 못했느냐”며 의아해 한다. 건축가는 건축에 대하여 즉, 자신의 생각을 대변할 수 있는 다양한 어휘 군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용어 “고고학적 미래파”에 대해서는 약간 오해가 있는 듯 한데, 김교수가 “건축을 하면서 많이 생각하고, 하고자 한 것이 무엇인가?” 내게 물었는데, 당시 한국건축가로는 처음 베니스에서 발표할 때라서, 한국의 정체성에 대해 약간 의구심을 지니고, 한국의 문명이 거대한 중국의 변방으로서 반응한 것으로 생각해서, 물론 지금은 생각이 다르지만, 변방 문화적 속성이 있다고 보고 이런 속성을 벗어난 정체성에 대하여 생각하기 위하여, 역사시대가 아닌, 문자로 기록되지 않은, 구체적 물상만으로 남은 시대, 즉 고고학적 시대에서, 문명간의 교류가 적었던, 그래서 독자성이 강했던 시대의 것을 복원하여 해답을 구하고, 이를 한국건축의 연원을 밝히는 작업으로 생각했다. 시각적인 것을 다루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고고학적인 흔적으로부터, 그 속에서 우리의 근본적이고 건축적인 DNA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여, 예를 들면, 조선조 한옥보다는 그 이전의 청동기시대나, 선사시대로부터, 나의 가능성을 밝혀 내고 싶었다. 그러니까 내 개인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때는 세계 건축가들에게 내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려다 보니, 세계 문명에 대비하여 나를 표현하려고 이야기하던 중에 나온 이야기다. 그 용어는 김 교수가 제안한 것을 내가 받아들인 말이다. 문명 이전에 형태로부터 역사적인 대응을 하고 싶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안토니오 쉘렐리아”(1880-1916) 전시회를 이탈리아에서 본 것 같은데, 미래파는 근대 모더니스트로서 새로운 도시 아이디어에 주력했던 것으로 기억되고, 투시도가 인상적이었고 내용도 선구적이었다고 이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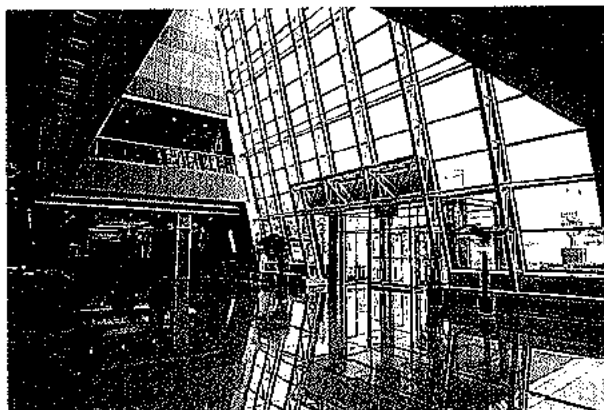
성: 그들은 당시에는 이루어지지 않은 꿈들을 실현시키기



2층 휴게실

위하여 건축적인 단서들을 남겼고, 전쟁을 겪으면서 죽기도 했다. 그들이 1914년에 그렸던 투시도가 이후 현대도시 형성에 영향을 끼쳤다. 그들의 아이디어는 앞섰고 상황은 그러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용한 것이다. 고고학적인 태도는 끝없이 과거를 향하고, 미래파 작업으로 벌어지는 그 건축적 간격과 이념적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기가 용이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고고학적 미래파”라는 용어가 본인의 성향을 잘 드러내는 것인지, 혹시 다른 말로 대체할 말이 있겠는지?

김: 건축은 바로 그 도시 위에 선다. 그러나 한국의 도시는 철저히 공동체가 무너졌다. 서울이라는 천만 도시공동체는 거의 와해되었다. 지금 이 상태로서는 진정한 건축을 위한 자리가 없다. 진정한 의미의 건축이 아니며, 개인적 취향을 전시하는 것 외에 건축적으로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한다. 자기 교유의 배경을 바탕으로 창조되어야 하는 진정한 건축과, 도시로부터 무엇인가 말할 수 있는 것 사이에는 비현실적인 것이 공존하고 있다. 현재 도시의 모습에서, 현재의 시각적 대상으로부터 얻을 것이 없다. 건축적 고고학으로부터 원래의 모습을 얻을 수 있는 미래를 창조하자. 그래야 잡지에서 유래한, 미국, 일본, 유럽 등으로부터 유입된 외래 찌꺼기로부터, 또 잡다한 영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종류의 도시 파괴에 대하여 건축과 도시의 패러다임을 바꾸자고 생각했었고 초기 작업을 시작할 때도 「건축과 도시가 통합된 아키반 선언」을 했고, 사무소 이름을 지은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다. “고고학적 미래파”는 이런 이야기에 대한 김 교수의 제안이었다.



본관 로비



지하주차장의 연기자 입구



성: 대비되는 건축적 모델로서 유럽적인 것이 자주 등장한다. 그 이유는 무엇이고, 여행하는 학생이나 건축가에게 추천할 만한 곳은 어디인가?

김: 단편적인 여행도 많이 했고, 일 때문에 자주 가서 오래 있기도 했다. 유럽은 과거로부터 도시화를 이루고, 인구가 집중하고 산업을 기반으로 해외식민지를 거느리게 되었다. 유럽의 현대문명은 유럽이 세계를 다스리게 되는 세계화를 이루었다. 지금도 유럽도시에 가보면 세계를 제패할 만한 힘이 있었다고 느끼게 된다. 그 힘은 공동체의 가치이다. 당시에 지녔던 도시공동체의 가치를 아직도 지키고 있다. 우리에게도 셸(Shell)이 있었을 뿐이다. 도시를 하나로 묶어내는, 그리스나 로마시대 이후로 계속 존재한, 도시의 기본적인 공공영역(Public Realm)이 존재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집단적 힘을 발휘할 수 있었다고 본다. 동양은 집단화된 힘을 만들어내는 공간적 구조가 없었다. 그래서 유럽에 점령당했다고 볼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유럽에 가면 역사를 느낀다고 하지만, 오히려 역사보다는 현대도시의 모델을 본다. 중국의 시안, 북경과 일본의 경도에 가면 과거의 역사가 보인다. 그렇지만 유럽도시에서는 과거에서 현재로 이어져 온 거대한 역사적 흐름을 볼 수 있다.

성: 우리의 것을 찾는 과정에서 대비되는 유럽의 세계화와 비교해 보면, 우리는 미국, 일본 등에 쉽게 빠지는 듯하다. 즉, 서구문명에 심취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과거를 잘 잊어버리고 새로운 것에 빠르게 몰두하는 속성이 문제가 아니겠는가? 유적과 유물이 제자리를 벗어나 가치가 떨어진 것이 많다. 현재 고고학적인 작업을 방해하는 상황에 대해서 입장이 어떠한지?

김: 지식인으로서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으로 생각한다. 우리는 종교적으로 삼하게 빠져 들어간다. 통일신라 불교의 학문적 깊이도 원조인 나라보다 더 깊다. 주자학은 퇴계에게 의해 완성되었다. 그리고 한국신학도 상당한 경지에 이르고 있다. 또, 금속활자는 받아들이면서 중국을 당장 앞서게 되었다. 석굴암도 기본적인 틀은 중국에서 왔지만 중국 어디에도 그런 것은 없으며, 더욱 세계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 한편으로, 일본은 자기화를 강하게 한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서 그런 큰 틀을 느낄 수 있는가? 우리는 자기를 올바르게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 시대를 관통하는 내용에서 혼돈에 빠져 있다.

성: 그렇다면 우리사회는 컴퓨터 사회로 진행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될텐데, 앞으로 다른 나라보다 개인화가 더욱 심해지지 않겠는가? 평소 주장하는 도시 공동체보다는 개인적 공간인 셸(Shell)속에 숨겨지는 작업이 더욱 많아질 것이다. 그렇다면 계속 건축을 통하여 공동체 의식을 주장하기에 우리가 따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계속 그렇게 설계한다면 앞으로 일이 어려워지지 않겠는가?

김: 누구나 그 직업을 선택할 때나, 처음 건축을 결정할 때, 느끼는 것이 많고 망설일 때가 있다. 고등학교 때 건축을 나름대로 선택하면서, 라이트의 "To a young Architect"나, 르 꼬르뷔제의 책 "Towards a New Architecture"을 읽고, 우리 시대를 증언한 건축을 해야겠다고 결심을 했다. 누군가 일전에 테헤란로에는 많은 건물이 있는데 그 중에 설계한 것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기도 했지만 테헤란로에 세우는 건축 등에는 관심이 없다. 그러므로 일상적인 건축, 규모가 큰 것이나 고속철도 역사 등도 마찬가지이다. 나의 관심은 상대적으로 문명을 증언하는 것과 한국인이 무엇인지를 건축으로 밝히는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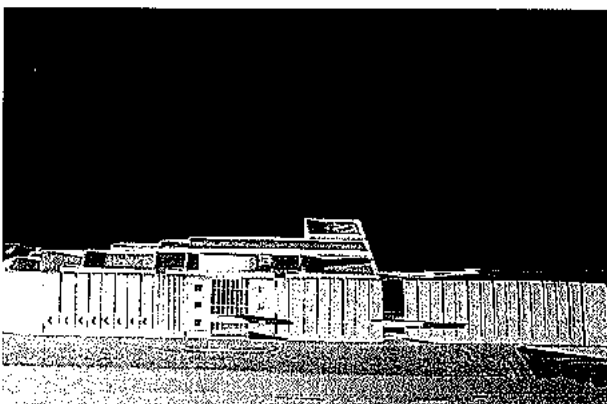
성: 어린시절의 공간적인 기억이나 건축적 체험 중에 영상으로 남아있는 것은?

김: 영남루다. 초등학교 때인데도, 일주일에 두, 세번 갈 때마다 영남루에 앉으면 밖에서 보는 것 보다 안에 앉아 보는 것이, 더욱 자연 속에 있는 것으로 느껴졌다. 할아버지 덕에 그곳에 자주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 곳을 지키는 사람이 "왜 자꾸 안에 들어가려느냐"고 물어오곤 했는데, 그 안에 앉아 있으면 밑에 있는 아랑각이나 멀리 보이는 산, 강과 철도 등이 모두 자연스럽게 보였다. 밀양에서 부산으로 갈 때 영남루를 떠난다는 것이 참으로 깊은 감회를 주었다.

성: 영남루에 관한 그런 기억이 건축에 특별한 영향을 주었는가?

김: 그것과는 상관없다. 주위에 보이는 꽃을 좋아하고 자연을 사랑했다. 여기 아키반 사육의 꽃도 다 내가 심었다. 자연이 더 잘 느껴지는 자리로서 영남루를 좋아했고, 그곳에 올라보면 자연이 맘에 들었다. 누님은 매일 표충사를 가자는 데도, 나는 자주 영남루를 고집했다.

성: 이야기가 처음부터 본론을 벗어난 느낌이다. 구석기 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인간집합의 자취와 역사적 적층이 쌓여있는 "서울에서 건축을 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신



전면 도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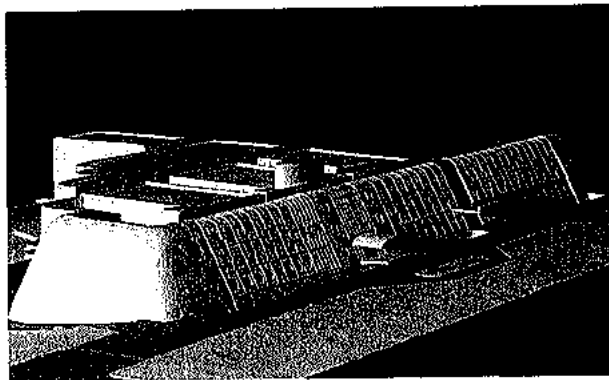


배면 도형

적이 있다. 건축을 받치는 두 기둥으로 명명된 '토지'와 '주제'는 건축물을 바라보는 작가의 입장이나 건축적 배경을 설명해 주는데는 유효하지만, 실제로 건축물 자체를 설명하는 이론적 배경으로는 미흡한 듯하다. 다시 '토지와 주제'라는 용어로서, 이번 대담의 주제인 「SBS 드라마 스튜디오」의 건축적 개념을 설명해 달라.

김: 주제를 해석하고, 토지를 이해하는 것은 건축가가 어떤 일을 할 때 근본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다. '토지 이해와 주제해석'을 대표적 두 기둥으로 생각한 것은 "예술의 전당"을 일본 A+U지에 특집으로 실을 때, 건축가의 철학을 표명하기 위하여 정리한 것이다. 논리적 체계라기보다는 설명으로 동원된 글이다. 다른 프로젝트에는 '두 개의 기둥'이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 주제 스스로가 큰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다. 집은 어떤 건축이던 간에, 그 자리에 예정대로라면 한 1000년은 가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마구 지을 수는 없는 일이며, 최소한 100년 정도는 내다보고 짓지 않으면 안된다. 땅은 나름대로 오랜 역사가 스며있는 것인데, 이 땅은 주변과 공존해야 하고 100년 뒤의 수많은 이야기가 쌓인 주변상황과도 공존해야 한다. 서로 다른 시대의 건물과 공존해야 한다. 토지가 지형, 감각적 형태, 접근성 등뿐만이 아니라 100년 뒤의 토지 상황과도 만나야 한다. 아무것도 없는 벌판에 서있더라도 미래의 도시 한 복판에 서는 것과 관련된다. 또 하나의 기둥인 주제(용도)는 30년간의 경력으로 봐도 자주 바뀌는 편이다. 공공음악당 등은 계속 되겠지만 대부분의 건물은 용도가 바뀌고, 지난번에 보니 제주대학 본관의 경우처럼 사멸하기도 하고, 전혀 다른 기능으로 의미가 달라지게 된다. 주제 해석도 특별한 기능이나 필요 때문에 집을 짓지만, 이 필요나 기능은 언젠가 다른 기능이 된다. 현재를 만족시키는 것도 한계가 있고, 미래의 기능도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기능의 미래를 볼 수 있으려면, 만약에 주제의 근본적 의미로 되돌아간다면, 건축을 추상화시킬 수 있고, 건축의 원형까지 도달한다면, 시간적 변화 이전의 상태로 돌입할 수 있다. 과거, 현재와 미래의 토지에서 벌어질 이야기를 모아, 장차 변화에도 대응하고 미래에 대한 원형을 발견하기 위한 작업을 할 수 있다.

성: 오랜시간 동안, 존재할 만한 원형의 건축을 필요로 한다면, 그렇다면, 가벼운 변형은 무시될 수도 있겠다. 후에 더욱 잘 맞는 건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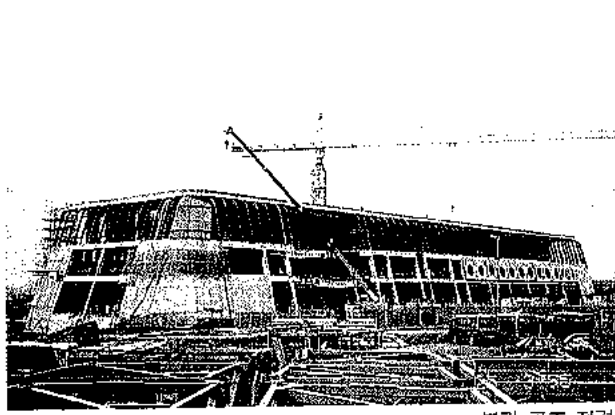


전경 모형

김: 탄현 스튜디오 같은 경우가... 그리고 이번 기회에 현상설계(설계경기)에 대하여 할 말이 있다. 이번 경우도 그러하지만, 보통 짧은 시간에 걸쳐 결정된다. 짧은 기회에 현상설계라는 이름으로 디자인이 결정되면, 이 결정에 묶이게 되는데, 만사를 현상설계로 처리하는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이런 종류의 천민 민주주의가 개탄스럽다. 유럽은 일이 적으니까 많은 건축가를 위하여 설계경기를 해도 무방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능력과 (건축)세계가 확실한 건축가에게 일을 맡기고, 일을 맡은 누구든 1~2년에 한 건하듯 성심껏 하면 되지 않겠는가? 현상설계(설계경기)를 벌여 10명이 10번의 경쟁을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탄현 스튜디오는 설계경기가 빨리 진행되었다. 좀 더 진지하게 진행되었으면, 좀 더 진실된 건축이 태어났을 것이다. 그러나 당선이란 면죄부로 일이 졸속으로 처리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개탄한다. 특히, 방송국 기능이 특별히 짧은 시간 안에 설계를 해야하고, 주최측이 자유롭게 트릭을 할 수 있는 경우도 해당되고,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설계비를 제한한다든지, 공사비를 산정케하고는 가격으로 시비를 건다거나, 명확한 프로그램을 제대로 주지 않고 불투명한 프로그램에 따라 재단한다든지 하는 일이 많다. 기술심사라는 명목으로 별것 아닌 논리로 작품에 대해 트집을 잡는 일은 진지한 건축을 위하여 방해가 된다. 몇년전에 IBC 지명현상시 김종업, 김수근 두 선생님이 출품하셔서, 개인적으로 출품을 포기하고 심사위원이 되었는데, 심사시 방송국에 대하여 직심하고 공부했다. 나는 기술심사는 하지만 본 심사는 참가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참가해도 기술적인 것만 지적하겠다고 주최측에 요구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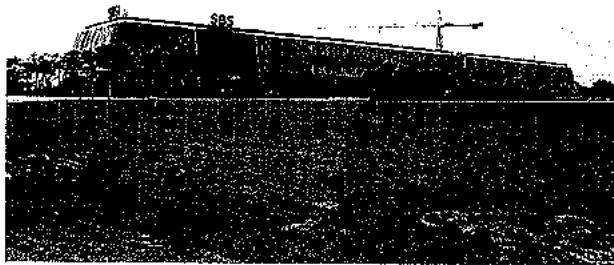


입구에서 본 전경



본관 골조 전경





운동장에서 본 전경

고, 방송국의 기술공부를 했던 적이 있었다. 스튜디오는 일종의 제작장이며 (오페라 무대가 최고의 제작장이며) 무대장치가 변환하는 장소이다. 스튜디오는 일종의 드라마 공장으로 소규모로 동시에 벌어지는 메커니즘이 다름 뿐이지 제작장이다. 제작장의 기능적 핵심은 특수상황이다. 어느 누구도 평상복으로는 드라마를 찍지 않는다. 만 들어 진 특수한 상황, 분장, 세트, 조명 아래서, 동선도 이에 따라야 한다. 그러한 상황에 대한 핵심을 알고 있으므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다. 하루에도 수십 편을 찍어야 하는, 고부가 공간으로 공간의 유동성이 커야 한다. 모든 것이 동일선상에서 움직여야 한다. 세트용 무대 재료도 가소성이 큰 것이 대부분이며 반복되어 재 사용되는 것이 많다. 기술공간도 한곳에 집약되어, 층별로 통합되어 하나의 라인 안에 있어야 한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옛날 KBS 1스튜디오 현상설계시 공부한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

성: 계획시 달라진 것이나 변경사항은 없었는지?

김: 달라진 것은 없었고, 우리가 시도한 욕심들이 모두 배제되었다. 사방이 넓게 트인 곳이라 욕상에 야외스튜디오를 만들려고 했다. 다른 팀들은 우리보다 두배 이상의 경비를 제안했고 우리는 적게 했는데도, 공사비를 많이 제약했다. 일반적으로 스튜디오는 닫힌공간에서 작업하는 공동체이지만 욕상에도 이런 공동체를 만들려 했다. 야외로 연장하여 일종의 스튜디오로 활용할 수 있는 주거단지내의 중정을 만들려 했다.

성: 건물의 전면부를 왜 성벽의 이미지를 필요로 했는가?

김: 성벽의 이미지?

성: 잡지 계획안 설명서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담당자의 시각이었는지?

김: 아파트 단지만 있는 큰 벌판에, 보통 볼 수 있는 입방체 모양의 집을 지어 공간을 잠식하지 않도록, 외부에 완강한 벽면을 두어 큰 기단을 형성하여, 도시에 대하여 반응하도록 했다. 주위 주거단지로 나타날 미래 도시에 대하여 기능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기단을 두려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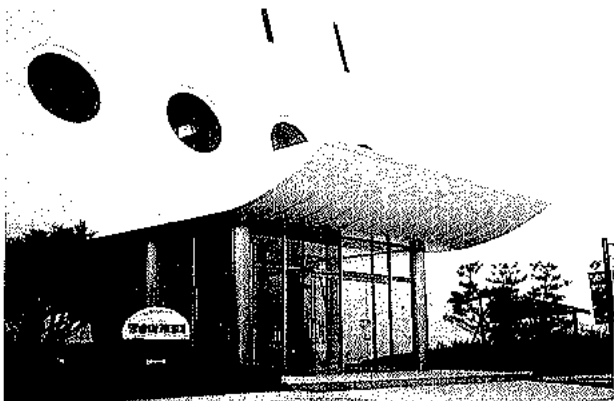
성: 다른 방송국에 대한 평가와 기술부의 처리는?

김: 다른 방송국에 비교해서 기술부를 밀집시킨 점이 특징이며, 드라마 스튜디오는 세팅이 일을 하고 있다. 출연자, 무대 및 세트제작자, 영상화 작업하는 기술자 등의 세부분의 공간을 독자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출연자들이 한층 안에서 완벽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일본 NHK를 가보면 출연자 5명 정도만 자가용으로 오는데, 우리는 대부분 모두 주차장으로 접근하므로, 건물 뒷부분 주차장 층에서 한층만 올라오면 전면부 1층 분장실, 연습실 등으로 바로 연결된다. 그 위 2층에 테크니션 포로어를 두었다. 무대장치들은 재사용하는 자재가 많으므로,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창고와 제작장을 잘 구비하였다. 그러한 요구에 대한 면적비례가 잘 만들어졌다고 본다. 스튜디오에 대한 설계자로서의 기본적 이해와 제작진과의 협조가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 일본이나 미국도 명확하게 한 곳이 적은 편이다. 전에 음악당에서, 로스트로포비치가 예술의 전망에 대하여, 기능적 측면에서 세계 유수한 여러 극장에서 달성하기 어려운, 배우들의 편리성에 만족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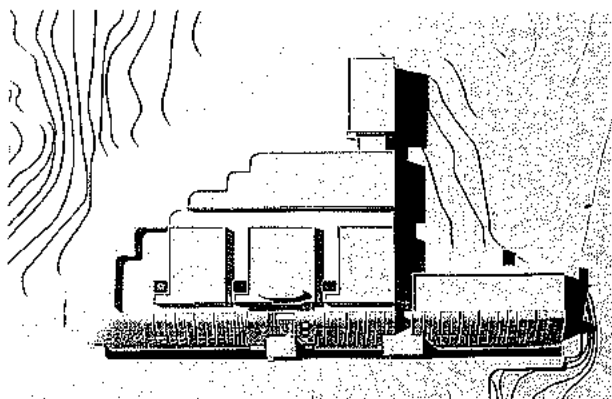
성: 공연시설이나 TV 스튜디오에 관한 기본적이고 기능적인 이해가 뛰어난 편이다. 과거 원형극장인 마당 등 공연시설과 비교하여...

김: 원형극장과 영상제작공장과는 관련 없다. 건물을 방호용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방송제작에도 편리하고 아파트 단지에도 상응할 만한 장소를 만들려 제안했었다. SBS 스튜디오 앞 운동장 빈땅에 도시적 기능을 마련하고 야외 세트나 옥외 스튜디오 작업도 이루어지는 문화공간을 만들고 싶었다. 그러나 SBS는 증축을 다른 곳에 맡길 정도로 우리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최근 서울에서 진행되는 월드컵을 계기로 한 문화공간을 확대하는 작업에 참여하여 시도하고 있다.

성: 경기도 탄현에 SBS 드라마 스튜디오를 설명하면서,



방송아카데미 출입구 캐노피



배치도 모형

아무런 역사적 배경도 갖지 않는 지역에 새로운 무대를 창출하는 것이 이 대지의 요구라고 했다. 동원된 고지도가 많은 의미를 지니지 못하듯이, 우리들의 땅과 건축은 잊혀지기 쉬운 속성들이 있다. 경기도 지방의 옛 지도로서 설명될 부분이 있는지?

김: 이번에는 경기도 고지도로부터 별로 얻은 것이 없다. 제주도 영화박물관을 할 때 땅을 이해하기 위하여, 헬기 기장이 비행하기 어렵다는 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헬기를 타고 제주도 상공에서 보니, 공간적 대지를 확대하고, 시간적 주제를 확대해서 대지를 바라볼 수 있었다. 한라산과 바다만 보이는 특이한 경향이 기억난다. 제주도에서 지도와 실화를 모으는 기획에 느낀 것은, 어떤 실화로든 그 자리가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자리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때 현장에서 그렇게 느꼈다. 그러나 탄현 드라마 스튜디오는 아무 사건도 없는 빈땅이었다. 시간성에서 얻는 것이 없었고, 스튜디오는 대형 공동체적 공간이라고 해석했다.

성: 도심보다는 교외에 세워지는 스튜디오로서의 차이나이에 대한 입장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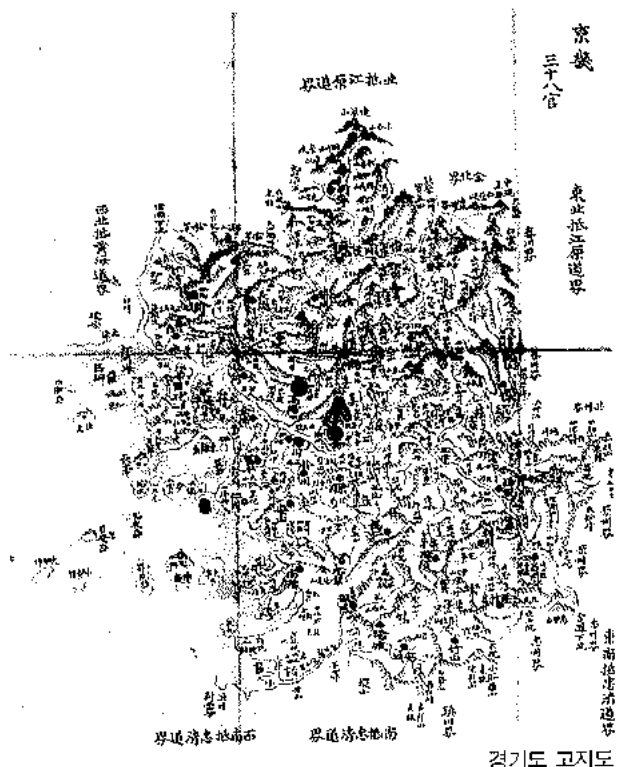
김: 도심지보다 한적한 야외 제작장이어서 다른 점이 있을 뿐이다. 일본의 경우도 변두리에 세워진 방송국 스튜디오는 출연료 비싸고 바쁜 탤런트들이 출연하는 등 비용부담이 있다고 들었다. 이번 경우에는 개인 분장실, 공용분장실 등을 최고로 하여, 바쁜 연예인들의 휴식장소를 만들려고 노력했다. 한편으로 기술진들의 상주시에 유리하다. 동일한 면에서 작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 세트를 제작하는 것도 그러하다. 엘리베이터로 만들어진 세트를 움직인다는 것은, 세트를 여러번 제작하는 것과 같을 만큼 불편한 것이다.

성: 랙 시스템은 프로그램의 요구였나?

김: 기본적으로 다 필요한 것이다.

성: 이탈리아 전시회때 베니스 고지도를 이용한 경우가 우리 고지도의 사용과 차이점은 없었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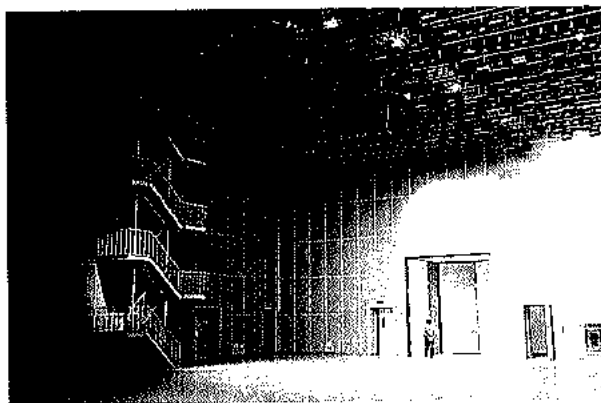
김: 베니스의 건축위원회 질문에 대답하기 위하여, 베니스에 대하여 간단히 생각하고 대강 공부하고 위원회에 임했는데, 5~6회의 위원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까다로운 질문들에 봉착하게 되었다. 도시국가 별로 지방자치의 역사가 오래 되었는데도, 문화재는 국가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고, 국가를 대표하는 문화재 심사위원회에서는 시간을 거스른 질문을 했다. "대지 이쪽에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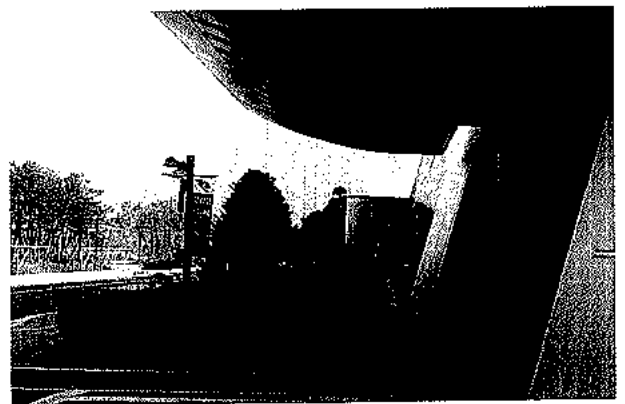
있는 나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이 있었는가 하면, 반면에 베니스시 도시계획팀으로부터 미래에 대하여, "50년 뒤에 이곳이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설계했느냐?" 등의 질문을 받았다. 한 1년여 동안 고생을 했다.

성: 피터 아이젠만이 설계한 오하이오 주립대학(OSU) 웨스너 시각예술센터의 경우, 기병대 요새의 잔해가 발견되고, 기초에서 발견된 당시 도시의 그리드가 현재의 대학이 위치한 칼럼버스가 채택한 그리드 각도와 12.25°가 틀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당시 기병대 요새의 외벽 단편을 벽돌로 다시 세워 기존 예술센터의 증축에 이용했는데 이를 통하여 해체주의를 설명하고 있다. 지하에 묻혀 있던 성벽에 있던 것과 같은 역사성이 가능한 지역이 있는가 하면 우리처럼 남아있는 것이 적어서 뒤섞을 것이 없는 경우, 근원적인 작업으로 그런 기억이 자리할 여유가 없는 지역이 있다.

김: 탄현 SBS 스튜디오는 역사적 흔적이 전혀 없는, 도시가 되어가는 곳의 미래에 있을 역사에 대하여, 기단



스튜디오 내부



연결 캐노피에서 본 본관 라운지 외부

으로서 건축적 반응을 한 것이다. 도시역사에 반응한 것은 아니지만, 장차 완성될 주변 주거단지의 미래모습에 대하여 기단과 옥상정원으로, 새로운 부도심인 도시를 위한 건축가의 반응이며 시도로 볼 수 있다.

성: 기술적 처리에 대하여 탁월한 면이 있지만, 한샘 사회공장의 경우도, 간척지 공단에서의 토지와 주제의 해석'에 의하면, 외벽 원형 창이 바다인 곳에 떠있는 것 같은 배의 이미지를 동원했다. 바다 위가 고정되지 않듯, 우리의 땅에는 시설물이 고정되어 남아있는 사례가 적거나 들과 논, 밭으로 남아있던 땅들이다. 땅과 관련되어 기록되거나 전해진 건축적 내용은 적고, 인간들의 모습이 복합적인 이미지의 영상으로 떠오른다. 이럴 경우 어떤 이론이나 건축적 설정이 가능할까?

김: 처음에는 바다였던 곳이고 바로 배가 보였다. 한때 부산에서 살아 배에 대한 이미지가 강하다. 언젠가 어릴 때 부산에서 광복동에 심부름 갔다가 자갈치시장에서 배에 홀려서, 집에 간단히 연락하고 14시간 배를 타고 여수까지 가서 그곳에서 하룻밤 자고 돌아온 기억이 있다. 단지 배에 반해서 말이다. 전에는 바다 매립지였던 곳에 부엌가구 자동화공장을 세운 것이다. 자동화공장은 천명이 일할 것을 대신 칠십명이 3교대로 일하는 곳이다. 낮에, 또 밤에도 출근하므로, 밤에 환상을 심어 주려고 시도한 것이다. 낮이나 밤이나 산업현장에서 계속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신경을 쓰려고 시도한 작품이다. 유럽에서 다녀 본 복제공장은 대부분 시끄러운 곳이었다. 먼지도 잘 흡수하고 사람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했었다. 중간부분에 행잉가든을 두려 했는데 시도가 미흡했다.

성: 공장에서도, 작업공간은 넓은 스파스로 크게 대응해야 하지만, 화장실, 매점 등은 적게 대응해야 할 부분이 있을 텐데, 무리하게 하나의 흐름을 고집한 형태가 아닌가 생각한다.

김: 그런 문제는, 건물은 50~100년 가야하므로, 변화될 소지가 있는 부분들은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기본적인 철학의 틀이 있으면 상세한 부분은 자체해도 될 것이다. 형태를 위해 기능을 희생하는 것과는 다르지만, 전체에 대한 비례로서 처리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그곳의 전시실은 가보셨는지?

성: 전시실은 지금은 사무실로 쓰고 있던데요.

김: 그러면 안되는데... 전시실을 만든 것도 2층 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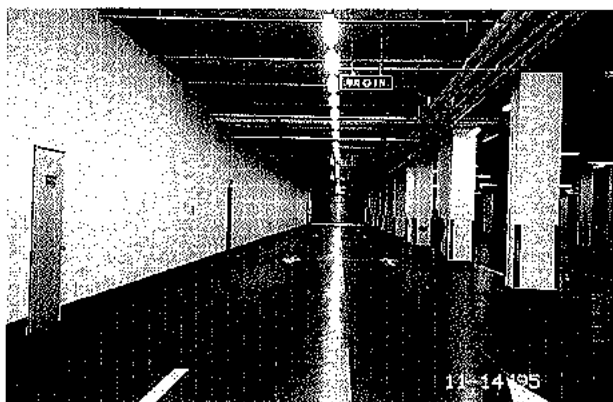
에 완성품을 전시하고 휴게실로도 사용하고, 대리점 사장님들에게 함께 만든다는 것을 보여 주는 곳으로 생각하고 만들었는데...

성: 사소한 문제지만, 재료에 대한 생각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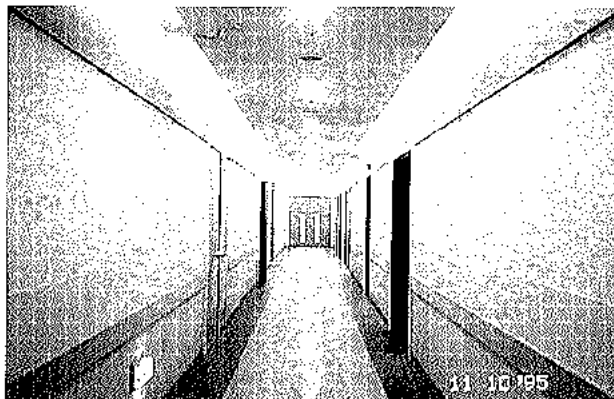
김: 납을 쓰고 싶은 이유는, 납이 금속재료 중에 제일 인간적 재료로 보았기 때문이다. 인간과 광물의 중간쯤으로 보았다. 지붕의 측면재료 납은 기술적으로 떨어져 나갔으니까, 잘못된 것인데, 시중에 납용접기술자가 없다. 디테일을 그려도 납땜을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다. 시공은 도면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악보는 하나지만, 연주는 연주자의 급에 따라 다른 음악이 된다. 하나의 건축이 잘되기 위하여, 한 국가가 위대한 건축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시공하는 이가 혼을 붙여 넣어야 하는데 잘못되는 부분이 많다.

성: 작업태도를 잘 설명한 말로 "주제는 의미론적 접근에 의한 사물의 핵심을 찾아내는 데서 시작하여 구체적 활동군의 양태를 조직화하고 정량화하는 구성론적 접근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주제에 관한 작업은 의미론에서 시작하여 통사론(구성론)으로 진행하는데, 어휘론에서 일단 결론이 날 것이다. 기본적인 어휘가 결과적으로 형태를 규정하는 것이 될 것이다. 통사론에 결정적 역할을 기대한다면, 이는 텍토닉(구축적 또는 구성적) 건축에 관련된 생각이 주요 설계인자가 아닐까? 즉, 건축가 김석철은 오브제 형태, 김중업처럼 실루엣으로 나타낼 수 있는 오브제로서 건축에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뉴욕 화이브의 리처드 마이어나 피터 아이젠만의 경우처럼 새로운 형태를 만드는 체계에 관심이 있다는 말로 해석된다. 이점에 대하여 이야기 해 달라. 건축적 도형으로 순수한 도형이 많이 등장하는 이유도 포함해서.

김: 인용한 문장 표현이 모호하긴 한데, 의미론적 접근으로 "TV스튜디오는 단편적인 장면들이 영상화하여 집합하는 곳"이라고 문장화되는 단계에까지 가야 한다. 작품을 만드는 사람들 군간에 분화가 전제된다. 출연자, 스튜디오, 제작장의 세 그룹으로, 다른 어휘로 나누었다. 시화 한샘공장은 한 지붕 안에 라인을 형성하여 집어넣었다. 작가에 따라 형태 속에 자주 사용하는 이디엄(Idiom, 관용어나 숙어)을 반복하는 경우도 있고, 일마다 새로운 논리에 의하여 자기 접근에 의해서 형상화가 가능하기도 하다. 비교적 나는 토지가 가지고 있는 역사성, 공간성, 대지, 또는 그 어디서부터든지 그 집을 특징



세트 제작장과 주차장을 분리하는 실내 주차 통로



병원 복도(세트)

지우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에서부터 건축이 시작된다. 삶을 담는 용기이므로 이미지만으로 접근하는 것은 어렵다.

성: 건축을 결정하는 핵심이 땅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작업이 진행되는 것인지.

김: 탄현 스튜디오가 시화공장 같았으면, 세 토막으로 분절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무런 스토리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스스로 대화 체계를 갖추도록 매스를 분절하였다.

성: 잃어버린 공동체에 대한 생각은, 공동주택에서는 마당으로, 예술의 전당에서는 거리라는 공간적 요소로서 계속 나타난다. 마당에 대한 끝없는 열망은 현 사옥이 주택으로 계속 쓰이지 않는 것처럼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어 진행되고 있다. 복합형식의 집합주택에서 “속에 빛의 우물을 가진 거대한 괴체를 생각한 것”(강변빌라)이라 했고, 이런 모습은 나드리 인터내셔널이나, 제주 영화 박물관에서도 그러하다. 건축 내부에서 빛이라고 하는 요소가 중요하고, 예술의 전당 등 문화시설에서는 거리라는 요소가 중요하다. 예술의 전당 내부 문화의 거리를 한정시키기 위하여 외부 도로변에 의도적으로 무심하게 처리한 벽을 지니고 있다.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접근처리를 통하여 주장하는 것은 우리의 원초적, 근본적 공간에 대한 믿음이 전제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초기의 신념에는 지금까지 변함이 없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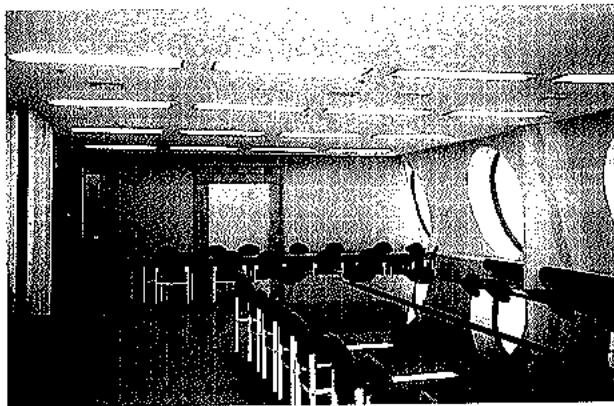
김: 일련의 건축행위 중에 두 가지를 극명하게 분리하여 생각하고 있다. 공공영역의 건축과 사적인 건축이 그것이다. 공공영역의 건축에서는 도시와 하나가 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예로, 명보극장에서 로비를 주위 상가에 개방되게 내부공간을 외부로 개방하여, 명보극장 주위가 살았다고 주위 상가들이 좋아한다는 평을 들었다. 내부를 외부에 드러나게 했다. 예술의 전당 안에 숲을 만들고 그 안에 길을 만들려 했다. 고속도로 같은 통과도로 상에서 암시되는 틈으로 흡수되는 그런 거리를 만들려 했다. 크고 작은 아파트가 내부공간에 있어 크기만 다르지 내용은 같다. 사적건축인 내부공간에,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공간, 그들만의 공간을 만들려 한다. 사적인 건축은 공용공간이나 공유하는 부분이 적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중요한 것은 건축과 자연과 교감하고 접촉하는 일이다. 대구 가든테라스에서 그렇게 노력했다. 또 네세대 공용의 광장도 시도했다.

성: 산마르코 광장은 사방에서 접근이 가능하고, 동선 상으로 바다로 꺼져 바라보는 장면이 아름답다. 이에 비해 예술의 전당은 고립하는 내부광장에서 꺼져서 틈새로 바깥의 도시를 바다처럼 바라보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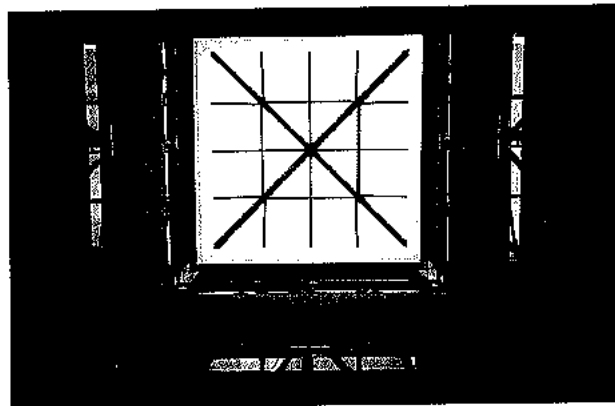
김: 서울에서는 예술의 전당은 섬 같은 곳이지만, 조사한 바로는 연간 100만명이 티켓을 사서 목적을 가지고 오는 곳이며, 200만명은 목적없이, 그곳에 공간이 있기에, 그 공간으로 온다. 산마르코에는 싹틔줄처럼 도시로부터 그곳에 모여드는 흐름이 있다. 예술의 전당은 남쪽에 일체의 건물이 들어서지 못하게 된 곳으로 차단된 곳에 단지 내 거리를 만들어 내는 상황이었다.

성: 개인적으로 김수근, 김중업 두 건축가를 만다라와 비교하여 설명한 적이 있다. 즉, 김수근은 태장계만다라의 속성, 김중업은 금강계만다라의 속성을 지녔다고 보았다. 태장계에서는 내부공간의 속성을, 금강계에서는 외부형태의 속성을 대비시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확하지 않다 하더라도, 두분의 대비되는 건축적 모습을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김: 흥미로운 지적인데, 두 분에 대해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개인적 역사가 있다. 대학 3학년 때부터 3년간, 후에 군에 다녀와서 1년간 김중업선생을 모셨는데, 일반적으로 꼬르뷔제 영향을 받은 그분도 건축적 성격이 형성중이었고, 르 꼬르뷔제의 영향을 벗어나는 작업으로서 제주대학을 했다. 그분에 대해서 그 이후에 모실 기회는 없었는데, 불란서 대사관 이후 연장 작업인 제주대학에서 변혁을 시도하고 난 뒤 특별한 건축이 없었다. 말기 작품인 IBC, 중소기업은행 이후 자기 자신을 추구하던 것이 좌절을 겪었다. 그 분이란 것 중에 초기작품에는, 의외라고 생각되는, 내부공간이 있었다. 별로 알려지지 않은 것에 그런 내부공간이 있었다. 꼬르뷔제에 대하여, 책으로 본 것은 상당히 이른데, 40대가 되어서야 르 꼬르뷔제 작품을 보면서 아! 하고 느낌이 드는 내부공간을 보았다. 늦게 보게 된 것이 꼬르뷔제의 내부공간이었다. 하기가 소피아, 술탄 아메드 모스크, 블루 모스크 등에도 물리적인 내부공간이 있지만, 그런 것 말고, 르 꼬르뷔제에게는 하나의 세계로서 '그의 세계'인 한 건축가의 내부공간이 있다. 즉, 지하에 있는 까타콤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그의 세계'가, 르 꼬르뷔제의 내면적 내부공간이 있다. 아주 부분적이지만, 공간으로부터 리리시즘"을 느낄 수 있는 시적공간이 있



연기 실습실



방송아카데미 홀 상부 천장

었다.

그 점을 좋아해서 김종업 선생에게 배우러 갔었는데, 그러나 안타깝게도 자기언어를 찾는 과정 중에 그러한 내부공간이 없어졌다. 대신 형태로부터 자신을 찾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 내면에서 오는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형태에 매달린 것이 아닐까? 자유곡선은 어느 누구도 흉내를 못내는 것이므로 이에 다 집착한 것이 아닐까? 선생께서 밤늦게 철학, 야망, 좌절을 토로하는 것을 오래 지켜보았다. 나중에는 자기를 찾는 작업이 후렴처럼 반복되었다.

성: 자기를 찾는 작업에서 내부공간이 없어졌다는 것이 흥미롭다.

김: 제주대학에서 보면 그러하다. 아무것도 없다.

성: 개인적으로 두 개의 만다라가 하나가 되는 양계만다라를 상정했고, 혼합한 형태의 양계만다라라는 개념으로 김석철의 건축을 해석하려 했었는데, 아직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는 편이다. 원론적인 것에 충실하여, 변형을 허락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다양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서 어렵다고 생각했다. 김수근의 건축에 비해서는 김석철의 건축은 어두운 내부공간 보다는 밝은 내부공간이 있고, 김종업 선생이 지닌 형태적 면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밝은 내부 공간과 드러나지 않는 외형적 형태'가 김석철의 건축 목표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김: 내가 하는 것은 시간을 두고 바라 볼 필요가 있다. 나는 건축가로서 성장과정중에 소년가장으로서 공백기가 있었고, 거론할 만한 것이 아직 없다. 그리고 계속 말을 잇자면, 군대 다녀와서 김수근 사무실로 옮겨서 직접 듣고, 작품도 보고, 배우면서 느낀 것은, 다른 스타일인데, 김수근은 건축을 큰 흐름으로 사람을 통해서 실현한 것이다. 김종업 선생이 일일이 스케치하는 것에 비해 김수근 선생은 여러 사람을 통해 만들어도, 만들어진 결과는 개성이 강한 것들이었다. 그것은 사용하는 이디엄(Idiom)이 있기 때문이다. 김수근 선생은 내부공간으로부터 외부형태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하나인 것으로 만드는 드문 능력'이 있다. 건축의 본질에서 본다면 내면으로서 갖고 있는 내부공간이 있다. 알려진 것 보다 건축가로서 더욱 집념이 있다고 느꼈었다.

성: 제가 건축문화 특집에서 다룬 것은, 두 가지 성질이 다른 성질이 아니라, 서로 강하게 드러나는 측면을 양, 음으로 비교한 것이었다. 사찰과 법당 안에서 탑은 김종업, 김수

근은 법당 안의 공간과 대비시켜 보았다. 소장님은 두분을 가까이서 경험한 적이 있으므로, 개인적 짐작으로 어느 성향이 김석철에게 더 나타나는가에 관심이 있었다. 본인은 스스로 어떤 분의 경향을 많이 지닌 것으로 생각하는지에 궁금해서 여쭙 것이었다.

김: 그리고, 두 분을 비교해서 보는 것은 아직 잘 모르겠다. 동시대를 어떻게 보아야 하고, 두분이 건축가들과의 공존보다는, 탈출해서 다른 문화계 인사들과 함께 지낸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아야 할지.

성: 그 동안이 준비기간이었다면, 이제 건축가 김석철에게 기대를 해도 되겠다. 어제 밤에 생각한 용어로 '고고학과 미래파'의 내용을 모두 수용하는 용어로, 건축가 김석철을 "Radical" (근원적인, 급진적인)<sup>2)</sup>이라는 용어로 수식하면 어떤가 생각했다. 우리 사회에서 '급진적'이라는 의미로만 국한되어 잘못 쓰이는데, 다른 뜻으로 '근원적인' 용어로도 쓰인다고 사회학자들이 주장하기도 한다. 근원적인 것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 급진적인 양면적 성향을 보이게 되고, 유럽적인 상황은 본질로 파고들기 위해서,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그런 면이 나타난다. 새로운 형태는 끊임없이 과거와 충돌하게 되는 유럽 건축가들의 상황과 비교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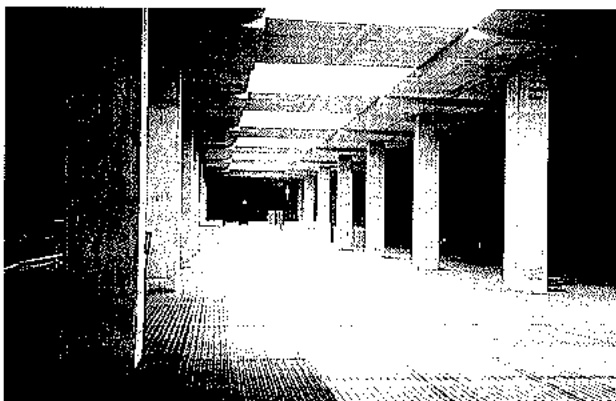
이런 의미로 건축가 김석철을 근원적 급진론의 건축가(Radical Architect)로 부를 수 있다. 이제 결론 삼아 말을 마쳐주시지요.

김: 최근에 자주 생각하는 것인데, 나이가 들어서, 나이라는 표현이 좀 우습지만, '아 이제는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무언가 보이려는 단계를 지나, 하면 될 것 같은' 행복한 예감이 든다. 늦게 독서하다가 자면서도 "내일 일 해야지, 일이 있구나" 하며 잠자리에 든다. 그리고 진행되는 몇 가지 일이 있는데, (새로운 스케치를 보여주며) 무언가를 예고해 준다. 평범한 것을 요구하는 중에도, 현실적 조건들이 나쁘더라도 탓하지 않고 모든 것을 받아들인 입장에서 일을 하려 한다. 연말에 책 세권을 출판사 세 곳에서 낼 예정인데, 거의 수동적이기는 하지만, 과거를 정리해 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이제 술을 안 마시려 한다. 새로운 정신으로, 행복한 느낌으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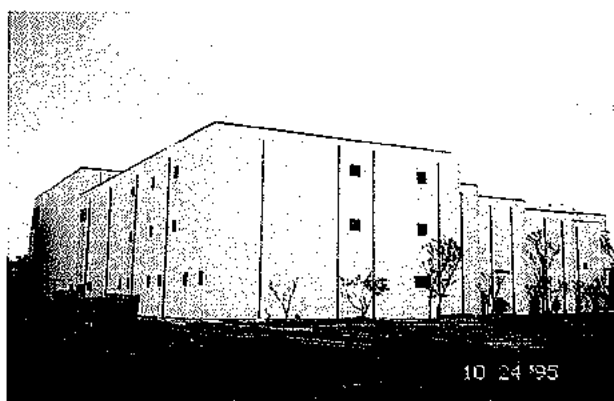
성: 원숙한 경지로 몰입해 가시는 듯 합니다.

김: (웃음으로 대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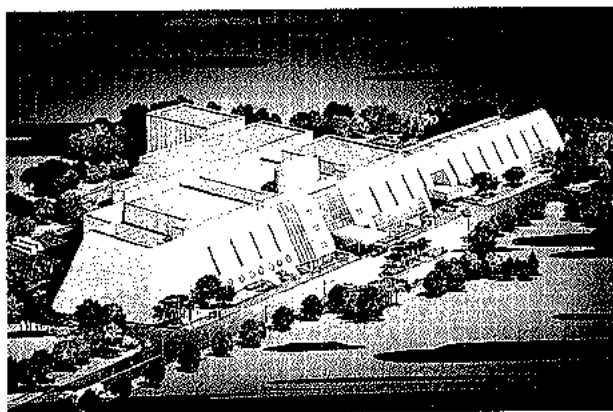
성: 건축대학원에서 강의를 하시니까 학생들이나, 또 최근에 개업을 한 소장 건축가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



천장이 있는 세트 창고



본관 배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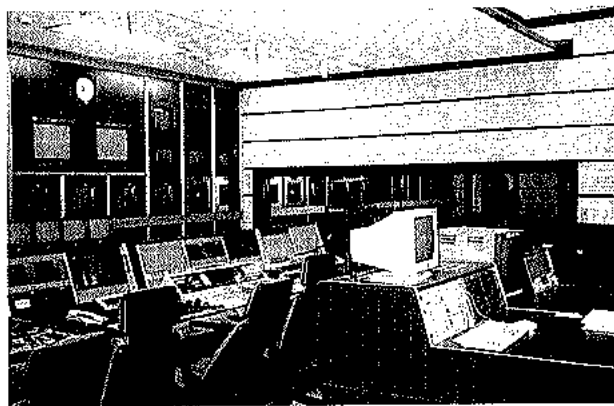


조감도

으면 말해 달라.

김: 엉겁결에 건국대학교 건축대학원에서 스튜디오를 맡아 학생들을 가까이서 설계를 지도하며 들여다보면서, 중요한 시기에 사사적 흐름이나 유행 등 엉뚱한 것에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다. 건축의 본질적인 질문에 등한시하고 또 건축은 집단적 삶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데도 물상적 사실에 대한 이해를 등한시한다. 즉, 극장의 경우, 영화를 위한 시선, 각도, 좌석과 출입, 관리 등 필요한 내용이 있는데 이런 공학적 훈련에 등한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잡지나 유행하는 작가에게 매몰돼서는 안되겠다. 한가지라도 자기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것을 확보하는 프로정신이 아쉽다. 그리고 한국문명에 대해 이해를 해야 하는데, 단지 고건축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쉽다. 몇년전에 어느 대기업에서 외국의 최고디자인 학교를 한국에 세우는 것에 대하여 물어 오기에, 이탈리아 교수가 한국의 시를 이해할 수 있을 때, 한국에 와서 미학을 가르칠 수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던 적이 있다. 한국 문명을 이해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건축가는 성직자와 같다. 남의 인생에 길게 책임지고 관여하는 일이므로 잘 못되면 남들이 비난하고 절제를 요구하는 것인지 모른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일이므로, 건축을 통해 사는 의미를 알게 한다면 건축의 일은 달성되는 것이다.

성: 학생들이나 젊은 건축가들이 한국문명에 대해 책임을 지기 위하여, 꼭 가봐야 할 만한 대상으로 들 수 있는 곳은?



방송 조정실 내부

김: 모스크바의 클레를린 광장과 내부를 통해 근대건축이나 그리스 정교건축, 바실리 사원 등이 있는, 불어 사용권의 문화를 지닌 유럽 후진국이었던, 당시 러시아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해보기를 권한다. 유럽과 다른 고유한 동유럽의 가치가 있다.

성: 동유럽, 비잔틴, 이슬람, 고아시아 등과 시베리아와의 관련성을 생각하면 우리는 미국 인디언도 생각해야 하지 않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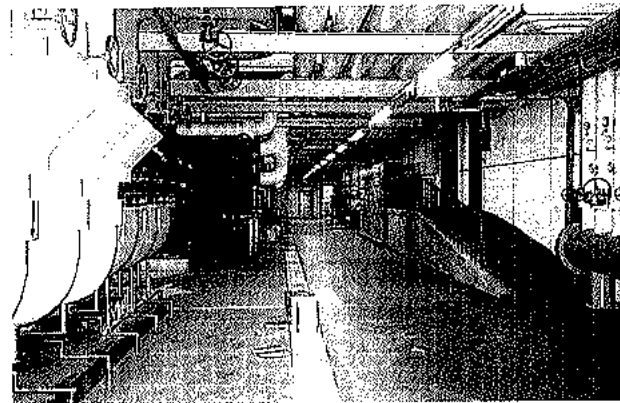
김: 백남준 선생이 나한테 한 말이 생각나는데, 한국은 스키타이 후손이고 본질적으로 유목민족의 성격이 있다. 한민족이 정체성 내부가 썩고 문제가 생긴다. 외부나 세계로 향하고 뻗어 나갈 때 나라가 커진다. 지금 세계적인 위치에 있는 한국 출신의 국제적 예술가들도 한국에 계속 있었다면, 그렇지 못했을 것이다. 그 동안 해외로의 도전 속에 한국의 산업발전이 있었고 미래도 있다고 생각한다. 신라가 교역이 많았고, 끊임없이 움직인 결과 삼국을 통일했다고 생각한다.

성: 중국과의 영향이 적었던 시기도 생각하고, 미국 원주민과 시베리아와 관계된 한국의 문명권을 포괄해서, 마야, 잉카까지 포함해서 세계와 건축을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마칠까요?

김: (웃음으로)

(인터뷰 대화에서 질문은 모두 존칭으로, 대답은 간혹 존칭으로 진행되었으나, 폭넓은 계층의 독자를 위하여 평이한 문장으로 정리하였음을 밝힌다.)

1. 리리시즘(Lyricism) : 문예작품을 서정적으로 나타내는 태도를 말하며, 여기서는 이런 태도로 건축물을 느끼는 것을 가리킴.
2. 사진적 의미를 추가하자면, ① 근원적인, 근본적인 ② (개혁 따위) 철저한, 극단적인 ③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변혁) 급진적 경향. 이때에는 종종 대문자로 Radical로 쓰인다. ④ 근저를 이루는 등의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의견, 신념, 행동 따위가 과격하거나 극단적인 것을 가리키는데, Radical은 특히 일의 근저까지 밝힌다는 뜻을 강조하고, 그것이 너무 철저하여 도를 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경우가 많다. (참고 : 시사영어사 랜덤하우스 영한대사전, 1891쪽)



기계실 내부

## 좋은 건물과 양식적 일치의 문제

The Problem of Good Architecture and Stylistic Consistency

임석재 / 이화여대 건축학과 교수  
by Yim Seock-Ja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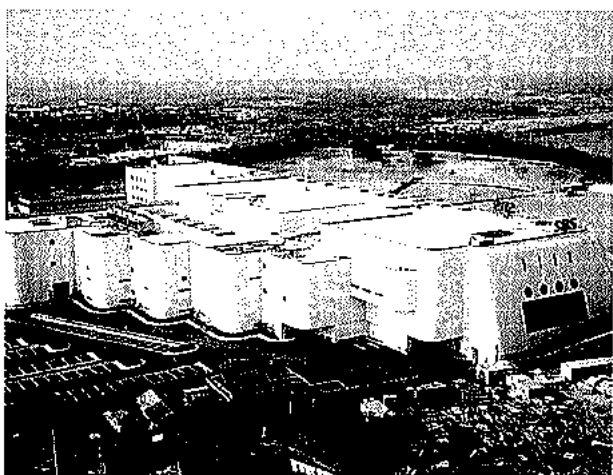
호리날 오후에 SBS 탄현제작센터를 찾았다. 일산을 벗어나 시골길로 접어들자 곧 왼편에 건물이 나타났다. 상당히 큰 덩치의 건물인데도 배를 얹어놓은 듯한 모습과 부드러운 곡선이 합쳐진 조형성 덕분에 전체적인 인상은 친숙하게 느껴졌다. 한 건물의 첫 인상이 이처럼 편한 느낌을 주는 경우는 흔치 않은 장점일 수 있지만 비평을 해야되는 사람입장에서는 애기거리가 없는 무난한 건물인 것 같아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건물을 가까이에서 보고 실내를 둘러보면서 중요한 논쟁거리를 하나 발견하였다. 이 건물에는 후기 모더니즘의 여러 양식어휘들이 혼재되어 쓰이고 있다는 점이 그것이었다. 한 건물을 양식사조에 맞추어 평가하기식으로 이해하는 시각은 그다지 좋은 감상법은 아닐 수도 있다. 왜냐하면 양식사조라는 것이 일부 식자들이 자신들의 편의를 위하여 임의적으로 정해놓은 발상난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편 양식사조에 맞춘 접근법이 유용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다음의 두가지 경우일 때 그러하다. 첫째는, 양식사조별 분류가 단순한 이름붙이기의 차원을 넘어 한 시대의 고민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환산되어질 수 있을 때이다. 둘째는, 건물에 명확히 구별되는 양식어휘가 쓰일 때이다. 이런 경우 양식사조별 접근은 많은 가정 위에 논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한층 풍부한 애기거리가 오갈 수 있게 된다. 이상과 같은 두가지 전제조건위에 SBS 탄현제작센터에 대한 양식사적 관찰을 통해 우리시

대의 몇가지 건축적 고민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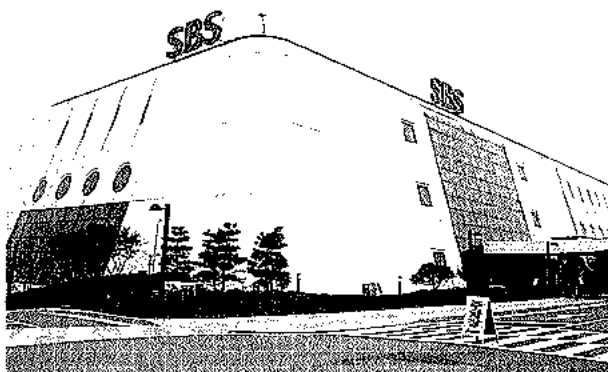
### I. 컨테이너 건축과 형태주의 문제

SBS 탄현제작센터는 외부에서 볼 때 앞쪽의 본체와 뒷쪽 지원공간의 두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능적으로 보아 이 두 영역사이에는 흔히 '유기적'이라고 불리우는 것 같은 긴밀한 연관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런데 작가는 이러한 두 영역을 각기 다른 조형개념으로 처리하였다. 즉 앞쪽의 본체는 컨테이너 건축(Container Architecture)으로, 그리고 뒷쪽의 지원공간은 곡선모서리가 반복되는 형태주의 개념으로 처리되어 있다. 이 각각의 처리는 그속에 담는 기능을 생각해 볼 때 적절한 선택인 것 같아 보인다. 또한 그 결과 전체적으로 완만한 곡선적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방문객들을 부드럽게 맞이하고 있어서 방송국의 이미지로는 알맞은 모양새를 갖춘 것 같다. 그런데 문제는 컨테이너 건축과 형태주의라는 두가지 조형개념이 서로 반대되는 기본건축관을 갖는다는 점이다. 컨테이너 건축과 형태주의는 모두 1960년대에 모더니즘의 한계상황에 대한 해결책으로 시도된 건축적 경향들이었다. 그러나 기본방향에 있어서 이 두 경향은 중요한 차이점을 갖는다. 즉, 컨테이너 건축은 모더니즘의 기본개념을 계승하는 가운데 이것을 수정하려는 입장이었던데 반해 형태주의는 모더니즘을 전면부정하며 시작된 반(反)모던운동이었던 것이다. 이 두가지 경향이 SBS 탄현제작센터에서는 언뜻 보기에 서로 유사해 보이는 조형적 결과물들을 내놓고 있지만 실은 시대상황에 대해 매우 다른 건축적 해답을 추구하던 이질적인 경향들이었다.

컨테이너 건축은 기능과 생산성을 제1결정 요소로 추구하던 국제주의 양식의 기본개념은 받아들이되 건물의 박스운곽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하이-모더니즘(High-Modernism)의 규율에서 벗어나 다양성을 추구하려는 경향이다. 하이-모더니즘의 대표적 건축가인 미스 반 데 로에는 건물의 구조적 구성방식이 그대로 형태요소로 쓰이는 처리기법을, 그리고 발터 그로피우스는 복도, 계단, 프로그램 구성 등과 같은 기능들이 형태를 결정하는 처



배면 전경



진입로에서 본 건물 본체부 전경. 컨테이너 건축을 이용한 배의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다.



리기법을 각각 건축적 규율로 제시하였다. 이 경우 건물의 박스윤곽은 이러한 규율적 기법들이 주어진 조건에 맞추어 분절되어 나가는 과정에서 형성되었다. 이에 반해 컨테이너 건축은 처음부터 커다란 박스(그야말로 컨테이너같은)를 먼저 설정한 후 그 안에 물건 담듯 기능을 포장해내려는 기본전략을 추구한다.

이것은 물론 구조단위나 기능 등과 같은 건물의 구성방식이 어떤식으로든지 외부에 표현되어야 한다는 하이-모더니즘의 강박관념에서 벗어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처리방식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여전히 기능과 구조의 효율을 위한 정형화된 건물구성은 박스형태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작용한다. 이런 점에서 컨테이너 건축은 기본적으로 모더니즘의 이상을 계승, 수정하려는 시대사적 입장을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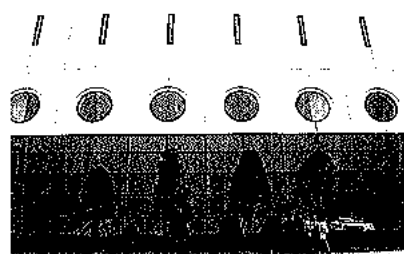
SBS 탄현제작센터에서 건물의 본체에 컨테이너 건축 개념을 적용한 처리는 적절한 아이디어 같아 보인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방송제작센터라는 건물의 특성상 규칙화시키기 어려운 다양한 크기의 공간들이 혼재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찾아야 할 것 같다. 이럴 경우 건물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외부에 표현하려다 보면 자칫 전체구성이 혼란스러워지는 문제점이 생기게 된다. 물론 이와같은 조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조형성을 건물의 주된 특징으로 추구할 수도 있지만 작가는 이러한 접근개념의 SBS 탄현제작센터에는 안맞는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 즉, 방송국이라는 건물의 이미지에 복잡한 형태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을 수 있다. 그 대신 작가는 단순하면서도 친근감을 주는 형태를 차용함으로써 SBS의 이미지 형성에 성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건물이 놓이는 터가 시골마을의 자연속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인공적인 '뿔부리기' 보다는 다소 투박해 보이는 '덩어리의 윤곽'이 더 적절해 보인다.

컨테이너건축은 기능과 구조방식으로부터 형태를 결정하려는 모더니즘건축의 시기가 지났음을 알리는 징조였다. 이것은 한 양식이 안정기에 접어든 이후에 나타나는 매너리즘단계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 결과 모더니즘건축의 정수인 박스건물이 이제 더이상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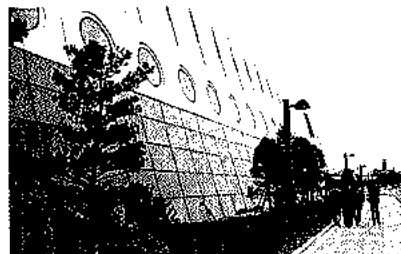
과 구조방식이라는 모더니즘적 고민들의 표상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하나의 완결된 외장어휘단위로 변해가는 단계에 접어들게 되었다. '박스의 양식화(Stylization)' 단계쯤으로 표현될 수 있는 컨테이너 건축은 박스를 자유로운 조형처리대상으로 파악하려 한다. 박스의 모서리한 거둥이를 바꾸는 데도 많은 조건들을 따져보던 모더니스트들의 진지함은 이제 도가 지나친 신중함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는 시기가 온 것이다.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런 종류의 고민들은 많이 축적이 되어 있어서 기성복 사입듯 손쉽게 차용할 수 있기 때문에 건축가들은 그 다음단계의 건축적 변별요소를 찾아나선 것일 수도 있다. 그 결과 컨테이너 건축가들은 창문사이의 매듭을 가능한 한 깨끗이 지운 커다란 유리덩어리로 건물을 구성하거나 배의 형상을 차용하는 등의 조형조작에 눈을 돌리게 되었다.

형태주의는 모더니즘의 박스건물에 대해 위와같은 컨테이너 건축보다는 좀 더 분명한 반대의 입장을 추구한다. 형태주의도 박스건물의 단조로움을 극복하려는 점에 있어서는 컨테이너 건축과 동일한 기본개념을 공유하지만 이것을 처리하는 방향에 있어서는 상반된 입장을 나타낸다. 좀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형태주의는 기능과 구조적 효율성을 제1결정요소로 추구한 모더니즘 건축의 기본가치체계에 대해 컨테이너 건축과 상반된 입장을 나타낸다. 즉, 컨테이너 건축은 박스건물의 단조로움을 없애려 하더라도 여전히 기능과 구조적 효율성을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삼는다. 이에 반해 형태주의는 조형성을 제1결정요소로 추구하며, 만약 조형성이 기능이나 구조적 효율성과 상치될 경우에는 전자를 위하여 후자를 희생하는 명확한 반(反)모더니즘적 입장을 갖는다. 이러한 배경하에 형태주의는 건물의 조형처리에 있어서도 컨테이너 건축보다는 훨씬 과격한 비정형 요소들을 차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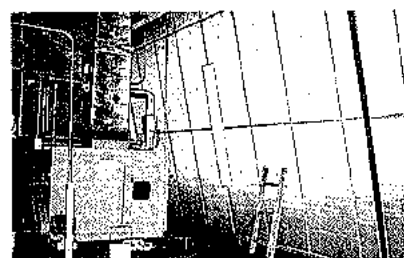
SBS 탄현제작센터에서는 세트창고와 소품창고를 담는 지원공간을 크고작은 곡선윤곽이 두드러진 형태주의 기법으로 처리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둥글둥글한 곡선으로 모서리를 깎아낸 여러매스들을 중첩시키는 조형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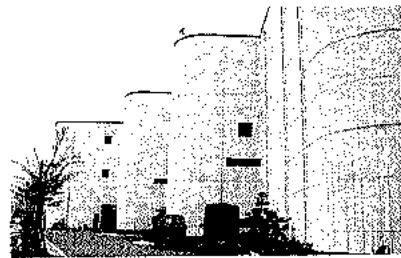
건물 본체부 정면



건물 본체부의 경사면



보일러실의 경사면



후면 지원공간에 쓰인 곡선형 매스



후면 지원공간에 쓰인 곡선형 매스

이 명확히 제시되고 있다. 이렇게 형성되는 지원공간의 형태윤곽은 분명히 박스건물과는 다른 조형적 멋을 주면서 형태주의의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지원공간에 쓰인 이러한 종류의 곡선어휘는 형태주의 경향에서는 가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어휘이기도 하다. 특히 SBS 탄현제작센터의 경우 이러한 곡선이 울동감과 친근감이라는 건물전체의 분위기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이 건물에 쓰인 형태주의 경향의 조형 기법은 그 자체로서는 무난하게 처리된 것 같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형태주의 기법을 콘테이너 건축과 병렬시켜 사용한 점에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형태주의와 콘테이너 건축은 기능과 구조성이라는 모더니즘건축의 핵심적 문제에 대해서 상반되는 입장을 갖는 경향들이다. 다른 한편 이 두 경향은 외형적으로는 유사한 모양을 만들어내는 공통점을 공유하기도 한다. 이 두 경향사이에는 이처럼 상호모순적인 이중적 관계가 존재하는데 작가는 이점에 대한 고민없이 형태적 동일성만을 위하여 두 경향을 혼용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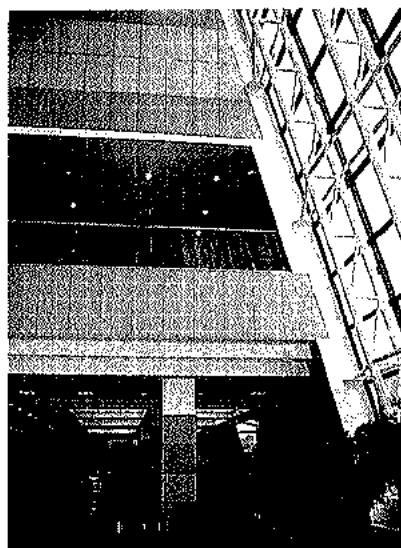
작가가 만들어내는 모든 결과물이 반드시 양식사적 고민위에서 추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서처럼 비교적 명확히 구분되는 양식적 어휘를 사용할 경우, 작가는 이것의 시대사적 의미에 대한 건축적 입장을 밝혀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자칫 작가는 모방논쟁에 휩쓸리기 쉽다. 특히 우리의 경우처럼 서양사조에 대해서 애증의 극단적 입장을 갖는 나라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SBS 탄현제작센터에서 작가는 상반되는 시대사적 입장을 갖는 양식경향을 섞어쓰는데 대해서 조형적 동일성이라는 시각적 목적 이외에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형태주의 기법으로 처리된 지원공간은 본체의 콘테이너 건축에 너무 맞추려다 형태주의 특유의 과감성을 상실한 것 같아 보인다. 사실 형태주의의 정수는 고도의 형태조작에서 오는 절실한 긴장감에 있다. 그런데 이 건물의 지원공간에 쓰인 곡선형태들은 분절, 반복, 높이변화 등의 기본적인 결정기준에 있어서 필연성이나 절실함이 결여되어 있다. 이런 문제점은, 한편으로는 본체와 지원공간에 상반되는 양식경향

을 혼용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두 영역의 기능이 맞물린 관계로 합일점을 찾아야 하는 이중적 입장에서 파생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해석은 기능의 우선순위상 지원공간을 본체에 종속시키려는 의도와 연관되어 볼 때 더욱 분명해진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이 건물에서는 형태주의 경향으로 처리된 지원공간과 콘테이너 건축으로 처리된 본체사이에 종속적 일치보다는 강한 대립적 긴장의 관계를 표현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 II. 기능과 이미지의 문제

SBS 탄현제작센터의 외부구성은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같이 잘 처리된 점과, 아쉬움이 남는 점의 양면적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실내에 들어가게 되면 이 건물은 매끄럽지 못한 처리가 더 많이 눈에 띈다. 이 내용은 크게 두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는 기능과 이미지사이의 상충문제이다. 이 건물의 본체는 배를 얹어놓은 것 같은 방주(Ark)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얻어지는 건물측면의 완만한 경사는 매우 친근한 분위기를 형성하면서 사람들에게 쉽게 접근하고 싶은 마음을 불러 일으킨다. 특히 배의 선실에서 차용한 원형창은 이러한 분위기를 배가시키면서 부둣가의 설레임과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심같은 것까지도 느끼게 해준다. 많은 건축가들이 이처럼 즐겁고 가벼운 느낌을 내기 위해 배의 이미지를 즐겨 사용하곤 한다. 그리고 SBS 탄현제작센터의 경우에도 배의 이미지를 적절히 사용하여 방송국이라는 건물의 특성에 맞는 분위기가 얻어지고 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사용자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러한 배의 이미지가 기능적 문제점들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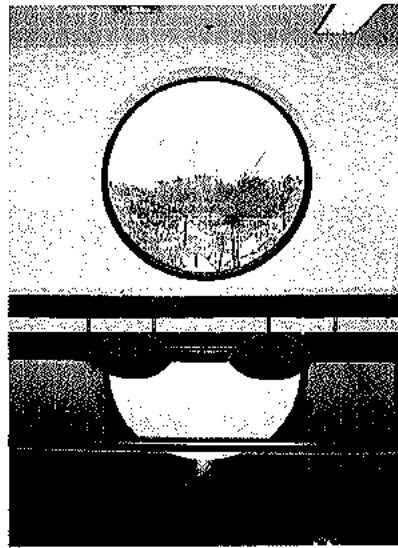
가장 큰 문제는 외벽을 경사지게 처리하였기 때문에 건물의 단부를 따라서 천정고가 확보되지 못한 채 죽은공간(Dead Space)이 나오는 점이다. 이러한 죽은공간은 각 층마다 100여평에 달하며 특히 기계설비시설이 놓이는 3층은 천정고가 사람키보다 더 큰 기계에 갖추어져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죽은공간이 건물의 양 끝부분을 따라서 버려져 있었다. 그 다음의 문제는 배의 이미지



로비에서 본 경사면



창 없는 방



고정창이 쓰인 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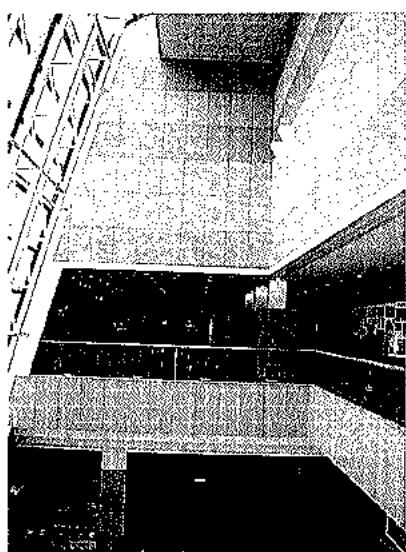
를 살리는데 초점을 맞추고 개구부를 만들었기 때문에 실내에 창을 전혀 못갖는 방들이 많이 생겨나게 된 점이다. 이러한 실내공간이 갖고 있는 문제점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없을 정도이다. 하루종일 햇볕도 못 받고 바깥경치도 못보며 강제환기 한 가지에 실내환경을 의존해야 한다. 창을 갖는 창중에서도 상당수는 고정창으로 처리되어서 환기에 문제가 많았다. 최근들어 실내 열환경을 비롯한 건축환경의 중요성이 더욱 커져가고 있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이러한 문제점들은 형태이미지를 얻기위해 치르는 대가치고는 너무 크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다. 마지막 문제점은 외벽이 정사면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우천시 먼지가 안씻겨 내려가고 앉아있으며 무릎이 닿아 청소가 힘든 등 사후관리(Maintenance)가 어렵다는 점이었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들이 배의 이미지를 차용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것들이었다. 형태이미지와 기능은 기본적으로 어느정도까지는 상충될 수 밖에 없으며 이중 어느쪽에 우선 순위를 둘 것인가는 쉽게 결정할 문제는 분명히 아니다. 좀 더 일반적으로 얘기하자면 건축가쪽에서는 아무리 완벽하게 기능을 만족시켰다고 생각해도 사용자 쪽에서의 불평은 늘 있게 마련이다. SBS탄현제작센터에서 작가가 배의 이미지를 도입할 경우 위와같은 문제점들이 생길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생각을 하고도 그러한 문제점들을 그냥 놔두었다면 그것은 작가가 기능보다는 형태이미지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판단은 작가의 건축철학에 속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존중해야 한다. 이와 반대로 작가가 위와같은 문제점들을 예측 못했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나는 더 이상 이 문제를 SBS 탄현제작센터의 작품성과 연관지어 옳고 그른 판정의 대상으로 몰고가고 싶지는 않다. 그 보다는 이러한 상충이 일어나게된 이유에 대한 나름대로의 진단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 내용은 바로 이 건물의 실내처리가 매끄럽지 못한 두번째 내용에 해당된다.

즉 둘째는, 작가가 콘테이너 건축의 의미를 깊이있게 생각해보지 않고 배의 형태를 만들기 위해 표피를 씌울

목적으로만 차용한 것 같은 느낌을 갖는다. 콘테이너 건축은 기본적으로 기능을 제1결정요소로 추구하는 모더니즘의 연장선상에 놓인 경향이다. 이것은 콘테이너의 표피를 씌울때 기능과 형태사이의 상충이 일어나게되면 기능에 우선권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SBS 탄현제작센터에서는 콘테이너 건축을 차용하면서도 이 문제에 있어서는 형태주의적 입장을 취하는 불일치를 보여준다. 이렇게 보았을 때 작가는 콘테이너 건축을 형태주의의 일부분으로 이해한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다. 사실 작가의 이런 입장은 실내처리에서 더욱 명확히 드러난다. 콘테이너 건축은 모더니즘의 기능주의 건축관을 이어받는 과정에서 기능의 의미를 공간적으로 새롭게 정의해 내어 실내에 다양한 공간구조를 만들어 내려는 건축관을 갖는다. 이것은 물론 흔히 얘기하는 독단주의적 모더니즘(Dogmatic Modernism)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 결과 콘테이너 건축은 건물의 외부를 단순한 형태의 덩어리로 처리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실내에는 다양한 공간의 파노라마를 연출한다. 예를 들면, 기능을 기본 유닛의 반복이라는 공간적 의미로 해석해 내기도 하고 혹은 복층과 단층사이의 공간적 조합이 시도되기도 한다. 사전에 치밀한 계산에 의해 불력을 끼워넣듯 다양한 실내공간이 형성되기도 한다. 콘테이너 건축의 표피가 대량생산의 이미지로 포장될 경우 실내도 역시 동일한 모티브에 의해 구성된다.

독단주의적 의미만을 갖던 기능을 이렇게 다양한 공간적 개념으로 해석하려는 시도는 물론 후기산업시대의 사회기능분화현상이 건축분야에 반영된 결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리고 모더니즘에 대한 이처럼 다양한 고민을 모두 담아내는 콘테이너의 기능은 시대적으로 보아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즉 콘테이너건축은 복잡해져가는 후기근대기의 시대적 이미지들을 자질하게 분화하려는 다원주의적 시도에 반대하여 이 보다는 이것들을 기술생산의 이미지라는 보편적 기준에 의해 하나로 묶으려는 시대적 입장을 갖는다. 후기근대기에 접어들면서 전문영역별로 행태기능들이 다양, 세분해지고 있지만 콘테이너 건축은 이러한 복합적 공간기능을 일일이 외부에 표출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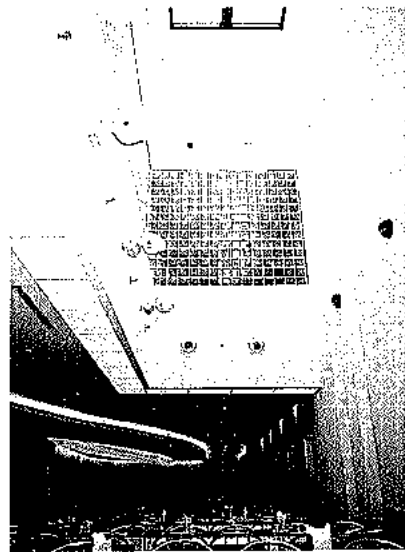


로비에 쓰인 석재



휴게실과 로비에 쓰인 석재

2층의 내벽과 천장에 쓰인 곡선



식당에 쓰인 장방형 우물천장

기 보다는 보자기로 씨뚫 큰덩어리로 감싸버리려는 기본 건축관을 갖는다. 마치 콘테이너 안에 온갖 물건들이 층층이 담겨지듯이 말이다. 그리고 SBS 탄현제작센터는 프로그램의 구성상 이러한 콘테이너 건축적 구성이 적용되기에 적합한 건물타입이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건물 앞에 섰을 때 콘테이너 건축으로 외관이 짜여진것을 보고 필자는 실내구성에 큰 기대를 걸었다. 그러나 실내구성은 독단주의적 모더니즘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사용자들로부터 절묘함 때문에 기능에 문제가 많다는 불만을 들으면서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어 갔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었다. 실내 구성구역을 다니면서 나는 또 다른 문제점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양식적 일치'라는 문제였다.

### III. 좋은 건물의 기준과 양식적 일치의 문제

SBS 탄현제작센터의 이방 저방을 다니면서 느낀 가장 큰 당혹감은 여러 양식사조의 이취들이 무분별하게 차용되고 있는 점이었다. 이것은 '양식적 불일치'라는 개념에 의해 판단될 수 있는 문제이다. SBS 탄현제작센터에서는 건물의 외부와 외부사이, 그리고 다시 내부의 여러 곳 사이에 일치감이 결여된 다양한 양식어휘들이 혼재되어 있다. 몇가지 예를 들어보면, 우선 포스트모더니즘어휘의 사용이 가장 눈에 띈다. 석재의 색채와 마감상태를 다양화시켜 장식효과를 노린 점(물론 우리나라의 경우 석재종류가 많지 않아 그 효과가 미미하긴 하지만)과 복도에 포스트 모던풍의 색채조합(예를들면 옥색과 자주색의 조합)이 쓰인 점 등이 이것의 대표적 예가 될 것이다. 이외에도 로버트 스텐(Robert Stern)이 즐겨쓰던 '꼭선으로 천장 찢기' 어휘도 2층의 일부분과 식당 등에 쓰였다. 식당에는 이외에도 리차드마이어(Richard Meier)식의 형태주의 공간구성기법이 쓰이기도 하였으며 뎀프스그룹(Memphis Group)의 소품어휘들이 장식물로 군데군데 채워졌다. 복도의 일부에서는 고전주의적 모뉴멘탈리티가 느껴지기도 하였다. 계단난간에는 하이-테크 건축의 디테일이 쓰였는데 정작 계단슬라브는 하이-테크건축과 아무 상관없는 단순구조물이었다.

이처럼 SBS 탄현제작센터의 실내에는 여러 양식어휘

들이 혼재되어 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것들이 이 건물을 구성하는 가장 큰 개념인 콘테이너 건축과 아무런 유기적 연관성을 못 갖는다는 점이다. 콘테이너 건축은 그 나름대로 실내공간 처리기법과 실내어휘를 갖는다. 포스트 모더니즘 역시 그러하고 마이어의 형태주의 역시 그러하다. 스텐이 천장을 꼭선으로 찢었을때는 꽤 절실한 이유가 있었고, 그것은 당연히 건물의 가장 큰 틀과 유기적으로 동일한 존재이유를 갖는 어휘였다. 장미꽃에는 장미의 잎과 장미의 줄기가 어울린다는 자연의 교훈은 어느 시대나 작가에게는 가장 무거운 시금석이였다. 물론 이러한 자연의 교훈을 깨려는 반(反)디자인 운동이 일고 있긴 하지만 SBS 탄현제작센터는 반 디자인 운동의 건물은 아니다. SBS 탄현제작센터에서는 심한 양식적 불일치가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외국작가를 모방한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다분하다.

SBS 탄현제작센터는 좋은 건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좋은 건물에 대한 기준은 여러 겹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SBS 탄현제작센터는 매우 부드럽고 부담없는 첫 인상을 주어서 좋았다. 그러나 동시에 꼼꼼이 따져본 결과 위와같은 아쉬움도 함께 남는 건물이었다. 현존하는 작가의 건물을 양식사적으로 토막내어 이름표 붙이듯이 해석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 특히 양식사적 기준에 의해 한 건물이 평가되었을 경우 그것은 그러한 지식을 공유한 극히 일부분 사람들만의 공허한 지적유희로 끝나버릴 위험성이 많다. 그러나 양식사적 해석관점이 한 시대의 가치체계를 건축적 의미로 물어보려는 집합적 문화현상의 역할을 해 낼 수 있다면 매우 유용한 기여를 할 수도 있다. 서구건축과의 경계가 거의 지워져 가고 있고, 다른한편으로는 우리만의 양식이 창작되지 못하고 있는 요즈음의 상황이 한국 건축가들에게는 안팎으로 시달리는 어려운 시기에 해당될 것이다. 이런 가운데 서구건축의 정확한 이해는 최선책은 못될지언정 차선책은 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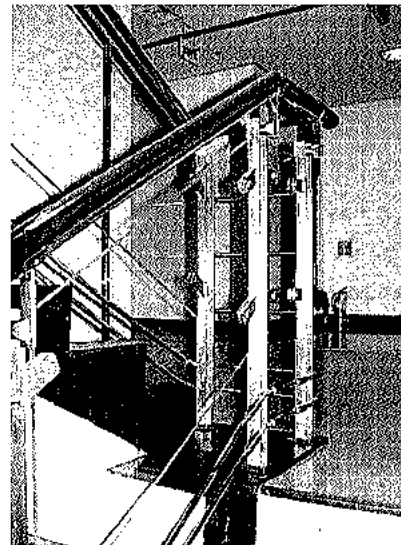
식당 소품디자인



복도의 색채 조합



복도에서 느껴지는 고전적 모뉴멘탈리티



계단 난간에 쓰인 하이-테크 건축의 디테일

Work

회원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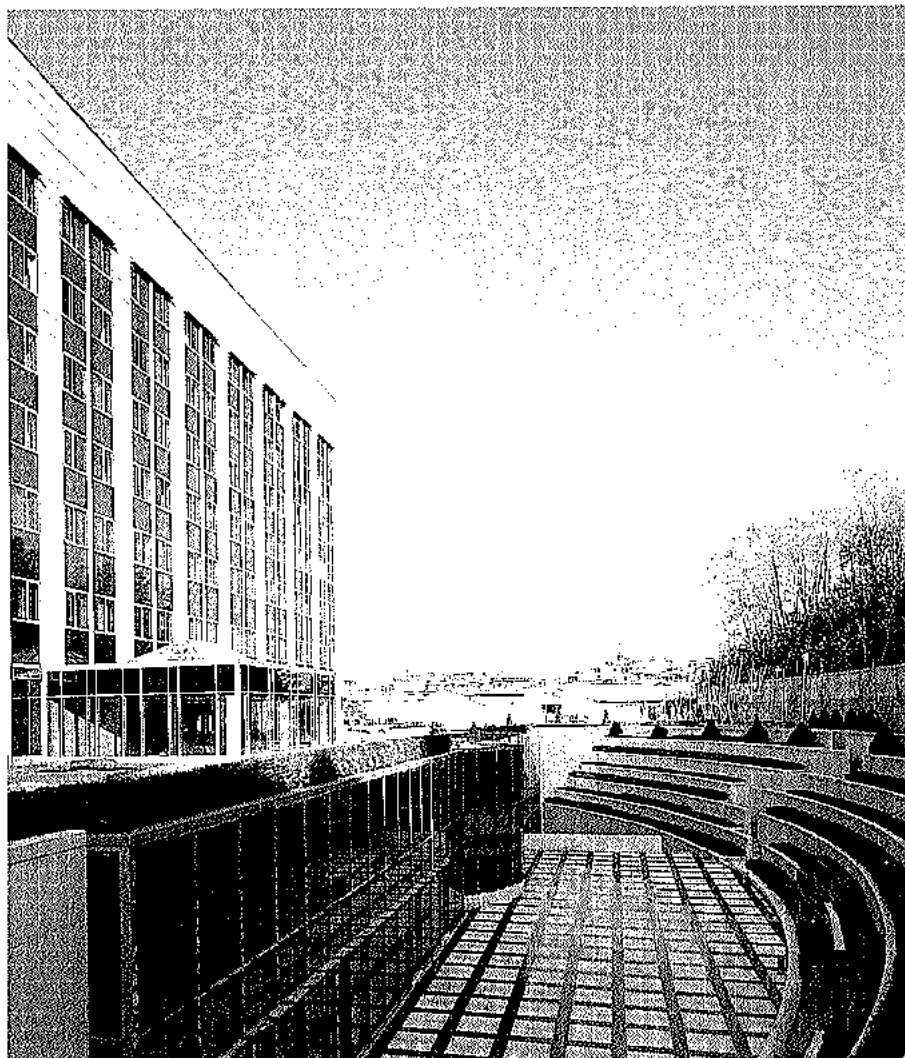
# (주) 농심 신대방동 사옥

Nongshim Co., Ltd. Building

송기덕 / (주) 정일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Song Kee-Duk

위치 /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370-1외 5필지  
 지역 · 지구 / 일반주거지역, 주차장정비지구, 2종미관지구  
 대지면적 / 31,752.00㎡(9,605.00평)  
 건축면적 / 3,328.47㎡(1,006.90평)  
 연면적 / 36,251.76㎡(10,966.16평)  
 건폐율 / 24.73%  
 용적률 / 78.63%  
 규모 / 지하 2층, 지상 8층  
 구조 / 철골 · 철근 콘크리트조  
 최고높이 / 35.13m  
 층고 / 기준층 4.0m  
 주요설비방식 / 중앙 냉 · 난방  
 주요용도 / 업무시설  
 외부마감 / 벽 · 화강석 바너구이, 24mm 컬러복층유리  
 내부마감 / 바닥 - OA폴로아, 카펫 타일  
 벽 - 석고보드 위 뿔칠형 페인트  
 천장 - 암면텍스 TH 바  
 주차대수 / 371대  
 조경면적 / 4,832.24㎡  
 설계담당 / 건축 · 변재성, 신미아  
 설비 · 공저성  
 건축주 / (주) 농심  
 공사기간 / 94. 9 ~ 96. 9  
 시공자 / 삼성중공업  
 구조설계 / 동양구조  
 설비 / 농심데이터시스템  
 인테리어 / 지하 1층, 1층, 지상 7층 - 텍토닉  
 지상 2 ~ 6층 - 카본 데일  
 조경 / 외부 - 중앙개발  
 실내 - 그린미아스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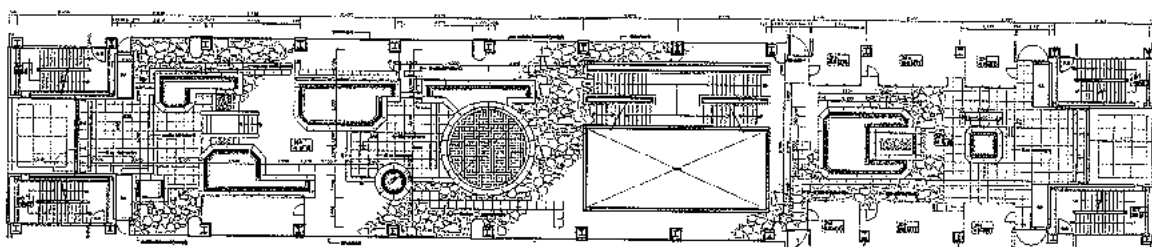


남측 및 선큰



북측정면





아트룸평면상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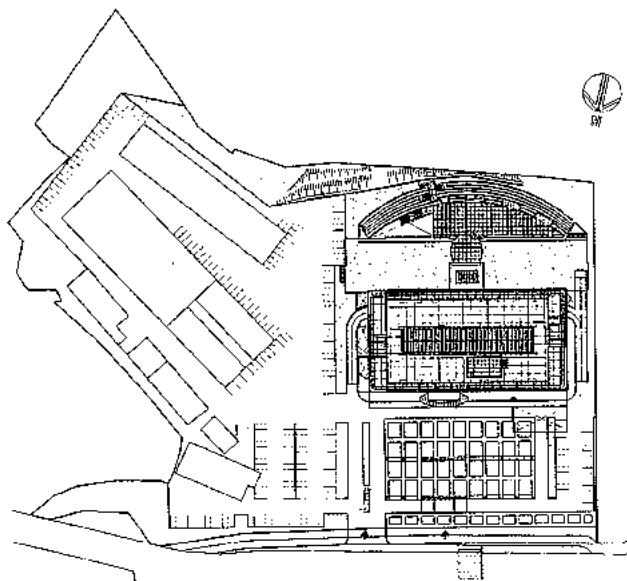
서측 야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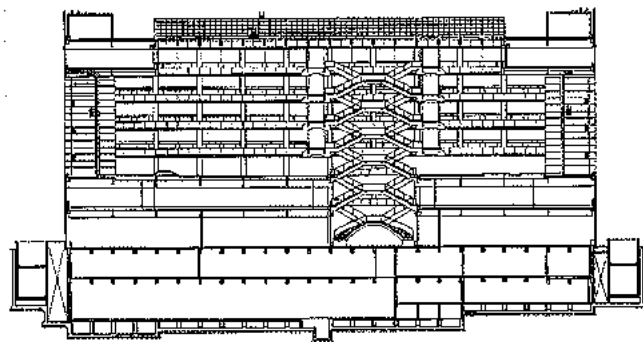
1층 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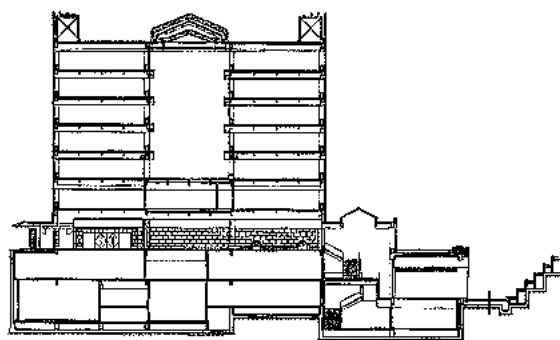
지하층 식당에서 본 남측 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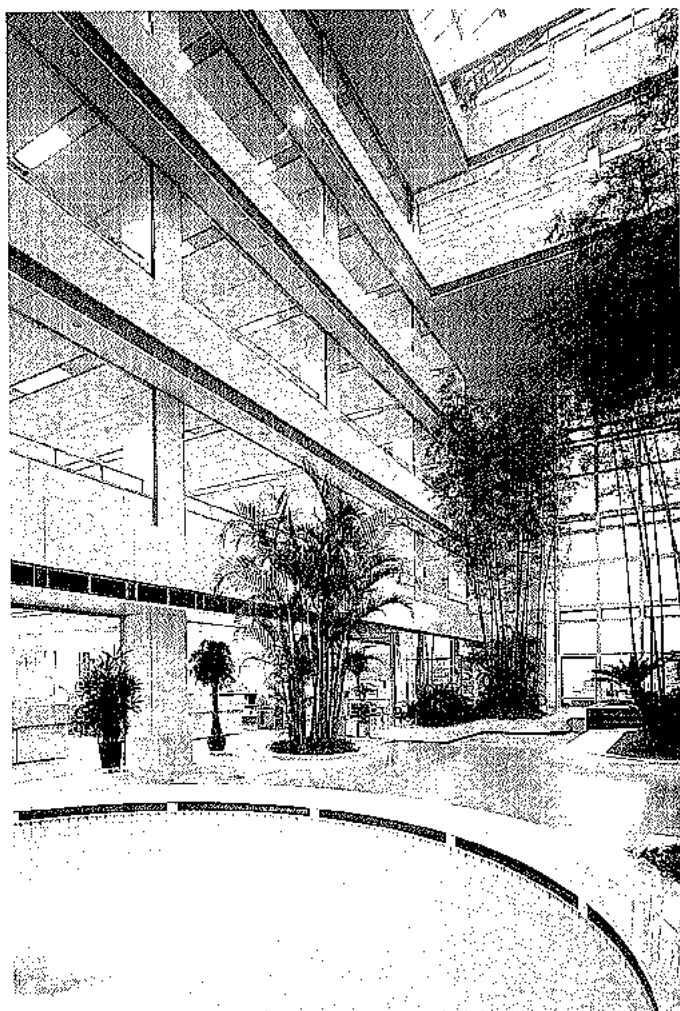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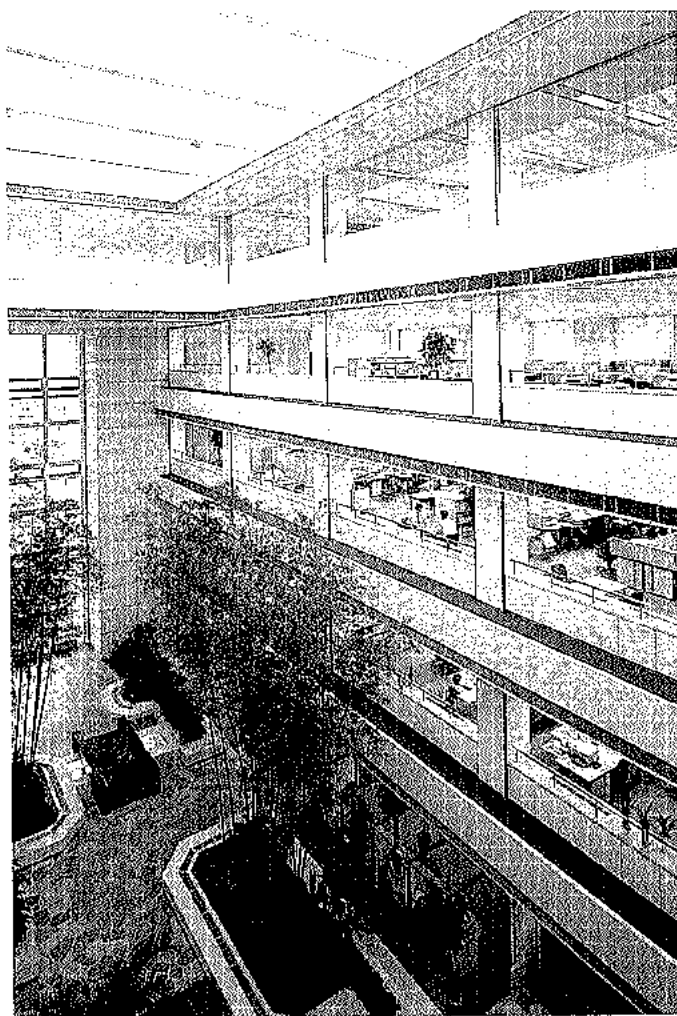
형단면도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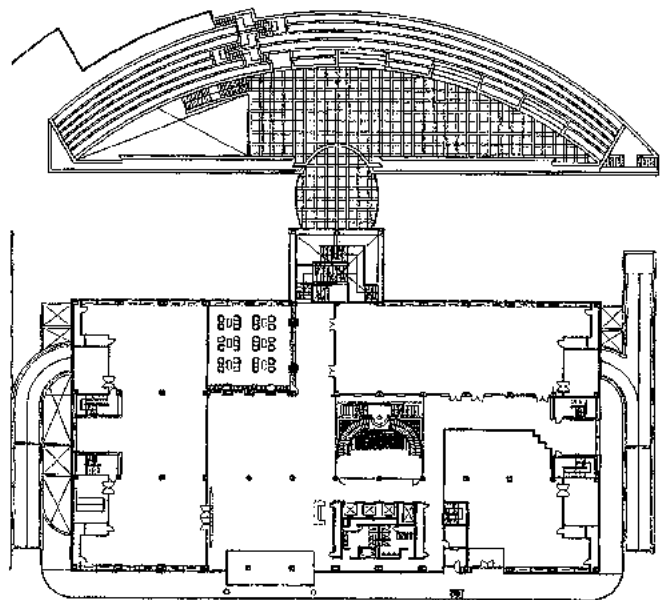


아트리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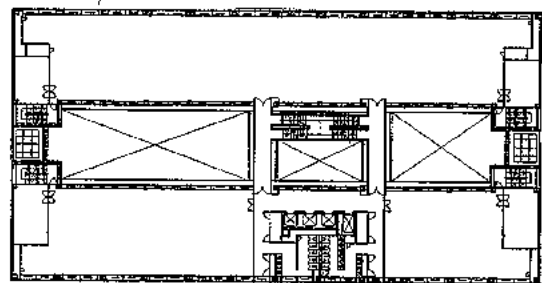


아트리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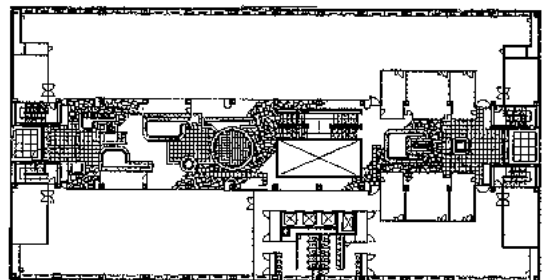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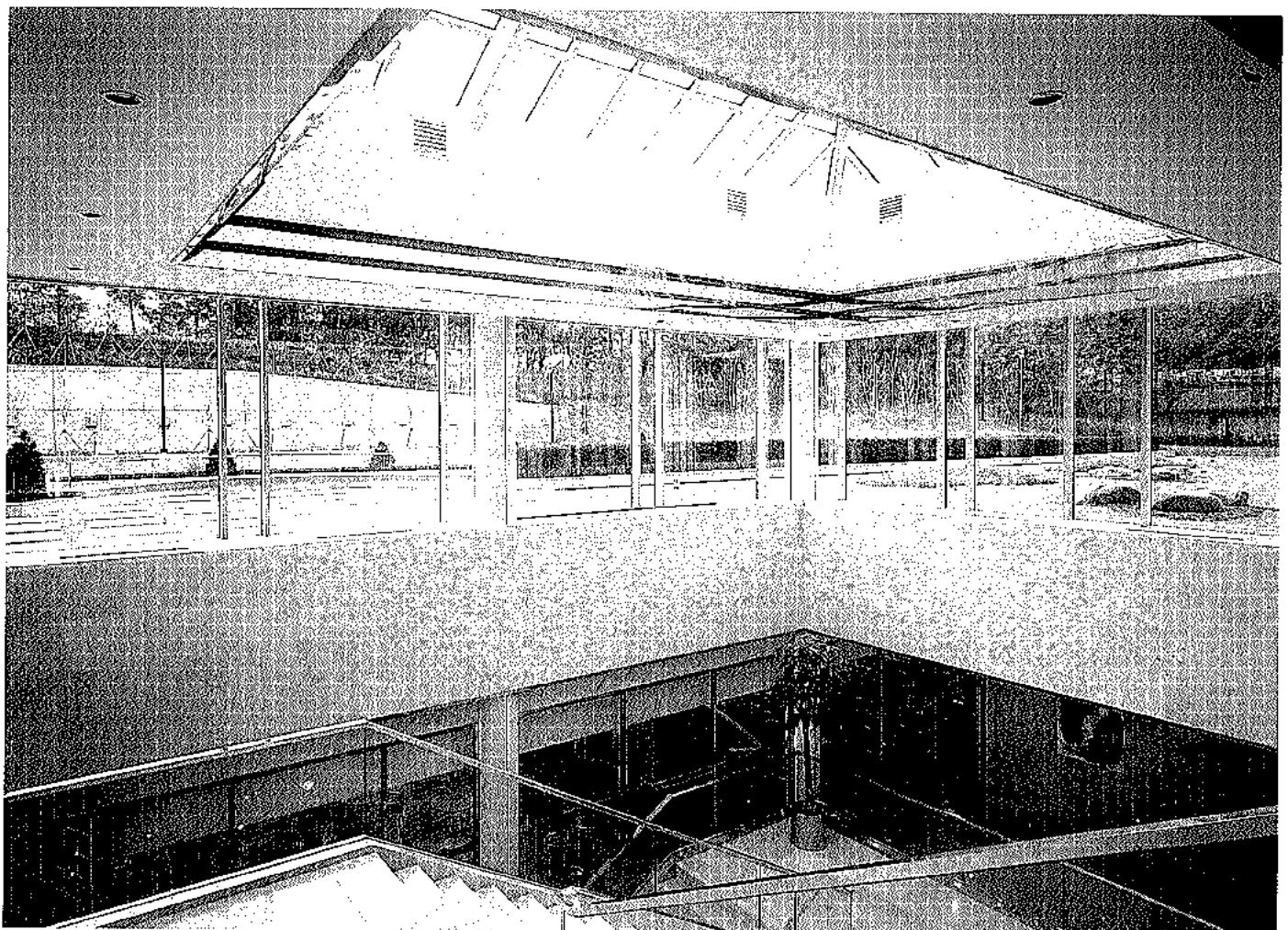
1층 평면도



기준층 평면도



3층 평면도



남측 로비에서 지하식당 내려가는 계단 및 천장  
건축사 9612 69

Wor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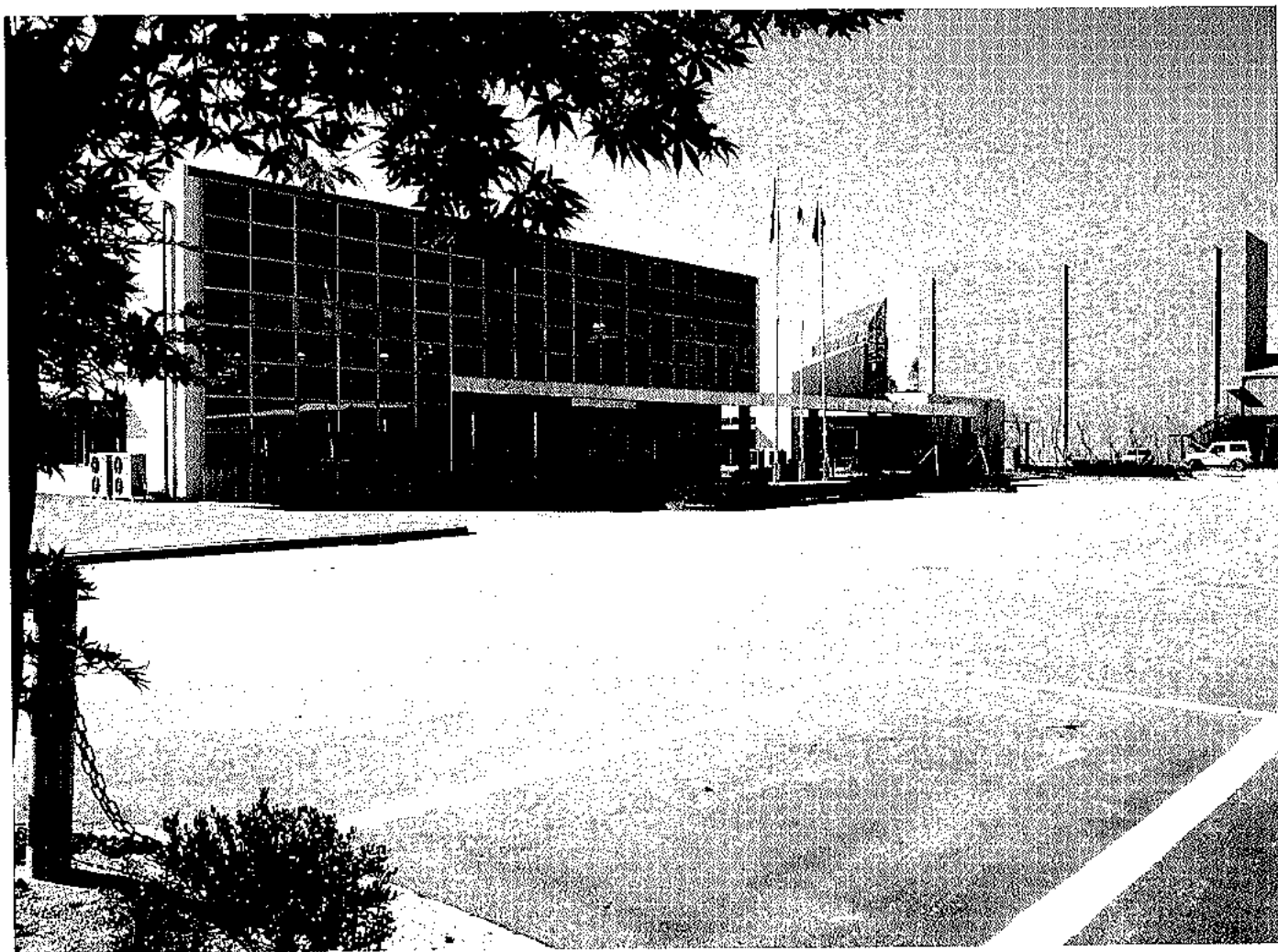
회원작품

# 동국합섬 음성공장 사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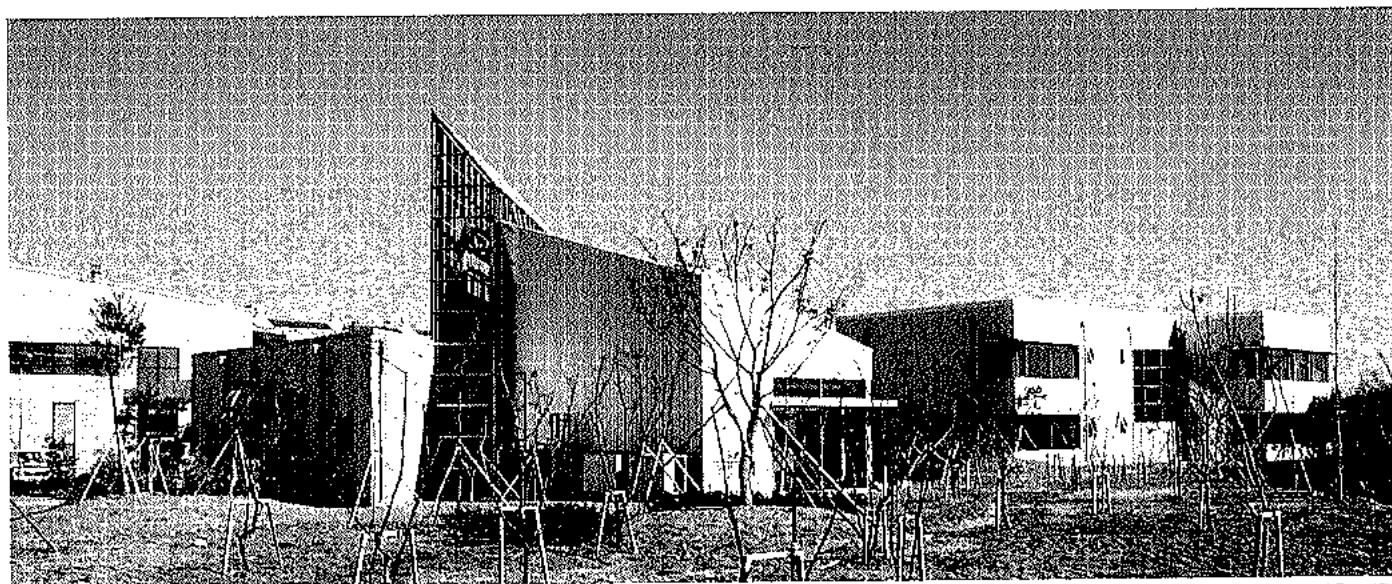
TongKook Synthetic Fibers Co., Ltd Eumsung Factory

최관영 + 정동명 / (주)일건 세운세 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Choi Kwan-Young & Cheong Tong-Myeong



북동측 전경



남서측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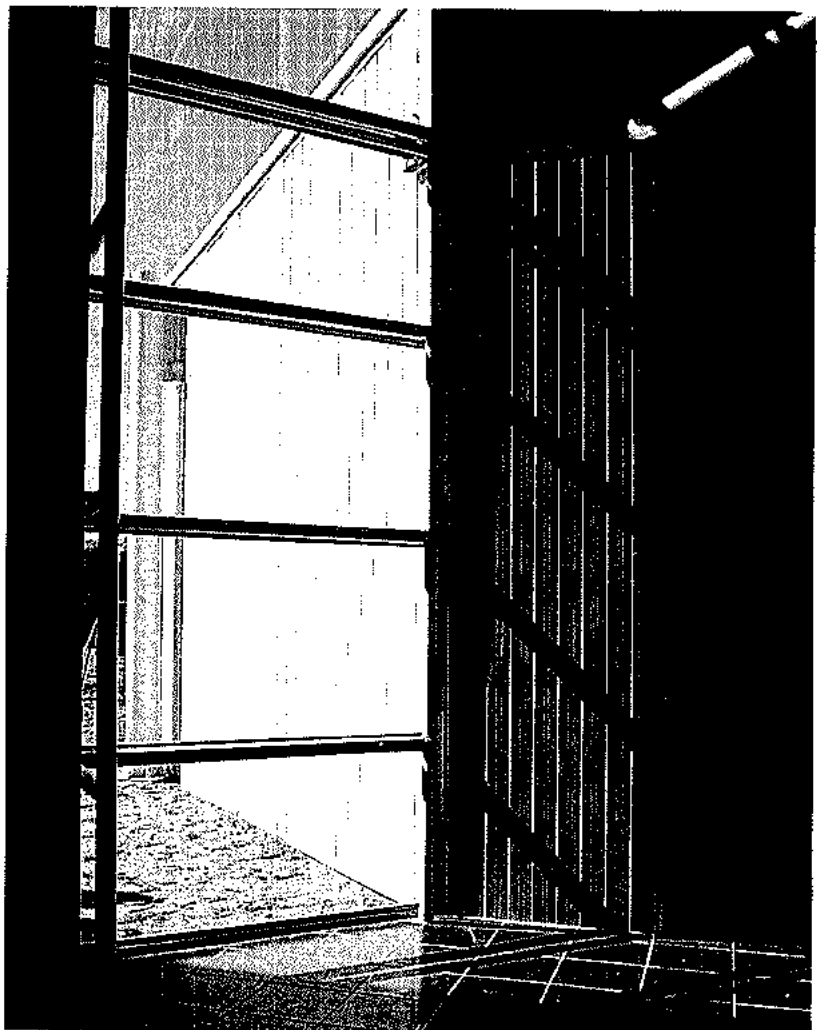
대지위치 / 충북 음성군 삼성면 천령리 380번지와 32필지  
 지역·지구 / 준도시역, 시설용지지구  
 용도 / 사무실  
 건축면적 / 1,081.88㎡(1층: 743.37㎡, 2층: 338.51㎡)  
 구조 / 강철골조+RC구조  
 규모 / 지상 2층  
 외장 마감 / ① 50센드위치 패널 & ② 0.6 석면수지 피복강판

동국합섬 음성공장은 자석의 소재 즉 자성을 띄우기 전의 쇠붙이를 만드는 공장이다. 기존의 공장건물 내부에 사무실, 식당이 함께 있었으나 사원복지 차원에서 사무실과 식당을 별도 신축하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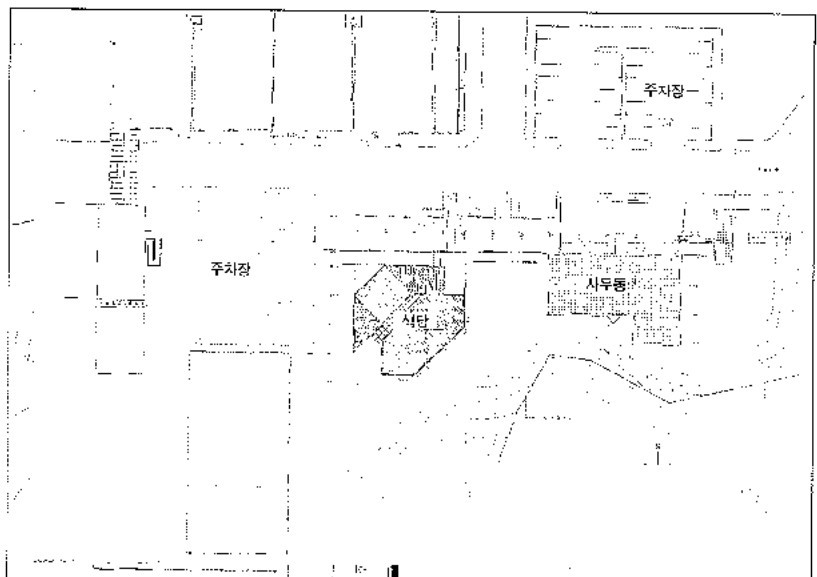
공장건물에 비해 작은 건물이기는 하나 상징성과 쾌적성의 요구에 따라 사무동과 식당을 분리하여 배치함으로써 영역의 확장을 꾀하고 공장측과는 적절히 구분된 독자적인 Territory를 형성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렇게하여 분리된 두 건물사이를 캐노피로 연결시켜 다시 묶어 놓았다.

공장부속시설은 통상 더 높은 경제성이 요구되기도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철저히 기존 공장건물과 같은 외벽 재료이면서 값싼 Sandwich panel을 써서 동질감을 주고 반면에 다소 상징적인 Massing과 색상의 차별을 통해서 기존 공장과 대비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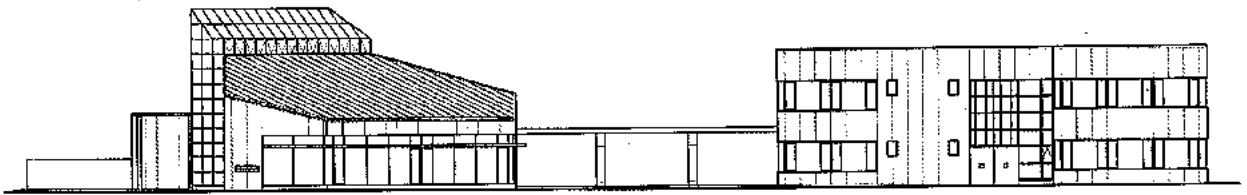
상세와 사공성이 재료의 특성을 충분히 좇지 못해 아쉽기는 하지만, 노출되어 복잡한 철골 지붕과 높은 위치의 Top Lighting Slit 등 다소 의외적인 실내 분위기 아래에서 위낙 빼어나고 탁트인 시골풍경에 만족해 하며 점심식사를 하는 직원들을 상상해 본다.



유리매스가 바닥과 만나는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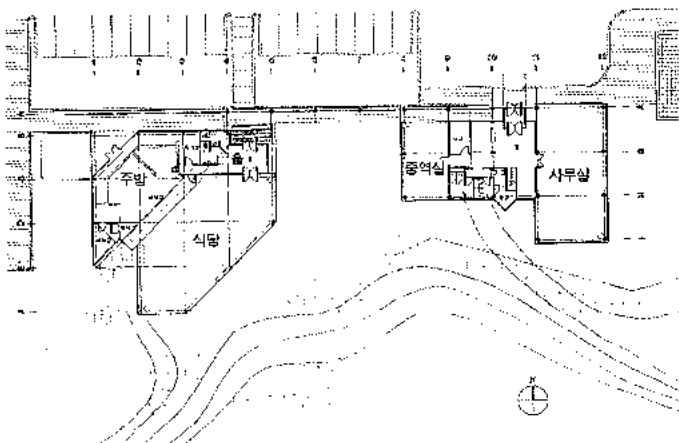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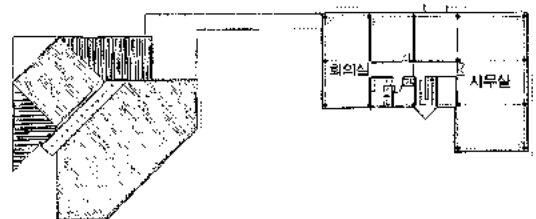
남측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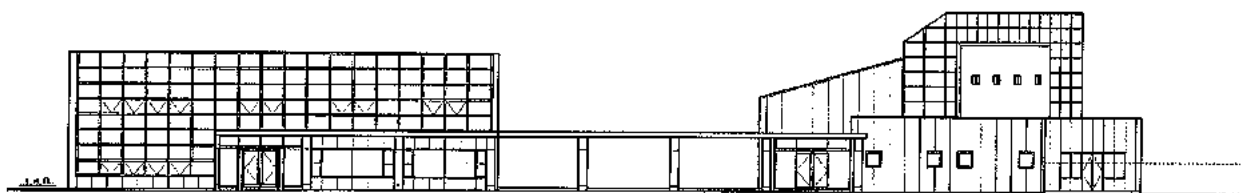
사무동과 식당동 연결 캐노피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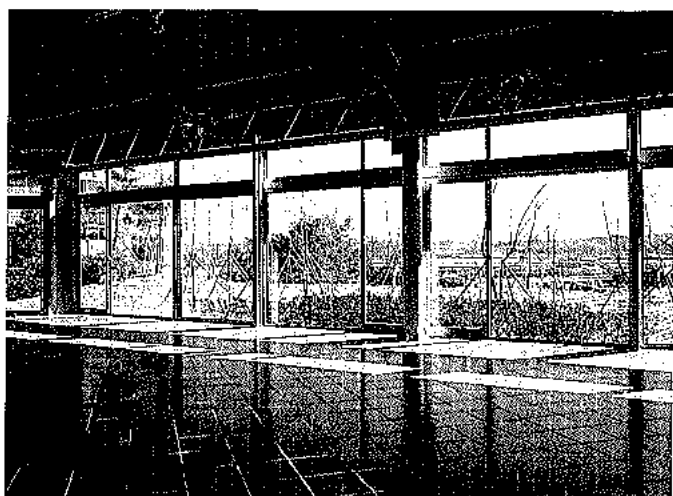
북측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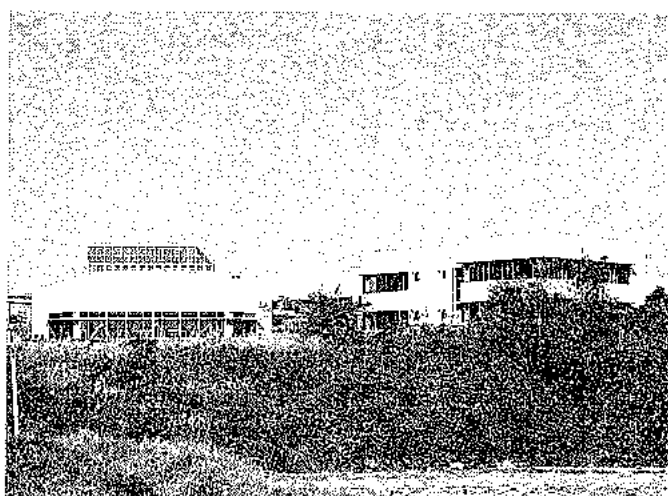
천장 디테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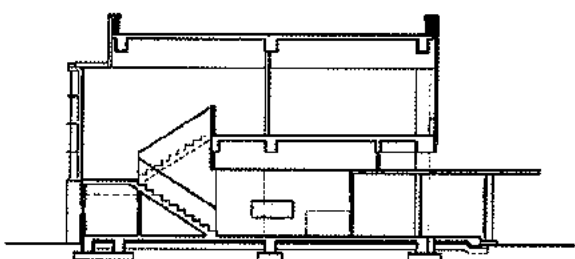
사무동 남측에서 본 식당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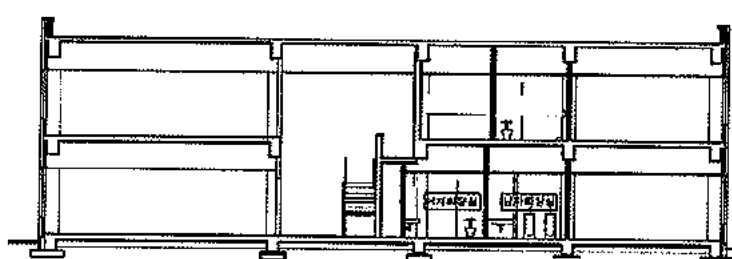
식당 내부에서 밖을 본 모습



남측도로에서 본 전경



사무동 종단면도



사무동 횡단면도



W.A.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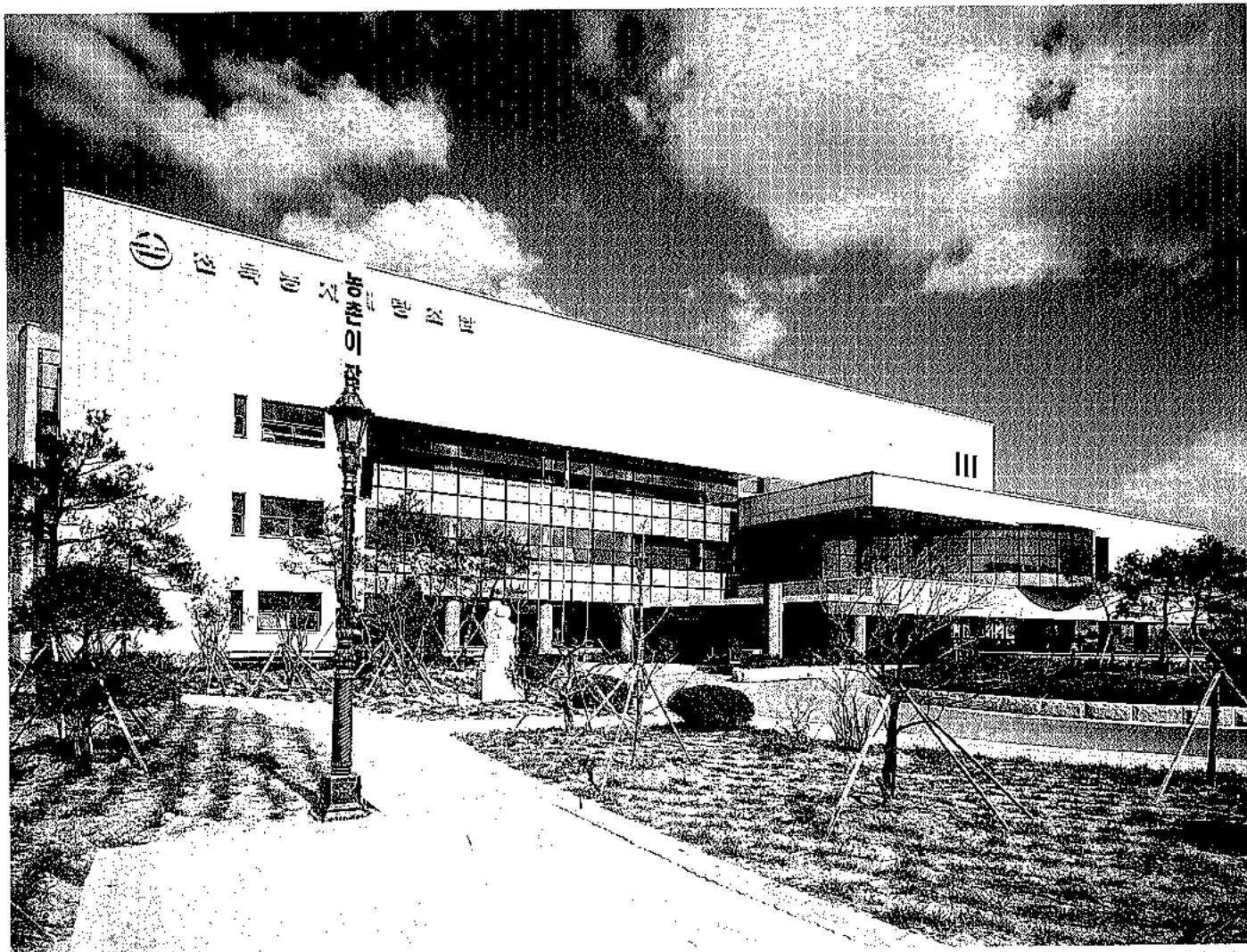
회원작품

# 전북농지개량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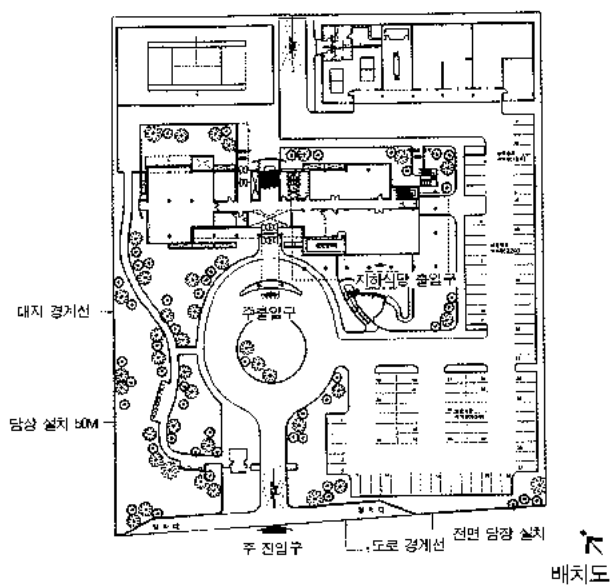
Chunbuk Improvement of Farmland Association Building

노형래 / (주)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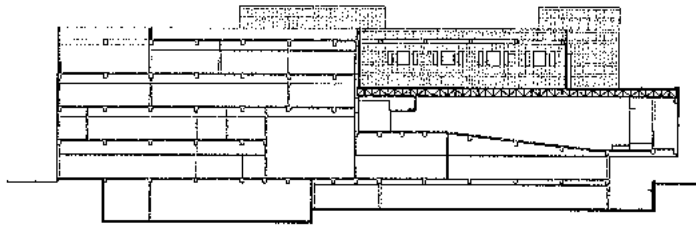
Designed by Ro Heoung-Ra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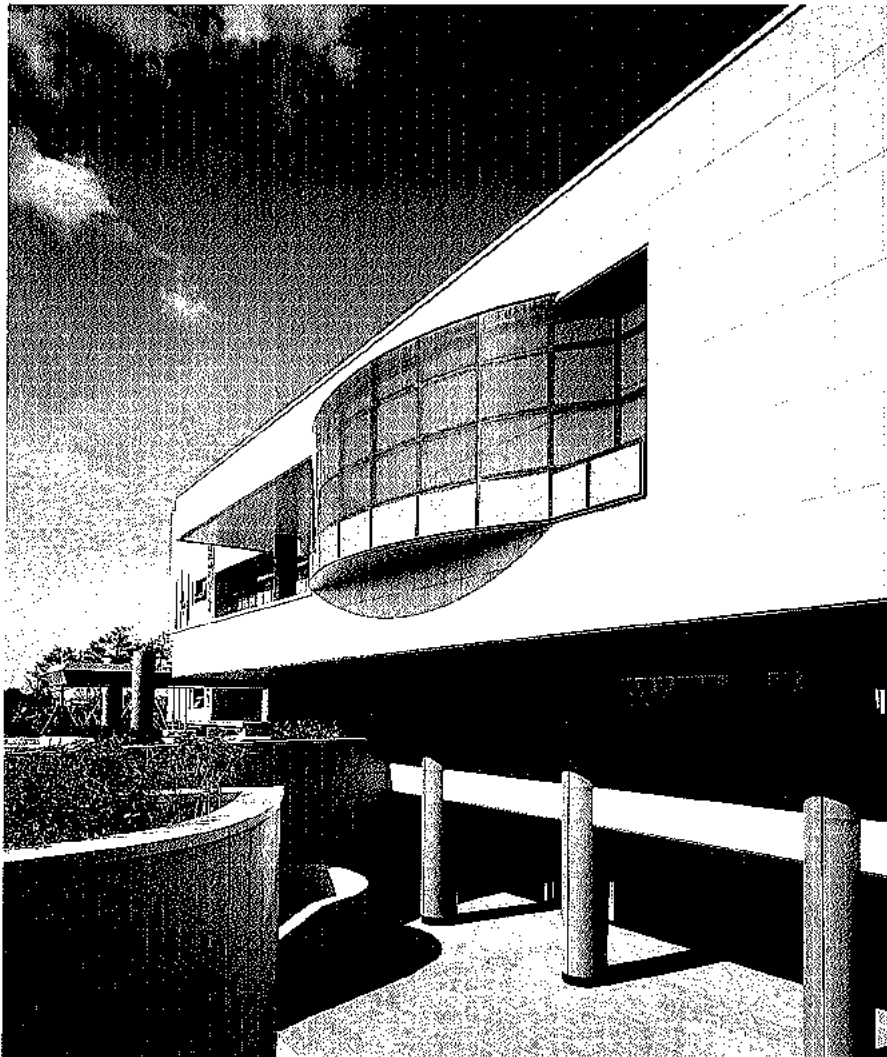
서측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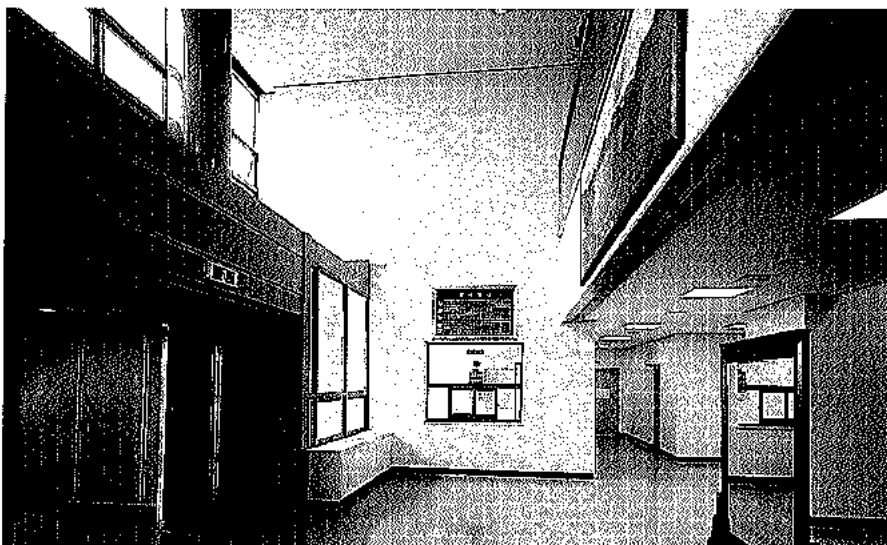


평단면도



선큰 가든

위치 / 전북 이리시 목천동 715-22외 2필지  
 지역 · 지구 / 경지지역  
 주요용도 / 업무시설  
 대지면적 / 11,730㎡  
 건축면적 / 2,345.81㎡  
 건폐율 / 19.99%  
 연면적 / 5,584.99㎡  
 용적률 / 39.69%  
 주차대수 / 94대  
 조경면적 / 3,533.39㎡  
 최고높이 / 17.61m  
 구조방식 / 철근콘크리트조  
 규모 / 지하 1층, 지상 4층  
 설비방식 / 중앙 공조 시스템  
 주요내장재 / 디렉스티얼, 카펫 깔기, 에크랄페인트, 엠면타스  
 주요외장재 / 화강석  
 건축주 / 전북농지개발조합  
 시공자 / 동서종합건설  
 설계기간 / 91.3~94.1  
 시공기간 / 94.5~96.6  
 담당 / 고종준  
 구조설계 / 동양구조  
 기계설비 / 웅창설비  
 전기설비 / (주)신우설계



1층 민원대기실

전북농지개발조합 청사는 조합원을 위한 사무공간, 상황실, 대회의실, 전산실, 도서자료실, 식당, 사무실 등 사무의 효율화 및 조합원의 편의를 위하여 계획된 시설이다.

대지의 전면으로는 28m의 전·군도로가 지나고 있으며 뒷부분으로는 4m의 농로가 있다. 주위의 대부분은 아직은 농경지이고 전·군도로변의 뽕나무 또한 자연스러움과 아름다움을 더하고 있어 주위환경에 조화로운 계획을 하는 것이 설계의 주안점이었다.

건축물의 배치는 전면 진입부 우측에 방문객용 주차장을 설치하고 중앙에 보행자용광장 및 주출입구를 배치하여 보·차 동선의 분리를 꾀하였고 건물은 전·군도로에서 거리를 두고 배치하여 도로의 소음으로부터는 차단하고 주위의 자연에는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다.

건축물의 지하층에는 식당을 배치하고 선크가든을 이용하여 1층과 연결, 개방감을 부여하여 주위의 자연을 적극 유입하였으며 1층에는 민원대기실 및 사무실, 2층에는 대·소회의실 및 사무실, 3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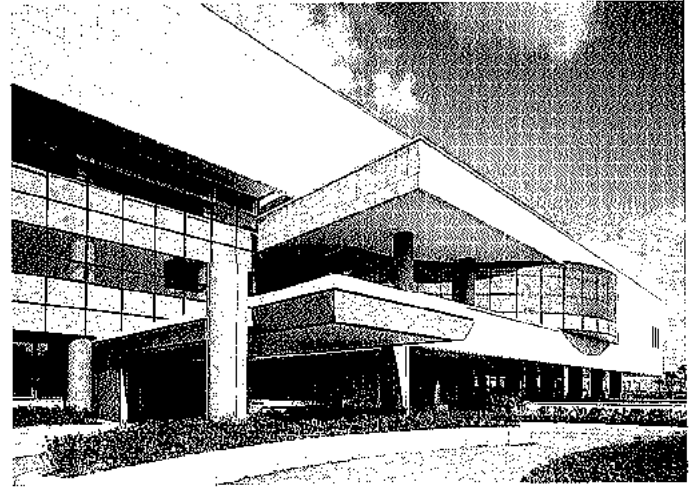
에는 사무실, 4층에는 대의원실 및 도서, 자료실을 배치하였다.

Mass의 기본형태는 사각형의 적절한 접합과 분리로 구성하여 명료성과 통일감, 단순성을 확보하였으며 변화의 요소로 원을 전면부에 사용, 변화있는 Mass를 형성하였다. 또한 주위가 평야지대이므로 수평적 비례감을 강조하여 주위 자연을 대지 내로 적극 유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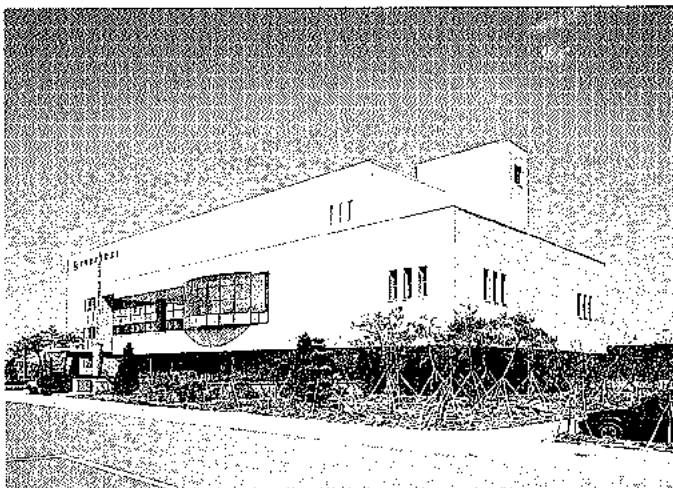
아름다운 자연속에 열린 공간으로서 사용자에게 활력을 주는 시설이 되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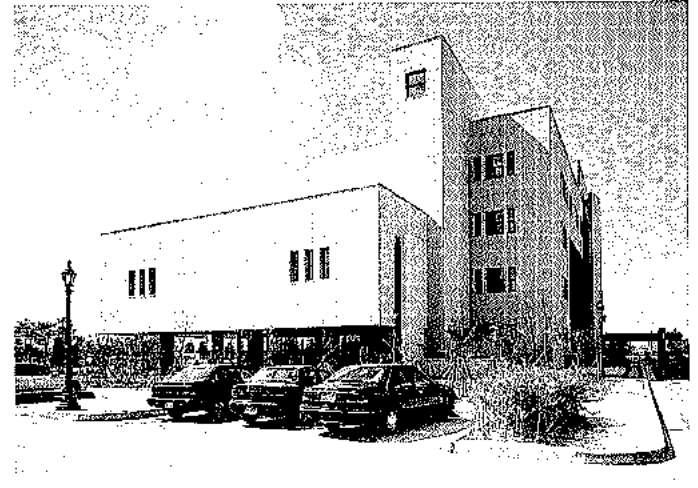
2층 대회의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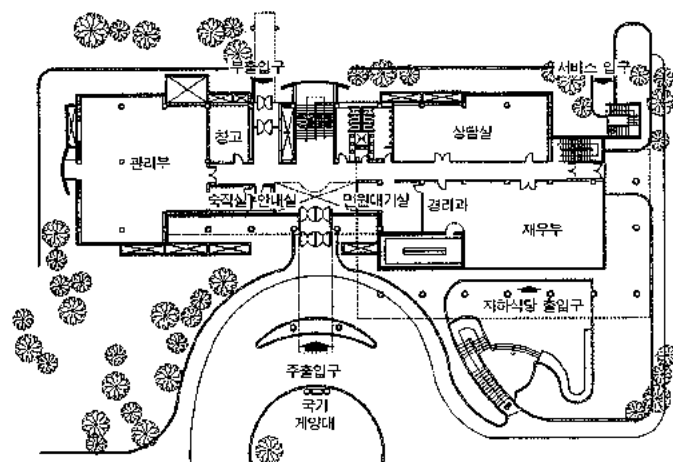
주출입구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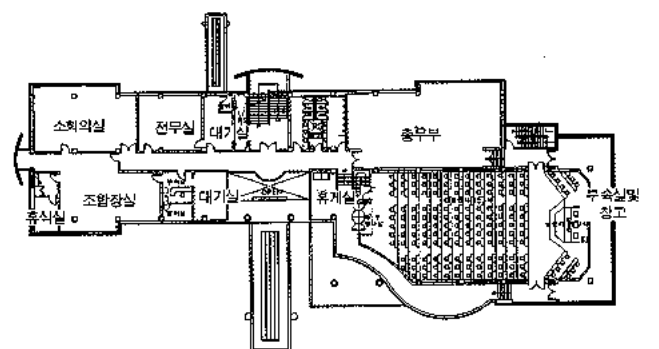
남측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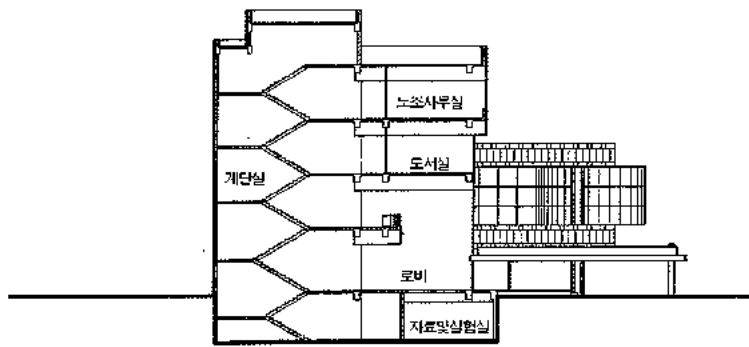
동측 측면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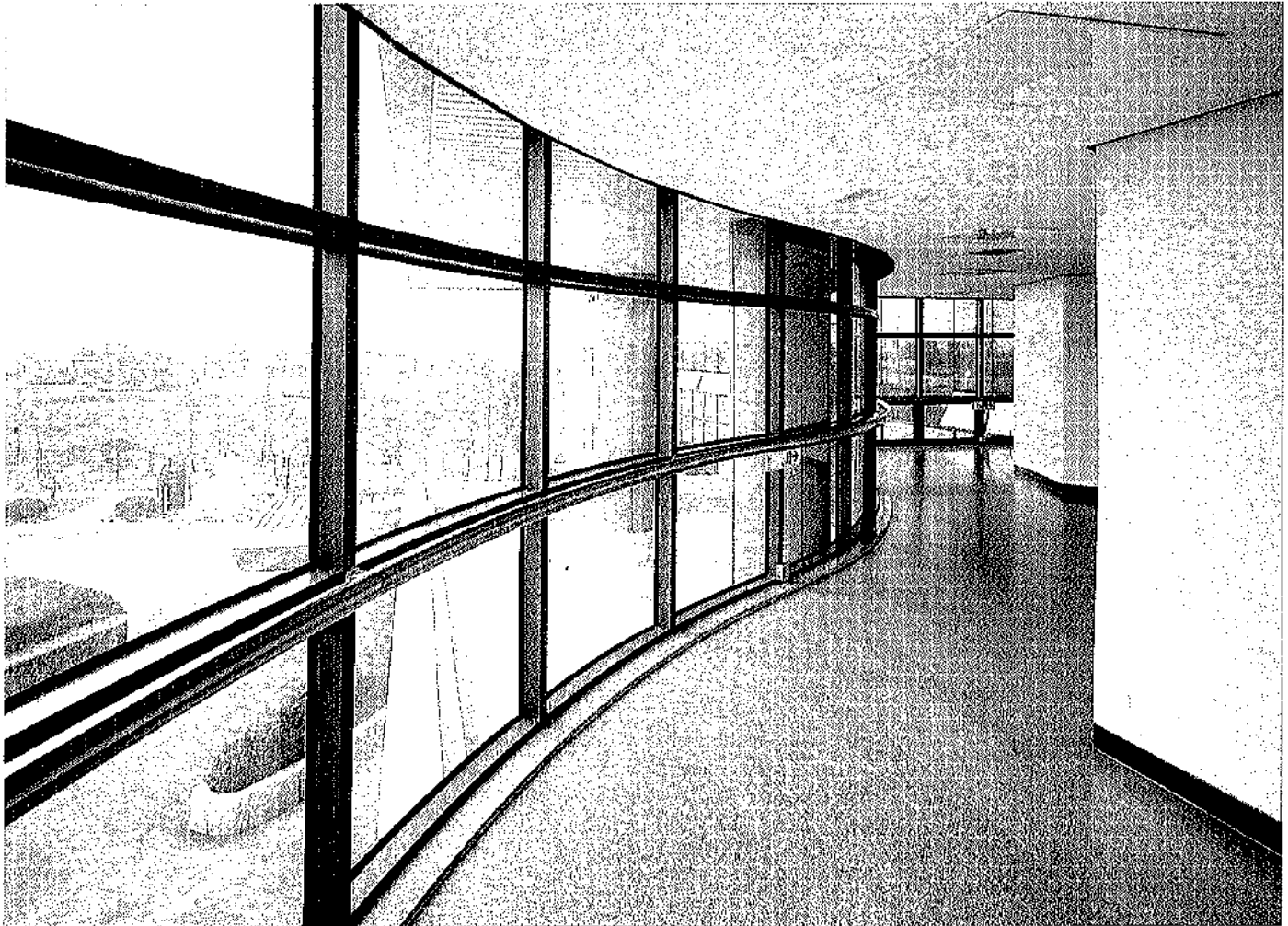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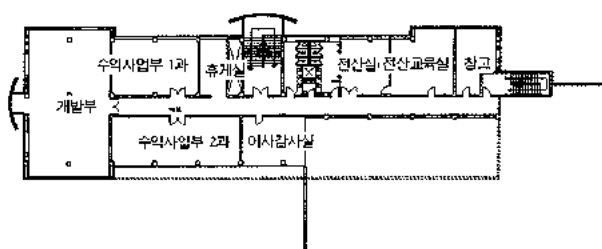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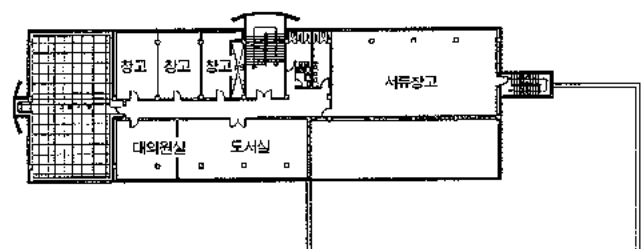
중단면도



2층 복도



3층 평면도



4층 평면도

Wo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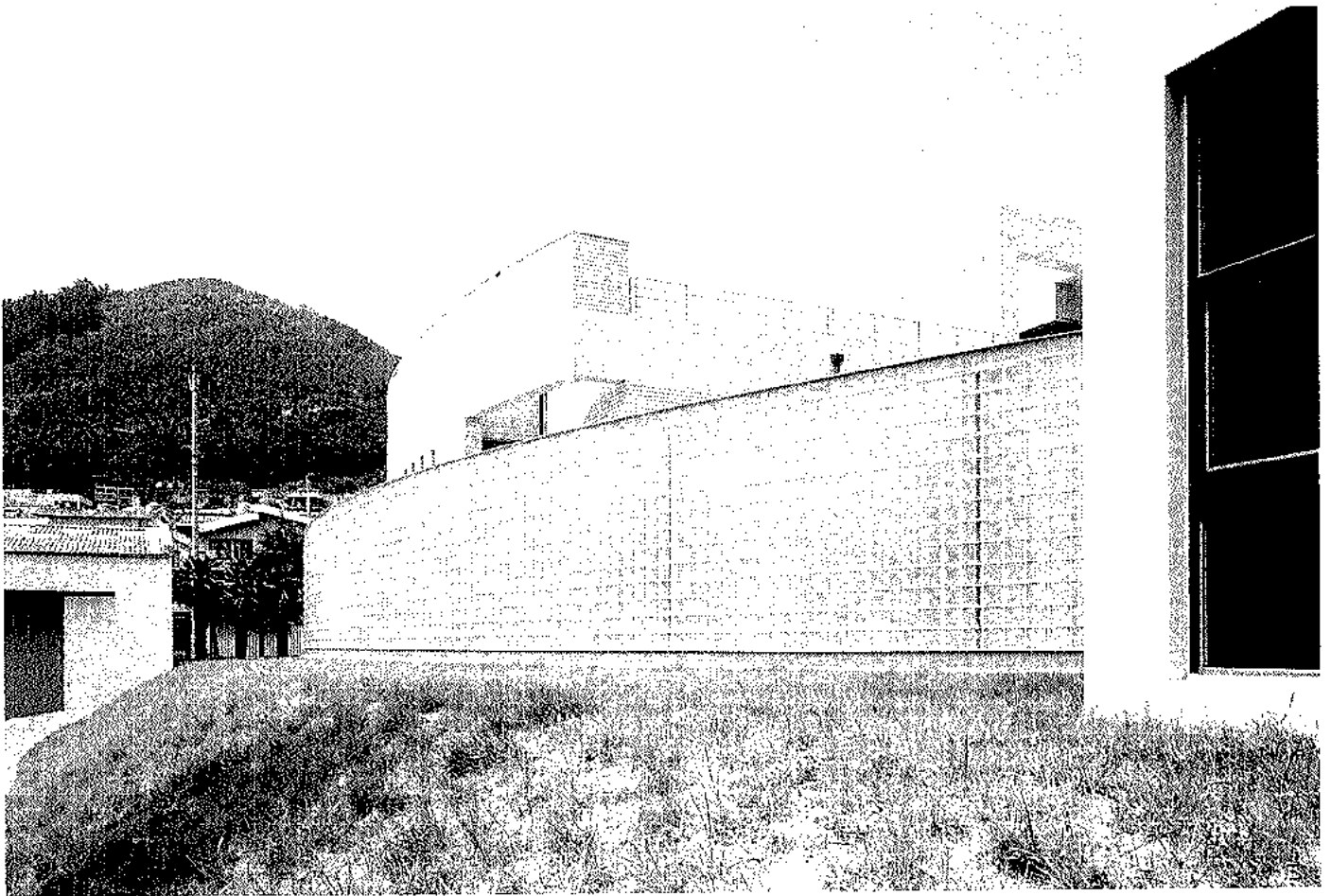
회원작품

# 동일복지문화원

Dongil Cultural-Public Welfare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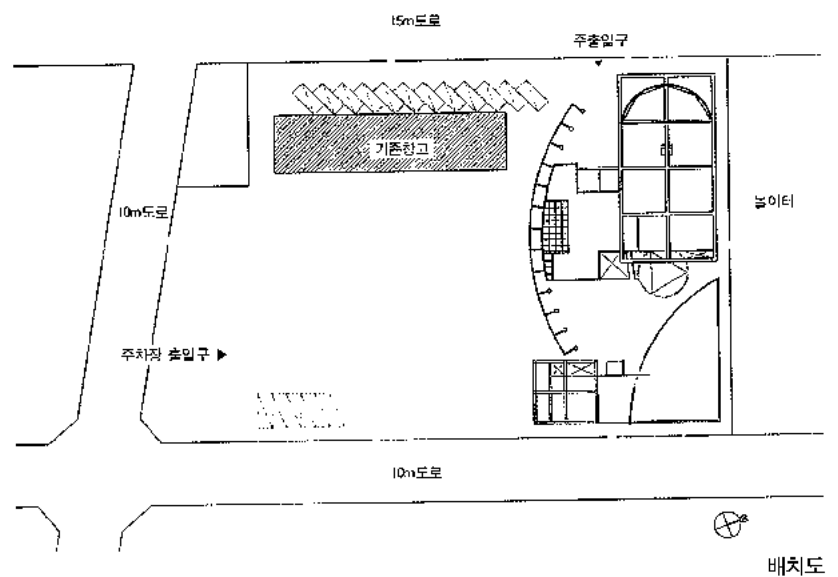
김영섭 / 건축사사무소 건축문화

Designed by Kim Young-Seo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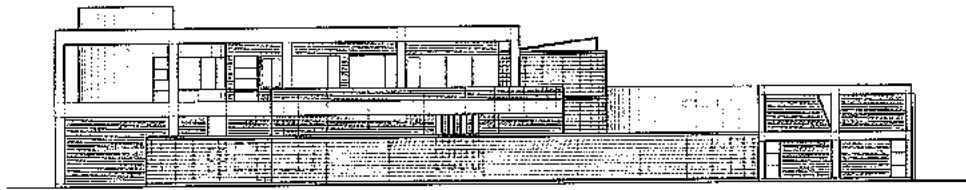


유아동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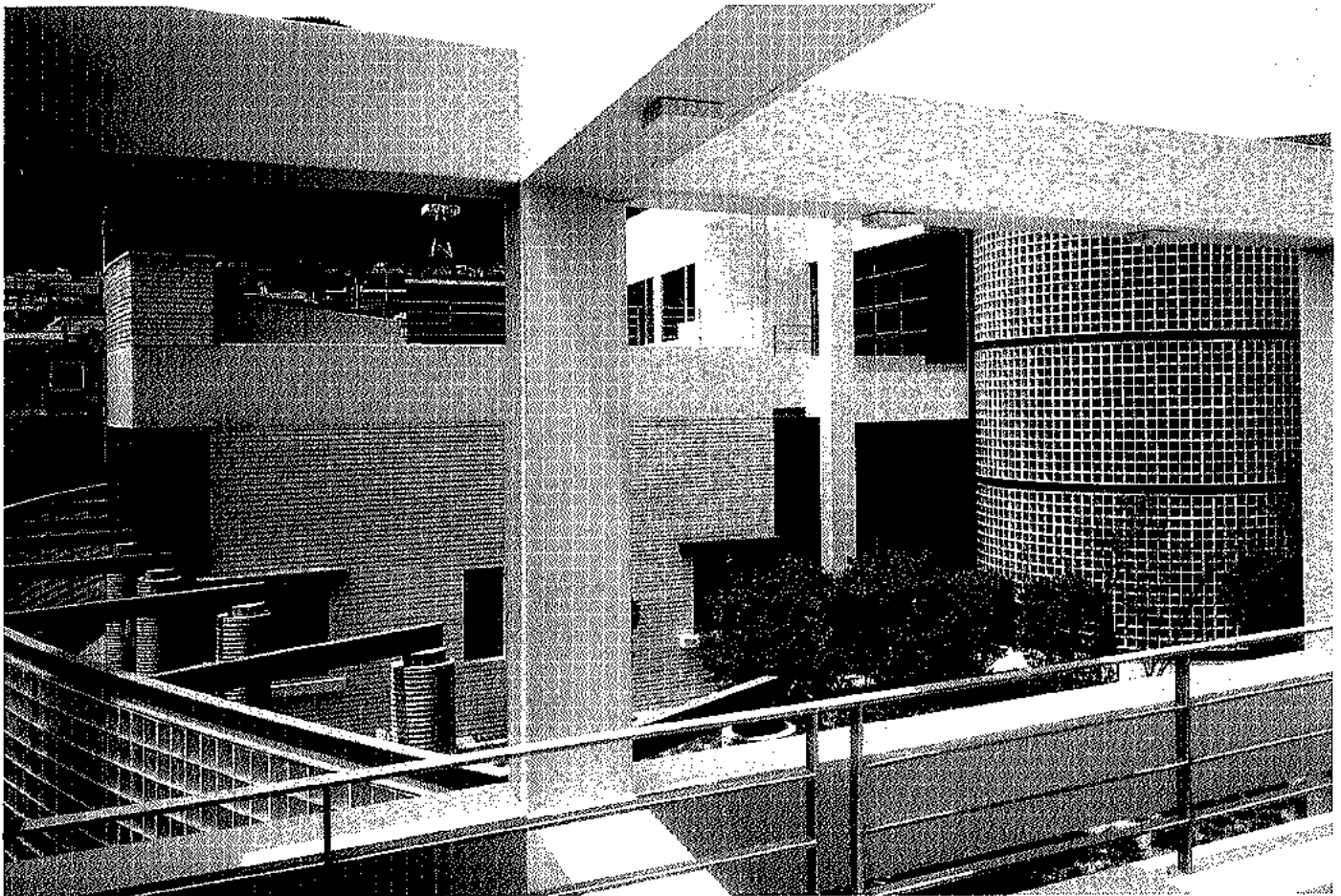
위치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사동 25-6  
 지역 · 지구 / 준공업지역  
 대지면적 / 5,301.44㎡  
 도로현황 / 전면 15m, 후면 10m, 측면 10m 도로  
 건축면적 / 1,035.62㎡  
 연면적 / 1,653.60㎡  
 건폐율 / 28.51%  
 용적률 / 34.92%  
 규모 / 지하 1층, 지상 2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용도 / 관람집회시설+노유자시설+근린생활시설  
 최고높이 / 11.8m  
 외부마감 / 타일의 유성페인트  
 내부마감 / 벽 - 아크로그로시  
 천장 - 아크로그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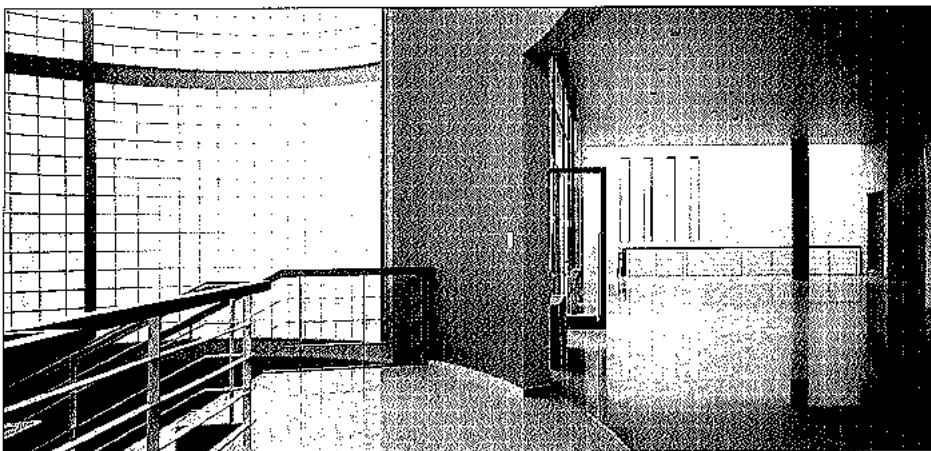
배치도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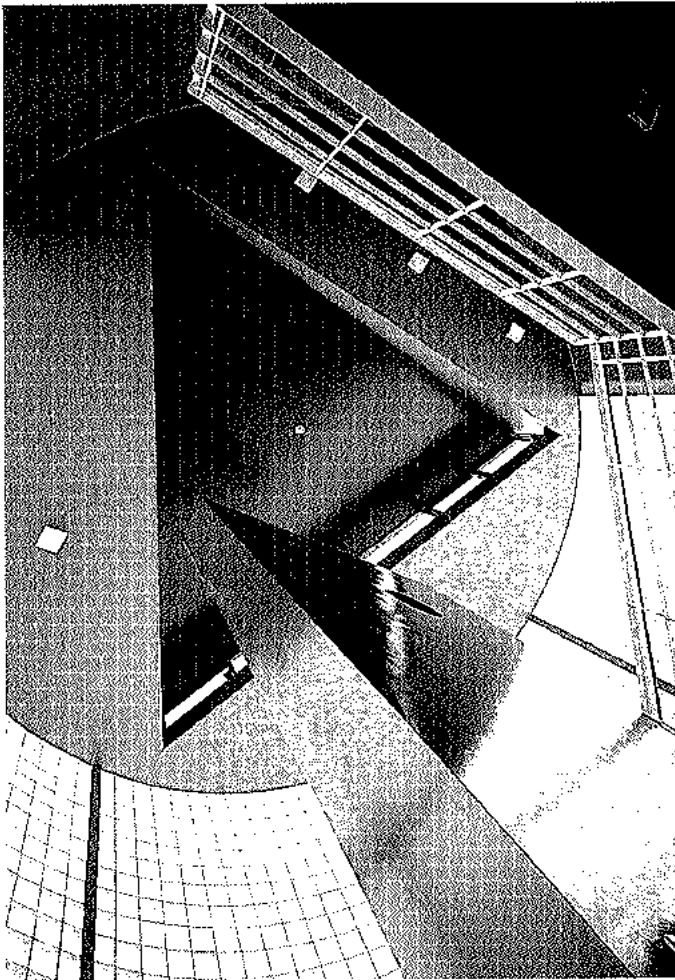
유아동 욕장에서 본 전경



여성회관 홀

주차대수 / 18대  
 조경면적 / 801.95㎡  
 설계담당 / 홍성천  
 설계기간 / 1994. 12 ~ 1995. 7.  
 공사기간 / 1995. 7. ~ 1996. 4.  
 구조설계 / 영일구조기술사무소  
 설비 / 범창엔지니어링(주)  
 전기 / 서창원지니어링(주)  
 조경 / 이윤정 조경연구소  
 인테리어 / (주)건축사무소 건축문화





계단실 천정

동일복지문화원은 5년전 부산지역의 영향력 있는 김진재 의원의 요청을 받아 설계된 것이다. 김의원이 제시한 공단 근로여성들을 위한 여성회관과 근로 여성의 이동들을 위한 유아시설은 그 제의 자체가 매우 신선한 감동을 주는 것이었기에 매우 반가운 프로젝트였다.

이 건물은 짧은 기간 내에 지방업체로서는 상당히 성숙한 시공을 해낸 남현 종합건설(주) 또한 이러한 건축주의 의도를 충분히 공감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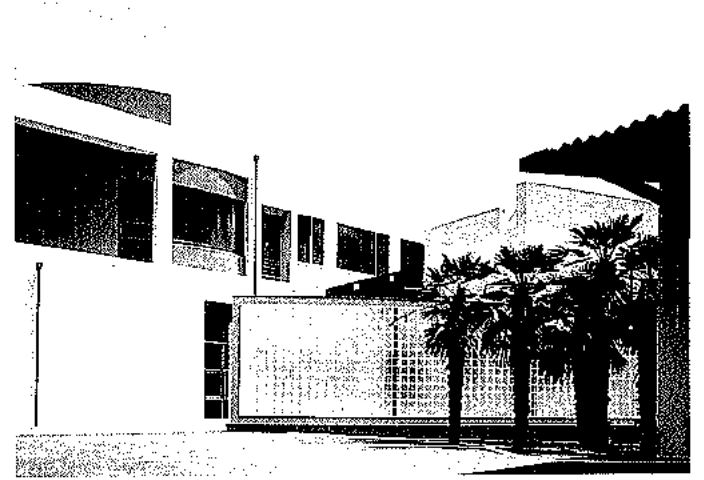
전면 건물은 근로여성들의 각종 집회 또는 예식 등을 치를 수 있는 강당을 중심으로 윗층과 지하실에는 회합실과 친교실 등이 마련되어있는 매우 단순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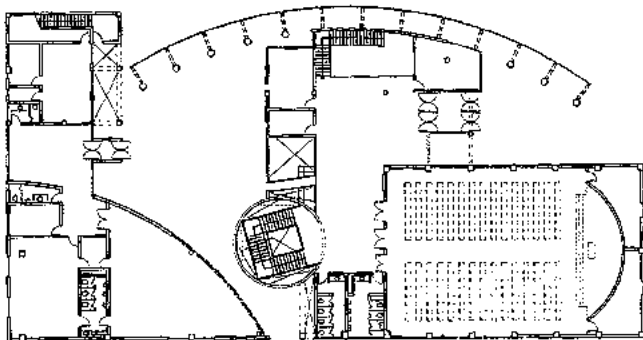
여성회관 회의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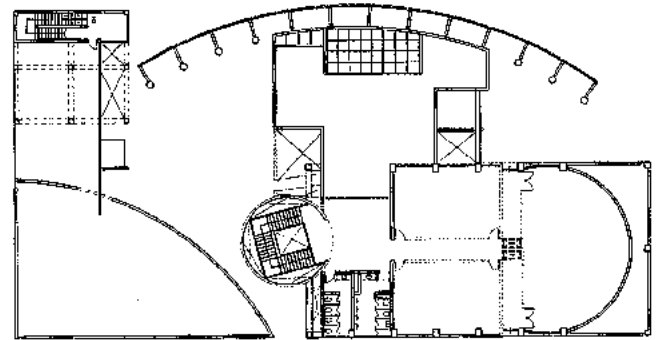
진입로에서 본 전경



여성회관 진입부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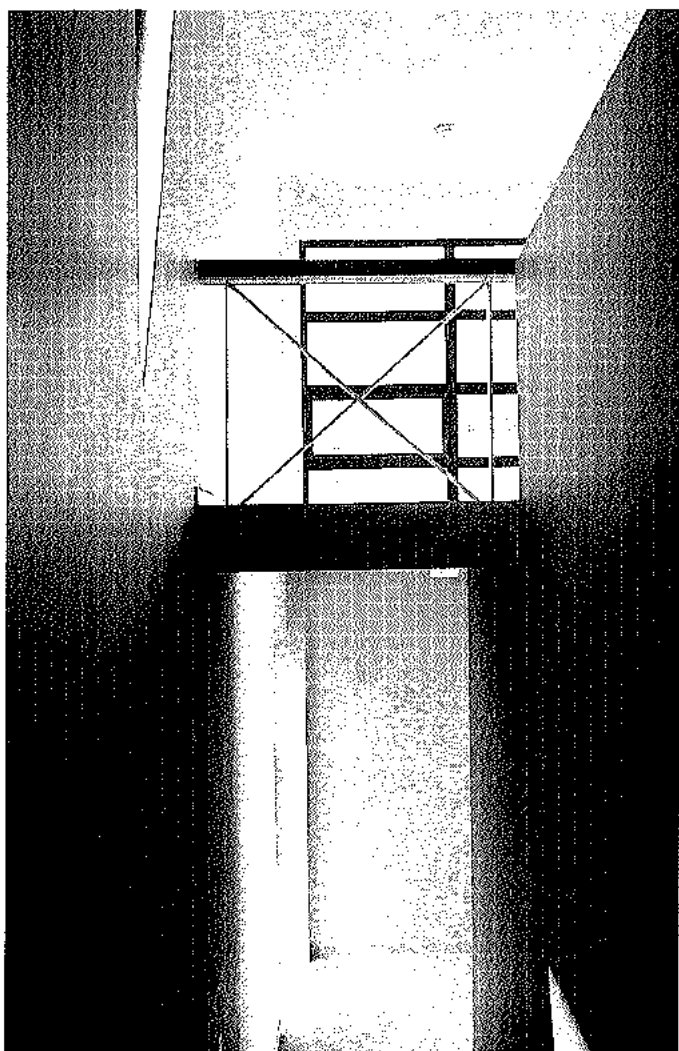
뒷쪽에 위치한 유아시설 역시 어린이 놀이방과 사무실 등의 단출한 구성이다. 그러나 건물을 배치하기 위하여 제공된 부지가 장방형의 대지여서 설계시에 가장 고심한 것은 뒷쪽 유아동에 대한 어프로치였다. 이를 해결한 것은 긴 원호를 그리는 유리벽과 노출기둥들이었다.

건물들은 기하학적인 배치와 구성을 따르고 있으나 실제로 이 건물을 들어가보면 동성이 매우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개구부의 방향', '빛의 유도', '색의 변화' 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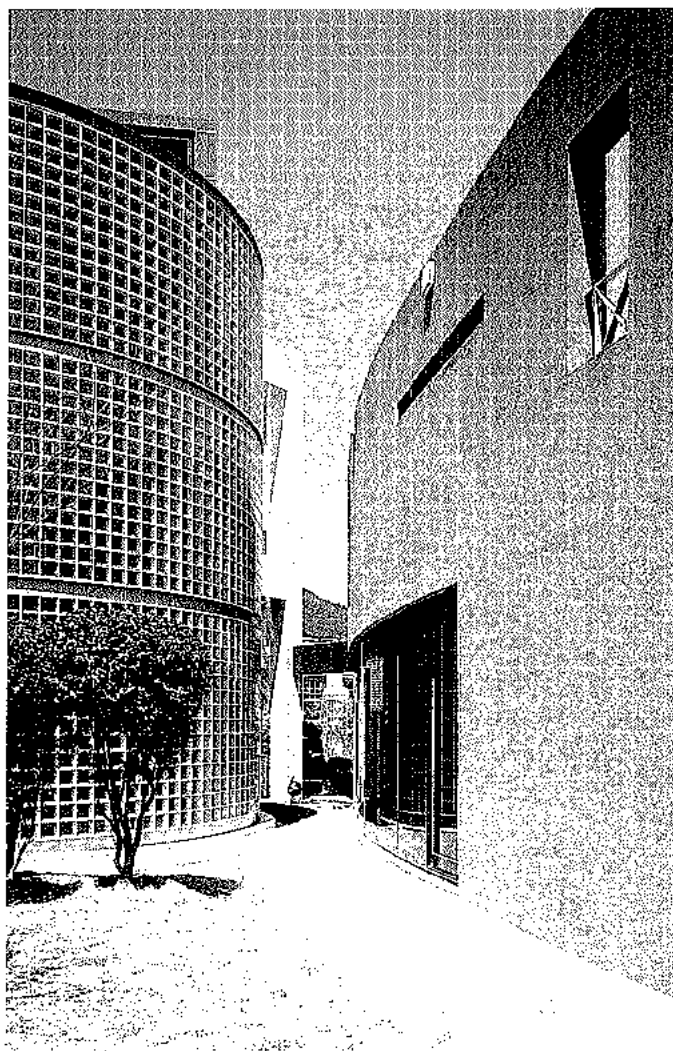
과 같은 작은 장치들에 의하여 사람들은 모르는 사이에 위 아래층을 오르내리고 다리를 건너 뒷마당으로 나서게 되는 것이다.

즉 호기심은 건물을 자연스럽게 안내하는 매우 중요한 길잡이가 되는 것이다. 유아동을 여성회관과 병치시킬 때의 문제점은 스케일상의 현격한 차이였는데 나는 지붕 위에 구조 프레임을 설치하고 옥상 놀이터를 보호하는 보호벽을 높게 쌓아올려 이러한 시각상의 문제점을 극복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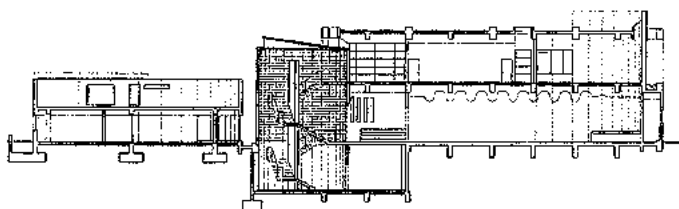
끝으로 전면에서 후면까지의 긴 유리벽의 높이를 정하는 것은 이 프로젝트를 수행해 나가면서 보인 나의 생각에 대한 단면이 될 수 있기에 지면을 통하여 이를 소개한다. "유리벽은 디자인 측면에서 전면과 후면을 잇는 벽이 되기 위하여 현재보다 1m이상 높아야 했다. 그렇게 하면 유리벽의 나눔이 정방형이 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 곳을 지나치는 유아들의 눈에는 3m의 유리담도 지나치게 높을 것이다." 하여 담을 40cm 더 낮추고 말았다.



유아동 계단실



유아동 외벽과 계단실



단면도 1



단면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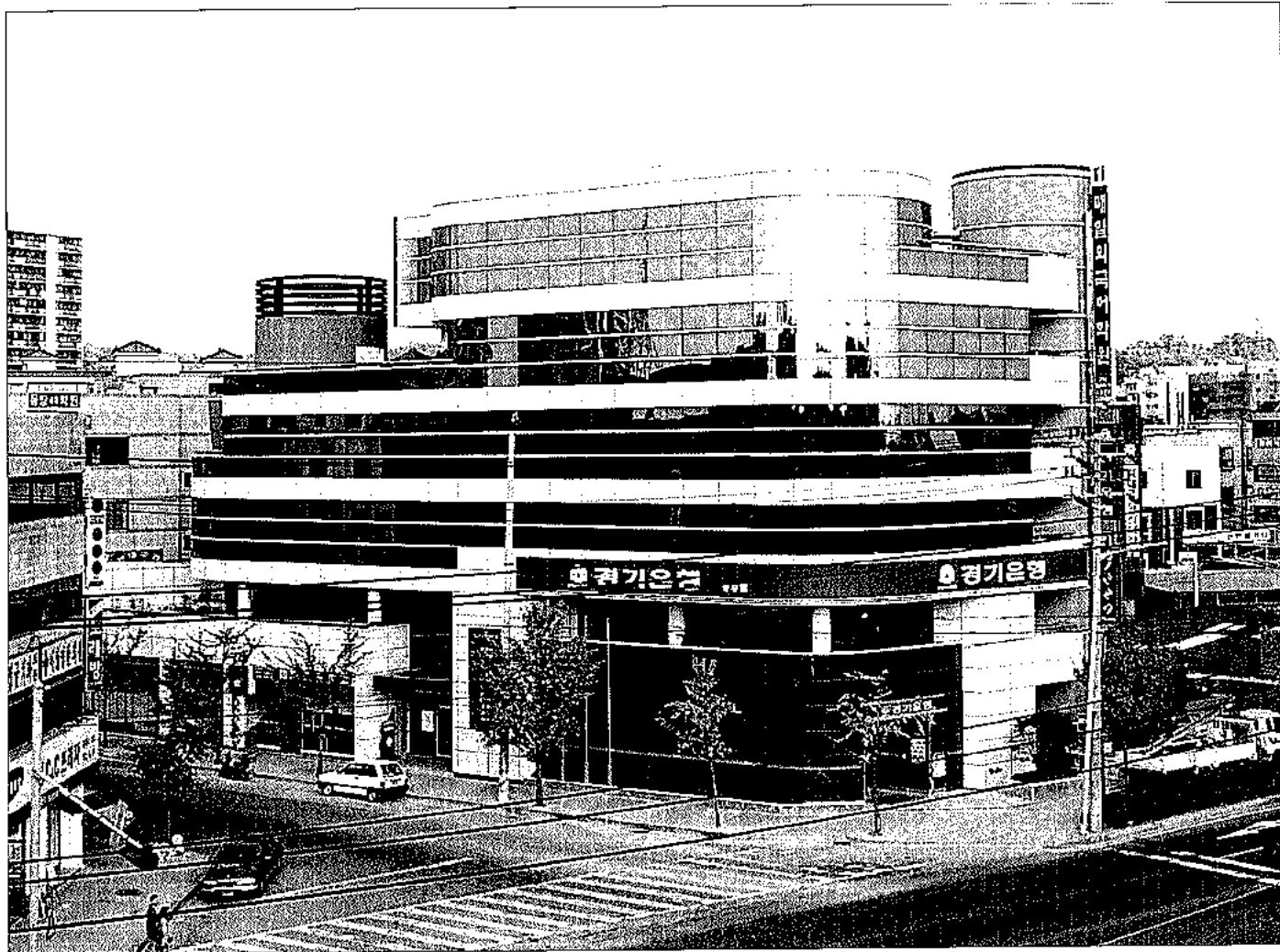
# 비전 22

Vision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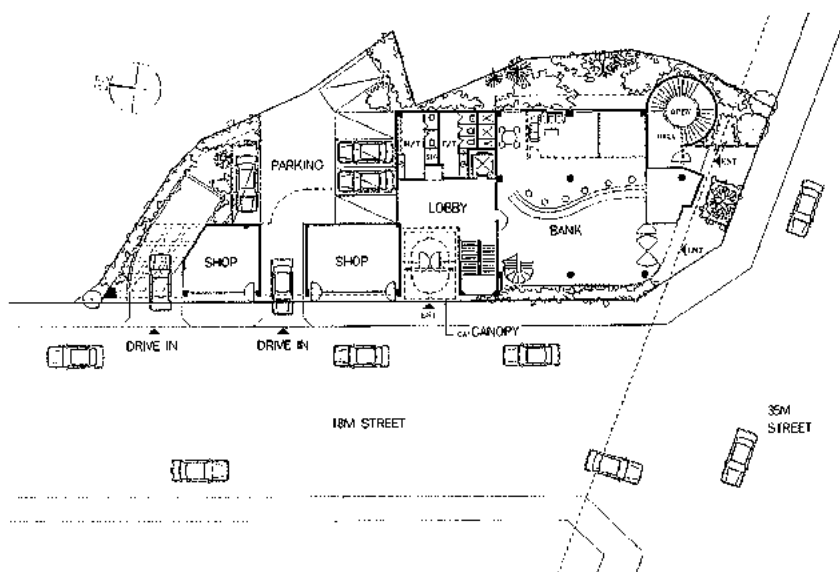
이천복 / 다다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Lee Cheon-Bok

〈제1회 경기도건축문화상 대상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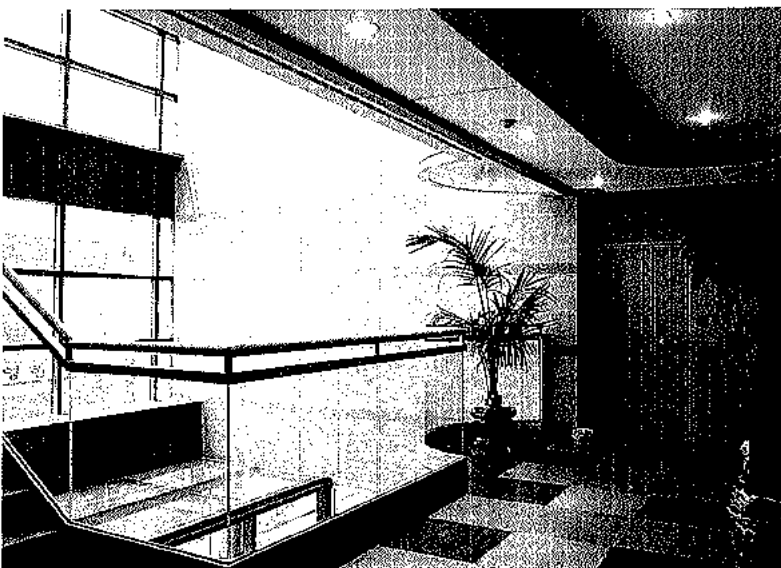
전경



배치도 및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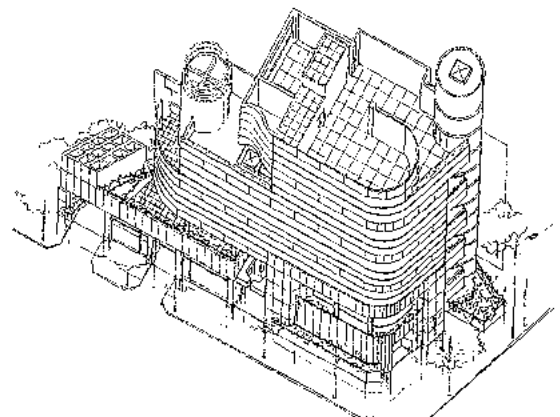


로비 1



로비 2

대지위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79-5  
 지역 · 지구 / 일반주거지역, 제2종미관지구, 교육연구지구  
 대지면적 / 874.00㎡(264.39py)  
 건축면적 / 509.28㎡(154.06py)  
 연면적 / 2,522.72㎡(763.12py)  
 건폐율 / 58.27%  
 용적률 / 221.80%  
 규모 / 지하 1층, 지상 5층  
 용도 / 업무시설(은행),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외부마감 / Al Sheet Panel + 16mm Pair Glass  
 내부마감 / 화강석 + VP도장  
 주차대수 / 22대  
 건축주 / 추정현  
 시공자 / 신화종합건설주식회사



「Vision 22」는 원천동 35m도로와 15m도로의 모퉁이에 접한 대지로 저층의 약점을 극복하여 자생력을 갖도록 조형성에 중점을 두어 상업용 건축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도록 하였으며, 토지이용률을 최대화 하였고, 북측 일조권의 처리를 계단식 Terrace의 녹지 공간 확보로 조형성을 강조하였다.

「Vision 22」의 Image는 불필요한 장식을 탈피하고, 미래지향적인 Design에 역점을 두었으며,

수평요소의 강조, 곡면부의 과감한 사용은 친근성 및 부드러운 Image에 충실하였고, 색채계획에서 우리의 미래를 표현하고자 유리와 주 소재와의 Color안배를 경쾌하게 하였고, 주출입구와 발코니 Hand-Rail은 Accent Color로 건물의 Focus를 주었다.

부 계단의 원통형은 대로변 다른 주변 건물 Image에 적응토록 Design되었으며, 수직의 무거운 콘크리트 소재로 강렬한 남성의 Image 표현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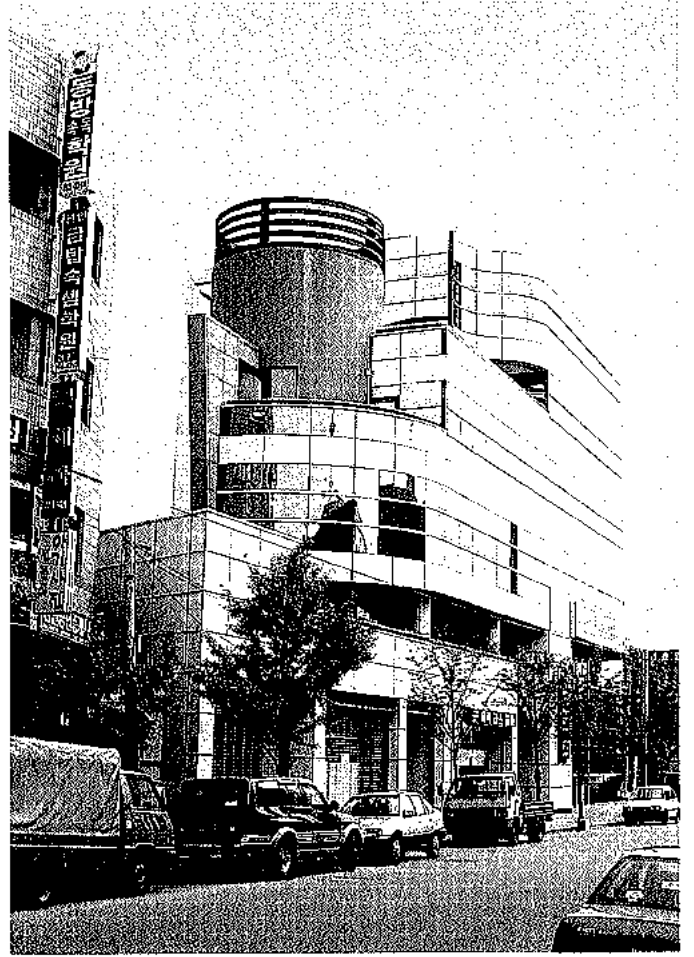
로 안정감을 주어 균형을 잡았다.

각층의 내부와 외부는 성숙되고 세련된 비례와 경쾌한 리듬을 주어 이용자나 보는 이로 하여금 즐거운 흥이 나도록 하였고, 내부의 Open Space 확보로 Service공간을 이용자에게 충분히 배려하여 기존 상업용 건축물의 틀을 탈피하려 노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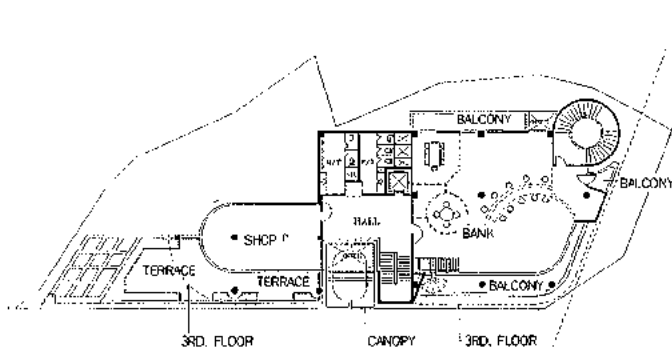
「Vision 22」는 미래에도 자생력을 갖으며, 열악한 주변환경 개선에 역할을 다하리라 믿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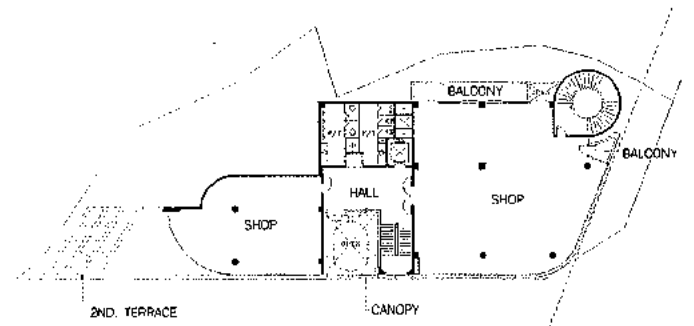
주출입구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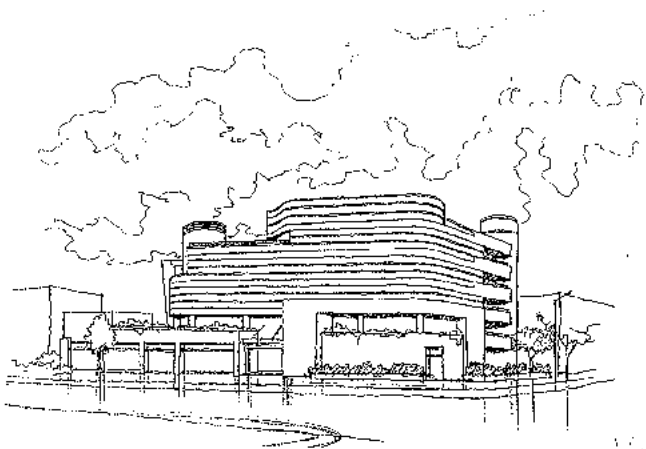
북측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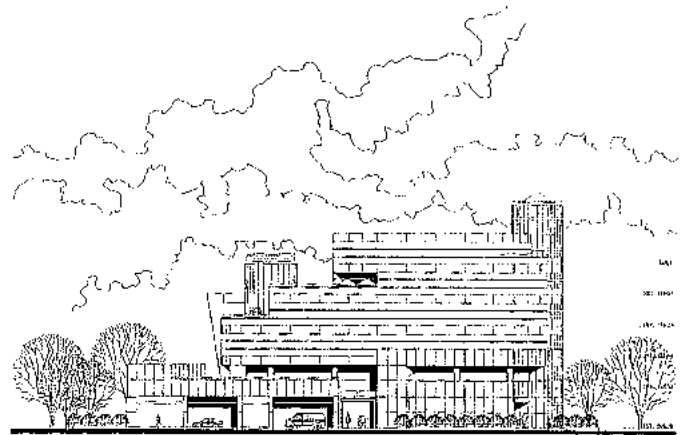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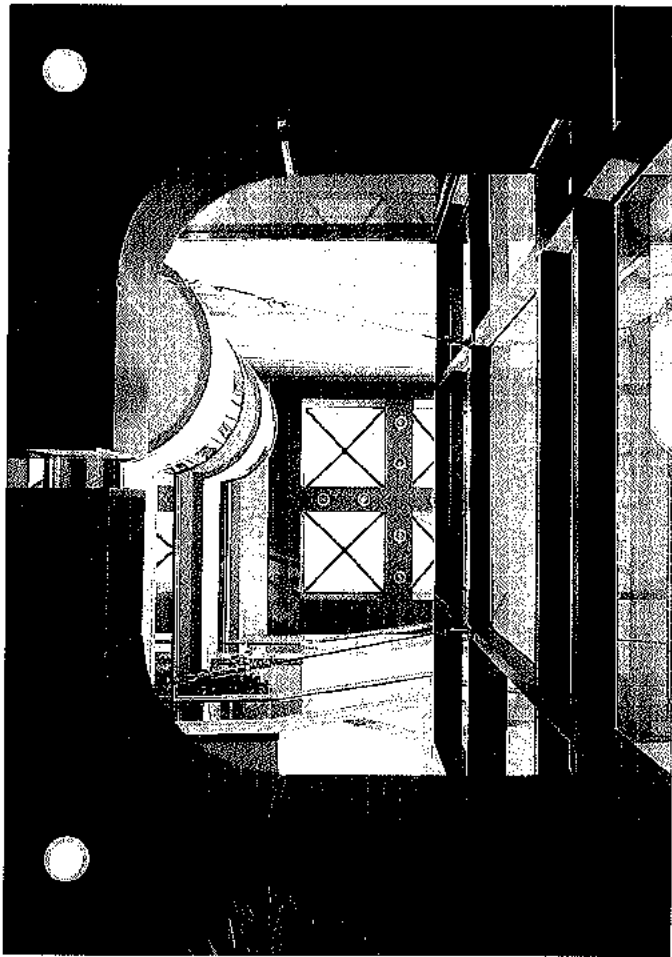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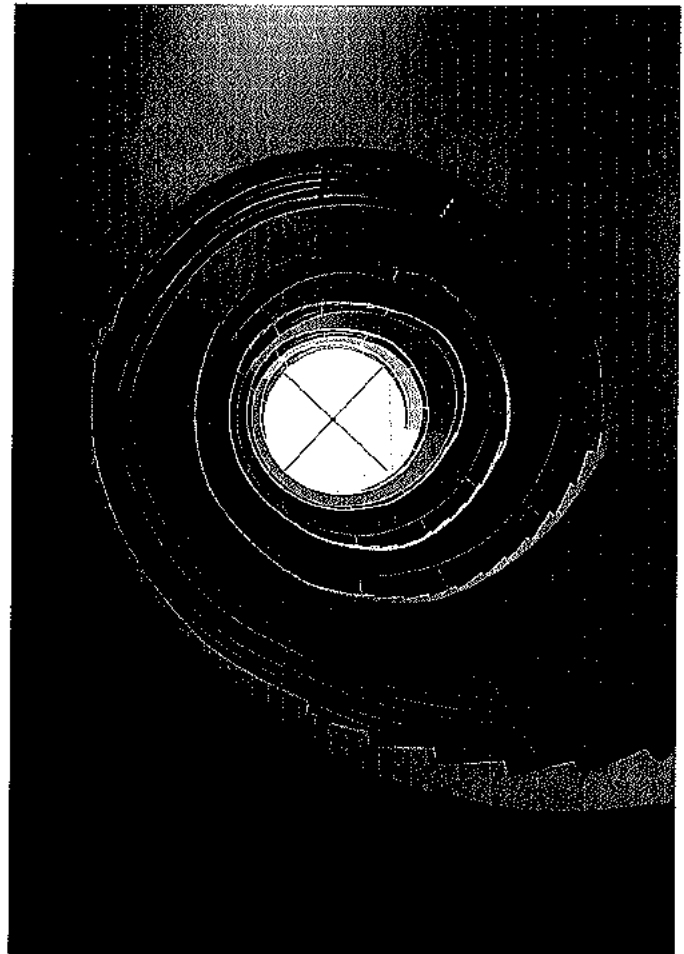
투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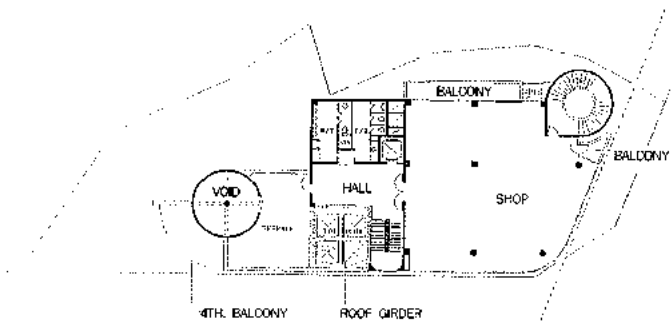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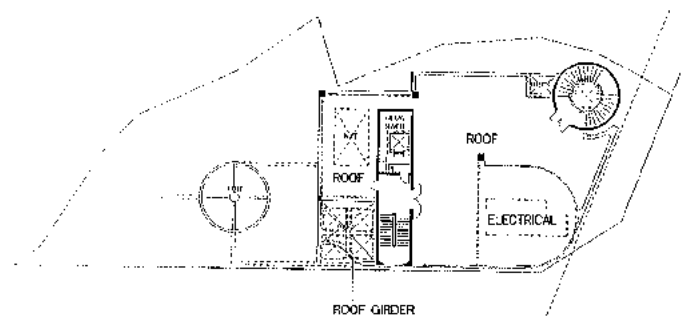
주출입구에서 올라다 본 톨라이트



원형 계단실 상세



5층 평면도



지붕층 평면도



조선반도에서의 Vories 건축활동의 과반수 이상은 기독교계의 학교 건축계획의 참여였다. 그 대표적인 예로 이화여전 50주년 사업으로 1935년에 건축된 교사계획은 설계착수시기는 1917년부터 시작되어 1932년에 본격화되었다.

강윤은 1935년 이화여전 신축을 위하여 당시 서울시 종로 기독교 성서회관에 위치한 Vories건축사무소 경성출장소의 소장으로 파견되었으며 이곳에서 8·15해방을 맞이하게 된다. 그로부터 15일후인 1945년 9월 1일자로 발족한 대한건축학회의 산실은 바로 Vories의 출장소였던 강윤의 건축설계사무소였다. 그때 그는 학회창립에 기여한 중요한 사람중의 한사람이었다. 대한건축학회가 8·15해방 직후의 혼란기에 발족할 수 있었던 것은 일본인이 1922년 창립 이래 운영하여 온 조선건축회를 해산하고 재편성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 한국의 건축가 (7) - 강 윤 ①

Korean Architects - Kang Yoon

해방후 작품활동

김승제 / 광운대 건축공학과 교수  
by Kim Seung-J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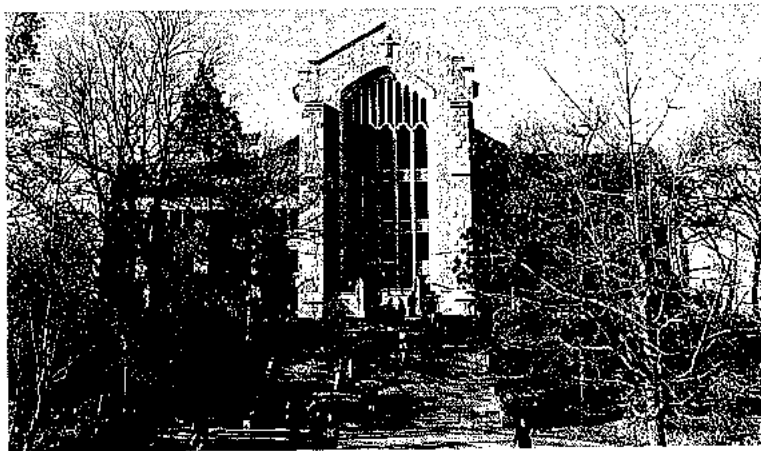
1. 한국인 건축가의 탄생배경  
(필자 / 윤인석)
2. 박길룡(1) - 건축수업과 활동  
(필자 / 윤인석)
3. 박길룡(2) - 작품과 건축사상  
(필자 / 윤인석)
4. 박동진 - 생애와 작품  
(필자 / 윤인석)
5. 강 윤(1) - 건축파의 만남  
(필자 / 김승제)
6. 강 윤(2) - 강윤과 Vories  
(필자 / 김승제)
7. 강 윤(3) - 해방 후 작품활동  
(필자 / 김승제)

「대한건축학회 40년사」 개관에 8·15해방 이전에 건축가로 활동한 사람으로서 박길룡, 김세연, 박인준, 박동진, 이용재 그리고 강윤의 순으로 6명의 경력을 간결히 소개하고 있다. 강윤에 대한 내용을 동지 페이지 36, 76에서 옮기면, “강윤은 일본에 본사를 둔

미국인 Vories건축설계사무소에 23년간 근무하다가 이화여자전문학교 본관과 음악당 신축공사때 귀국하여 대화관 설계감리 등 중요한 업적을 이루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더욱이 해방후 오늘의 대한건축학회를 결성하기 위한 첫모임을 바로 종로 기독교 성서회관인 Vories건축설계사무소였던 ‘강윤건축설계사무소’에서 가졌었다. 그 때의 임원구성은 다음과 같다.

단 장 : 金世演  
부 단 장 : 金允基, 朴仁俊  
상 무 이 사 : 劉相夏



이화여대 대강당



총무부이사: 李元植, 姜允, 金東洙

연구부이사: 金舜河, 金在哲, 金熙春

업무부이사: 張然采, 李天承, 慎武成

평 의 원: 孫亨淳, 李龍在, 金正秀, 鄭德鉉, 鄭東錫,  
李均相, 徐載運, 金鍾敏, 金光鉉, 俞元濬,  
張起仁, 全昌日, 李漢哲, 田昌沃, 林榮藏

※ 현재는 張起仁 선생만이 생존하고 계심

8·15 해방후 귀국한 강운은 그가 근무하였던 경성출장소 그 자리에 자신의 설계사무소인 '강운건축설계사무소'를 개설하고 소장이 된다.

그리고 그의 작품으로는 6·25이후인 1955년에 당시로서는 국내 최대규모인 이화여대의 석조대강당 설계에 이어서 1956년에 서울 수유리의 한국신학대학 본관, 흑석동의 중앙대학 본관등의 작품이 있었으나, 그 후로는 이미 그의 시대가 아니었다.

그의 작품 성향은 Vories사무소 건축수업을 통하여 익힌 고전주의 양식의 사용을 주로 하는 서양절충식의 양식건축이 대부분이었으나 해방후의 건축세계는 합리주의, 기능주의를 대표로 하는 근대건축이 주류를 이루게 된다.

1955년 이화여대의 대강당과 서울 수유리의 한국신학대학 본관을 설계할 때, 이화여대 김활란 총장과 당시 부통령이며 한국신학대학의 학장이었던 함태영선생은 의뢰하는 시설의 규모와 기능의 기본사항만 전달하였을 뿐으로 설계 전반에 대하여는 강운에게 전적으로 위임하였다. 그리고 설계비에 대해서도 강운의 청구서를 그대로 수용하였다. 이러한 인간적인 일의 관계는 강운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었다.

서울의 조형건축사무소의 李汶祚 선생은 大阪高等工學院(現大阪工業大學) 1942년 졸업생이다. 그는 일본에

서 소학교에도 갈 수 없을만큼 가정형편이 어려웠는데 이웃의 日人 小學校 女교사가 私費로 李汶祚 아동을 小學校에 입학, 졸업시키고, 이어서 5년제인 大阪工藝學校와 大阪高等工學院 建築科 3년제를 마칠때까지 돌보아 주었다. 조건은 훗날 성공하게 됐을 때 갚으라는 것이었다. 이미 90대의 노파가 된 일본 여교사와의 두분의 交分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그리고 1980년 고인이 되신 한양대학교의 박학재 교수도 李汶祚 선생과 이 학교의 입학동기였으나 박학재 선생은 중퇴하였다.

고국에 돌아온 강운의 작품에 대한 자료는 상기 언급된 건물 이외에는 잘 알려져 있지 못하다. 종로구 팔판동에 강운 자신이 설계한 그의 자택은 순수 한옥으로 설계되어 지금도 남아있다. 일반적인 한옥 평면구조의 건물이지만 다만 대들보가 뚜렷한 대청마루 구석에 Fire Place를 둔 것이 이색적이라 할 수 있다. 그가 오랫동안 일본에서 생활하였음에도 외색은 어느 구석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의 Fire Place는 Vories의 자택에서 보여지는 것과 유사하여 이에 영향을 받은듯 하다.

현재 공주에는 강운의 영명학교 동기동창생이며 함께 독립운동에 참가한 양재순씨가 1993년 당시에는 거주하고 있었으나 지금은 이미 고인이 되었다. 양재순씨는 영명학교를 졸업한 후 세브란스의전 출신으로 졸업후 고향 공주에서 개업을 하였다. 그는 1928년 공주 제일교회 옆에 공제위원을 개업하였는데, 이 병원은 30평 규모의 목조단층건물로 강운이 설계하였다. 지금도 그 의원건물은 남아있지만 그곳은 이미 의원으로서의 기능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임대되어 사용되고 있다. 필자가 답사한 1993년 7월 당시에는 미술전공의 부부가 작업실로 사용하며 거주하고 있었다.



한국신학대학 본관



중앙대학교 본관



Vories 자택내부 Fire Place

1937년 출판된 Vories작품집의 머리말에는 Vories의 동양에서의 건축활동에 대한 자신의 가치관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19세기 후반이래 나도 이종의 한사람으로 일본에 온 초기에 서양에서 동양을 처음 방문한 건축가는 누구나

세계적인 질병과 같은 것에 잘 걸리는 어떤 풍조가 있었다.

그것은 새시대의 필요성과 요망에 답하는데 있어서 그 나라의 특유의 아름다운 민족적인 건축양식을 사용할 것을 권한다든가 그 좋은 것을 인식하고 응용할 것을 강요당하는 일이다. 그러나 그 병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사라져간다. 그렇지 않으면 그 藥에 당겨서 문혀 버릴것이다. 우리들은 새로운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새 양식을 찾으려는 과정-과도기에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다. 외국인 건축가에게 딱기좋은 약은 아니지만 일본의 현대건축에 고대의 일본건축양식을 적용시킨다는 일의 선봉이라는 것은 일본인이어야 하고 외국인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외국인 건축가는 일본의 젊은 건축가를 위하여 서양건축의 해설자이며 그 응용의 협력자, 또는 살아있는 참고서로서 조심스럽게 무리가 없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내용은 Vories가 조선에서의 작품활동에 있어 강운의 역할을 뒷받침해 주는 내용이다. 실제로 Vories는 기본계획만 일본에서 실시하고 실시설계, 시공, 감리 등은 조선 현지에서 실시시키는 기본방침을 갖고 있었다. 이화여전의 경우는 그 공사가 대규모였던 관계로 강운이 출장소 소장으로서 파견된 셈이 된다.

Vories의 조선에서의 작품은 세브란스병원, 연희전문, 이화여전, 서울YMCA, 동경의 조선 YMCA, 라남교회, 부산진교회, 평양광성중학교, 함흥영생중학교, 대구계성학교, 개성송도고등학교 등 166점이 있다. 물론 이의 적지 않은 수가 강운의 손을 거친 것으로 본다.

### 가족사함

1928년 강운은 8년만에 일시 귀국하여 Vories가 설계



팔판동 자택



공제의원

한 서울 貞洞敎會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그의 신부는 명성있는 목사의 딸이었다. 그들의 신방은 Vories宅의 이웃에 자리잡았다. 강운은 仁根(1931, 在美土木기술자), 俊根(1933, 亡), 信根(1936, 재미건축가)의 3男을 두었으나 그는 2男과 부인을 저승길에 앞세웠다.

1974년 호리고 추운 이른 봄날, 서울 종로 화신동의 붉은 벽돌조 중앙감리교회에서 강운의 장례식이 있었다. 그때 그의 나이는 75세였다.

## 결어

우리나라 근대서양건축의 도입과정에서 건축가 강운에 초점을 두었던 이 조사연구가 기이한 결과를 낳게 되었다. 강운이 건축활동의 무대가 주로 일본이었던 관계로 자료수집에 다소 한계가 있었다.

강운의 건축행적에 관한 추적과정에서 그의 스승인 Vories를 찾았다. 동시에 강운이 3·1독립만세의 주동학생으로 공주지방법원에서 형 6월을 받았다는 사실은 전혀 예견하지 못한 발견이다. 이 일을 계기로 영병학교의 William교장의 주선으로 강운과 Vories가 이어진 경위도 상세하게 밝혀졌다.

조선의 침략자인 초대총독 寺內正毅의 요청에 의해 독일인 Lalande는 1911년 조선총독부 청사설계를 착수한다. 1908년 미국인 Vories는 Lalande가 설계한 일본 京都 Y.M.C.A의 현장감독을 계기로 일본에서 건축사무소를 개설한다. 그리고 강운은 1920년 Vories건축사무소에 입소하여 해방이 되기까지 25년간 Vories건축사무소 원으로서 근무하다가 해방을 맞는다.

오늘날 건축가로서의 강운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항일지사로서 강운을 아는 사람은 더욱 없을 것이다. 그

중 한사람으로서 필자는 흐려져 가는 그에 관한 기록을 해두어야겠다는 이 조사작업은 Vories와 강운의 만남의 확인까지가 큰 고비였다. 그리고 일본 大阪藝術大學에서 조선반도의 73점의 건축설계원도와 집하고 그 도면에서 Y. K, 혹은 Y. Kang이라는 서명을 보았을 때와 강운의 영명동창생이며 1919년 8월 3·1독립만세사건으로 함께 형을 받았던 의사 양재순씨를 통하여 정부기록보관소 부산지소에서 강운에 대한 판결문을 입수했을때 필자는 스스로 숙연하여지기만 하였다.

올해는 Vories건축사무소가 개설된지 89년째이고 강운이 Vories와 이어진지 77년 또 그가 세상을 떠난지 22년이 되는 해이다. 그가 설계한 이 땅의 많은 건축들이 전쟁과 세파에 시달려 소실 또는 파괴되어 폐옥이 되는 등 남아있는 건물일지라도 그 기능마저 변하였을 터이니 지금은 몇 점이나 옛 모습을 지니고 있을까.

Vories의 건축작품 1,500여점중 설계원도는 현재 일본 大阪藝術大學에 약 800점이 소장되어 있으며, 이를 필자가 大阪藝術大學 山形徹昭 교수와 함께 직접 분류·정리한 바 조선반도의 작품은 73점, 420면이었다. 이것이 우리나라 근대건축의 도입과정의 자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를 A3판 크기로 복사하여 1990년 10월에 제본하여 남겨두었다. 이제 그의 건축을 사랑하고 아끼던 많은 사람도 거의 떠났다. 후일을 위하여 이 조사연구의 보완과 그 건축들의 실태조사가 있기를 바란다.

— 이 조사연구는 吉田希夫 牧師内外, 作家 江南良三氏, 강운의 동료였던 西井一良氏, 隈元周輔氏, 關西大學 藤田允 教授, 千葉大學 寺門征男 教授, 神戸市の 小川清氏, 大阪藝術大學 山形徹昭 教授, 그리고 金眞一 漢陽大學 名譽教授의 도움으로 이루어졌다.—



팔관동 자택 내부 Fire Place



大阪藝術大學에 소장되어 있는 Vories의 조선반도 작품설계원도

### 3. 전통주거 마당의 구성원리

#### 3-1. 마당구성 특성원리

유교사상이 기본이 되는 신분간의 질서와 성의 유별은, 주거내에서는 신분제도로 인한 계급의 분화와 남녀의 內外法으로 間의 분화로 이어졌다. 이러한 원인으로 채가 분화되고 당연히 마당은 채와 더불어 구성되게 되었다. 중국이나 일본과는 달리 채의 분화로 이루어진 마당의 특성원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축의 원리

전통주거에서 가장 강한 축을 갖는 것은 마당의 축이라고 볼 수 있다. 안마당의 중심축을 기준으로하여 보면 하나의 중심점을 갖는 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3-1>에서 보면 가운데의 굵은 두께의 폭을 갖는 안마당의 축이 설정되어진다. 이 축의 크기는 보통 3~5간의 물리적인 치수로서 설명되기도 하지만 내부의 마당이 가지고 있는 규모가 문제가 아니라 대청뒤의 마당과 연결되는 그 결합성이 바로 마당이 갖는 에너지가 되는 것이다. 이 축은 내부 공간만을 묶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마당과 그 마당의 저 너편까지를 함께 이어주는 강한 흡입

력을 갖는다. 이 축을 중심으로 해서 각 방향으로 전개되어 가며 구성원리의 위계질서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 물론 마당을 향한 외,내향성의 특성원리는 그대로 작용하면서 각방향이 갖는 공간의 질서가 형성되는 것이다. 중앙의 안마당을 기준으로 하여, 동북으로 사당을 배치하고 사랑마당은 동남에 그리고 서북에 안채의 부속마당인 옆마당 등을 위치시킨다.

기본적인 안마당의 축은 주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가 되며 이 때를 중심으로 하여 각채가 분화의 과정을 거친다. 안마당에서부터 시작되는 분화의 논리는 그 축을 가지는 마당이 당당하게 그 힘을 작용하기 때문이다. 공간의 요소는 비어있는 것에서 출발하듯이 마당의 빈공간도 虛의 공간을 갖음으로서 시작된다. 공간은 인간에게 움직임의 자유를 주고 또한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치며 우리의 정신을 지배<sup>17)</sup>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더라도, 마당공간이 갖고 있는 원리는 주거생활 속에서 깊은 힘을 가지고 있었다.

17) B. Zevi, "Architecture as Space", 1993. 227쪽.  
(崔宗敦 外 1人 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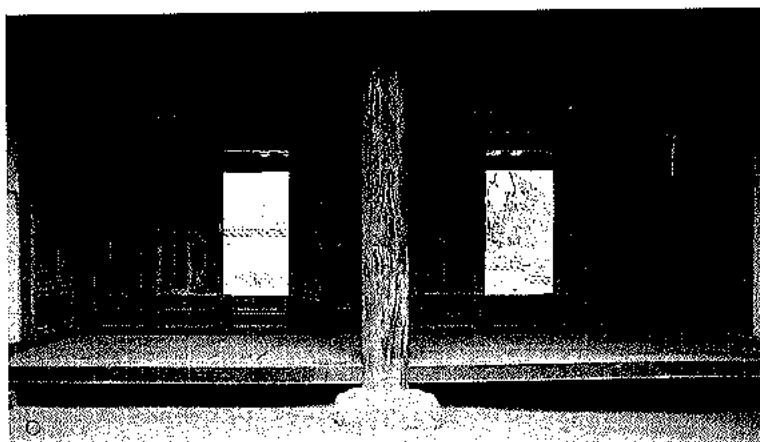
## 한국전통 주거공간의 마당 구성원리 (2)

A Study on the Structural Principle of Madang  
Based on Korea Traditional Dwelling Space

최동호 / 예전건축사사무소  
by Choi Dong-Ho

1. 이야기에 들어 가면서
2. 마당의 개념
  - 2-1. 마당의 정의
  - 2-2. 채와 마당의 분화
  - 2-3. 마당의 분류
3. 전통주거 마당의 구성원리
  - 3-1. 마당구성 특성원리
  - 3-2. 마당구성 원리분석
  - 3-3. 채와 마당의 구성원리
4. 전통주거 마당의 형태원리
  - 4-1. 마당의 유형분석
  - 4-2. 마당의 형태원리
  - 4-3. 마당의 규모

맺음말



香壇의 열린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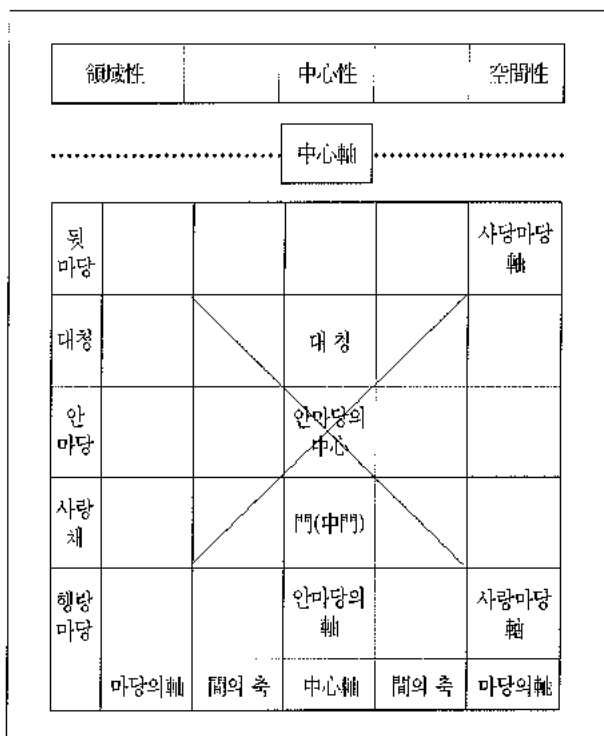


그림 3-1. 마당 공간 구성의 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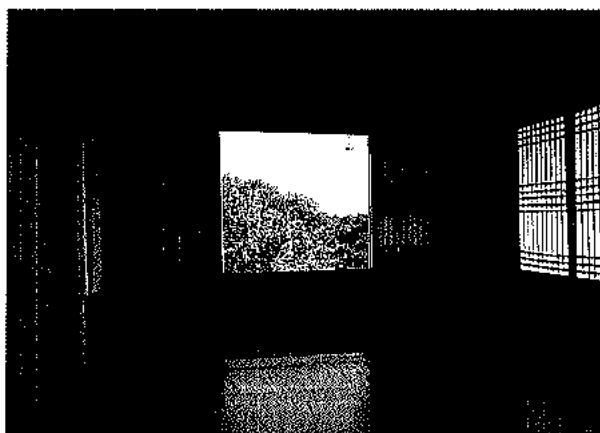
마당의 중심에서 시작된 “대청-마당-문(중문)”<sup>18)</sup>이라는 일정한 축은 채와 더불어서 口자형 평면의 마당을 구성하여 중심축을 이루고 있으며 그것을 근간으로 하여 상하의 위계질서 및 채(棟)와 채간의 규율적(規律的) 공간구성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축의 설정은 몸체의 경우에 4가지의 경우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 체계는 안마당을 기준으로 하여 뒷마당, 사랑마당, 중간마당 등이 나타나는 축이다.

안마당에서 시작하는 일직선 축을 살펴보면 추사고택과 같은 경우는 안마당+대청+뒷마당이 일치되는 축을 보이고 있으며, 향단은 안마당+사랑대청+사랑마당이 있음을 보이고 있다. 배치의 기본은 물론 풍수사상에 의한 평면형(月자형, 日자형, 用자형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3영역으로 보면 그 중심축 선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형1의 열린형은 안마당에서 뒷마당까지의 일직선상



추사고택의 안마당, 안마당이 중심이 된다.



윤중고택 사랑채 누마루에서 본 바깥마당

의 축에 맞춘 형으로서 정재영가옥, 관가정, 김동수가옥, 추사고택, 윤중고택, 윤선도가옥 등이 있으며 전통가옥의 대부분이 여기에 속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하나의 축을 만드는 것이 마당을 먼저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채가 우선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며 강한 축을 이루는 3영역을 연결하면 모두 하나의 공간으로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유형2는 안채와 안대청이 함께 구성된 형으로서 충효당, 양진당, 독락당, 박항가옥, 운조루, 감기옹 가옥, 船橋莊, 演慶堂 등이 이에 해당된다. 안채 때문에 대청의 열린폭은 유형1보다는 덜 개방적이지만 열린 깊이로 보면 그 가옥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해야 한다. 유형3은 香壇의 경우로서 사랑마당이 뒷마당 대신 자리잡고 있어서 유형1의 뒷마당이 바로 자연과 합일된다는 점과 다르다. 유형4는 의성김씨종가택의 중간마당이 생기는 부분이다.

## (2) 공간의 연속성

전통마당의 흐름은 매우 완벽한 질서로 이루어진다. 그 흐름의 진행은 차분하게 움직이면서 전체의 틀을 계속적으로 이끌어 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힘은 공간의 전체를 묶는 질서의 연속성이며 단계별로 이어지는 차분한 마당공간의 이어짐이라고도 볼 수 있다.

김기웅 가옥의 공간 특성원리를 살펴보면, 바깥마당을 통해서 대문을 진입하게 되면 이 주택의 공간질서의 예감은 커다란 행랑마당의 지점에서 전체의 윤곽을 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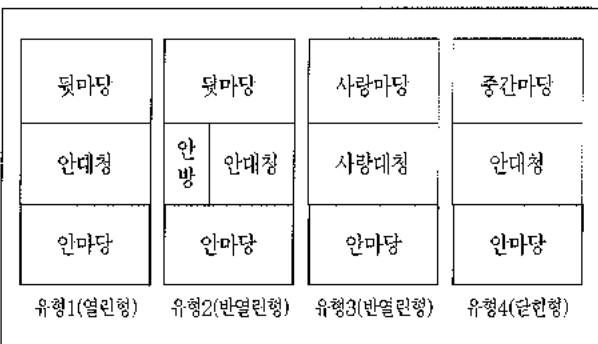


그림 3-2. 마당축의 연결로 본 채(棟)와 마당

18) 張營柱, “朝鮮時代 上流주택에 있어서 間과 空間構成” 중북대 석사, 1994.

악할 수 있는 것에 있다. 그러한 예측은 담으로 둘러싸인 마당의 범위를 지각할 수 있다는 추측이 된다. 이제 마당에서 중문으로 향하게 되고 중문채의 중문마당에 다다른다. 이곳의 완충적인 공간 성격은 중문의 성격이 그러하듯이 안채를 보호함에 시각적인 차단은 물론 심리적인 遮蔽를 가져온다. 이곳을 거쳐서 진입하게 되면 공간의 중심이며 전체마당의 핵이 되는 안마당에 도달한다.

안채로 둘러 쌓인 □자형의 안마당은 가옥의 중심부를 상징적으로, 형태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면서 마당의 중심을 갖고 있다. 뒷마당은 안대청과 연결되어 시각적으로 연속적인 흐름을 이어주면서 대청의 열린공간과 안마당은 하나가 된다. 이렇게 이 가옥은 주거공간의 특성속에, 연속적인 질서를 갖는 독특한 흐름의 공간을 소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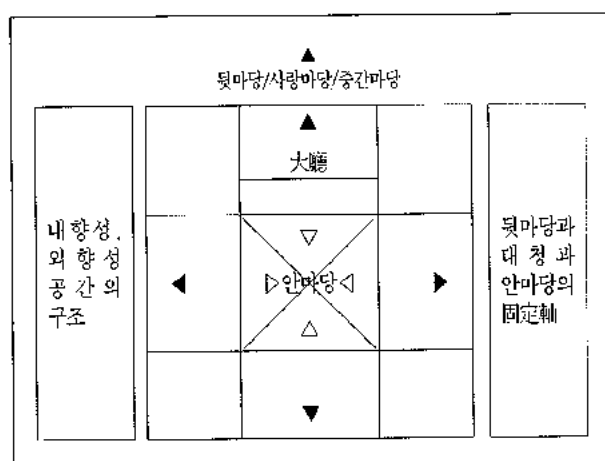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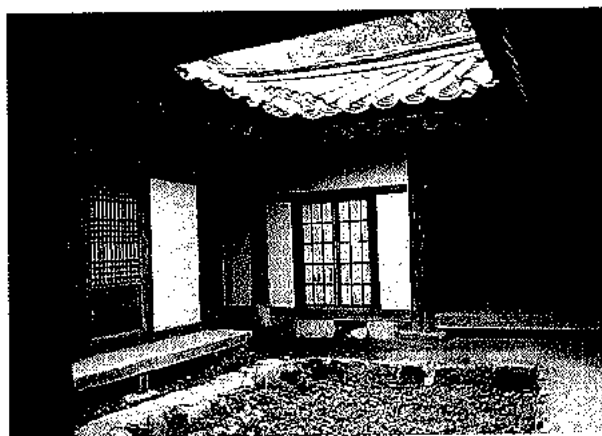


그림 3-3. 마당을 중심으로 한 內·外向性

### (3) 커를 갖는 공간

커를 소유하는 전통 주거의 공간은 “공간 속의 또다른 공간” “공간의 이중적코드” “調節空間”으로 불려질 수 있다. 분명히 전통주거 속에는 한 공간 안에 또 다른 공간(空間의 空間性)을 소유하고 있다. 안마당과 뒷마당은 각각 안채라는 커를 가지고 있다. 즉 앞뒤의 마당이 하나의 안채를 소유하고 있으며 안채는 두 개의 커(안마당에 면한 한커와 뒷마당에 면한 또다른 커)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입체적인 공간형성은 마당이란 외부공간이 내부공간의 성격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한국전통주거만의 독특한 구성방법 때문이기도 하다. 이것은 유기적 공간성의 틀을 갖는다. 커를 소유한 안채의 대청은 앞뒤로 벗겨질 수 있는 틀을 갖고 있는 것이다. 안채의 내부공간은 안마당과 뒷마당 사이의 공간성을 소유하면서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안마당은 단순히 외부공간이라고 보기에는 미흡하다. 안채 중에서 뒤에 해당하는 반내부(반외부)공간과 대청의 열린공간은 앞 뒤의 마당을 내부로 끌어들이며, 커 사이에서의 안채는 두마당과 일체가 된다. 이러한 커의 공간은 공간내



향단의 안마당. 가장 작은 마당이지만 열린 부분이 있다.

에서 반복되면서 전체 마당의 구성을 이끌어 간다.

이런 커의 공간은 조절의 능력을 갖고 있다. 안마당에서 뒷마당을 바라보면 안채라는 커가 마당의 크기를 조절하는 이중적 코드를 갖는 것이다. 이러한 좋은 예는 향단의 안마당에서 사랑마당 사이의 열린공간(사랑채라는 커)으로서 마당의 좁은 공간을 확장시키는 요소가 된다. 작은 공간에서 큰공간으로 확대되어 가는 휘모리 공간이 되는 심리적인 공간성을 이루는 것으로서 공간성을 갖게하는 조절공간이다.

### (4) 이원성(二元性)의 다양성공간

전통주거공간은 내부공간으로서의 기능과 외부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동시에 지닌 이원성<sup>19)</sup>을 가지고 있는 탄력적인 매력의 공간구조를 갖고 있다. 안마당의 기능에는 마당이라는 옥외공간에서 해야하는 일들이 대단히 많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마당이 단순히 통로만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 가사를 위한 공간인 까닭이다.

### (5) 자연합일 조화성 공간

위에서 살펴본 공간 연속성의 흐름이나 커의 공간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모두 자연과 하나로 되는 궁극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요소는 전통주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서 자연과의 융합으로서 외부의 요소를 실내공간에 끌어 들이는 수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연을 조망하는 방법으로까지 확대시키고 있다. 들어엿게의 분합문으로 외부의 자연을 조망하는 이치이기도 하다.

## 3-2. 마당구성 원리분석

마당공간이 구성되는 것을 보면 대체적으로 □자형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것은 채가 분화의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一자, 丿자, ㄷ자, □자의 채의 유형이 채(棟)와 그리고 담장과 만나는 부분이 “□”자형으로 되는 것으로서 독특한 마당 형상인 것이다.

특히 몸체에 속한 안마당은, 유형이 민가형, 경기형이나 또는 한일자집, 곱은자집<sup>20)</sup>의 평면구성에 관계없이 대지의 가운데에 형성되는 마당의 중심점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안마당의 중심성은 민가와 반가의 구분을 두지 않고 마당의 한 복판에 “□”자형태의 배치 갖게되는 것이다.

### (1) 여섯마당의 분류

19) 안영배, “韓國建築의 外部空間”, 보진재, 1990, 20쪽.  
20) 김홍식, “韓國의 民家(1)”, 꾸림44호, 5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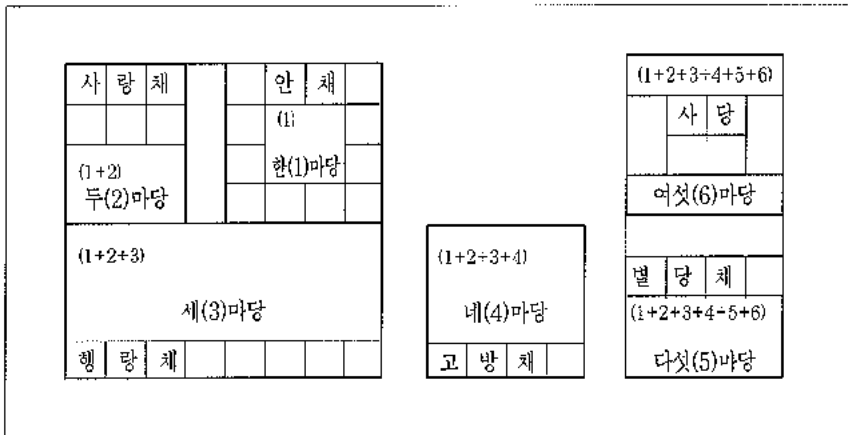


그림 3-4. 여섯마당의 구성원리

마당은 채(棟)의 분화로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주요 3채(안채, 사랑채, 행랑채)에 속한 각마당과 고방채, 별당채, 사당채로 분화되는 마당을 합하여 모두 “여섯(6)마당”으로 분류된다. 즉 여섯채의 분화에 속한 여섯 개의 마당이 주요마당이 되는 것이며 그외의 옆마당, 셋마당, 뒷마당 등은 6채의 각채속에 포함되는 부속마당이다. 전통주거속에 나타나는 모든 공간을 조사 대상으로 하는 과정에서 주마당과 부마당의 위계를 분명히 규정할 필요도 느끼게 되었다.

마당은 자연스럽게 채와 동반되는 것이지만 담장에 의해 서-사잇담과 사잇담의 공간-생기는 작은 마당(또는 통로) 또한 놓쳐서는 안되는 소중한 부분이다. 그 이유는 공간의 필요원인은 물론이지만 그 크기에서 나타나는 적절한 스케일의 감각이다. 어느정도의 규모가 알맞은 크기일 것인가는 대단히 중요한 분석의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민가의 경우에는 안채에 따른 안마당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며 또한 사랑채, 헛간채 및 부속사 등으로 “ㄱ”자 형태의 채가 만들어져도 역시 마당은 “口”자의 한마당이 대부분이다. 반가의 마당에서는 보통 세(3)마당 이상으로 구성되는데 이것은 몸체가 3분화되는 과정에서 안마당, 사랑마당, 행랑마당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렇듯 마당의 구성원리는 반드시 채에 의한 마당의 분화에 따라서 개수가 발생하는 것이다. 각채에 의한 마당의 원리를 살펴보면 채에 의한 마당이 한조를 이루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의 묶음으로 볼 수 있다.

마당의 구성원리는 <그림 3-4>와 같이 여섯마당으로 구분이 되어 그 내용을 달리한다. 즉 한마당은 한 몸체인 안채와 하나의 마당으로 되거나, 사랑채가 분화되기 전인 안채와 사랑채가 결합된 상태에서 채와 그리고 하나의 마당만이 이루어진 경우를 말한다. 다음 두마당은 사랑채(또는 헛간채)가 분화되어 안채와 사랑채(헛간채)가 별도로 나누어져 2개의 마당이 있는 것이며, 세마당은 행랑채를 포함하여 주요 3채의 안마당, 사랑마당, 행랑마당의 영역으로 구분되는 것이다. 이렇게 네마당, 다섯마당, 여섯마당으로 채와 동반되어 분화된다. 마당의 구성원리 분석은 채가 분화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였다. 마당은 채로 인하여 출발되며 그 채안에 마당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마당의 구성원리는 채를 기준으로 하여, 하나의 마당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한(1)마당, 둘로 나누어지는 것은 두(2)마당, 그리고 셋으로 되는 것은 세(3)마당, 그다음 네(4)마당, 다섯(5)마당, 여섯(6)마당으로 나누었다.

채와 마당의 유기적인 구성은 그 채에 따라 마당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본형의 한마당에서 여섯마당까지는 대단히 복잡한 구성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 (2) 여섯마당 형

한국전통주거 마당의 구성형태는 종합적으로 나누어 보면 모두 여섯가지로 분류하여 볼 수 있다. 특히 한마당, 세마당, 네마당, 다섯마당은 <표



향단의 안채와 행랑채의 사잇공간. 레벨차이로 인하여 생기기도 하였지만 통로로서의 기능과 함께 연속된 마당이라고 볼수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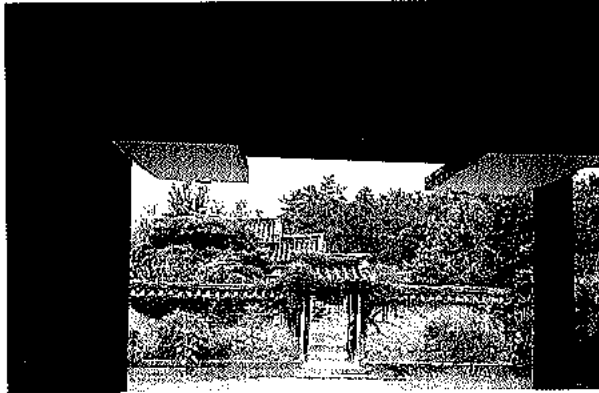
3-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각각은 또다른 形을 소유하고 있어서 2가지 또는 4가지 형식으로 다시 세분 하게 된다. 한마당의 3가지 유형은 채의 구성상 안채만 있는

표 3-1. 채(棟)와 마당구성에 의한 여섯(6)마당의 분류

| 구성원리<br>여섯마당形 | 마당의 구성 | 채의 구성                        |
|---------------|--------|------------------------------|
| 한(1)마당        | 기본형    | 안마당                          |
|               | 1형     | 안마당                          |
|               | 2형     | 안마당                          |
|               | 3형     | 안마당                          |
| 두(2)마당        | 기본형    | 안마당+사랑마당                     |
|               | 1형     | 안마당+행랑마당                     |
| 세(3)마당        | 기본형    | 안마당+사랑마당+행랑마당                |
|               | 1형     | 안마당+사랑마당+사당마당                |
| 네(4)마당        | 기본형    | 안마당+사랑마당+행랑마당+고방마당           |
|               | 1형     | 안마당+사랑마당+행랑마당+별당마당           |
|               | 2형     | 안마당+사랑마당+행랑마당+정자마당           |
|               | 3형     | 안마당+사랑마당+행랑마당+별당마당           |
| 다섯(5)마당       | 기본형    | 안마당+사랑마당+행랑마당+고방마당+별당마당      |
|               | 1형     | 안마당+사랑마당+행랑마당+고방마당+사당마당      |
|               | 2형     | 안마당+사랑마당+행랑마당+별당마당+사당마당      |
| 여섯(6)마당       | 기본형    | 안마당+사랑마당+행랑마당+고방마당+별당마당+사당마당 |



손동만 가옥의 행랑채와 안채의 사이공간



선봉국가옥의 사랑채에서 본 사랑마당



손동만가옥의 중문에서 본 뒷마당

기본형과 분화를 통하여 채가 부속채 또는 사랑채로 증가됨으로써 나타나는 것이며, 다섯마당은 기본형에서 별당및 사당마당의 유무에 의해서 다른 형식을 갖는 것이다.

물론 마당은 기능의 엄격한 分化에 의해서 사랑채의 옆이나 뒤를 포함하면 6개이상의 마당이 생길 수 있지만, 좌우 측면과 후면의 마당은 그 본채의 영역에 속한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곽간채와 곽간마당도 마당의 종류에서는 그 성격이 행랑마당과는 분명히 구별되지만 형태원리에는 행랑마당의 범주속에 삽입하였다. 기준이 되는 6마당의 구분은 3몸채를 우선하여 안마당, 사랑마당, 행랑마당과 곽방마당, 별당마당, 사당마당으로 나누었다.

### 3-3. 채(棟)와 마당의 구성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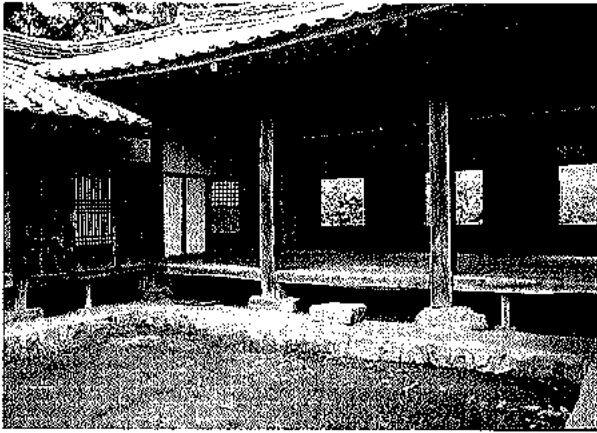
마당은 구성원리에서 나타났듯이 여섯마당의 유형이 나올 수 있었다. 그것은 여섯가지 채(안채, 사랑채, 행랑채, 곽방채, 별당채, 사당)에 의해서 나타나는 마당으로 여섯 개의 주마당에는 <표 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안마당에는 3개, 사랑마당에는 5개, 행랑마당에는 3개의 부속마당이 함께 공존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부마당의 역할이 주마당과 우열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같은 선상에서 본연의 기능을 갖고서 떼떽하게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채와 마당의 원리는 6채의 영역속에 11개로 분화된 독립된 채가 있으며, 이 채와의 관련성을 가지면서 16마당의 각기능을 갖는 것이다. 즉 행랑마당에서 사당마당까지 열여섯개소로 정한 "16마당"을 본 연구의 마당의 범위로서 정하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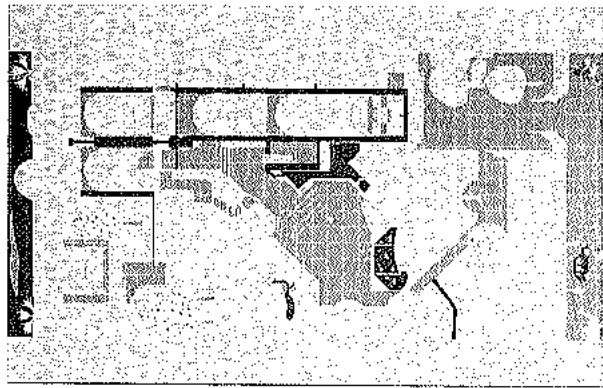
여섯영역의 주마당은 7개소(곽간마당, 중문마당, 사랑옆마당, 사랑뒷마당, 셋마당, 옆마당, 뒷마당)의 부속마당을 가지며 그 연결성을 소유하고 있다. 또한 채와의 마당구성은 6개소의 주요채와 4개(곽간채, 중문채, 안사랑채, 반빗간)의 부속채와 결합되어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

<표 3-2> 6채(棟)와 마당영역(주택內 마당)의 관련성

| 채(棟)<br>마당형태 |   |    |      | 행랑마당     |          |          | 사랑마당     |               |               |             |        | 안마당         |             |             |        | 고방마당 | 별당마당             |        | 사당마당 | 해당<br>마당수<br>(개소) | 비율<br>(100%) |
|--------------|---|----|------|----------|----------|----------|----------|---------------|---------------|-------------|--------|-------------|-------------|-------------|--------|------|------------------|--------|------|-------------------|--------------|
|              |   |    |      | 행랑<br>마당 | 곶간<br>마당 | 중문<br>마당 | 사랑<br>마당 | 사랑<br>옆<br>마당 | 사랑<br>뒷<br>마당 | 셋<br>마<br>당 | 정<br>원 | 안<br>마<br>당 | 옆<br>마<br>당 | 뒷<br>마<br>당 | 추<br>청 |      | 별<br>당<br>마<br>당 | 정<br>자 |      |                   |              |
| 행랑채          | 1 | 01 | 행랑채  | ●        | ●        | ●        | ○        |               |               |             |        |             |             |             |        |      |                  |        | 3.5  | 8.43              |              |
|              |   | 02 | 곶간채  | ●        | ●        | ●        |          |               |               |             |        |             |             |             |        |      |                  |        | 3.0  | 7.23              |              |
|              |   | 03 | 중문채  | ●        | ●        | ●        |          |               |               |             | ○      |             |             |             |        |      |                  |        | 3.5  | 8.43              |              |
| 사랑채          | 2 | 04 | 사랑채  | ○        |          |          | ●        | ●             | ●             | ●           | ●      | ○           |             |             |        | ○    |                  |        | 6.5  | 15.66             |              |
|              |   | 05 | 안사랑채 |          |          |          | ●        | ●             | ●             |             | ●      |             |             |             |        | ○    |                  |        | 4.5  | 10.84             |              |
| 안채           | 3 | 06 | 안채   |          |          | ●        |          |               |               |             |        | ●           | ●           | ●           | ●      | ○    |                  |        | 5.5  | 13.25             |              |
|              |   | 07 | 반빗간  |          |          |          |          |               |               |             |        | ●           | ●           | ●           |        | ○    |                  |        | 3.5  | 8.43              |              |
| 고방채          | 4 | 08 | 고방채  | ●        | ●        | ●        |          |               |               |             |        | ○           |             |             |        | ●    |                  |        | 4.5  | 10.84             |              |
| 별당채          | 5 | 09 | 별당   |          |          |          | ○        |               |               |             |        |             |             |             |        |      | ●                | ●      | 2.5  | 6.02              |              |
|              |   | 10 | 성자   |          |          |          | ○        |               |               |             |        |             |             |             |        |      | ●                | ●      | 2.5  | 6.02              |              |
| 사당채          | 6 | 11 | 사당   |          |          |          |          | ○             | ○             |             |        |             |             |             |        |      |                  | ●      | 2.0  | 4.82              |              |
| 계            | 6 | 11 |      | 4.5      | 4.0      | 5.0      | 3.5      | 2.5           | 2.5           | 1.0         | 2.0    | 3.5         | 2.0         | 2.0         | 1.0    | 2.0  | 3.0              | 2.0    | 1.0  | 41.5              | 100          |



관가정의 안마당에서 본 뒷마당의 열린공간



인도의 건축가 도쉬의 스튜디오를 표현한 외부공간 구성도

하고 있다.

채에 따른 마당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사랑채가 갖는 각각의 마당과의 연관비율이 16.05%로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하고 있는 사당의 공간은 4.94%가 되어 마당간의 관련성에는 제일 낮은 비율이다. 안채는 마당의 중심이 되긴 하지만 13.58%로서 사랑채 다음의 순위로 나타났다. 반딧간은 독립된 채로서 구성되며 연경당에서 보여주는 마당 공간은 안채

의 뒤에 위치하여 사방으로 마당을 구성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안마당의 후정과 사랑마당의 정원은 각각의 뒷마당과 사랑마당 속에 그 경계를 나타내면서 고유 영역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당 속의 공간을 점하고 있다.

표 3-3. 마당의 기능과 현대적 발전 유출가능성

| 마당종류          | 구분 |       | 고유<br>기능                                   | 공간의 구분    |        | 마<br>발<br>전<br>여<br>부 | 행<br>위    |                                                     |
|---------------|----|-------|--------------------------------------------|-----------|--------|-----------------------|-----------|-----------------------------------------------------|
|               |    |       |                                            | 전통적마당     | 현대적마당  |                       | 현<br>대    | 과<br>거                                              |
| 주택<br>외<br>마당 | 1  | 마감마당  | 영역의 認知性, 규모<br>판단의 場所性, 境界의<br>출발점         | 外部마당      | 단지内마당  | ●                     | 파티, 집회 모임 | 타작, 널뛰기, 율판,<br>무당굿, 마당밧기,<br>농악, 달춤, 줄타기           |
|               | 1  | 행랑마당  | 육외작업공간, 연결동<br>선, 완충역할, 수납공<br>간, 나목적공간    | 행랑채       | 없음     |                       | 없음        | 장작깨기, 나무더미<br>추리기, 농기구손질,<br>타작, 소먹일풍말리<br>기, 쇠죽끓이기 |
|               | 2  | 곳간마당  | 곳간채의 곡식저장                                  | 곳간채       | "      |                       | "         | 곡식말리기, 고추다듬<br>기, 허드렛일, 떡판치<br>기                    |
|               | 3  | 중문마당  | 안채보호공간, 시선차<br>단공간매개공간                     | 중문채       | "      | ○                     | "         | 행랑마당의 역할<br>일부 수용                                   |
|               | 4  | 사랑마당  | 접객, 외식, 집안의<br>대소사                         | 사랑채       | 거실앞    | ●                     | 정원으로 바뀜   | 혼례식                                                 |
|               | 5  | 사랑앞마당 |                                            |           |        |                       |           |                                                     |
|               | 6  | 사랑뒷마당 |                                            |           |        |                       |           |                                                     |
|               | 7  | 샛마당   | 완충공간, 통로                                   | 안채, 사랑채사이 | 없음     |                       | 없음        |                                                     |
|               | 8  | 정원    | 造園공간                                       | 사랑채       | 거실앞    | ●                     | 휴식, 감상    | 휴식, 감상                                              |
|               | 9  | 안마당   | 통로및 동선, 작업 통풍<br>채광, 가사공간, 폐쇄적<br>공간, 의식집회 | 안채        | "      | ●                     | 점차마당 없음   | 무당굿, 집안의<br>대소사, 빨래                                 |
|               | 10 | 옆마당   | 가사공간, 통로                                   | "         | 주방옆, 뒤 | ●                     | 장독대       | 빨래                                                  |
|               | 11 | 뒷마당   | 가사공간, 접근어려움,<br>자연과의 융합, 안마당<br>과의 열린공간    | "         | "      | ●                     | 장독대       | 고추다듬기                                               |
|               | 12 | 後庭    | 과실수, 휴식처                                   | 안채와 사랑채   | 거실부근   | ○                     | 정원        | 사색, 휴식, 감상                                          |
|               | 13 | 廂房마당  | 수장공간                                       | 고방채       | 없음     |                       | 없음        |                                                     |
|               | 14 | 別堂마당  | 조원공간, 사랑채와 精舍기능                            | 별당        | 사랑방앞   | ○                     | 정원        | 接客, 讀書, 觀賞                                          |
|               | 15 | 亭子마당  | 수양공간                                       | 정자        | "      | ○                     | 정원        | 休息, 思索                                              |
|               | 16 | 祠堂마당  | 家廟空間                                       | 사당        | 없음     |                       | 없음        | 祭祀                                                  |

## 1. 서론

## 1.1 국내 노인시설의 현황

최근 개별가족의 노인부양의 능력이 한계에 도달해 있으며 노인의 지식과 별거의식도 많이 증가하였고, 이에따라 1981년 노인복지법의 개정공포와 함께 노인복지문제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어 지금까지의 무의무탁한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방향을 확장, 노인의 심리적, 사회적 변화에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마련을 위한 관심이 확대되었다.

핵가족화의 가속화와 함께 노인주거 문제 및 이들의 장기치료를 위한 시설의 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 이들을 위한 복지시설은 열악하고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이는 우리나라 노인복지시설의 수와 수용인원을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표-1> 참조).

# 노인주거의 설계기준(완)

Design Guidelines for Elderly People

노인을 위한 주택설계 사례4(국내)

강병근 / 건국대 건축공학과 교수

by Kang Byoung-Keun

## I. 노인주거의 필요성과 무장애 공간

1. 노인주거의 필요성
2. 무장애 공간계획

## II. 노인을 위한 주택설계기준 1

1. 주택 출입구
2. 거실
3. 침실

## III. 노인을 위한 주택설계기준 2

1. 욕실 및 화장실
2. 부엌
3. 발코니

## IV. 노인을 위한 주택설계기준 3

1. 인테리어
2. 조작기기
3. 정원

## V. 노인을 위한 주택설계사례 1~3 (국외)

## VI. 노인을 위한 주택설계사례 4 (국내)

우리나라의 시설주거로는 위의 표에서도 볼 수 있듯이 크게 유료, 실비, 무료로 나누는 양로원과 요양시설<sup>1)</sup>이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법인 등의 민간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료양로원, 요양원은 모두 합쳐 약 90여개소 내외로 조사되고, 수용인원은 6천여명에 불과하여 저소득층의 노인들 조차 수용할 곳이 부족한 실정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전체노인인구의 0.3%에 불과하며, 특히 노인요양시설은 무료와 실비시설을 합쳐 24개소에 1,561명을 수용하고 있어 전체 노인인구의 0.073%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양로원에 있어서는 캐나다의 약 1/14, 일본의 약 1/3 수준이며, 요양원에 있어서는 캐나다의 약 1/78, 일본의 1/15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sup>2)</sup> 유료주거시설로는 유료양로원 및 요양시설이 경기도 수원시의 '유당마을(사회복지법인 재성)'과 경남 양산군의 '해성원(사회복지법인 해성원)', 수원의 '충효의 집(사회복지법인 성지원)',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성광원(사회복지법인 성광복지재단)', 그리고 95년 7월 개관한 '라비돌' 등 5곳이 대표적이며(<표-2> 참조), 유료노인주거를 건립하려 계획하고 있는 업체는 전국적으로 50여개소가 있는 것으로 조사된다(실버산업의 현황과 개발방향, 95년 보고서). 대기업인 D사는 충

<표-1> 노인복지시설 운영현황

| 구분             | 양로시설  | 노인요양시설 | 실비양로시설 |
|----------------|-------|--------|--------|
| 시설수(개)         | 71    | 18     | 1      |
| 수용 및 이용 노인수(인) | 4,962 | 1,447  | 8      |

| 구분             | 실비요양시설 | 유료양로시설 | 노인복지회관 |
|----------------|--------|--------|--------|
| 시설수(곳)         | 6      | 2      | 2      |
| 수용 및 이용 노인수(인) | 114    | 62     |        |

자료 : 보건사회복지, 1991, p.326

남 아산시에 조성 중인 온천단지 안에 1만7천평 규모의 실버주택단지를 건설, 내년 여름에 분양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현재 부지조성공사 중인데, D사의 휴양단지 안에는 한방 및 서구식의 의료시설과 온천, 헬스시설 등 노인치료시설과 가족들이 방문

1. 유료 양로시설 : 경제적 부담이 가능한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치료,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에 소모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는 시설.

2. 송성진, 우리나라 노인복지시설의 문제점, Plus 특집, 9211호, PP. 143~149

3. 한국일보, 1995년 12월 25일

〈표-2〉 한국의 유료노인주거시설 현황

| 시 설 명 | 운 영 주 체 | 개 시  | 위 치         | 입 주 상 황   | 입 주 보 증 금  | 월 생 활 비 |
|-------|---------|------|-------------|-----------|------------|---------|
| 유당마을  | 사회복지법인  | 88.7 | 경기도 수원시 조원동 | 56 / 75명  | 2천4백~4천8백  | 50~90만원 |
| 혜성원   | 종교단체    | 89.5 | 경남 양산시 감리산  | 48/74명    | 7백70~1천2백만 | 30~50만원 |
| 종효의 집 | 사회복지법인  | 91.3 | 경기도 수원시 조원동 | 36 / 86명  | 3천만~7천만    | 60~90만원 |
| 성광원   | 사회복지법인  | 94.5 | 경기도 평택 장안동  | 20/50명    | 2천만~4천만    | 40~70만원 |
| 라비들   | 주식회사    | 95.7 | 수원전문대       | 30 / 480명 | 2억(2인기준)   | 150만원   |

할 경우, 즐길 수 있는 야외 휴식공원 등이 만들어지게 된다.<sup>3)</sup> 또한 T개발공사는 경기도 파주군 일대에 1백68만평 규모로 조성된 통일동산의 동쪽 산림욕장 3만 7천평에 노인복지시설과 노인병 전문의 의료시설, 양로시설 등이 들어서는 실버타운을 건설키로 방침을 정하고 내년 중에 시설설계를 마무리지어 97년 중에 분양할 계획이다. T개발공사가 95년 10월 4일에 밝힌 통일동산 개발계획 수정안에 따르면 전체면적 1백68만1천평 가운데 20만3천평을 실버타운 기능을 가진 주거공간인 〈방향의 촌〉으로 개발하기로 하였고, 창원시는 1995년 11월 4일 북면 상리와 하천리 일대 9만여평에 실버타운을 포함한 종합레저타운〈창원랜드〉를 조성키로 하고 오는 2001년 준공을 예정하고 있으며, 전주시도 덕진구 우이동 이중유원지 일대에 사회복지사업의 하나로 10만평 규모의 대규모 실버타운 조성사업에 착수하여 2002년까지 완공할 계획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한 경제연구소 조사에 나타나고 있다. 이 중 대표적인 몇가지 시설을 보면 〈표-2〉와 같다.

## 2. 국내 노인주거시설 사례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은 노인들의 주거시설, 여가시설에 관한 사항들을 명시하고 있는데 동법 제18조에 유·무료 양로시설과 요양시설 그리고 노인복지주택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시설이 지니는 기능상의 공통점은 노인을 위한 급식 및 일상생활에 편의를 제공한다는 점에 있으며 다른점은 시설운영면에서 노인의 소요경비 부담여부와 서비스 내용면에서 의료의 수용

〈표-3〉 노인시설 주거형태

| 정 부 재 원 |     |      |     |         |
|---------|-----|------|-----|---------|
| 시설주거    |     |      |     | 일반주거    |
| 시설주거    |     | 일반주거 |     | 영구임대아파트 |
| 양로원     | 요양원 | 양로원  | 요양원 |         |

| 민 간 재 원 |     |           |           |          |
|---------|-----|-----------|-----------|----------|
| 시설주거    |     | 일반주거      |           |          |
| 유 료     |     | 임대<br>아파트 | 일반<br>아파트 | 단독<br>주택 |
| 양로원     | 요양원 |           |           |          |

(자료 : 보사부 노인복지과)

4.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은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한 유료양로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등을 민간기업이 아닌 비영리법인이 설립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영리법인의 참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미국이나 일본과는 큰 차이가 있다.

성과 상담수용성을 지녔느냐의 유무에 차이가 있다.

동법 제20조에서는 노인휴양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근거와 함께 동법 제12조 제2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노인정 포함),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까지 마련해 놓고 있다.<sup>4)</sup> 현재 주관부처인 보사부에서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입법추진중에 있는 바 민간기업체나 개인도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신설된 개정안 제19조의 3(유료노인복지시설의 설치)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민간기업체나 개인도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유료노인복지시설(유료양로, 요양시설, 노인복지주택)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음에서는 대표적인 국내 노인주거시설의 사례를 양로시설과 요양시설로 크게 구분하여 살펴본다.

### 2.1 양로시설

우리나라 최초의 유료양로원 : 88년 9월 경기도 수원시에 설립된 「유당마을」이 효시이고 89년 5월 경남 양산에 설립된 「혜성원」을 들 수 있다.

#### 1) 유당마을

##### • 개요

- ① 개원 : 1988년 7월
- ② 위치 : 경기도 수원시 조원동

〈표-4〉 객실현황

| 구 분  | 객실수(개) | 정원(인) | 비 고                           |
|------|--------|-------|-------------------------------|
| 1인실  | 23     | 23    | 입주율 : 74%                     |
| 2인실  | 23     | 46    |                               |
| 2인특실 | 3      | 6     |                               |
| 계    | 49     | 75    |                               |
| 구 분  | 객실수(개) | 면적(평) | 비 고                           |
| 1인실  | 24     | 6.2   | 2인특실은 계획시 4인실이었으나 이용자가 없어 전환함 |
| 2인실  | 20     | 8.1   |                               |
| 2인특실 | 6      | 12.4  |                               |
| 계    | 50     |       |                               |

〈표-5〉 입주비와 생활비

단위 : 천원

| 구 분  | 보증금    | 월생활비 | 비 고         |
|------|--------|------|-------------|
| 1인실  | 20,000 | 420  | 월 생활비에 식비포함 |
| 2인실  | 28,000 | 840  |             |
| 2인특실 | 40,000 | 370  |             |
| 계    | 50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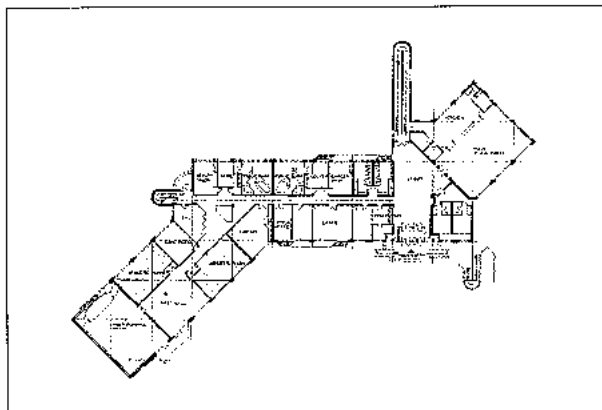


그림 1.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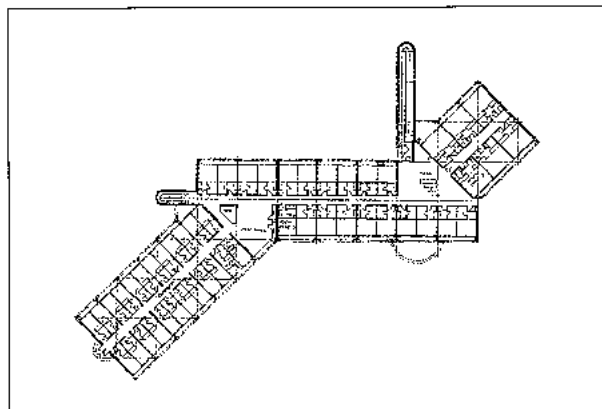


그림 2. 2층 평면도



사진 1. 건물 현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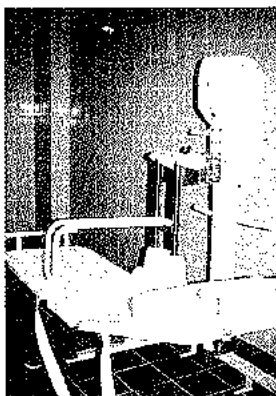


사진 2. 욕조 시스템

- ③ 규모 : 대지면적 - 4,159평,  
건축연면적 - 1,502평(지하1층, 지상2층)
- ④ 수용인원 : 75명
- ⑤ 현재인원 : 56명

#### • 운영현황

- ① 설립법인 : 사회복지법인 제성
- ② 시설의 종류 및 입소방식 : 갑형 유료양로시설, 입대방식
- ③ 입소자격 : 만 65세 이상의 신체건강한 자, 부부의 경우 1인이 65세 이상이면 가능
- ④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 식사서비스 : 1일 3식, 1회 간식 제공
  - 간호서비스 : 24시간 간호사 상근 및 1일 1회 화진을 통한 간호서비스 제공, 환자발생시 인근계약병원 이용, 1주1회 촉탁의사 방문, 건강체크
  - 건강관리서비스 : 주2회 에어로빅 지도, 건강관리 및 식생활 강좌 개최
  - 취미활동 서비스 : 한지공예, 지점토 등 취미 레크레이션 활동제공
  - 교통서비스 : 1일1회 수원시내까지 차량운행 및 매주 1회 정기쇼핑기회 제공

#### • 특기사항

입지는 수원 근교 간선도로변으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는데 야트막한 야산을 배경으로 전면에 약간의 논밭인 평지가 전개되어 있다. 88년 7월에 개원되었으며 4,200평의 대지위에 연면적 1,500평 규모의 지하 1층 지상 2층의 초현대식 건물에 50개의 실을 갖추고 있다. 각방에는 화장실, 욕조, 옷장 등이 구비되어 있다. 주요 부대시설들은 노인들의 특성을 고려 의무실, 사우나, 이·미용실, 헬스실, 게이트볼, 배드민턴장 등이 있으며 식사와 간호, 교통, 취미활동 등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유당마을의 입주자들은 대부분 생활수준이 중상층에 해당하고 건강상태가 양호한 편이다. 의료시설을 갖추고 있지 못해 도중에 병이 들거나 질병이 있는 노인은 입주가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sup>3)</sup>



사진 3. 1인실



동선체계는 수직적 단형 구조보다는 수평적 평면구조로 처리하고 있다(〈그림-1〉,〈그림-2〉 참고). 기존 양로원의 수용개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 및 시설에 노인들을 쾌적하게 정주시킨다는 개념을 우선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계획의 주안점을 두고 있다.

시설내에 쉽게 접근하여 담소, 오락,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고려, 전면적의 50%를 Public Space로 계획한 것은 나름대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식당과 강당, 대충탕, 이·미용실, 체육실, 도서실, 여러 종류의 오락실, TV시청실과 외부와 연결되는 홀, 로비가 있으며 그것들은 대부분 1층에 배치되었다. 반면 1층과 달리 2층은 Private Space로서 침실 Zone을 크기별로 Grouping하여 배치하되 그 결절점에는 오락, 휴식을 즐길 수 있는 큰 홀을 두고, 채광은 Top Light로 처리하였다. 모든 침실은 노인들의 생활감각상 온돌로 처리하고 있으며, 여기에 외부로 전망할 수 있는 발코니와 편의성을 위해 전용 욕실을 두었다. 외부 조경 요소와 내외공간의 연결을 고려하여 침실 Zone인 2층에서도 직접 외부출입이 가능하게 했으며, 창을 가능한 한 크게 설치하였다. 외장은 부드러운 느낌과 친화력을 갖추기 위해 격자창과 적벽돌을 사용함으로써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꾀하고 있다.

## 2) 성광원

### • 개요

- ① 개원 : 1993년
- ② 위치 : 경기도 송탄시 장안동
- ③ 규모 : 대지면적 - 3,000평,  
건축연면적 - 400평 (2층, 23개실)
- ④ 수용인원 : 50명
- ⑤ 거주자 평균연령 80~90세, 현재 20명 거주.
- 운영현황
- ① 설립법인 : 사회복지재단 성광원
- ② 시설의 종류 및 입소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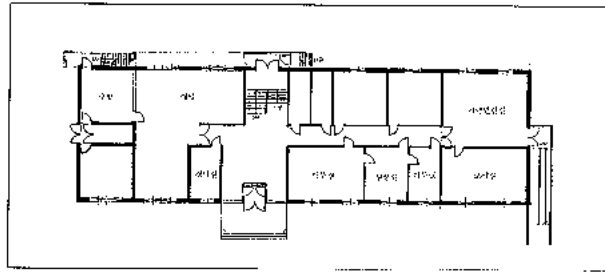


그림 3.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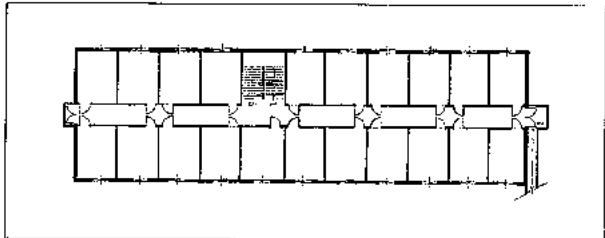


그림 4. 2층 평면도

: 유료 양로시설, 임대방식

- ③ 입소자격 : 65세이상 신체건강한 노인, 또는 부부의 경우 1인이 65세 이상이면 가능
- ④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 식사서비스 : 1일 3식제공
  - 보건 위생 및 간호 서비스 : 입주시 입주자의 건강상태를 조사, 기록하고 입주후 정기 및 비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시행. 일시적인 노인질환 등이 발생할 경우 일정기간 간호제공
  - 취미활동 서비스 : 각종 문화 및 취미활동, 노인 대학 등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주말농장, 산책로, 운동시설과 낚시터 등을 이용할 수 있다.

### • 특기사항

3천평의 대지 위에 독립된 생활공간과 각종 레저시설, 진료시설을 갖추었으며 풍경 좋은 구룡을 배경으로 한 전원적 입지조건을 갖고 있다.

다양한 평수의(1인실:17.82㎡, 2인실:19.98㎡, 3인실:24.83㎡, 6인실:59.00㎡) 거주공간을 확보하고 있는데, 각 실마다 개인전화와 옷장, 별도의 세면실 및 목욕실이 독립적으로 계획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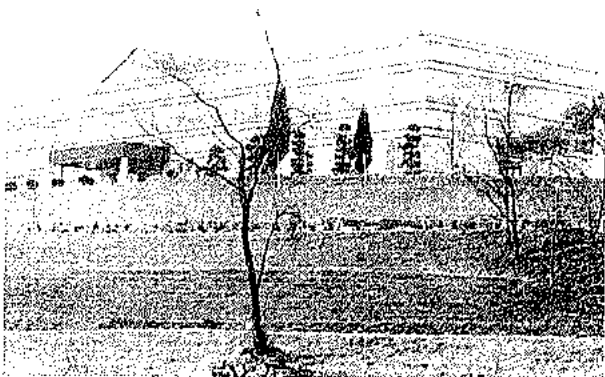


사진 4. 건물 정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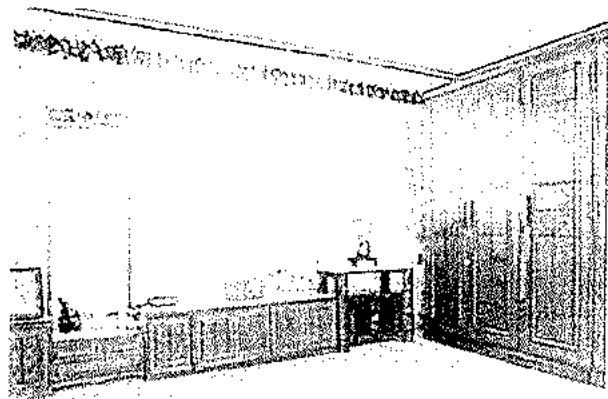


사진 5. 현재 거주중인 단위주호

5) 유당마을에서는 96년 9월에 요양 및 치료를 위한 시설과 주거를 증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 있다.

부대시설로는 강연 및 모임활동을 위한 대형강당과 50명 수용이 가능한 식당, 독서실 및 오락실, 물리치료실과 노인이용의 편의를 고려한 사우나실 및 이미용실 등이 있다.

건물형태는 직사각형의 2층 아파트 모양으로 1층에는 각종 부대시설(식당과 주방, 경비실, 사무실과 원장실, 의무실, 도서실과 체력단련실 등과 2개의 주거실이 위치하고 중앙계단을 통하거나 건물 측면의 램프를 통하여 2층으로 올라가면 21개의 거주실이 있다. 건물의 일부분에 아트리움식으로 처리하여 햇빛을 받아들이고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고려하고 있다.

### 3) 혜성원

- 개요
  - 개원 : 1989년 5월 1일
  - 위치 : 경남 양산군 하북면
  - 규모 : 대지 2,280평.
  - 연면적 700평(지하 1층, 지상 4층)
  - 수용인원 : 74명
  - 운영현황
  - 설립법인 : 사회복지법인 혜성원
  - 시설종류 및 입소방식
    - : 갑형 유료양로시설, 임대방식
  - 입소자격 : 만 65세 이상의 신체건강한 자, 부부의 경우 1인이 65세 이상이면 가능하다. 소정의 생활비를 부담할 수 있는 사람.

〈표-6〉 입주비와 생활비

단위 : 천원

| 구 분 | 보증금    | 월생활비 | 비 고         |
|-----|--------|------|-------------|
| 1인실 | 64,000 | 270  | 월생활비에 식비 포함 |
| 2인실 | 10,800 | 450  |             |

참고 : 기독교 원로목사 대상으로 한 비영리재단, 회원권 판매, 재단 특성상 현금 및 기부금으로 재정적자 보충

〈표-7〉 객실현황

| 구 분  | 객실수(개) | 면적(평)   | 비 고       |
|------|--------|---------|-----------|
| 1인실  | 16     | 4       |           |
| 2인실  | 22     | 5       |           |
| 2인특실 | 7      | 5       |           |
| 병실   | 3      | 3       |           |
| 계    | 49     |         |           |
| 구 분  | 정원(인)  | 입주자수(인) | 비 고       |
| 1인실  | 16     | 16      | 입주율 : 43% |
| 2인실  | 44     | 16      |           |
| 2인특실 | 14     | 0       |           |
| 계    | 74     | 32      |           |

- 제공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 식사 서비스 : 1일 3식, 2회 간식 제공
  - 간호서비스 : 24시간 간호사 상주, 간호서비스 제공 (환자발생시 부산의 계약병원 이용)

- 건강관리서비스 : 각종 운동기구, 탁구대, 특수안마기, 배구 등의 운동프로그램과 식생활 강좌제공
- 취미생활서비스 : 서예, 꽃꽂이 등의 취미생활 제공, 음식솜씨자랑 프로그램 운영
- 교통서비스 : 인근 양산과 신평의 5일 장날은 쇼핑을 위해 차량 운행
- 종교서비스 : 예배실, 각종 기도회 개최
- 기타서비스 : 노인대학, 순회관광, 생활상담서비스, 관리인원 15명이 부수서비스 제공

1989년 5월에 사회복지법인으로 개원하였으며 경남 양산군 하북면에 위치한 2,280평의 대지위에 연면적 700평 규모의 건물로 각실 수 45개와 병실 3개가 있다. 입소자격은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나 주로 종교단체에서 퇴거한 목회자나 교회직분자를 대상으로 하여 입소비용은 다른 곳에 비해 저렴한 편이다.

### 2.2 요양시설 (Nursing Home)

노인을 입소시켜 일정한 요금으로 급식, 치료,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노쇠현상이 현저하여 타인으로 부터 몸시중을 받아야 하거나 입상노인으로서는 장기적인 치료를 요하는 노인들을 수용 및 보호하는 시설이다.

따라서 요양시설 내에서 어느정도의 의료시설이 구비되어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장애자들을 위한 주택구조와 간호사 및 보조원, 의사(또는 축탁의사)가 일정 규모에 따라 배치되어야 한다. 이러한 인원과 시설의 배치가 일반 양로시설과 차이가 있는 부분이라 하겠다.

일반적으로 노인주거나 양로원 정도는 일반기업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나, 준병원 시설과 의사 간호사가 필요한 요양원은 설립하기를 주저하는 것으로 보이며, 일부 유료 양로시설에서는 거주자가 장기치료를 요할 단계가 되면 입주자격을 얻지 못하거나 또는 퇴소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 1) 충효의 집

- 개요
  - ① 개원 : 1991년
  - ② 위치 : 경기도 수원시 조원동
  - ③ 규모 : 대지 10,295평.
  - 건축연면적 1,853평 (지하1층, 지상2층)
  - ④ 수용인원 : 86명
  - ⑤ 현재인원 : 32명
  - 운영현황
  - 설립법인 : 사회복지법인 성지원
  - 시설종류 및 입소방식 : 갑형 유료양로시설, 임대방식
  - 입소자격 : 만 65세 이상의 개인, 부부로 생활비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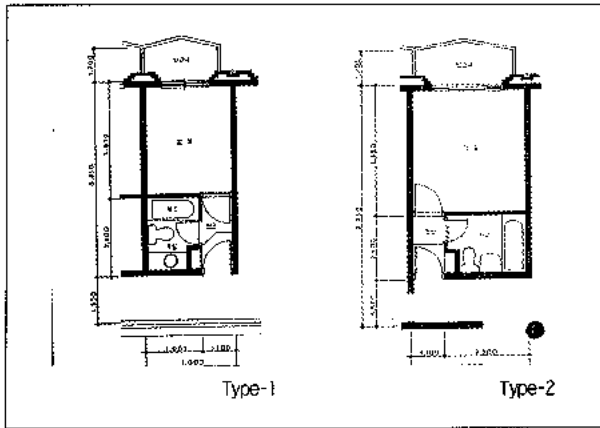


그림 5. 단위평면도

담 가능한자, 노인병으로 요양이 필요한 자(결핵, 전염병, 정신질환자 제외)

#### • 특기사항

국내 유일의 유료요양시설로 91년 3월에 개설한 충효의 집은 결핵 및 전염성질환이나 정신질환자, 치매환자를 제외한 노인병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이다.

대지 6,000 여평에 연면적 1,530 평의 초현대식 3층 건물로 1인실 52개, 2인실 및 특수실 17개 등 69실의 시설규모로 86명이 정원이다. 직원은 영양사와 사회복지사 등 모두 17명으로 의사 1명과 간호사 1명이 상주하면서 수시로 노인들의 건강상태를 체크한다. 각방과 화장실마다 너스콜(Nurse Call)을 설치해 위급한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노인들의 식사문제도 질병상태나 건강상태 등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개별식단을 짜며 치료 위주의 식이요법 식단을 마련하고 있다. 공용시설로 입원실, 물리치료실, 진료치료실, 약제실, 한방치료실 등 의료시설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으며 독서실, 오락실 등도 갖추고 있다.

양로시설과는 달리 일생을 이곳에서 마치는 노인들도 있으므로 영안실, 혼백실 등도 마련해 놓고 있다. 일반적인 특성은 노쇠화로 인해 생활규모나 활동범위가 축소되어 특별한 활동욕구가 부여되지 않는 한 하루종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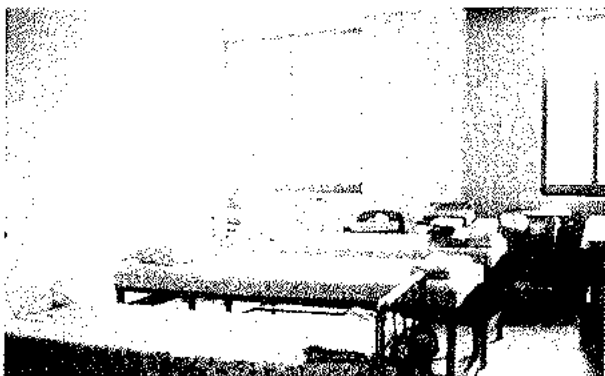


사진 6. 충효의 집 - 물리치료실

#### 〈표-8〉 입주비와 생활비

단위 : 천원

| 구 분  | 보증금    | 월생활비 | 비 고            |
|------|--------|------|----------------|
| 1인실  | 20,000 | 420  | 월 생활비에<br>실비포함 |
| 1인특실 | 10,800 | 500  |                |
| 2인실  | 10,800 | 840  |                |
| 2인특실 | 70,000 | 800  |                |

운영비 충당을 위한 수익사업 구상 → 별도 회원권 판매, Sports Health 기능 부대

#### 〈표-9〉 객실현황

| 구 분  | 객실수(개) | 면적(평)   | 비 고       |
|------|--------|---------|-----------|
| 1인실  | 46     | 6.2     |           |
| 1인특실 | 6      | 9       |           |
| 2인실  | 10     | 9       |           |
| 2인특실 | 7      | 11.59   |           |
| 병실   | 3      | 13      |           |
| 계    | 49     |         |           |
| 구 분  | 정원(인)  | 입주자수(인) | 비 고       |
| 1인실  | 46     | 16      | 입주율 : 37% |
| 1인특실 | 6      | 1       |           |
| 2인실  | 20     | 7       |           |
| 2인특실 | 14     | 0       |           |
| 계    | 86     | 32      |           |

혼자 가만히 머물러 있게 된다는 점, 더군다나 기존의 물리적 환경구조가 이들의 활동범위를 더욱 축소·제한시킨다는 점 등이다.

침실은 1인실·2인실 등으로 상층부에 배치, 독립성을 주었으며 각 건물동에는 중정을 두어 자연스러운 채광 및 실내정원을 조성하여 한결 부드러운 쾌적성을 주었다. 또한 모든 침실은 온돌로 되어 있으며, 편의성을 두어 전용 욕실을 두었다. 외장은 적벽돌을 사용했고, 지붕은 AS형골을 사용하였다.

동쪽에서 바라본 사무동 전경- 돌출된 지붕 처마에 둘러쳐진 흰색 띠는 적벽돌의 매스를 한정지어 주면서 강한 선적 이미지를 제공해 준다.

중앙 본관동 남측 전경- 크게 3개의 매스로 구성된 이 건물은 전반적으로 수평성이 강조되어 있으며, 여러 형태의 적벽돌 매스와 디테일 및 곳곳에 설치된 원형기둥과 프레임 등이 하나로 묶여져 있다.

남서측에서 바라본 중앙 본관동 전경- 하부의 적벽돌 원형 매스와 그 위에 설치된 녹색 프레임은 수평으로 길게 늘어진 파사드의 지루함을 덜어 주면서 주요한 입면 요소로서 기능을 한다. 중앙 본관동과 사무동 사이에 설치된 옥외공간은 통로 역할을 하면서 주변의 동선을 모아주는 코어 기능을 담고 있다.

중앙 본관동 내부의 중정- 사각뿔 천창이 설치되어 있어 빛의 유입을 통한 공간의 활기를 얻을 수 있으며, 내부공간의 중심으로써 사용자에게 충분한 휴식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 고속철도 부산통합역사

Pusan High Speed Train Station

고속철도 부산통합역사 국제설계경기의 결과가 지난 9월 19·20일일간에 심사를 거쳐 (주)건원종합건축사사무소(곽홍길)+니콜라스 그림쇼 파트너스사 안을 당선작으로 선정, 23일 발표되었다.

이번 설계경기는 지난 4월 30일 공고되어 51개팀이 참가 신청을 하고 모두 19개팀이 작품을 접수한 결과 당선팀이 부지면적 316,830㎡, 건축계획안 연면적 119,000㎡인 부산통합역사 설계권을 갖게 되었다.

3부로 나누어 진행된 심사는 1부는 심사위원장 선출 및 심사위원 소개, 설계자 프리젠테이션, 심사진행 및 심사방법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심사방법은 가작까지의 종다수 투표제로, 최종 2점은 점수제로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탈락작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 재평가 여부는 투표로 결정하기로 하는 조항을 선택하기도 하였다. 2부에서는 5차례에 걸친 선정 작업과 Gerken과 Duthilleul 심사위원이 탈락작 재평가를 발의하여 입상작 선정에 대한 재평가 투표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채점은 배치 및 종합계획부분(30점), 건축(40점), 기술(20점), 기타 설계의 융통성 및 장애자 편의시설 등의 고려 (10점)등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우수작에게는 상금으로 1억원, 가작 2편에게는 각각 상금 5천만원, 입선작은 각각 3천만원의 상금이 주어졌다.

1993년 3월 20일 천안역사((주)건원종합건축사사무소(유결+곽홍길))

1995년 8월 22일 남서울역사((주) 무영종합건축사사무소(손광민))

1995년 11월 14일 대전역사 ((주) 단우모람종합건축사사무소(최명철))

1995년 12월 12일 동대구역사((주) 서한종합건축사사무소(신국범))에 이어 부산통합역사 설계안이 확정됨에 따라 고속철도역사 건립에 따른 설계경기의 진행중 전체 7개의 역중 시발역인 서울역과 도심진입 문제를 놓고 부지의 선정이 확정되지 않은 경주역사 두 개 역사를 남겨 놓게 되었다. 본지에서는 당선작을 게재한다.

## □ 수상작 현황

### 최우수작

(주) 건원 종합건축사사무소(곽홍길)+Nicholas Grimshaw & Partners Ltd+Ove Arup & Partnership

### 우수작

(주) 포스 에이 씨 종합감리·건축사사무소(심인보)+Richard Rogers Partnership+Ove Arup & Partnership

### 가작

(주) 서강 종합건축사사무소(김신재)+Eason, Earl & Associates외 1개사

(주) 일신설계 종합건축사사무소(정태복)

### 입선작

(주) 심우 종합건축사사무소(한상목)+Terry Farrell & Partners+DMJM

(주) 회림 종합건축사사무소(이영희)+KMD+Ove Arup

(주) 정림 종합건축사사무소(김정철)+Ove Arup

T. S. K 건축사사무소(김태수)+T. S. K Partners

## □ 심사위원 명단

심사위원장 / 안영배(서울시립대 건축공학과 교수)

심사위원

· 강건희(홍익대 건축학과 교수)

· 박창호(대한교통학회 회장)

· 원제무(한양대 환경대학원 교수)

· 정재철(국민대 건축학과 교수)

· 박용환(한양대 건축공학과 교수)

· 여홍구(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 정석희(국토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Meinhard Von Gerken(독일) Von Gerken, Marg & partners 교수

· Jean Marie Duthilleul(프랑스) SNCF 개발국장

· 박영기(연세대 건축공학과 교수)

· 양동양(고려대 건축공학과 교수)

· 이성철(부산광역시 주택국장)

· 김성곤(동아대 건축공학과 교수)

· 서의택(부산대 도시공학과 교수)

· 윤도근(홍익대 건축학과 교수)

· 주종원(서울대 도시공학과 교수)

## 당선작

(주) 종합건축 건원(곽홍길)

+

Nicholas Grimshaw & Partners  
Ltd(영)

+

Ove Arup & Partnership(영)

위치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 중구 중앙동 일  
대

지역 / 준공업지역

대지면적 / 316,830㎡(96,009평)

건축면적 / 55,760㎡(16,662평)

연면적 / 124,160㎡(37,546평)

건폐율 / 17.6%

용적률 / 39.2%

규모 / 지하 1층, 지상 4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

최고높이 / 60m

주요용도 / 역사 및 상업 업무시설

외부 마감 / 벽 - 유리 및 회강석

지붕 - 무광택 스테인레스 스틸+  
강화복층접합유리

내부 마감 / 바닥 - 돌갈이 회강석

벽 - 유리 및 회강석

천장 - 유리 및 스틸

주차대수 / 2,800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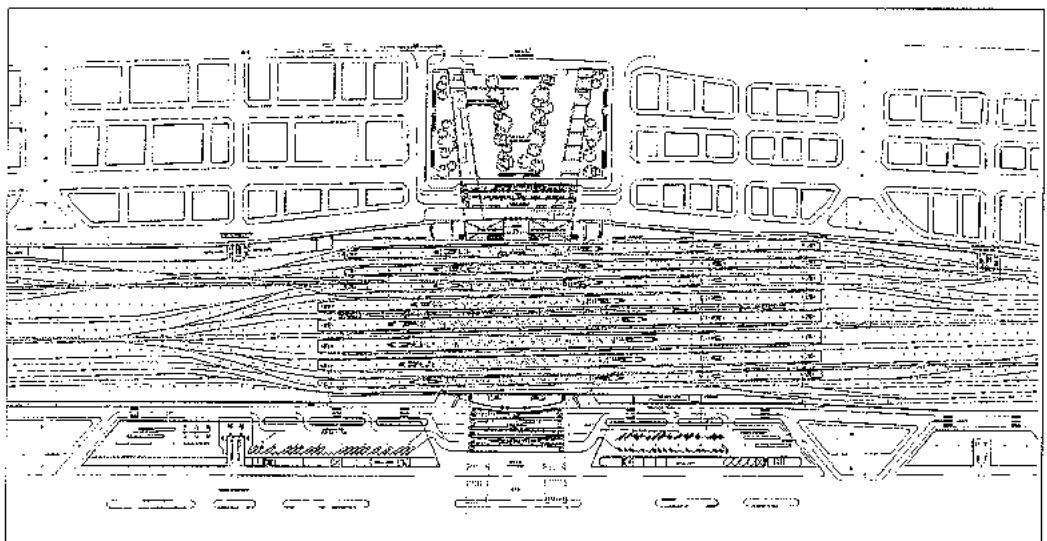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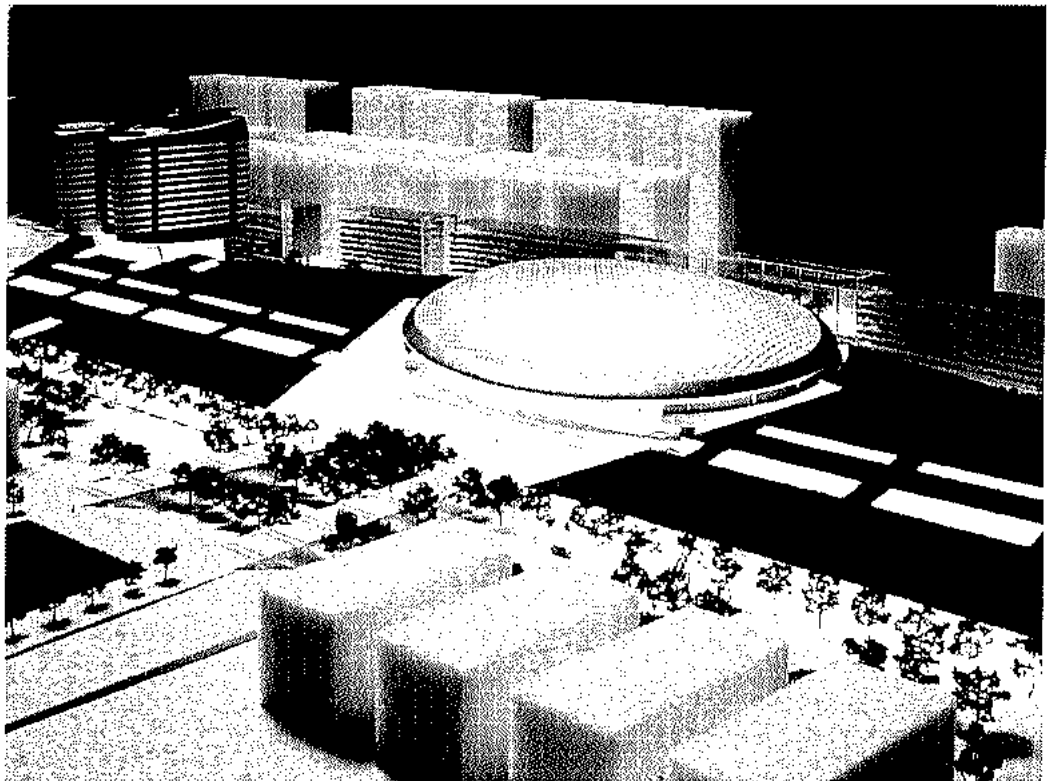
조경면적 / 47,525㎡

설계담당 / 유철, 정재욱, 김재욱(종합건축사  
사무소 건원) - Neven Sidor,  
Miriam Fitzpatrick(Nicholas  
Grimshaw & Partners)

건축주 / 한국고속철도공단

설계기간 / 1996. 11~1998. 9

공사기간 / 1998. 10~2002년초



지상층(+0m레벨) 평면도

## 은밀한 정원의 도시

나는 생각하고 싶다.

(한시라도 빨리)

사이버 공간속의 숲을,

소나무와 전지제품으로 가득찬 숲을,

또, 그곳에는 사슴이 평화롭게 뛰노는,

그것들이 마치 숲속에 피어있는 꽃들인냥

그속에 놓여진 컴퓨터를 스쳐지나 간다.

Archigram(The Realist)

여기 우리가 제안하는 현상안은 현대적인 테크놀러지의 자연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서기 2000년대에 이르면 테크놀러지는 더이상 연기나는 굴뚝과 기름냄새나는 터빈 엔진이 아니다. 오늘날의 테크놀러지는 정보 통신의 완전한 이용을 의미한다. 또한 이 현상안은 컴퓨터가 위력을 떨치는 현대사회에서 좀 더 자연을 이해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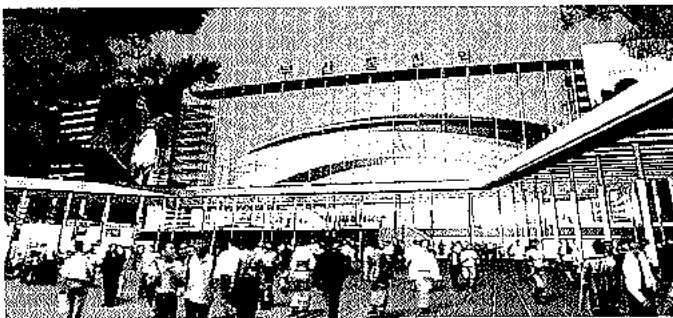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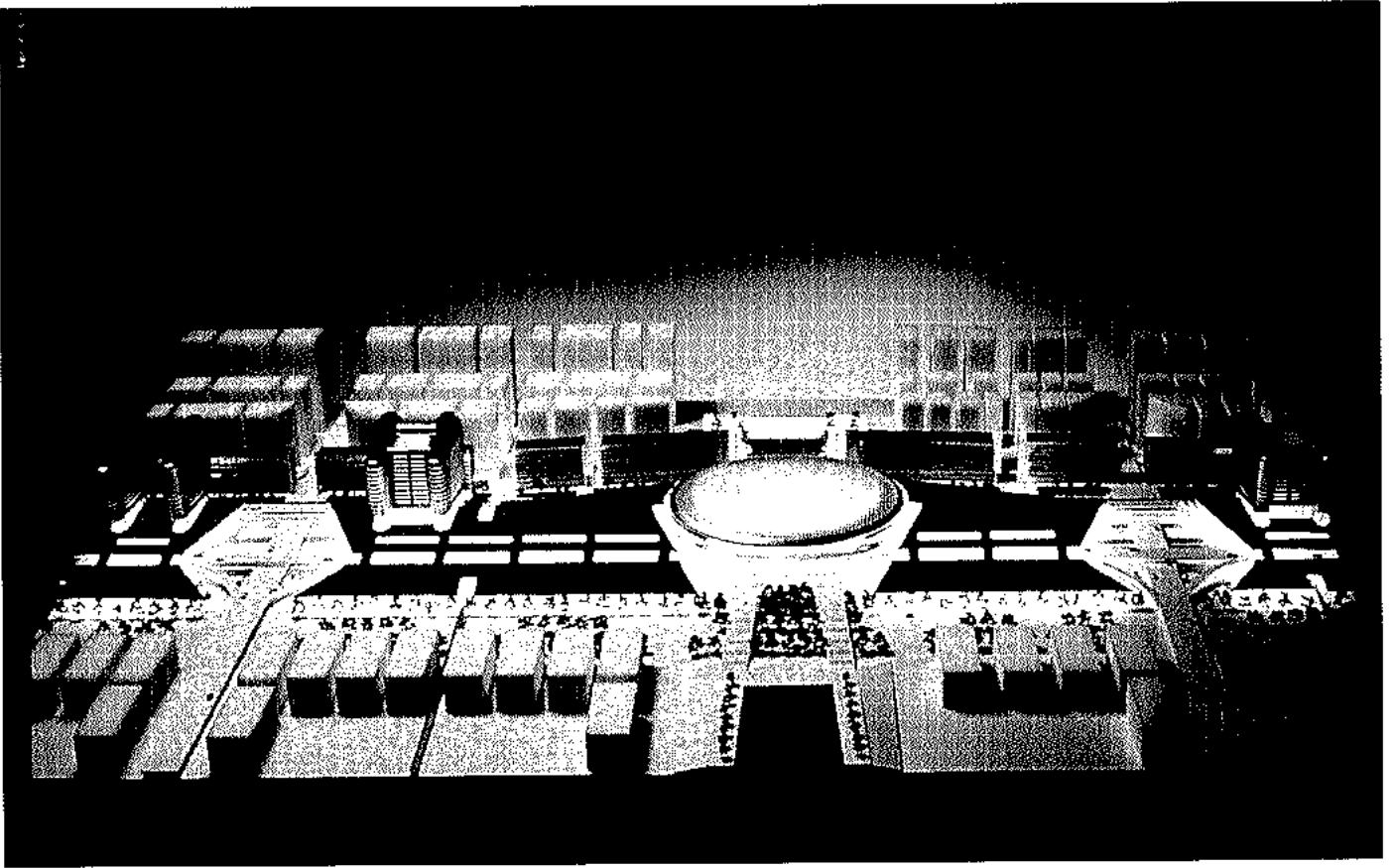
우리의 현상안은 도심 한 복판에 공원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그 공원 위로는 높은 구조물, 백화점, 사무동 등이 유기적인 형태로

잔디와 나무 사이로 떠 있는 것 같이 위치하고 있다. 지난 15년간 끊임없는 컴퓨터 디자인 전문가의 노력으로 이러한 유기적인 형태의 디자인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오늘날 건축가들은 컴퓨터의 도움으로(예전의 장인들이 그들의 손으로 재료를 다듬던 것처럼) 거대한 구조물들을 디테일까지 그들의 손 안에서 조정할 수 있게 되었다.

자연이 2km나 되는 부지공간속을 누비고 지나간다. 이러한 자연은 강한 바람으로부터 역사건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잔디로 덮인 경

사진 밖에서 나타난다. 이것은 또한 유리돔으로 덮힌 역의 대공간 속에도 있으며 이곳에서 승객들은 나무 사이로 바다를 내다 볼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 "Green"이 갖는 의미는 공해와 자연보호를 추구하는 인간들의 노력을 의미한다. 고속철도망을 구축하는 통찰력이 있는 나라라면 이미 이러한 "Green" 계획에 한발 앞서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이 고속철도는 자동차에 비해 연비가 훨씬 높고 공해가 없기 때문이다. "Green" 계획과 일맥 상통된 고속철도망의 종착역을



마련함에 있어, '전원도시'의 시발점을 만드는 것 이상으로 이 사업을 경축할 수는 없을 것이다.

#### 1. 설계목표

- 부산고속전철 통합역사를 설계함에 있어 고속전철이 표방하고 있는 첨단기술과 우리문화의 기초인 자연, 이 두 가지의 조화를 철학으로 한다.

- 자연과 기술이 조화

- 부산항의 랜드마크

- 간단명료한 동선처리

- 실용적이고 경제적인 구조수단

#### 2. 비대칭적 단면

- 산과 도시를 등에 두고 바다를 향한 입지에서 비대칭성 유도

- Edge Condition : 동 / 바다를 향한 조정된 경사면  
서 / 빌딩구조에 대응하는 구조물(주차장, 사무실)

#### 3. Urban Grid System

- 차도의 연결

- 보도의 연결 → 격자형의 도시패턴 유지, 동서의 분리회피

#### 4. 보행데크물

- 데크를 가로지르는 보행자통로를 남북으로 연결

- 전면광장과 후면광장을 동서로 잇는 콘코스 및 보행자물(Secret Garden City)을 형성

- 콘코스를 중심으로 하여 역사기능을 연결 : 도심공간으로 인식될 콘코스 및 보행자도로(+14 Level)는 사무실, 호텔, 역주변시설들을 상업적으로 성공하도록 유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 5. 부산항구의 눈(빛나는 진주조개)

- 허브기능을 상징적으로 표현

- 콘코스를 덮는 인공하늘의 개념

- 부산항구의 눈(중심) → 진주조개의 형상

#### 6. 허브(Hub) 콘코스

- 모든 보행자교통의 교차점

- 모든 차량의 도착 / 출발지점의 인접연결

- 모든 서비스의 집합된 장소

- 대공간 내의 2개의 숲으로 된 대기장소

#### 7. 동선체계

7-1. 차량동선 :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2개의 일방통행 Loop

- rhrkfh(+14 Level)에서 차량 진입은 반시계방향으로 돌아가는 일방통행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개개인의 목적지까지 가는 도중 역사 주변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상층(±0 Level)에서의 택시/버스 환승데크는 2군데로 나뉘어져 북쪽방향의 중앙로

와 남쪽방향의 충장로로부터의 역사진입이 가능토록 하였다.

- ±0 Level : • 중앙로 - 버스, 택시, 승용차(Kiss & Ride)등이 일방향으로 진입

• 충장로 - 버스, 택시, 승용차(Kiss & Ride)등이 일방향으로 진입(좌:관광버스터미널, 우:공용주차장)

- ±14Level : • 역사계방향의 일방통행 Loop 이용

• 서쪽 : 승용차 주차장

• 동쪽 : 버스터미널(도착과 출발을 분리)

: 부대시설을 위한 승하차장

#### 7-2. 보행자동선

- 승객 : K & R, P & R, Subway, 환승버스터미널 : Elevator & Escalator

- 역무원 : 별도의 수직 엘리베이터



## 심사평

**강건희** : 실용적 구조계획과 부산의 랜드마크적 역할을 고려한 독특한 형태의 지붕(외부 및 내부)은 낮의 실내와 밤의 야경을 인상적으로 표현하였고, 동선계획은 수평·수직에 있어서 사람과 자동차(택시, 버스)와의 혼잡을 최대한 해결하였음.

**김성곤** : 산과 바다가 교차하는 지점에 비대칭적 형태는 자연 및 환경과 유연한 조화를 이룸. 구조물 상층부에 식재공간을 극대화 시킨 특성있는 작품으로, 도시경관에 신선미를 주며 예술성과 조형성이 높아 평가됨.

**박영기** : 기능이 간단 명료하게 해결되었음. 형태도 유니크한 모양이 조형성과 상징성이 강함. 구조도 간결한 형태로 해결함.

**박용환** : 유리등을 조형적인 주제로 삼은 반면 고가도로변의 Secret Garden 건물은 오히려 본 역사의 시선 거리를 차단하고 있으며, 전면 광장 앞의 상징적 건축물의 의미는 재고될 필요 있음.

**박창호** : 교통축에서 가장 우수하며 시설의 기능별 배치가 양호함. Mode별 동선표시가 돋보이며 Stage Construction이 용이함.

**서의택** : 역사 건물 외관이 돋보이며, 역사 전면 및 후면 광장의 조경이 좋음. 계획 및 구조 단순 명쾌.

**안영배** : 콘코스 상부 공간이 광대하며 밝고 즐거운 공간으로 잘 계획되었으며, 버스터미널 계획은 승객이 이용하기 쉽게 콘코스에 근접해 있는 점이 우수함. 동서의 광장을 잇는 보행자 동선이 잘 연결되어 있으며 통로공간이 넓고 쾌활한 공간으로 되어 있으며, 플랫폼 지붕을 그린으로 덮어 많은 녹지 공간을 제공한 점이 좋음.

**원재우** : 전반적인 교통 처리 계획이 우수하나, 주차면이 간선도로에 인접해 있어서 불필요한 교통체증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

**윤도근** : 전후면의 광장과 좌우(남북)방향의 긴 매스가 만나는 중앙부에 진주조개의 모양과 같은 Round의 구성은 매우 특징적이며, 새로운 디자인의 시도로 높이 평가됨. 특히 동선의 단순함과 메인 콘코스 상부 구조가 120m 직경(Span)과 12m 그리드로 비대칭적으로 구성된 거대한 공간은 부산을 상징하는 요소로 높이 평가되어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것으로 봄. 그러나 콘코스 서(西) 옆 14Level평면도 중 버스 터미널(도착, 출발)과 승강장 상

부 등 구조체에 채광이 충분하도록, 어떠한 톱 라이트 설치를 비롯하여 전반적인 충분한 연구와 적극적인 검토를 요함.

**이성철** : 간단 명료한 동선, 주차빌딩의 배치로 효율을 극대화하였으며, 석양을 차단한 진주조개(바다 상징)가 바다로 향하는 모습이 아간의 경관을 좋게 할 것임. 기둥 없는 공간 구성과 가설건물 없이 건축이 가능함. 옥내 광장의 환상적인 분위기(마치 우주선 내부같은 느낌)로 여행감의 극대화.

**정석희** : 진주조개를 상징하는 역사 디자인과 동서지역을 연결하는 계획이 우수하며, 도착과 출발을 분리하여 역이용의 혼잡을 방지하였으며, 단계별 공사의 고려가 잘 계획되었음. 그러나 고가도로 위 건물 배치를 장벽을 형성케 한 것은 동서지역의 단절을 더욱 강화하는 느낌을 주고 역 상부의 전체적인 인공 대지 조성은 승강장 레벨의 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음.

**정재철** : 매스 및 공간계획이 주위와 조화를 이루면서 독창성이 안정되는 작품으로 평면계획에서 동선계획이 효율적으로 처리되었으며 장(長)Span dome을 사용하므로 콘코스 부분의 넓은 공간을 형성할 뿐 아니라 구조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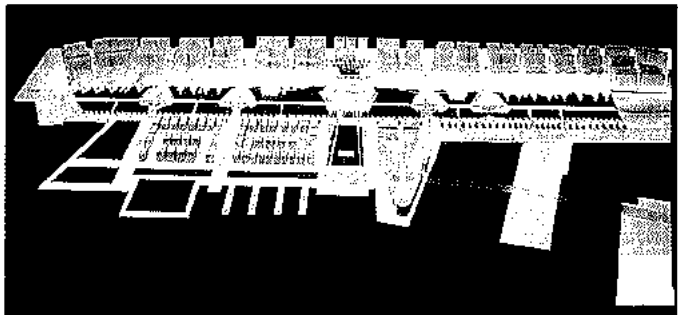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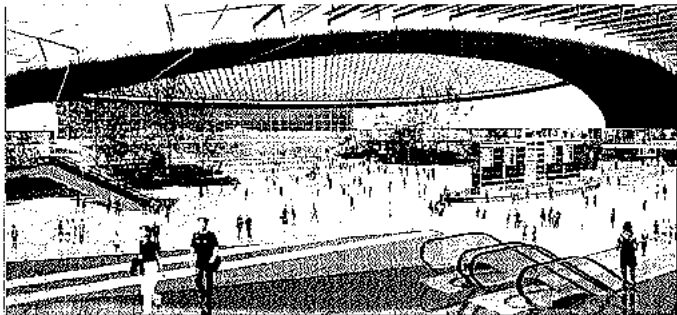
도 유리하므로 경제성도 추구한 형태임.

**주종원** : 21세기를 지향하는 첨단 산업을 상징하고 있으며, 눈과 귀 또는 마이크를 연상케 하는 건물임. 오철이 있는 지붕의 유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이 있음. 교통의 흐름은 잘 유도하고 있음.

**장 마리 뒤타이올** : 도심지의 항구 부분의 재개발이 흥미로운 계획임. 이 계획은 선로 양쪽간의 연결이 훌륭하게 이루어짐. 지하철에서부터 선로까지의 해결이 특히 흥미롭다. 기능계획이 명확하나 플랫폼으로의 접근이 명확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

마지막으로 버스터미널과 기차플랫폼 인공 자연에 있을 뿐만 아니라 자연 채광을 받지 못한 것이 아깝다.

**Meinhard Von Gerkan** : 오늘날의 인간 문제들에 대해 탁월한 관계성을 지니는 매우 세련된 전체 개념이 돋보인다. 특히 온밀한 정원 개념은 매우 흥미롭다. 그러나 전체 매스와 옥상의 잔디(수목)이라는 문제점이 있다. (어떻게 유지 관리될 것인가?) 긴 홀의 불륨은 매우 인상적이고, 구조는 특별한 주제성을 만들어 내고 있다. 그러나 타원형 홀의 형체는 그 홀들의 선형구조와 조화되지 않는다.



로 연결하면서 일반인의 시야로부터 완전히 격리

8. 동적 도시 환경 : Kinetic Elevation(전면광장쪽의 파사드)

- 기차, 자동차,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등이 움직이는 오브제 역할

- 대형스크린 등의 영상과 함께 동적인 도시환경을 조성

9. 구조

- 단상빔과 포스트구조

- 구조변환테크 : 9~14m 사이에 건설하는 하부구조를 상부구조와 연결

- 2~7m 사이에서 설비, 주차장 통과도로 램프등이 설치되도록 계획

10. 동구조

- 네 개의 포스트와 타원모양에 따라 기둥설치

- 팔찌모양의 구조체 설치(역무시 설로 이용)

- 모듈러시스템의 허니콤구조로 처리

- 착색복층유리 마감

- 2m 높이의 부재 - 그늘을 제공

- 복층유리 - 자동환기시설에 연결

- 벌집 형태의 지붕구조는 약 125m×200m 규모의 대공간을 덮는데 있어 가장 경량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판단되어 선택한다. 이 구조물은 콘코스 아래 부분에 간접 태양 조명을 할 수 있도록 계획 되었다.

이 독특한 형태의 지붕 구조의 외부 형태는 곤충의 눈을 형상하고 있는 야경을 위하여 편광 조명시설을 이용 시간에 따라 지붕 구조물의 색깔이 점차적으로 변하게 만들어 은근한 맛을 창출시키도

록 유도했다.

주간에는 마치 지붕 구조물이 콘코스내의 펼쳐진 인공 하늘과도 같은 분위기를 이끌어 내며, 승객 대기실에 다양한 식물을 통해 분위기를 더욱 더 고조 시켰다. 실내의 만들어진 숲으로 이 시야를 통하여 부산 앞바다가 내다 보이도록 되어 있다. 방대한 천정을 통하여 들어온 주광은 콘코스 아래에 있는 승강장까지 비치도록 하고, 콘코스 바닥에 연속되는 띠모양의 바닥 패턴을 유리 블록으로 처리하였다.

11. 결론적 제안

- 형태의 단순함

- 동선의 명료함

- 자연과의 조화

12. 단계별 개발

- 제1단계 : 가설데크 설치

• 승강장과 기존 동쪽의 플랫폼 뒤쪽에 대지조성

• 지하철역과 가설대로를 연결하는 교각설치

• 기존역 운영지속

- 제2단계 : 데크의 완성 및 승강장 확충

• 최대한으로 많은 승강장과 선로를 동쪽으로부터 건축

• 기존역 운영지속

- 제3단계 : 임시역사 활용 및 기존의 역사철거

• 임시 역사를 통해 기존선로를 운영하면서 새역사 건축

- 제4단계 : 신역사 건설

## 당선작

노형래(건정건축)

위치 / 성동구 성수동1가 685-20호

주요용도 / 빙상장

대지면적 / 6,240㎡

건축면적 / 3,053.79㎡

건폐율 / 48.94%

용적률 / 64.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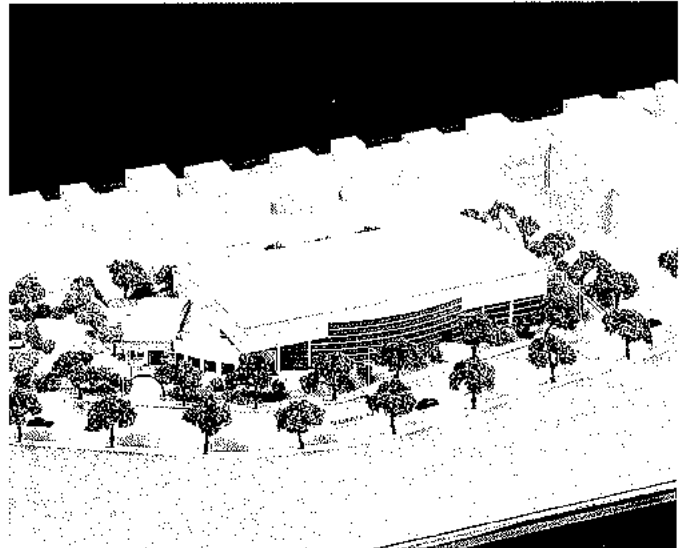
주차대수 / 20대

규모 / 지하 1층, 지상 2층

구조방식 / 철근 콘크리트조+Space Frame

주요외장재 / 대리석, 알루미늄 판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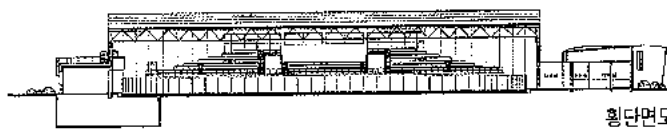
건축주 / 서울특별시 건설안전 관리본부



모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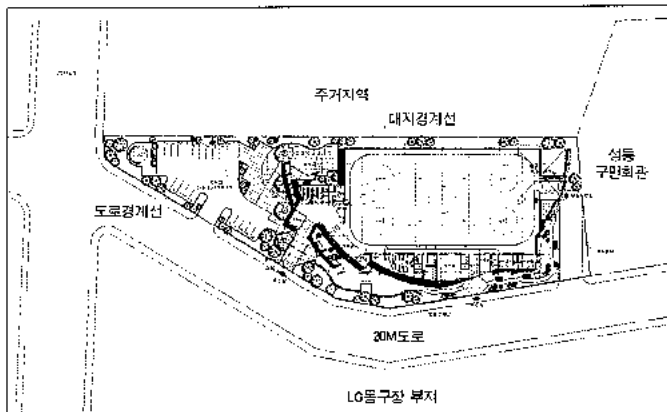
# 독섬 실내빙상장

TTukseom Ice Lin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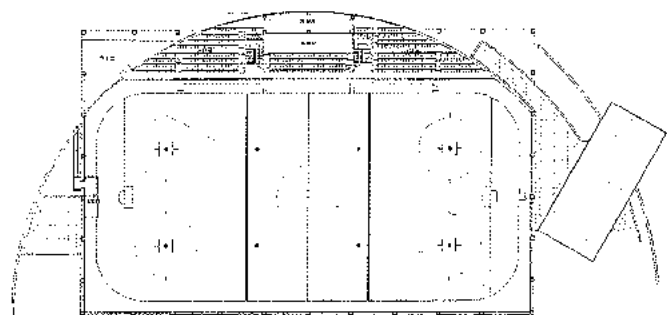


횡단면도

종단면도



배치도



스탠드층 평면도



정면도

독섬 실내빙상장은 사회체육시설의 저변확대를 통한 시민의 여가선용기회를 부여하고 인근지역의 랜드마크적 역할을 담당하며 공공의 Open Space를 제공하는 것을 계획의 기본방향으로 하였다.

계획부지는 북측으로는 저층주택들이 들어서 있고 동측으로는 성동 구민회관이 자리잡고 있으며 남측과 서측으로 폭 20m, 25m의 도시계획도로가 예정되어 있다.

기존의 성동 구민회관과 부지 남측으로 LG돔구장이 건립될 계획으로 미래의 도심형 복합레저 수요증가를 충족시킬 것이다.

배치계획에 있어서 장축을 대지의 동서로 배치하고 통행이 자유롭고, 시간적 인식이 높은 남, 서측을 주 진입으로 하여 각 시설의 채광, 일사조건을 고려하였으며 주차장은 부지의 서측에 배치하였다.

동선계획은 진입동선을 차량 및 보행자로 명확히 구분하고 상징적 Gate를 설치하여 주출입으로서의 역할을 부여하였다.

또한 주차장과 빙상장 사이에 휴식공간을 설정, 수목에 의한 Buffer Zone을 형성하였다.

## 제10회 아카시아 건축교육위원회 (ACAE) 참석보고서

### 제7차 아시아건축사대회 참관기(2)

Report on the ACA-7

#### 처음에

이번 제 10회 건축교육위원회 (ARCASIA Committee for Architectural Education)는 1996년 9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가장 오래된 호텔인 호텔 인도네시아 (Hotel Indonesia) 삼바와 I 실(Sambawa I)에서 열렸다. 같은 시간에 다른 방에서 열릴 계획이었던

아시아 건축대학 학장단 협의회(CODHA-SIA)와 처음에는 함께 진행이 되었으나 서로의 의제가 다르면서도 ACAE 대표가 학장단 회의에 참석할 수 있어야 하였으므로 도중에 따로 시간을 학장단 협의회에 할애한 후에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였다.

95~96년도 ACAE의장인 알위스(Lakshman Alwis)교수(스리랑카/SLIA)의 개회사와 함께 11개국의 대표단(이번 회의에는 중국/ASC, 마카오/MAA, 몽고/UMA, 방글라데시/IAB가 불참하였다.)과 참관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가 진행되었고 한국은 조성룡 교

육위원회위원장과 조인숙 위원이 각각 대표와 참관인으로 참석하였다.

작년까지는 대한건축사협회안에 교육위원회 (Committee for Education and Research)가 없었기 때문에 연수위원회나 국제위원회의 sub-committee로서 참여했었던 이 회의에 올해 연수위원회와 정보분과 위원회의 기능을 합쳐서 새로 조직한 교육위원회 자격으로 참석한 첫 회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본 회의에서

참석자들의 각자 소개에 이어 비자문제로 갑자기 불참하게 된 중국에 안타까움을 표시하면서 회의록 작성자(Honorary Secretary)로 스리랑카 대표를 지명한 후 의제에 따라 회의가 시작되었다. 예년에는 10인 내외의 조출한 회의였는데 학장단 회의와 겸하게 되어 참석자는 참관인을 포함하여 24인(23일), 27인(24일)까지 되었다.

전년도 회의록 (minutes) 승인에 이어 토의된 내용들 중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학생잼버리 (ARCASIA Student Jamboree)
- 회원국 연례활동 사항보고 (Members Reports)
- 3개지역 활동사항 (Sub-Regional Activities)

새로운 교육인증제도에 관한 소위원회 (Accreditation Committee)

- 학장단 회의 (Council of Heads and Deans ASIA)
- 건축교육헌장 (Unesco-UIA Charter for Architectural Education)
- 1997/1998년도 ACAE 의장(Office Bearers) 선출

#### 1. 제6회 건축학생 잼버리대회

1991년 베이징회의에서 건축학생 잼버리대회 운영지침이 채택된 이후 라호르대회-제4회 잼보리대회(1992), 마닐라 대회-제5회 잼버리대회(1994년)때의 자세한 행사안내와는 달리 주최국의 교육위원회에서는 잼버리대회의 행사안내도 없었고 전혀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 전통적으로 잼버리는 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각국 대표들이 잼버리 개회식 및 환영만찬 그리고 학생들의 발표회에 참석하여 격려를 해왔었다. 다만 학장단 회의진행에 참석한 구나완(Gunawan)교수가 대회진행 및 주

최가 인도네시아 대학 (Univ. of Indonesia)의 학생들이고 그들이 계획한 2시간 가량의 캠퍼스 투어 및 자카르타 관광이 별도로 계획되어 있다고 언급하였다.

## 2. 회원국 연례 활동보고 (Members Reports)

6회 ACAE 회의시 표준보고양식을 만들 것이 제안되어 파키스탄협회(IAP)가 표준양식의 초안을 만들기로 하였다. 표준양식(standard format)은 제8회 건축교육위원회(마닐라/1994.12)에서 9회 회의(싱가포르/1995.12)때부터 이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10회 회의에는 11개 참석 회원국 중 인도네시아/IAI, 말레이시아/PAM, 싱가포르/SIA를 제외한 8개 회원국과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방글라데시(IAB)가 연례활동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 표준양식이 제정되기 전에는 각국 나름대로 활동보고서가 작성되었을뿐 아니라 보고서를 준비한 회원국도 본 협회를 비롯한 서너 군데 밖에 되지 않아서 ACAE의장이 회의 때마다 KIRA를 칭찬했었다.

표준양식은 다음과 같은 순서와 주제를 A4 규격으로 작성하여 회의 3개월 전에 그 원고를 ACAE의장에게 25부를 제출하게 되어있다.

- 회원국의 건축교육의 간단한 역사(약사)
- 회원국에서 건축교육에 관련되는 협회의 역할
- 건축교육위원회의 구성
- 건축교육에 필요한 재정
- 건축교육에 관련된 주요 연례행사
- 학생챔버리나 공모전 또는 협회가 후원하는 행사
- 건축대학 또는 건축관련학과와의 정규산학협동 행사
- 건축교육/ 인증제도/ 자격시험 등과 관련하여 협회가 발간하는 간행물 또는 결과물 등
- 건축교육과 관련된 당면 문제들
- 장래 계획
- 기타 주요사항

각국 대표의 보고 내용중 특기할만한 사항을 소개한다.

### 1) 일본(JIA)/히데토 호리이케 (Hideto Horiike)

- 건축교육이 시작된지 100년이 넘었고 170개 대학 및 13개 공업고등학교에서 건축교육을 행하고 있다.

- 일본건축교육 및 정보센터 (The Japan Architectural Education and Information Center)가 건설부 산하 기관으로서 건축사자격시험을 주관한다.

- 일본건축가협회내에는 학생을 위한 별도기구가 없고 각 지역의 학교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전 일본에 걸쳐 많은 회원들이 교수 및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 건축교육관련 주요행사는 문부성 주관으로 정부기금 수여차 국내외에서 장학생을 선발하였으며 JIA open desk system '95에 8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지원하였고 그 동안 157명에게 회원설계사무소에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 JIA가 직접 후원하는 학생공모전은 없으나 각 지회가 주관하여 지역의 학교와 협동으로 공모전을 연다. 그리고 JIA는 격년제로 열리는 아시아 학생건축상에 일본화폐 300,000엔(한화 약 240만원)의 상금을 회사한다.

### 2) 파키스탄 (IAP)/Kalim A. Siddiqui

연례활동보고서중 특기할만한 사항은 교육위원회(BAEP)주최의 학생작품 공모전 성과물에 대한 안내문인

데 1등, 2등은 자카르타까지의 무료여행 (거주지에서 자카르타까지 왕복 비행기표는 건축사협회(IAP)에서, 숙박은 챔버리 주최국 협회 (IAF)에서 후원), 3, 4, 5등은 우수상 상장을 수여하며 작품을 제출한 모든 학생들에게는 참가증이 주어진다.

### 3) 타일랜드 (ASA)/Dr. Vira Sachakul, ASA Academic Affair 부회장

표준보고양식과는 달리 본국에서의 건축교육대회 보고서와 건축과 학생 수에 대한 자료 및 목록을 제출했는데 특기할만한 사항은 경제성장으로 인해 급격히 변하는 사회 속에서 기반시설들이 건설되는 과정도 실상은 건축가 및 도시계획가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드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당면한 현실적으로 너무 적은 건축가 수로는 문제를 쉽사리 해결하기 어렵다. 현 인구비례 건축가 수는 건축가 1명당 인구 15,248명이며 이는 개발국의 1명당 5,000명에 비해 너무 적은 수이다. 그러므로 학생수 증가 및 그들이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건축가로서 제대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교육분야의 책임이 막중하다.

### 4) 대한민국 (KIRA)/조성룡 교육위원회 위원장

KIRA는 96년에 교육위원회를 설립하였고 위원회는 건축사연수교육, 건축사자격 시험제도 개선, 건축정보센터 구축 등의 기능과 역할을 가진다. 건축관련학과 거의가 공과대학내의 건축과나 건축공학과인 상태에서 최근 건축대학원 설립이 시작되었다. 협회는 매년 건축문화대상을 시행하는데 그 중에는 준공건축물부문과 계획건축물부문이 따로 제정되어 있다. 계획건축물부문중 입상 학생에게는 상금을 수여하며 1등에게는 학생챔버리에 참가하는 비용을 따로 준다. 각 지부에서는 시민건축 대학을 수시로 열고 학생 워크숍과 전시회를 지원한다. 교육위원회가 주관하여 건축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교육을 실시한다. (보고서를 작성하며 제출하기 전까지 고민했던 사항은 한국건축문화대상 계획건축물 부문에 1등으로 당선된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상금 및 특전이었다. 1등상에게 주어지는 700만원(8,500US\$)+해외여행 특전과 비슷한 사례는 이번 참가국 보고서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외국의 경우 학생들에게는 여행의 특전만으로도 충분한데 장학금도 아닌 700만원이라는 상금을 다른 나라의 대표들에게 설명하기가 어려웠다. 궁리 끝에 상금에서 '0'을 하나 지울까했었으나 어쩔 수 없이 그냥 두고 말았다. 일본에서 2년에 한 번 학생 건축상금으로 ARCASIA에 300,000엔을 회사하고 매번 이사회와 교육위원회에서 찬사를 받는 것을 보면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 5) 홍콩 (HKIA)/Anthony NG

홍콩은 1997년 7월경 중국에 반환되는 실정이라서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미묘한 상황에 처해있었다. 특기할만한 사항은 회원자격 새로운 홍콩건축사 시험제도에 대한 것이었다.

중전에는 국가에서 인가된 학교의 5년제 출신만이 홍콩 건축사협회 회원자격이 있었으나 인가되지 않은 학교 출신도 회원자격이 주어지고 새 제도에 따르면 외지 출신(non-local schools) 및 외국의 등록 건축사들은 다섯 과목에 걸친 설계응용시험에 응할 수 있다. 시험과목은 건축구조(Building Structure), 건축설비(Building Services and Techniques), 건축재료 및 환경(Material & Environment Control), 건축설계 및 주변설계(Building

Design and Site Design)이다. HKIA는 국가와 민족을 초월하여 HKIA회원이 되고자하는 모든 건축가들에게 기회를 주어 'Open Door' 정책을 고수하여야만 한다.

6) 말레이시아 (PAM)/Parid Wardi bin Sudin교수  
보고서 준비는 안되었다. 교육에 관한 시나리오는 예를 들어 외국의 대학들이 말레이시아에 학교를 설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싱가포르를 예로 들면서 건축교육에 무슨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느냐, 이론으로 하는 건축을 더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7) 필리핀 (UAP)/Honrado R. Fernandez교수  
필리핀에서 특기할 만한 사항은 교육위원회 장래 계획이다.

- 건축교육의 일환으로 연구, 설계 개발(R&D)의 강화
- 교수들의 연구여행
- 학생들의 연구여행
- 아시아 학교들과의 네트워크 구축
- 연례학계대회 - 건축교육자들의 워크숍

8) 스리랑카 (SLIA)/V.N.C Gunasekera  
스리랑카의 경우는 건축교육과 관련하여 협회의 역할이나 권한이 큰 편이다. 건축사협회가 Moratwoa 대학의 학위과정들인 B.Sc (Built Environment), M.Sc (Architecture) 를 공인하고 이 학위 수여자들은 SLIA part I, part II시험에서 면제된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정규회원이 되려면 part III (실무자격시험)을 봐야한다. part III 시험합격자는 동시에 RIBA의 정규회원이 될 수 있다. \*(건축사 자격시험의 단계인 part I, part II, part III 시험은 영국제도에서 기인한 것인데 유사한 설명은 뒤의 인도건축사협회 보고에서 보충설명을 하도록한다.)

지난해 협회에서 했던 주요 교육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 part I 시험을 위한 강의 (1학년 ~ 4학년)
- part II 시험을 위한 강의 (5학년 ~ 7학년)
- part III 시험 및 스리랑카 건축사협회 등록회원이 되기 위한 시험을 위한 강의.

9) 인도 (IIA)/AR. Vinay Parelkar  
인도도 개발도상국으로서의 건설사업이 끊임없이 늘어나는 추세에 기술자뿐 아니라 건축가나 엔지니어, 도시계획자들이 엄청나게 필요한 상황이다. 당연히 건축과나 공과대학을 가고자 하는 학생들이 나날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기술교육을 위해 학교를 많이 늘리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사설기관들이 우후죽순의 버섯처럼 자라고 있다. 그래서 1994년 인도 정부는 할 수 없이 최소한의 건축교육 기준(Minimum Standards of AER)을 만들어 사설기관들이 최소기준에 맞는가 끊임없이 체크하고 있다. 지방의 학교들이 기반시설을 할 재정도 불충분하고, 자격을 갖춘 교수들도 부족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워낙 건축교육의 수요가 많으므로 학교가 잘 되는 실정이며 도시에서는 학교부지도 모자라고 교수도 부족하여 적절한 교육여건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장래 계획 : 인도에서는 절실하게 학생교환제(Student Exchange Program)를 필요로 하고 있다. 학생들은 공부뿐만 아니라 회원국의 건축가들과 일도 할 수 있다. 또한 교수들과의 교류를 통해 서로 다른 가르치는 경험 및 상호간의 도움이 될 것을 제안한다. 회원국간의 상호관심사에 의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실현되기를 강력히 바

라고 있다.

- 특기할 만한 내용 : 건축사협회 연례 회원자격 시험에 대한 안내책자(Revised Scheme of Examination and Syllabus of Study)로 그 내용에는 목적 및 자격요건 그리고 시험의 종류 및 자세한 과목과 참고서적들이 소개되어 있다. 시험은 part I - part IV까지 네 단계가 있고 한 단계씩 합격을 하고 2년 경력을 가지면 다음단계 시험을 볼 수 있는데 시험과목에 수 없이 많은 건축관련 과목들 이외에 수학 및 영어, 건축 및 문학사, 기후학(Climatology)이 있고 직업으로서의 책임감 및 경험을 알아보는 구두시험이 있다. 올라갈수록 점점 과목이 전문화되며 매 단계별 설계 시험(Design Project)이 있고 최종단계에서는 발표 및 평론시험이 있다.

설계시험의 평가기준을 예로 들면 part의 Architectural Design-1 시험은 400점 만점에 200점이면 합격최하점인데, 6시간씩 이틀에 걸쳐 12시간동안 시험을 본다. 시험보기 일주일 전에 설계주제가 알려지며 요구되는 결과물은 제대로 축척이 표기된 기본도면 및 투시도와 특별한 부분의 상세까지도 요구된다. part III의 Architectural Design-2는 500점 만점에 250점이면 합격인데 6시간씩 이틀 및 다음날에 3시간으로 3일에 걸쳐 15시간동안 시험을 본다. 방법은 비슷하나 과제로는 좀 더 복잡한 건물의 설계를 요구하고 Architectural Design-1시험과는 달리 시공상세도, 공사비 개략전석이 요구되며 표현기술 뿐 아니라 계획 개념이나 건축 법규 등의 해결까지 요구된다.

직업인으로서의 책임감과 경험이라는 구두시험은 100점 만점에 45점 이상이 합격 점수인데 질문의 주제는 I) 협회의 역할 II) 건축사법 1972 III) 사무소와 현장 경영관계 IV) 사회적인 책임 V) 수험자의 실무 경력 등이다. part IV시험은 실제 프로젝트를 논문과 함께 제출하며 (400점 만점/200점 커트라인), 앞서 제출한 프로젝트를 구두로 15분간 발표하고 (200/100) 논술시험은 a) 11-19세기에 인도에 지어진 건물. b) 20세기에 지어진 특별한 예의 건물. c) 오늘날 알려진 인도건축가의 최근작 중 하나에 대해 평론(Critique)을 써서 A4 규격 20 페이지 이상을 책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다. (너무 길어 중요한 항목만 소개했으나 기회 있으면 그 내용을 건설교통부와 우리 협회에 참고로 소개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 10) 기타 토의 사항

ACAE는 CODHASIA의 의장도 ACA가 열리는 해에 ACAE와 함께 선출되어야 할 것을 권했다. 덧붙여서 각국의 교육제도에 관해서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홍콩, 스리랑카, 인도 등은 영연방 건축사연맹 (CAA)였고, 때문에 영국 건축교육제도에 근거를 두고 있고, 타일랜드, 인도네시아, 한국, 일본 등은 각자의 교육제도를 갖고 있다. 다른 나라와의 공식, 비공식 연계 관계에 대해서, 일본은 미국의 SCI-Arc이나 영국의 AA School과 연결을 갖고 있고 정부가 강력히 통제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인도네시아는 나름대로의 인증제도를 만들고 있는 중이라 했고, Alwis의장은 ARCSIA 내에 새로운 인증제도가 다각적인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어 싱가포르는 인증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최소한의 인증기준 (minimum standard of accreditation)에 관한 협의를 차기 FORUM 7에서 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였다.

Committee on Common Program on the Accreditation

ation

- Prof. Wardi(PAM)/의장
- Sombat(ASA)
- Patrik Lau(HKIA)
- Yolanda D. Reyes(UAP)
- Hideto Horike(JIA)

### 3. 아시아 건축대학 학장단 협의회 (CODHASIA)

'학장단 협의회' 결성에 관한 사항은 마닐라 대회 8회 교육위원회회의(1994.12.12-13)에서 처음으로 필리핀(UAP)에 의해 제안되었고 당시 마닐라에 있는 필리핀 인터내셔널 컨벤션 센터(PICC)에서 '아시아 건축대학의 조직망 전략'이라는 주제하에 첫 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첫발을 내디뎠다. (관련자료: 건축사 9503, p122-123, 조인숙) 이 모임의 주요 목적은 1) 조직망 구축, 2) 건축대학들의 자료수집, 3) 교수 및 학생들간의 교류 및 협력, 4) 연구협력 등을 위한 기본틀을 만드는 것이었다. 그 후 싱가포르에서 열렸던 9회 교육위원회 회의(95.11.24-25)때 다시한번 언급되었다. (관련자료: 건축사 9602, p109, 이정근, "토의 결과는 ACAE기구 내에 건축대학 학장단 이사회를 결성할 필요가 없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이유는 ACAE는 건축실무와 관련된 교육 문제에 더욱 관심을 두고 있는 반면, 건축대학 학장단 협의회는 교육학, 교육이수과정 등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자카르타 회의에서 예산도 없고 기금도 없는 상황에 별도의 회의를 하겠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결성할 수 있게 하려면 ACAE의 방침 아래서 회의를 하던가, 아니면 예를 들어 하루는 ACAE, 하루는 학장단회의, 아니면 비정기적으로 모이는 수밖에 없다고 의장이 강력히 주장을 했으며, 회의 참석자의 약 반 정도는 학장단 회의 때문에 참석을 했고 교육위원회 본 의제 진행이 안되므로 학장단 회의에 커퍼타임 이후 시간을 할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처음에는 학장단의 일원인면서 동시에 ACAE대표들을 위해 23일 오후 별도로 회의를 했고 본 협회 교육위원회 대표들은 참관인 자격으로 계속 회의에 참여했다.

인도네시아의 구나완(Dr. Gunawan Tjahjoho) 교수를 의장으로 회의가 진행되었고 중요한 의제는 아시아에서의 다양한 교육 시스템 특히 커리큘럼에 관해

- 1) 디자인 스튜디오식 교육에 의거한 연구과제
  - 상호간의 공동이해에 도달하기 위해 일량이라든가 문제의 본질, 평가범위나 과정 및 관련학파들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 학생 및 교수들의 교환 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하고 그러므로써 참가자들은 각각 다른 환경에서의 경험이나 가치를 겪을 수 있다.
  - 교수 1인당 학생수 및 인구비례에 따른 등록건축사 등의 자료가 마련되어야 각국에서 필요한 수와 결과를 알 수 있다.
- 2) 교수의 실무참여의 기회에 대해서 꼭 필요한 것인지 그럴 경우 권리의 남용을 어떻게 제재할 것인지에 대하여
- 3) 학비에 관한 것
- 4) 교수의 실무참여에 대해
  - Patrik Lau(HKIA)교수는 좋은 교수이려면 반드시 설계자여야 한다고 했고 Alwis(SLIA)교수는 실무하는

것이 왜 제재를 받느냐의 이야기는 스리랑카의 경우 교수급여만으로는 살수가 없으므로 당연히 설계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 교육기준이 무엇이나?(IAP)

인도에서는 정교수가 실무하는것이 허용되었고 일반 건축사 50%가 강사로 활약하고 있다.(IIA)

- Wardi (PAM)

창조라는 것은 무엇인가 다른 것(something else)이고 건축가라는 직업의 최종결과물은 연구결과물이 아니다. 박사학위(phD)는 연구에 치중한 것이라고 강조한다.

홍콩에서는 커리큘럼 특히 설계과정(Design Studio)에 대해 좀 더 언급을 하면서 다양한 기술(technology)교수들이 점점 스튜디오에 개입하고 있다고 했으며 사실상 실무와 교육은 별개의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홍콩에서는 건축가 양성을 위해 교수들은 영국학제에 미국식 사고방식을 가미(British system with American way of thinking)한 균형있는 교육을 하고 있을 뿐이며 단 한번도 아시아라는 지역을 바탕으로 한 교육시스템이 없다는 점과 서기 2000년이 풍수(風水)이론상 '地(earth)'에 해당하는 해라는 것을 덧붙였다. (HKIA)

- Yolanda (UAP)

이 회의의 중요의제는 어떻게 커리큘럼을 보완할 수 있겠는가이다. 사실상 이론과 실무성은 서로 손잡고 가야 할 것이므로 커리큘럼이 면밀히 검토되어야만 한다. 현재 필리핀에서 건축학 석사(MArch)자격을 주는 학교는 2학교밖에 없다.

건축대학학장단 모임의 명칭을 놓고 Council이나 Committee 혹은 Sub-Committee나 의 논의를 벌이다 '독립된 Council' 이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이사회 하루 전에 각자의 비용을 들여 소집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그리고 더욱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소위원회회를 구성하였다.

- Dr. Gunawan Tjahjoho (IAI) 의장
- Yolanda D. Reyes (UAP) 부의장
- Hideto Horike (JIA) 부의장

이후 이사회에서 ACAE의장은 건축대학학장단 모임을 'Council'이라 보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사회에서 CODHASIA는 ACAE의 한 기구(arm)여야 하고 과거의 ARCASIA의 역사와 정관에 의해 Council은 하나 밖에 있을 수 없으며 소위원회회 일수는 있지만 별도 조직일 수는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 4. 지역별 활동 : 보고 없음

### 5. 건축교육헌장(UIA-UNESCO Charter for Architectural Education)

건축교육헌장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았지만 헌장의 일반적인 의도는 받아들일 수 있으나 일반사항 제 6조항은 각 회원국에서 검토한 후 1997년 일본회의에서 다시 거론하기로 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로 다른 나라간의 건축가들의 왕래가 빈번해짐은 개개인의 학위라든가 자격증 그리고 공식적으로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의 상호 인정 및 유효함이 촉구된다." 이 조항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UIA교육위원회에서 ACAE측에 아시아지역의 건축



교육은 UIA가 정하는 미국식 또는 영국식을 해야한다는 망언에 아시아지역의 건축가들이 발끈했다.

## 6. 1997-1998년도 ACAE의장 선출

말레이시아(PAM)의 Prof. P. Ward가 필리핀(UAP)의 추천과 스리랑카(SLIA)의 제청에 의해 만장일치로 선출되었다.

## 7. 기타

- 8차 ACAE회의시 전임 의장(P. Kasi/TAM)이 임기가 끝난 의장은 차기 2년간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고 제안했었는데 정작 본인도 이사회의 회의를 참석자이므로 실효를 거두지 못했으므로, 이 제의가 수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 ACAE는 인도네시아 건축사협회에 회의 전반에 걸쳐 녹음 및 기타 준비에 감사를 표했다.

## 마무리에

교육위원회 활동사항은 지난 1985년 인도 봄베이에서 회원국으로 승인된 이후 11년째가 된다. 보고서 준비를 하다 회의차수에 착오가 생긴 것을 알고 과거 12년간의 자료를 다 찾게 되었다. 회의 참석전 ARCASIA에 제출하는 KIRA연례 활동보고서(영문), 현지에서의 월세 없이 계속되는 행사, 그리고 귀국 후 활동보고서 등의 삼박자가 잘 맞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작 과거를 더듬어 보려고 일일이 보고서를 읽다 보니 이 보고서의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가 깨닫게 되었다. 몇 년 전만 해도 그 곳에서 받은 자료에 일련번호를 붙여 그냥 협회에 내고 회의테이블에서 거론된 것들만 보고서에 언급했었는데, 각국의 연례보고서 내에는 상당히 중요한 자료들이 많아 회원들에게 중요한 사항들을 소개하고자 정말 아까운 시간과 노력을 할애했어 보고서를 쓴 것이다. 사실 아시아 지역에서는 GNP는 낮아도 건축사의 수준은 상당히 우수하다. 첫째는 제대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지위가 당연히 수준급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현역 건축사들이 미래의 건축가들을 위해 얼마나 연구를 하고 자기 개발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의깊게 살펴봐야 할 것이다.

(조성룡 · 조인숙 / 본협회 교육위원회)

# 제7차 아시아건축사대회 이사회 보고서

제7차 아시아 건축사대회와 제17회 아시아 건축사이사회 그리고 제10회 아시아 건축사교육위원회, 제6회 학생잼보리대회가 1996년 9월 22일부터 27일까지 6일간에 걸쳐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인도네시아 호텔 자카르타 컨벤션 센터 및 부미위وتا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이사회는 23, 24일 양일간 연속해서 15개국 회원국중 3개국(중국, 몽고, 마카오)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되었고 교육위원회는 23일 오후부터 24일 오전까지 연속 회의로 열렸으며 건축사대회는 25, 26 양일간에 걸쳐 "영혼 속의 도시"라는 주제를 가지고 인도네시아 건

축사와 학생들이 같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치워졌다.

본 협회에서는 김무언 부회장을 단장으로 이정근 국제위원장, 김지덕 국제위원회 고문, 이근창 국제위원, 조성룡 교육위원장과 조인숙 교육위원이 참가하였으며, 제6회 아카시아 학생잼보리 대표로는 '96한국건축문화대상 계획건축물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이진수, 김현숙 학생이 참석하였다.

## 아시아 건축사 이사회

아카시아 회장인 말레이시아의 Esa Mohamed의 아카시아 정신에 관한 인사말과 인도네시아 건축사협회장 Suntana의 환영사에 이어 명예서기의 회의안건, 진행 및 방법 등에 관한 설명이 끝난 후 싱가포르에서 개최되었던 제16회 이사회 회의록의 승인, 재정 담당의 예산집행 현황 보고를 마친 후 안전별 토의를 시작하였다.

## 주요 사업계획 및 추진현황

1. 아카시아 회원국의 입회절차, 승인, 조건 기타사항이 수록되어 있는 소위 아카시아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최소 건축사 보유수, 협회의 규모, 활동내용 등은 현재 회원국 신청을 한 네팔, 베트남, 브루나이 등의 입장에서는 그들 현실과 거리가 있으며 아시아에 위치한 국가로서 아카시아가 너무 폐쇄적으로 입회를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하고 현 감사로 있는 홍콩은 Ronald Poon이 정리하여 다음 회기에 수정안을 제출키로 하였다. 본 아카시아 핸드북과 체크리스트에 추가, 수정을 요하는 사항을 감사에게 직접 전하기로 했다.

## 행사 일정표

| 일자       | 시 간         | 행 사 내 용                 |
|----------|-------------|-------------------------|
| 9. 23(월) | 09:00~17:00 | 아카시아건축상 및 아카시아 학생건축상 심사 |
|          | 09:00~10:30 | 아카시아 이사회                |
|          | 10:30~10:45 | 휴식                      |
|          | 10:45~12:00 | 아카시아 이사회                |
|          | 12:00~13:00 | 중식                      |
|          | 13:00~14:30 | 아카시아 이사회/ACAE 회의        |
|          | 14:30~14:45 | 휴식                      |
|          | 14:45~17:00 | 아카시아 이사회/ACAE 회의        |
|          | 19:00~22:00 | 석식                      |
|          | 19:00~22:00 | 석식                      |
| 9. 24(화) | 09:00~10:30 | 아카시아 이사회/ACAE 회의        |
|          | 10:30~10:45 | 휴식                      |
|          | 10:45~12:00 | 아카시아 이사회/ACAE 회의        |
|          | 12:00~13:00 | 중식                      |
|          | 13:00~14:30 | 아카시아 이사회/ACAE 회의        |
|          | 14:30~14:45 | 휴식                      |
|          | 14:45~17:00 | 아카시아 이사회/ACAE 회의        |
|          | 19:00~23:00 | 학생잼보리 개최식               |
| 9. 25(수) | 08:00~09:00 | 학술토론회 등록                |
|          | 09:00~11:00 | ACA-7 개최식               |
|          | 12:00~13:00 | 중식                      |
|          | 13:00~14:30 | 학술토론회                   |
|          | 14:30~14:45 | 휴식                      |
|          | 14:45~17:00 | 학술토론회                   |
|          | 19:00~23:00 | 우정의 밤                   |
|          | 19:00~23:00 | 학술토론회                   |
| 9. 26(목) | 09:00~10:30 | 학술토론회                   |
|          | 10:30~10:45 | 휴식                      |
|          | 10:45~12:00 | 학술토론회                   |
|          | 12:00~13:00 | 중식                      |
|          | 13:00~14:30 | 학술토론회                   |
|          | 14:30~14:45 | 휴식                      |
|          | 14:45~17:00 | 학술토론회                   |
|          | 19:00~23:00 | 학술토론회                   |
| 9. 27(금) | 전일          | 자카르타 시내관광               |
|          | 19:00~23:00 | ACA-7 폐회식 및 건축상 시상식     |

2. 본 협회에서 주관하여 제작한 아카시아 북의 판매 실적이 부진하여 출판사의 재정적인 문제가 토의되었다. 아카시아 북 발간의 목적이 아시아 건축사들의 위상을 정립하고 세계화되는 건축설계시장에 대처하는데 있는 것에 공감하였고 각 회원국의 입장이 서로 다르고, 싱가포르 이사회에서 결정된 회원국별 배당된 100부씩의 판매가 이행되지 않았으나 형편에 맞도록 재신청하기로 했다.

3. 제18회 아카시아 이사회는 1997. 9. 20~21일까지 일본 Tokyo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4. 제9회 포름(학술대회)은 이사회와 동시에 Tokyo에서 "아시아 건축의 미래"라는 주제를 가지고 개최하기로 하였다.

5. 아카시아 Fellowship의 기본 개념과 취지는 아카시아의 전통을 유지하고 새로운 방향 설정의 고문역을 담당하는데 의견일치를 보았다. 위치가 아카시아 이사회보다 상위에 있을 수 없으며 결정사항에 관한 자문과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으나 최종 결정권은 없는 것으로 하였다.

Fellowship의 자격 요건은 전임회장, 부회장, 교육위원장을 역임한 자와 아카시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로 제한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인 제반사항은 홍콩 Ronald Poon이 작성하기로 한 초안을 각 회원국의 검토를 거쳐 이사회 의결로 정하기로 하였다.

6. 아카시아 건축상에 많은 작품이 접수되어 반가운 일이나 각 작품의 심사에 있어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그 표현 방법과 제출설명서가 통일되지 않아 심사에 어려움이 있다. 보다 더 좋은 작품이 공정한 절차에 의해 선정될 수 있도록 작품을 각 회원국에서 1차 심사후 제출하고 통일된 양식의 작성이 필요하다. 아카시아 건축상에 제출하는 작품에 관한 제출 서식과 양식은 파키스탄의 필 그라미와 필리핀 암코르도가 초안을 작성하여 다음 이사회에 제출하여 토의하기로 하였다.

7. 회원 가입을 위하여 싱가포르 이사회에 옮겨버로 참석했던 네팔과 베트남이 본 이사회에 참석치 않았으나 브르나이는 가입을 위하여 참석하였다.

참석치 않은 나라는 계속 옮겨버로 남게 되며 브르나이는 현 정관에 의해 최소 50명 이상의 건축사를 확보한 협회만 가입할 수 있게 되어 있어 현재 10여명의 건축사를 확보한 상태에서 가입은 불가하며 가입을 위해서는 이사회 의 정관 개정이 필요하다. 정관개정 문제로 아카시아 핸드북의 수정과 함께 검토하기로 하였다.

8. 실무 건축사에 관한 UIA규약에 관한 사항은 아카시아를 대표해 싱가포르의 에드워드 실버가 대응안을 제시하기로 하고 모든 회원국은 그 의견을 실버에게 제출하기로 하였다.

9. 현재 말레이시아 건축사협회 주관으로 발간되는 「ARCASIA QUARTERLY」는 「ARCHITECTURE ASIA」로 이름을 바꾸기로 하였고 소제목을 「A JOURNAL OF ARCASIA」로 정하기로 하였다.

10. 교육위원회와 병행하여 진행하고 있는 학장단 회의는 별도의 이사회 구성을 금하며 현 교육위원회 소위원회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11. 다음 회기의 회장 선출에 있어 스리랑카의 스라 위크라마시그하지씨가 자진하여 출마하였으며 만장일치로 동의하여 회장으로 선임되었고 부회장에는 ZONE A에 파키

스탄의 게프리씨 ZONE B에 싱가포르의 실버씨 ZONE C에는 홍콩의 정씨가 선출되었다. 이들이 추후 2년동안 아카시아를 대표하게 된다.

12. 기타 사항으로 회원국간의 지부설치 건이 논의되었다. 현재 필리핀 건축사협회에서 싱가포르 지부 신청이 요청되고 있으나 이사회에서 회원국끼리 지부 설치하는 아카시아 정신에 위배되며 제16회 대회에서 결의한 윤리규약에 위배됨으로 금하기로 하였다. 또한 중국이 참석치 않았으나 1999년 UIA 총회가 중국에서 개최되므로 각 회원국은 요청이 있을시 가능한 여려분야에서 협조하기로 하였다. 몽고 대표단은 임원중 한 명이 교통사고로 참석하지 못했으며 그의 완치를 바란다.

13. 아카시아 상에 본 협회 회원의 6작품이 제출되었으나 안타깝게 수상작은 없었고 각 분야별 최우수상은 다음과 같다.

주거 부분은 인도네시아 Yoriantar's Marrlo Dumsawijaya의 작품 「Self Help Housing」이 수상하였고 일반 시설에는 말레이시아 Trhamzah & Yeang, Sdn Bhd 작품 「Menara mesiniaga」 작품이 공업부문은 수상작이 없었고 전통부문에서는 일본의 Maki Eiji, misu kunihiro, Hamada와 Akitito의 공동작인 중국을 대상으로 한 「Dunhuang Cane Cultural Asset Center」가 수상하였다. 매년 본 협회에서도 작품을 출품하고 있으나 좀더 정성을 기울이고 특히 전통부분에 좋은 작품을 제출하여 국내 건축의 위상을 널리 알리는 계기로 발전시키기를 바란다.

14. 회의를 마치며 현 Esa Mohamed 회장은 이임사에서 아카시아의 기본정신인 회원국간의 협조와 아시아인의 기본정신을 후배에게 물려주고 주어진 환경을 유지 발전시켜 세계 속에서 발전가능성 있는 유일한 아시아의 모임으로 발전시키기를 기원하였다. 곧이어 신임회장은 취임사에서 21세기는 아시아의 시대이므로 아시아 건축가들의 뜻에 걸맞는 제8차 건축사대회를 치르도록 최선을 할 것이며 국제관계에서의 아시아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데 정열을 바치겠다는 다짐으로 답하였다.

## 맺는말

제7차 아시아 건축사대회의 전반적인 구성은 조직위원회의 활동이 미흡해 보였고 진행에 있어 행사의 흐름이 매끄럽게 정리되지는 않았다. 특히 건축가 출신 시프러스씨의 과대포장된 개발사업 현장의 방문과 도에 넘치는 저택에서 행해진 저녁만찬은 인도네시아 건축발전의 흐름을 보는 듯 하였고 아직도 개발도상국이고 오랜 1인통치에 의한 역사 속에 정치와 건축이 밀착되어 새로운 창작활동에 저해요소를 일깨워 주었다. 가용할만한 광활한 대지를 보며 그들이 과연 어떠한 형태로 매꾸어 갈지 또다른 혼돈된 도시의 생성을 바라보는 듯하였고 대중교통과 인프라스트럭처가 우선되어야 할 시점에 수익성에 초점을 맞춘 개발업자들의 장사 속이 너무 노골적이었다.

이사회를 마치며 현재 아시아 회원국의 문제점을 올바른 정치인에 의한 올바른 건축 이해와 이에 따른 장기적인 계획에 의한 개발이며 이를 위해서는 정책 입안에 있어 특출한 건축가의 입김이 절대 필요하며 건축가의 정치 진출이 그 해답의 하나일 것이라고 느꼈다.

〈이근창 / 본협회 국제위원〉

# 96년도 10월분 설계도서신고현황

통계

## 종합평가

### 가. 전년동월비

전년도 10월분 9백4십3만3천9백56㎡ 보다 22.9%(2백1십6만6백45㎡) 증가한 1천1백5십9만4천6백1㎡의 실적을 보임.

### 나. 전년동기비

전년도 10월누계 1억2백8십5만5천3백46㎡ 보다 4.3%(4백

4십3만8천3백22㎡) 감소한 9천8백4십1만7천24㎡의 실적을 보임.

### 다. 전월비

전월 9월분 9백6십3만9천7백56㎡보다 20.3%(1백9십5만4천8백45㎡) 증가한 1천1백5십9만4천6백㎡의 실적을 보임.

## 지역별 전년동월대비 증감현황

| (연면적기준) |     | (단위/㎡)    |            |           |       |
|---------|-----|-----------|------------|-----------|-------|
| 구 분     |     | 1995년도    | 1996년도     | 증 감       | 비율(%) |
| 증가지역    | 서 울 | 4,912,304 | 6,222,885  | 1,310,581 | 26.7  |
|         | 대 구 | 487,501   | 1,072,524  | 585,023   | 120.0 |
|         | 인 천 | 223,504   | 557,587    | 334,083   | 149.5 |
|         | 경 기 | 703,761   | 972,380    | 268,619   | 38.2  |
|         | 강 원 | 113,121   | 127,713    | 14,592    | 12.9  |
|         | 충 북 | 305,384   | 560,081    | 254,697   | 83.4  |
|         | 경 북 | 302,729   | 381,915    | 79,186    | 26.2  |
|         | 제 주 | 30,565    | 48,133     | 17,568    | 57.5  |
| 감소지역    | 부 산 | 771,365   | 499,638    | (271,727) | -35.2 |
|         | 광 주 | 225,874   | 146,856    | (79,018)  | -35.0 |
|         | 대 전 | 252,936   | 91,213     | (161,723) | -63.9 |
|         | 충 남 | 184,020   | 147,943    | (36,077)  | -19.6 |
|         | 전 북 | 155,969   | 129,241    | (26,728)  | -17.1 |
|         | 전 남 | 123,991   | 100,652    | (23,339)  | -18.8 |
|         | 경 남 | 640,932   | 535,840    | (105,092) | -16.4 |
| 합 계     |     | 9,433,956 | 11,594,601 | 2,160,645 | 22.9  |

## 용도별 전월대비 증감현황

| (연면적기준)   |  | (단위/㎡)    |            |           |       |
|-----------|--|-----------|------------|-----------|-------|
| 구 분       |  | 8월분       | 9월분        | 증 감       | 비율(%) |
| 단 독 주 택   |  | 711,576   | 734,358    | 22,782    | 3.2   |
| 다 세 대 주 택 |  | 293,200   | 230,100    | (63,100)  | -21.5 |
| 연 립 주 택   |  | 101,810   | 276,473    | 174,663   | 171.6 |
| 아 파 트     |  | 3,919,905 | 5,715,144  | 1,795,239 | 45.8  |
| 근린생활시설    |  | 1,093,698 | 1,156,437  | 62,739    | 5.7   |
| 종 교 시 설   |  | 62,424    | 111,585    | 49,161    | 78.8  |
| 의 료 시 설   |  | 38,817    | 42,209     | 3,392     | 8.7   |
| 교육연구시설    |  | 342,969   | 265,145    | (77,824)  | -22.7 |
| 업 무 시 설   |  | 1,015,169 | 463,117    | (552,052) | -54.4 |
| 숙 박 시 설   |  | 112,400   | 151,681    | 39,281    | 34.9  |
| 공 장       |  | 800,512   | 867,563    | 67,051    | 8.4   |
| 기 타       |  | 1,147,276 | 1,580,789  | 433,513   | 37.8  |
| 계         |  | 9,639,756 | 11,594,601 | 1,954,845 | 20.3  |

## 용도별 전년동월대비 현황(10월분)

| 구 분         | 1995년 |       |           | 1996년 |       |            | 대 비     |       |           | 연면적<br>비 율<br>(%) | 비 고      |
|-------------|-------|-------|-----------|-------|-------|------------|---------|-------|-----------|-------------------|----------|
|             | 건수    | 동수    | 연면적       | 건수    | 동수    | 연면적        | 건수      | 동수    | 연면적       |                   |          |
| 단 독 주 택     | 3,252 | 3,314 | 890,513   | 2,528 | 2,596 | 734,358    | (724)   | (718) | (166,155) | -17.5             |          |
| 다 세 대 주 택   | 575   | 583   | 252,945   | 451   | 488   | 230,100    | (124)   | (95)  | (22,845)  | -9.0              |          |
| 연 립 주 택     | 94    | 94    | 136,820   | 117   | 122   | 276,473    | 23      | 28    | 139,653   | 102.1             |          |
| 아 파 트       | 142   | 283   | 3,915,458 | 122   | 335   | 5,715,144  | (20)    | 52    | 1,799,686 | 46.0              |          |
| 근 립 생 활 시 설 | 2,865 | 2,972 | 1,333,443 | 2,550 | 2,659 | 1,156,437  | (315)   | (313) | (177,006) | -13.3             |          |
| 종 교 시 설     | 109   | 111   | 96,766    | 93    | 118   | 111,585    | (16)    | 7     | 14,819    | 15.3              |          |
| 의 료 시 설     | 22    | 25    | 33,220    | 11    | 11    | 42,209     | (11)    | (14)  | 8,989     | 27.1              |          |
| 교 육 연 구 시 설 | 114   | 119   | 236,480   | 124   | 145   | 265,145    | 10      | 26    | 28,665    | 12.1              |          |
| 업 무 시 설     | 70    | 72    | 266,666   | 120   | 133   | 463,117    | 50      | 61    | 196,451   | 73.7              |          |
| 숙 박 시 설     | 106   | 159   | 126,901   | 144   | 160   | 151,681    | 38      | 1     | 24,780    | 19.5              |          |
| 공 장         | 817   | 1,060 | 986,585   | 661   | 879   | 867,563    | (156)   | (181) | (119,022) | -12.1             |          |
| 기 타         | 934   | 1,068 | 1,158,159 | 1,097 | 1,265 | 1,580,789  | 163     | 197   | 422,630   | 36.5              |          |
| 합 계         | 9,100 | 9,860 | 9,433,956 | 8,018 | 8,911 | 11,594,601 | (1,082) | (949) | 2,160,645 | 22.9              | ( )=마이너스 |

용도별 전년동기대비 현황(1~10월분)

| 구분<br>용도별 | 1995년   |         |             | 1996년  |         |            | 대 비     |          |             | 연면적<br>비율(%) | 비고       |
|-----------|---------|---------|-------------|--------|---------|------------|---------|----------|-------------|--------------|----------|
|           | 건 수     | 동 수     | 연면적         | 건 수    | 동 수     | 연면적        | 건 수     | 동 수      | 연면적         |              |          |
| 단 독 주 택   | 37,126  | 37,784  | 9,647,516   | 34,155 | 34,908  | 10,243,849 | (2,971) | (2,876)  | 596,333     | 6.2          |          |
| 다 세 대 주 택 | 7,060   | 7,946   | 3,407,645   | 6,467  | 6,890   | 3,821,816  | (593)   | (1,056)  | 414,171     | 12.2         |          |
| 연 립 주 택   | 1,054   | 1,107   | 1,535,511   | 1,048  | 1,093   | 1,558,940  | (6)     | (14)     | 23,429      | 1.5          |          |
| 아 파 트     | 1,580   | 5,318   | 37,489,360  | 1,054  | 2,305   | 36,727,596 | (526)   | (3,013)  | (761,764)   | -2.0         |          |
| 근린생활시설    | 33,351  | 34,429  | 15,423,414  | 31,046 | 32,340  | 14,644,668 | (2,305) | (2,089)  | (778,746)   | -5.0         |          |
| 종 교 시 설   | 1,085   | 1,225   | 843,678     | 989    | 1,139   | 918,333    | (96)    | (86)     | 74,655      | 8.8          |          |
| 의 료 시 설   | 240     | 255     | 762,482     | 206    | 238     | 661,873    | (34)    | (17)     | (100,609)   | -13.2        |          |
| 교육연구시설    | 1,164   | 1,330   | 2,946,307   | 1,054  | 1,169   | 3,084,176  | (110)   | (161)    | 137,869     | 4.7          |          |
| 업 무 시 설   | 1,071   | 1,117   | 4,962,914   | 863    | 916     | 4,471,289  | (208)   | (201)    | (491,625)   | -9.9         |          |
| 숙 박 시 설   | 1,240   | 1,392   | 1,747,190   | 1,320  | 1,404   | 1,369,462  | 80      | 12       | (377,728)   | -21.6        |          |
| 공 장       | 8,231   | 11,313  | 12,354,438  | 6,479  | 8,606   | 9,250,424  | (1,752) | (2,707)  | (3,104,014) | -25.1        |          |
| 기 타       | 9,877   | 11,891  | 11,734,891  | 9,468  | 11,119  | 11,664,598 | (409)   | (772)    | (70,293)    | -0.6         |          |
| 합 계       | 103,079 | 115,107 | 102,855,346 | 94,149 | 102,127 | 98,417,024 | (8,930) | (12,980) | (4,438,322) | -4.3         | ( )=미아너스 |

지역별 전년동월대비 현황(10월분)

| 구분<br>건축사회 | 1995년 |       |           | 1996년 |       |            | 대 비     |       |           | 연면적<br>비율(%) | 비고       |
|------------|-------|-------|-----------|-------|-------|------------|---------|-------|-----------|--------------|----------|
|            | 건 수   | 동 수   | 연면적       | 건 수   | 동 수   | 연면적        | 건 수     | 동 수   | 연면적       |              |          |
| 서 울        | 1,623 | 1,633 | 4,912,304 | 1,930 | 1,931 | 6,222,885  | 307     | 298   | 1,310,581 | 26.7         |          |
| 부 산        | 1,023 | 1,179 | 771,365   | 523   | 718   | 499,638    | (500)   | (461) | (271,727) | -35.2        |          |
| 대 구        | 1,215 | 1,216 | 487,501   | 449   | 449   | 1,072,524  | (766)   | (767) | 585,023   | 120.0        |          |
| 인 천        | 261   | 262   | 223,504   | 290   | 324   | 557,587    | 29      | 62    | 334,083   | 149.5        |          |
| 광 주        | 313   | 365   | 225,874   | 253   | 308   | 146,856    | (60)    | (57)  | (79,018)  | -35.0        |          |
| 대 전        | 213   | 215   | 252,936   | 192   | 202   | 91,213     | (21)    | (13)  | 161,723   | -63.9        |          |
| 경 기        | 1,287 | 1,365 | 703,761   | 1,406 | 1,602 | 972,380    | 119     | 237   | 268,619   | 38.2         |          |
| 강 원        | 414   | 486   | 113,121   | 418   | 456   | 127,713    | 4       | (30)  | 14,592    | 12.9         |          |
| 충 북        | 385   | 430   | 305,384   | 345   | 494   | 560,081    | (40)    | 64    | 254,697   | 83.4         |          |
| 충 남        | 297   | 331   | 184,020   | 338   | 277   | 147,943    | 41      | (54)  | (36,077)  | -19.6        |          |
| 전 북        | 219   | 222   | 155,969   | 234   | 234   | 129,241    | 15      | 12    | (26,728)  | -17.1        |          |
| 전 남        | 300   | 336   | 123,991   | 312   | 332   | 100,652    | 12      | (4)   | (23,339)  | -18.8        |          |
| 경 북        | 399   | 525   | 302,729   | 416   | 516   | 381,915    | 17      | (9)   | 79,186    | 26.2         |          |
| 경 남        | 1,030 | 1,171 | 640,932   | 786   | 928   | 535,840    | (244)   | (243) | (105,092) | -16.4        |          |
| 제 주        | 121   | 124   | 30,565    | 126   | 140   | 48,133     | 5       | 16    | 17,568    | 57.5         |          |
| 합 계        | 9,100 | 9,860 | 9,433,956 | 8,018 | 8,911 | 11,594,601 | (1,082) | (949) | 2,160,645 | 22.9         | ( )=미아너스 |

지역별 전년동기대비 현황(1~10월분)

| 구분<br>건축사회 | 1995년   |         |             | 1996년  |         |            | 대 비     |          |             | 연면적<br>비율(%) | 비고       |
|------------|---------|---------|-------------|--------|---------|------------|---------|----------|-------------|--------------|----------|
|            | 건 수     | 동 수     | 연면적         | 건 수    | 동 수     | 연면적        | 건 수     | 동 수      | 연면적         |              |          |
| 서 울        | 15,608  | 15,686  | 21,647,749  | 23,260 | 23,314  | 47,334,062 | 7,652   | 7,628    | 25,686,313  | 118.7        |          |
| 부 산        | 9,044   | 10,576  | 7,020,690   | 6,702  | 8,997   | 8,481,355  | (2,342) | (1,579)  | 1,460,665   | 20.8         |          |
| 대 구        | 12,152  | 12,641  | 6,702,359   | 7,284  | 7,328   | 6,835,598  | (4,868) | (5,313)  | 133,239     | 2.0          |          |
| 인 천        | 3,722   | 3,939   | 4,937,744   | 3,409  | 3,485   | 3,841,900  | (313)   | (454)    | (1,095,844) | -22.2        |          |
| 광 주        | 2,848   | 3,688   | 3,733,943   | 2,849  | 3,375   | 2,174,406  | 1       | (313)    | (1,559,537) | -41.8        |          |
| 대 전        | 2,523   | 2,699   | 2,751,509   | 2,807  | 2,854   | 1,579,609  | 284     | 155      | (1,171,900) | -42.6        |          |
| 경 기        | 18,605  | 20,860  | 20,134,158  | 16,896 | 18,548  | 10,492,260 | (1,709) | (2,312)  | (9,641,898) | -47.9        |          |
| 강 원        | 5,435   | 6,378   | 3,920,559   | 4,291  | 4,675   | 1,690,590  | (1,144) | (1,703)  | (2,229,969) | -56.9        |          |
| 충 북        | 4,901   | 5,566   | 3,901,896   | 3,733  | 4,264   | 2,471,355  | (1,168) | (1,292)  | (1,430,541) | -36.7        |          |
| 충 남        | 4,116   | 4,433   | 5,812,165   | 3,045  | 2,658   | 1,781,432  | (1,070) | (1,775)  | (4,030,733) | -69.3        |          |
| 전 북        | 2,636   | 2,965   | 3,713,158   | 2,177  | 2,179   | 1,520,058  | (459)   | (786)    | (2,193,100) | -59.1        |          |
| 전 남        | 3,761   | 4,467   | 2,867,776   | 2,979  | 3,291   | 1,379,247  | (782)   | (1,166)  | (1,488,529) | -51.9        |          |
| 경 북        | 6,034   | 7,915   | 6,129,889   | 4,242  | 5,209   | 2,375,700  | (1,792) | (2,706)  | (3,754,189) | -61.2        |          |
| 경 남        | 9,758   | 11,275  | 8,757,032   | 9,026  | 10,356  | 5,780,454  | (732)   | (919)    | (2,976,578) | -34.0        |          |
| 제 주        | 1,937   | 2,039   | 824,719     | 1,449  | 1,594   | 678,998    | (488)   | (445)    | (145,721)   | -17.7        |          |
| 합 계        | 103,079 | 115,107 | 102,855,346 | 94,149 | 102,127 | 98,417,024 | (8,930) | (12,980) | (4,438,322) | -4.3         | ( )=미아너스 |

## The Architectural Review

주택 건축을「특집」으로 다루고 있는 10월호에서는 주택의 의미에 대한 재고(아래 요약내용 참조)와 함께, 전통적인 감성주의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안정된 거주감을 제공해주고 있는 현대적인 작품들을 집중 조명해 다루고 있다.



## ■ 주택 특집

『주거가 없는 것은 인간이 처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한 상황 중 하나이다. 진정한 거주감, 적주성을 획득해 내는 것은 모든 건축가의 가장 근본적인 임무이다. 주거를 만든다는 것, 즉 외부로는 자연 현상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고, 내부로는 삶의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주택을 창조한다는 것은 건축의 근본이다. 건축이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은 건축가로서는 대단히 다행스러운 일이다. 환상적, 충격적인 테마에 의존하기에 새로운 것이 나올 때마다 흔들리는 다른 예술 분야와는 달리, 건축에서는 인간을 위한 예술을 묵묵히 추구해나갈 수 있는 것이다. 알도 반 아이크는 이렇게 말했다. “요즘 건축가들은 내부가 아니라 외부로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다. 그것이 설사 외부가 되는 경우라도, 건축가의 임무는 내부를 제공하는데 있다. 건축은 더도 덜도 말고, 인간의 귀가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면 된다.” 물론 이것은 르 꼬르뷔제의 주장과는 전혀 다르다. 그는 “우리의 머리와 마음에서 주택에 관한 모든 옛 관념들을 버리고 비판적, 객관적 입장에서 그것을 바라본다면 ‘기계로서의 주택’, 즉 대량 생산 주택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도

와주는 연장, 도구와 마찬가지로 건강하고 도덕적이며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말했다. 오늘날 주택에 대한 개념은 이 두 가지 시각 모두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지만, 상상력에 있어 더욱 큰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은 반 아이크의 생각이다. 또한 대량 생산 주택은 아무런 감흥도 전달하지 못하는 끝없는 삼류 건축물들로 전락했다. 빅토리아 시대의 이름 없는 건축가들이 만든 주택들을 보면 모두가 미묘한 차이를 보이면서 삶의 변화에도 잘 적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하지만 르 꼬르뷔제의 돌이노 시스템을 통해 이를 재현하고자 했던 시도들은 황당한 결과만을 가져왔으며, 양적인 팽창 속에서 건축의 질은 잊혀져 왔다. 본 특집에서 중요한 것은 주택의 집합이나 주택의 표준화보다는 개개의 주택이다. 사실 개인 주택은, 가장 간단하고 기본적인 건축이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흔한 건축이기에 건축가에게는 가장 힘든 일이기도 하다. 본 특집은 장소 만들기의 기본이 사라져가는 세대에 대한 반론으로써 제기되는 것이다. 여기서 다루어지는 여러 주택들은, 우리 시대에 맞는 주택 개념을 재정의하기 위한 다양한 상상력과 노력들을 보여주고 있다. (본문 중 ‘주거 만들기’ 요약)

▶글렌 머컷트(Glenn Murcutt)가 오스트레일리아의 열대 지역과 산악 지역에 각각 설계한 두 주택은, 기본적인 피난처로서의 주택의 의미를 재해석한 결과이며 ▶마조리카 섬에 있는 요른 웃존의 두 작품은 재료와 형태에서 지역적 전통과 기하학적 형태를 조화시켜 신비감을 주고 있다. 그 외에 소개된 ▶지즈코비츠-코발스키, ▶세스 스타인, ▶로칸 오헐리, ▶토마스 스피겔할터, 폴커 긴케, ▶반 베르켄-보스, ▶마크 가드의 최근 주택 작품들은 대체적으로 철재, 유리 등이 적극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강한 색과 형태가 강조된 초현대적인 느낌을 준다.

## ■ 인테리어 디자인

▶대지의 환경과 일본 주택의 특성을 조화시킨 멜보른 교외의 주택, ▶런던 도심가의 30년대 공장 옥상부분을 개조하여 만든 빛이 가득한 펠트 하우스, ▶둥굴이라는 주거의 원형을 연상시키면서도 근대적인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노르웨이의 주택 등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 ■ 비평

역사가 남긴 도시설계의 교훈을 무시한 채 흉측하게 그 거대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로마의



마조리카섬의 주택(요른 웃존작)

비토리오 엠마누엘 2세 기념관에 대한 비평을 실고 있다.

## ■ 기타

1900년대 중반에 활동했던 그래픽 디자이너 고든 컬렌(Gordon Cullen)의 건축적 시각이 소개되어 있다.

## Architectural Record

10월호 <근작소개>에서는 워싱턴 주립 역사박물관, 페루주재 미국 대사관, 마키의 도쿄 교회, 플로리다의 엑손 주유소를 소개하고 있으며 건물 종류에 따라 최근의 동향을 살펴보는 <연속기획>에서는 최근 미국에서 가장 활발한 건설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로 꼽힌 호텔 건축에 대해 다루고 있다.



## ■ 근작소개

▶워싱턴 주립 역사박물관 / 찰스 무어작



찰스 무어의 유작이라고 할 수 있는 워싱턴 주립 역사 박물관은 피라미드의 에칭 작품들을 연상시키는 거대하고 강한 형태들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본문에 실린 ‘근면한 도시를 위한 힘있는 형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타코마에 있는 워싱턴 주립 역사박물관의 건립 과정은 설계 경기, 여러 분야 전문가들의 협력, 건축주의 도움, 확고한 전망, 시민들의 의지 등 오늘날 건축물이 완성되기까지의 복합적인 요인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철로, 고속도로, 노숙한 창고들에 의해 오히려 고립된 도시를 부흥시키기 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써 1991년 폐쇄된 기차역의 재증축이 이루어졌으며, 주립 대학과 역사박물관 신축이 계획되었다. 워싱턴 주립 역사협회가 후자의 건축주로 나섰으며, SUNY 버펄로의 건축계획 학과장 브루노 프레스가 국제 설계경기의 전문 고문으로 선정되었다. 그의 다

양한 경험을 바탕으로한 국제설계경기에는 총 30팀이 참가했고, 아더 앤더슨-찰스 무어, 마이클 그레이브스 등 4팀이 최종에 올라, 결국 타코마의 문맥과 감수성을 잘 반영한 앤더슨-무어 안이 당선되었다. 그들의 디자인은 이웃하는 보자로 식 기차역의 형태를 반영하였고, 프레시와의 협의를 통해 각 재료는 그 특성(아치를 이루는 벽돌, 콘크리트의 가소성, 빛을 반사하는 알루미늄 등)을 발휘하도록 사용되었다. 주가 선정된 전체 프로젝트의 대니저인 원로 건축가 제임스 코플랜드는 건축주의 올바른 의사 소통을 성공의 관건으로 보고 이에 주력하는 동시에, 시에틀의 올슨 선드버그와의 연결을 주선하여 원만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였다. 역사협회에서는 별도의 기술자를 현장 매니저로 기용하여 시공 공정을 파악하였고, 박물관 측에서는 프로젝트 코디네이터를 선정해 전시계획을 세웠다. 다층의 협력 관계에 의해 완성된 역사박물관은 비평가와 시민 모두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페루주재 미국대사관 / 아키텍트니키작  
마치 외부인의 접근을 거부하듯 성벽과 같은 웅측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 그 표면에 그려진 다양한 문양은 페루와 미국의 역사적 형상들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한다.

▶일본 도쿄 후미히코 마키의 교회  
정면은 4층의 전면 유리로 이루어져 빛을 내부에 도입하고 있으며, 그 내부는 전통적인 나무 창살과 창호지를 연상시키는 마감으로 이루어져 있다.

▶플로리다의 엑손 주유소 / 하디-홀츠만-파이퍼 팀작  
난잡한 표지판을 제거한 새로운 주유소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 ■ 연속기획 - 호텔 건축

설계와 시공의 경제성을 위해서 대부분 표본 설계를 따르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아시아와 유럽의 고급 비즈니스 호텔, 휴양지 호텔, 그리고 호텔의 재건축 분야에서는 설계자들에게도 기회가 보장되고 있다. ▶마이클 그레이브스가 설계한 일본 후쿠오카의 하야트 리전 호텔을 비롯하여, ▶50년대 재개발 붐과 함께 사라진 스페인 식민지 건축의 특징을 되살린 코스타 리카의 마리웃 호텔, ▶아르누보를 비롯한 고전적인 형상들로 가득한 뉴욕의 맨스필드 호텔, 파타고니아의 장엄한 자연과 내부의 직접적인 만남을 위해 점이 지역을 삭제한 칠레의 호텔 엑스포라를 살펴본다.

### ■ 기타

▶철골 건축의 내진성에 대한 재고, ▶3개월 후의 사용자 평가를 통해 만족도가 75%를 넘을 경우 설계-시공자에게 추가 비용을 지급되는 계약의 예를 다루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설계 협조 체계, ▶그래피소프트사의 아키텍트 5.0 소프트웨어 등이 소개되어 있다.

## Architecture



9월호에서는 유럽의 대표적 개인전 **웅박물관들과 캐나다 밴쿠버의 건축에 대한 탐방기**를 게재하였다. 또한 최근 2년간의 공사끝에 새건물이 들어선 영국「캠브리지 대학」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 있으며 모더니즘에 바탕을 둔 주거건축에 대한 기사도 다루고 있다.

### ■ 유럽의 개인전용 미술관들

유럽에는 19세기부터 한 예술가의 작품만을 다루는 전문 미술관들이 많이 존재해 왔다. ▶페터 베르콜리가 설계한 조각가 요셉슨을 위한 「콘시운타 재단 박물관」, ▶렌조 피아노의 「브랑쿠지 스튜디오」, ▶다니엘 리베스킨트의 「켈릭스 누스바움 박물관」, ▶마리오 보타의 「장 텡글리 박물관」, ▶아넷 기콘-마이크 가이어의 「에른스트 루드비히 키르호너 박물관」 등 전시된 작품과 그것을 담는 건축물 사이의 조화를 이루어내고 있는 최근의 대표적인 개인전용 박물관들을 살펴본다.

### ■ 영국 캠브리지 대학 증축

최근 2년 간의 공사 끝에 전통 깊은 캠브리지 대학에 새 건물들이 들어섰다. 영국의 대표적인 건축가 5명이 참여한 이 프로젝트는 ▶철재, 유리의 차갑고 명쾌한 형태가 돋보이는 노만 포스터의 법학관, ▶단순하면서 육중한 마이클 홉킨스의 퀸스 빌딩 극장, ▶화려한 색채와 장식이 두드러진 존 아우트람의 경영학관, ▶중첩된 각들로 이루어진 티위 형태를 띤 맥코맥-제이미슨-프리처드의 기숙사, ▶위요된 중정이 있는 제레미 디슨, 에드워드 콘스의 기숙사로 구성되어 있다.

### ■ 캐나다 밴쿠버의 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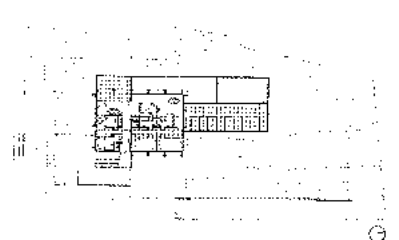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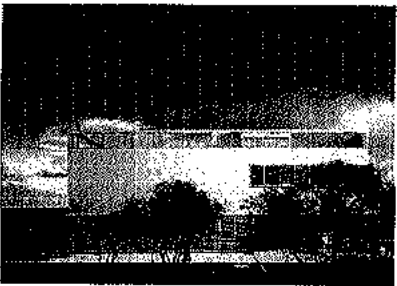
캐나다의 3대 도시 중 하나로, 최근 이민과 투자로 개발이 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밴쿠버의 건축에 대해 알아본다. ▶밴쿠버 건축 사무소 액톤-존슨-오스트리(AJO)의 독창적인 작품들, 공공성을 바탕으로 한 리처드 앙리계의 「브리타쉬 콜럼비아 저스티스 인스티튜트」, ▶비스비-브리지 사무소(Busby Bridger Architects)의 하이테크한 건축물들을 살펴본다.

### ■ 아시아의 고층 건물들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과감한 도시계획을 추진 중인 아시아에서는 미국 설계에 의한 고층 건물 프로젝트들이 한창 진행 중이다. ▶제자르 펠리가 설계한 말레이시아의 88층 페트로나스 쌍둥이 타워, ▶콘페더스-폭스(KPF)의 높이460m 「상해 국제경제센터」, ▶스키드 모어-오웬스-메릴(SOM)의 「상해 진 마오 빌

딩」이 소개되어 있다.

### ■ 현대의 모더니즘 주택들



스페인 마드리드의 Gordio 주택 / 아발로스+헤레로스 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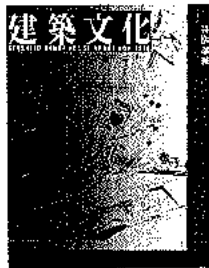
유럽과 호주에서는 아직도 모더니즘에 바탕을 둔 주거건축이 큰 호소력을 가지고 있다. ▶헤어조크-드 뮈론, ▶아발로스-헤레로스, ▶카를로스 페라타-조안 쿠비나우, ▶하인츠 비에네벨트, ▶에드 립만의 최근 작품이 소개되었다. 다음은 「현대의 모더니즘 주택들」에 대한 본문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유럽은 미국에 비해 모던한 주거 건축에 대해 더 관용적이어 왔다. 르 꼬르뷔제, 미스 반데어 로에, 알바 알토의 전통은 최근의 마리오 보타, 램 쿨하스, 엘라이아스 토레스의 주택들에 이어지고 있다. 유럽에서 모더니즘은 아직도 건축의 철학적 바탕을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이다. 최근의 주택들 중에는 근대의 거장들 작품처럼 구조적 표현, 빛, 자유로운 공간 등에 배후되어 있는 것들도 있는 반면, 역사적 문맥과 전통 문제를 도입하거나 심지어 철학적 유산을 비꼬는 작품들도 있다. 이들은 모더니즘이 가진 추상, 엄밀성 등의 성격이 결국 융통성 없는 축소 경향을 초래했다는 일반적인 인식을 바로 잡고 있다. 이 주택들이 가지는 융통성과 포용력은 20세기 건축의 중요한 업적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적어도 유럽과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말이다。」

### ■ 기타

▶프랭크 게리와 SOM의 합작인 「스페인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 평판」의 디자인과 시공 면에서 컴퓨터의 절대적인 역할, ▶오스트레일리아 멜보른의 도심 한복판에 있는 피터 코리간의 경멸에 가득한 건축적 테러 행위, ▶도시의 안보성에 대하여 유럽의 최근 행정 방침들이 주는 교훈, ▶최신 컴퓨터 프린터와 플로터 제품들에 대한 평가 등에 대한 기사를 다루고 있다.

## 건축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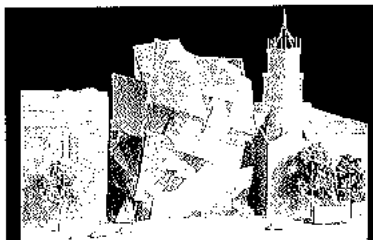


11월호 <작품특집>에는 ▶스파이럴(다니엘 리베스킨트) ▶마요 大高 架橋(노먼 포스티) ▶국립국회도서관

관서관(陶器 二三雄) ▶山香町役場(新居千秋) ▶太田縣立博物館(吉松秀樹/아키토모) ▶多治見大和幼稚園(시스템 수트) ▶白石市立白石第二小學校(芦原太郎 北山恒) ▶中野坂上썬브라이트 루인(住宅 都市整備公園東京支社/헬름 건축 도시 컨설턴트+山本 堀아키텍트) 등이 소개되었으며 <연재물>로는 ▶공간의 시네마토 그라피 제3화-머시니즘(machinism) 예의 예감과 ▶構造家 列傳 제14화-피터 라이스 ▶東京灣岸 필드 노트 제7화-이식된 중심 등이 실렸다.

### ■ 작품특집

▶스파이럴(다니엘 리베스킨트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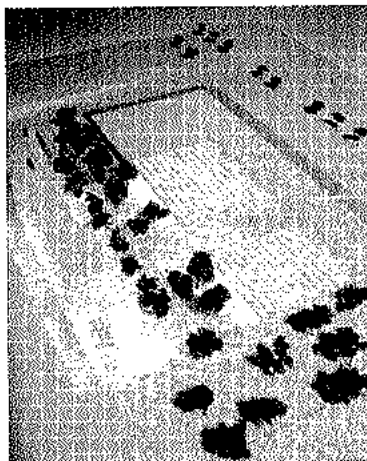
개념모형도

런던의 Victoria and Albert Museum 미술관(이하 V&A)의 확장 프로젝트인 이 작품은 다니엘 리베스킨트에 의해 설계되었으며 다음은 작품에 대한 작가의 설명을 요약한 것이다.

『오래된 V&A의 입구에 새겨진 (상상력)과 (지식)이라는 두 단어로 대표되는 이 미술관의 이념속에서 21세기의 V&A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향해 자기 자신을 열어놓고 있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V&A는 건물의 확장을 제안하여 전시공간, 교육용 시설, 상호작용 지향적인 새로운 전시설비 등의 복합요소를 지니는 종합시설을 건설하기로 하였다. 이번의 나의 제안은 '레디 메이드'로서의 미술관, 즉 엄밀하게 규정되고 수동적이며 중립적인 입장을 갖는 미술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새로운 건물의 디자인은 다음의 3가지 차원을 축으로하여 구성된다. 1. 예술과 역사의 나선(螺旋) 운동 2. 내부와 외부의 결합 3. 발견의 머리가 바로 그것인데 건물은 이들을 건축적으로 해석하여 기능적으로 연결된 수미일관한 집합체로서 표현된다. 새로운 V&A는 (신/구, 내/외, 구조/형태, 건축/장식, 테크놀로지/공예)라는 서로 다른 두 항목들을 세롭게 엮어진 퍼스펙티브에 끌어들이으로써 이들의 분할과 접촉의 영역을 확장시키고자 하였다.

였다.

▶국립국회도서관 관서관(陶器 二三雄 作)



당산작 모형도

'국립국회도서관 관서관(가칭)'에서는 일본 국립 국회 도서관 관서관 설계경기에서 당선된 토오끼 후미오(陶器 二三雄)와의 그의 당선작에 대한 인터뷰가 실려있다.

이번 설계경기에서 토오끼는 국회도서관이라는 상징성보다도 단정한 품격과 주변환경에 대해 조용히 서있는 듯한 분위기를 건물에 불어넣으려 했다고 한다. 그는 도서관이 들어설 부지에 잡목림이 군데 군데 위치한 것을 실마리로 옛날 삼목림으로 덮여있었을 풍경, 컨텍스트를 새로운 환경속에 재생한다는 생각을 계획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그가 현장을 둘러보았을 때 건물의 상당부분을 지하에 묻지 않으면 주변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했다.

건물내의 어프로치에서 종합참고열람실로 갈 경우 출과 로비를 경유하여 왔던 길을 다시 지하로 통과하게 하고 그 사이에 썬큰가든을 만들어 주위의 풍경을 볼 수 있게 하였는데 그는 여기서 자연과의 대화, 도서관이 주는 느낌이 점점 자기 자신에게로 스며들며 건물의 근원에 다가가는 느낌을 받도록 의도했다고 한다.

그는 이러한 이야기가 펼쳐지는 입구에 위치한 유리로 된 상가부근이 가장 중요한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중정에 위치한 썬큰가든을 면하여 모든 시설을 배치하고 이 썬큰가든이 잡목림의 느낌을 갖도록 만들어 독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연의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한다.

이번 설계경기에서는 '21세기를 향한 전자도서관'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는데, 이에대한 토오끼의 의견을 보면, 앞으로 미디어가 상당히 변모를 일으키게 되는데, 그는 전자도서관을 형태로서 건물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변모하는 미디어를 어떻게 건축을 통해 담아내고 내포할 것인가를 생각했다고 한다.

이 도서관은 2002년 12월 경에 개관할 예정이다.

## A+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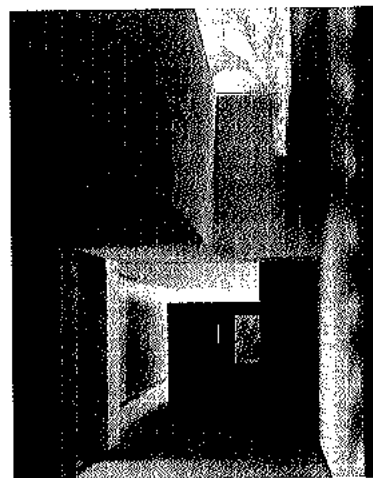


11월호는 「주택」을 주제로 다루고 있다. 15개의 세계 각국의 주택을 선보이고 있으며 작품의 내용은 주로 자연을 배경으로한 그 나라의 지방색과 함께 작가의 개성을 나타낸 작품들이 돋보인다.

### ■ 작품 - 주택

이번호에 소개된 작가와 작품이 위치한 나라는 다음과 같다. ▶Peter Märkli(스위스) ▶Geoffrey Bawa(스리랑카) ▶Ernesto Bedmar(싱가폴) ▶Rahul Mehrotra(인도) ▶Tan Tjiang Ay(인도네시아) ▶Ernst Beneder(오스트리아) ▶Ignacio Vicens and Jos Antonio Ramos(스페인) ▶Caruso St John(영국) ▶Albin, Vasconcelos, Elizondo(멕시코) ▶Machado and Silvetti(미국) ▶Norman Foster(독일) ▶Oswald Mathias Ungers(독일) ▶Herzog & Meuron(스위스) ▶Rem Koolhaas(네덜란드/프랑스)

▶House in Las Matas(Ignacio Vicens + José Antonio Ramos 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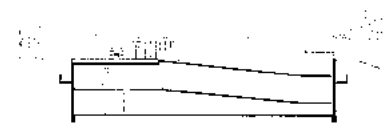


Ignacio Vicens 와 José Antonio Ramos의 작품(House in Las Matas)에서는 가정이라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고, 우리를 매일 감싸고 있는 공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때 건축은 다시 태어나야 하며 여태껏 다시 태어나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Las Matas에 지어진 이 건물은 '살기위한 세계'이다. 생활로부터 나오는 요구로부터 만들어졌으며 건축이 제공할 수 있는 것을 근거로 제안되었다. 중심이 되는 장소는 넓은 거실이며 이곳에 여러가지 기능들이 침투되고, 땅에 뿌려내린 듯한 주택의 다른 부분에 둘러싸여져 있게 되어 외부의 정원과 통일감을 만들어 내려하고 있다. 수직과 수평의 방향으로 확장되는 각 공간은 거실에 집중되고 수평방향으로는



식당, 지상층의 다른 부분, 정원으로 전개된다. 거실의 상부에는 대조적으로 주택의 보다 사적인 부분이 위치하게 된다. 주택의 외부는 대지에 판압한 듯한 인상을 주며 음과 양을 만들어 낸다. 주택의 돌출한 부분들은 빛과 조망을 고려한 것으로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내부에 불어넣어주며 지면에서 약간 파내려간 형태로 부대시설인 중정이 만들어져 있다.

• Private House in Germany (Norman Foster작)



단면도

이 작품은 젊은 부부와 그 가족을 위한 주택이다. 대지는 남사면이며 수림이 울창하고 계곡을 향해 좋은 조망이 열린 곳이다. 주택은 철근 콘크리트조와 조적조로 이루어진 2층의 건물인데 도로로부터 주택의 옥상으로 진입하게 된다. 환관은 옥상 테라스에 설치되어 있으며 경사로를 따라 집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경사도가 주택의 각 층을 연결하게 된다. 한 층을 내려가면 또다른 옥외 테라스를 만나게 되는데 이 두 개의 옥외공간은 독립된 절충기둥과 루버가 달린 지붕으로 감싸져 있다. 주택의 최하층은 가족이 모이는 장소이며 책꽂이가 달린 벽난로와 개방된 부엌이 위치하고 그 중앙에 2개층의 천정고를 가진 공간이 자리한다. 주택의 주인은 요리를 하는 것에 흥미가 있어 환기시설이 잘 갖춰지고 전문적인 설비를 갖춘 부엌을 설계해야 했다. 외부계단은 대지와 일체감을 갖고 있으며 이것은 각 층으로 직접 연결된다. 이 주택에서는 외부와 내부의 연결방법이 약간 변형되어 있어 가족이나 방문하는 친구들에게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 내는 환경과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충분히 고려된 환경을 만들어 낸다.

• Dutch House (Rem Koolhaas작)



Rem Koolhaas의 소개된 두 작품 중 Dutch House는 永住者인 부부와 가끔씩 찾아오는 그들의 딸들을 위한 주택이다. 그는 말단 빙퇴적이 해발 50m에 네덜란드의 구릉으로 남아있고 소나무 숲이 있는 금빛의 모래 언덕에 위치한 불안한 대지 상황으로부터 설

명을 시작한다. 이러한 상황에 덧붙여 도로면에서부터 4m의 고도제한과 건축면적의 과도한 제약이 건물의 높이와 전체 길이를 정하고 말았다. 지형은 변형되었으며 자동차를 타고 순회할 수 있는 작은 진입로는 건물에 효율적인 출입이 가능하게 해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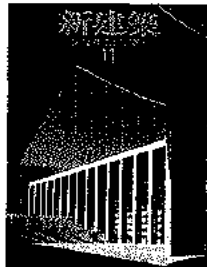
주인부부의 성인이 된 3명의 딸들이 방문자 이상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이 프로그램을 두개로 나누게 하여 이는 하나의 집이 다른 하나의 집을 포함하는 형태로 실현되고 있다. 서로다른 거주자의 상황을, 특정한 대지나 장소에 연관시켜 때로는 상호 영향을 미치지만 서로 자립적인 형태를 가지고 어떻게 건축으로 번역하는가가 그의 관심사였다. 또한 최소한의 형태적 표현으로 최대한의 프로그램을 담아내고자 하였다. 딸들을 위한 모델은 하나의 벽으로 둘러싸여져 중정과의 연속성을 가지게 하고 水晶化된 주인부부를 위한 콘테이너는 유리로 둘러싸여진 외벽을 통해 공간이 외부로 확장되며 이 둘을 잇는 연결점은 중심에 있는 경사로로, 이들을 시각적, 기능적으로 연결한다. 역설적으로 이 물리적 단절에 의해서 두 개의 상대물의 조화가 나타나는 것이다.

신건축

11월호에 소개된 주요작품과 작가들은 ▶리퍼블릭 프라자(黒川紀章) ▶兵庫縣立看護大學/姫路文學館南館(安藤忠雄) ▶浜田市 世界어린이美術館(高松伸) ▶부유하는 劇場(Maki & Associates) ▶쓰꾸바 카피오(谷口吉生) ▶파크코트杉宮宮前(早川邦彦) 등이며 ▶학교 2題와 ▶학교에 대한 좌담회와 대담 내용이 실렸다. <건축는다>으로 '혁명'의 건축박물관 이, <특별대담>으로 '건축가와 자격'이 실렸으며 그 외 ▶베니스 비엔날레 제 6회 건축전 일본관 龜裂,와 ▶프로젝트인 '센다이미디어테크, 등이 소개되었다.

■ 특별대담 - '건축가와 자격'

특별대담에서는 GATS, 즉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이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건축가의 자격에 대해서 건축가 鬼頭幸和 건축평론가 馬場瑞穂와의 대담 내용이 실려 있다. 이들은 미국의 건축가들이 아시아의 새로운 시장을 향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반면 일본은 이에 대해 전혀 무방비의 상태로 놓여 있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자국의 건축가들이 단지 외국(미국)의 건축가의 스태프로서만 활동하게 되는 것에 대한 걱정도 표명하고 있는데, 최근 커다란 경제성장을



보인 개발도상국가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수준의 건축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건축가의 국제적 활동의 방법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보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국제적인 시장개방에 있어서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로 지역성과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으며, 특히 아시아의 건축가들은 이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고 나서고 있어 이는 UIA에 있어서 커다란 과제가 되고 있다고 한다. 또한 클라이언트의 건축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점을 지적, 이들이 단지 보다 적은 설계료를 제시하는 건축가에게 일을 의뢰하는 태도를 비난하고 있다. 국제화를 맞아 해결해야 할 문제점은 '얼마나 일본의 사회가 국제화 속에서 문화적으로 성숙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과 '어떻게 일본의 건축가들이 세계로 진출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현재 일본의 건축사자격은 국제적으로는 아키텍트의 자격으로 통용되어 질 수 없다. 국제화가 추진되어가는 중에 국가간 건축가의 자격을 상호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오랜기간동안 각국의 과제였다. EU가 오랜기간을 거쳐 상호승인의 규칙을 정했으며 NAFTA에서도 미국과 캐나다와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지금 이 문제는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UIA의 PPC(직능 실무 위원회)가 '건축실무에 대한 프로페셔널리즘의 국제推奨기준'을 2년간 준비하여 금년 UIA 총회에서 채택되기에 이르렀다. 현재 국제적 자격문제로 WTO가 관계하고 있는 것은 회계사로 다음 건축가가 되지않을까 예상되고 있다. 여기서 대담자들이 지적하는 문제점은 PPC의 리포트속에 현재 일본의 상황을 시인하는 내용은 면문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PPC리포트 중에 건축가가 되기 위해서는 5년 이상의 대학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한 점이다. PPC회의에 참여한 JIA의 주장으로 이점은 그와 동등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대처할 수 있는 융통성이 허용된다고 전해졌다. 그러나 각 대학의 커리큘럼이 엄격히 통제되는 미국과 달리 각 대학의 자유도가 높은 일본의 경우 그 객관적 평가가 어렵다는 점에서 국제적 자격기준에 있어서 일본은 불리하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대담자들은 건축가에게 있어서 '자격'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현재 건축가들 자신이 그 활동범위를 축소해 나가고 있는 것에 대해 지적하고, 이에 대해 미국과 영국에서 이러한 현상이 있는 후 자기반성을 통해 강한 디자인 지향에 비해 실무능력이 떨어지는 점을 스스로 지적, 건축가의 재생을 시도하고 있으며, 그들(일본 건축가)도 자신들의 입장에서 이러한 작업을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다. 끝으로 건축가의 명확한 책임관계에 대한 지적을 덧붙이며 국제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는 좀더 건축계 모두가 생각해야 할 문제라 하였다.

(번역 : 강상훈, 최원준)

## 신·구 회장 이취임식 거행



이·취임식 광경

우리 협회는 지난 11월 6일 오전 11시 협회 중회의실에서 신·구 회장 이취임식을 거행하였다. 역대회장과 건축계인사 그리고 본부 및 서울건축사회 임직원 등 1백여명이 자리한 가운데 거행된 이날 이·취임식에서 김규태 회장은 이임사를 통해 「회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왔으나 몇몇 현안문제들을 새집행부에 짐으로 남기게 되어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지난 임기를 회고하면서 「새집행부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22대 회장에 취임한 신임 김영수회장은 「건축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건축설계의 전문화를 통해 한국건축의 세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임직원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이날 이·취임식 후에는 신·구임원 등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견례를 겸한 다과회가 열렸다.

## 96년도 시·도건축사회 정기총회 개최

우리협회 시·도 건축사회의 「96년도 정기총회」가 지난 11월 15일 인천건축사회를 시작으로 각 건축사회별로 개최되었다. 97년도 사업계획 승인 및 예산(안) 승인, 신임 임원 선출 등을 주요 안건으로 한 올해 각 시·도건축사회의 정기총회 의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원도건축사회 총회광경

### ■ 인천광역시건축사회

- 일시 : '96. 11. 15(금) 13:30
- 장소 : 현대빌딩 15층 강당
- 참석인원 : 재적회원 204명중 105명
- 의결내용 :
  - 97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 승인
  - 감리비자유예탁제 변경에 관한 건
  - 원안 승인
  - 임원선출의 건
  - 감사(1인)에 박용길 회원을 선출하고 간사 2인은 회장에게 위임
  - 대의원 선출의 건
  - 회장에게 위임(대의원 11명)

### ■ 전라북도건축사회

- 일시 : '96. 11. 20(수) 15:00
- 장소 : 남원시 하이츠콘도 회의실
- 참석인원 : 재적회원 148명중 121명
- 의결내용 :
  - 97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심의 승인의 건
  - 세입예산중 운영회비징수율을 1.3배로 수정하고 이에따른 이월금 수입을 총세입예산액 범위 내에서 계수조정된 수정된 유인물원안대로 승인
  - 임원 개선의 건
  - 회장 : 이상돈(유임)
  - 간사 : 정 근(유임), 최영배(유임), 이진희(유임), 임종선, 심생길
  - 감사 : 김주식
  - 대의원 : 이상돈(유임), 문상식(유임), 최탁운(유임), 엄주호(유임), 송천규, 박종운, 이장희, 심생길

### ■ 경상북도건축사회

- 일시 : '96. 11. 21(목) 09:00
- 장소 : 제주도 라곤다호텔 연회장
- 참석인원 : 재적인원 161명 중 148명
- 의결내용 :
  - 96년도 제1차 추가경정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97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임원 및 대의원 개선
  - 회장 : 이영기(동아건축사사무소)
  - 부회장 : 조국환(포항종합건축사사무소)
  - 감사 : 함회목
  - 간사 : 강신태, 임병욱, 홍승도
  - 영주지역건축사회장 : 금상순(유임)

—문경지역건축사회장 : 고헌림

#### ■ 강원도건축사회

- 일시 : '96. 11. 21(목) 10:00
- 장소 : 원주 코레스코콘도
- 참석인원 : 재직회원 123명중 67명
- 의결내용 :
  - 97년도 운영회비 산출기준(안) 승인의 건
  - 원안승인
  - 97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수입의 일부과목 예산액을 조정하고 집행행부에서 검토하여 재조정 필요시 97년도 제1회 임시총회에 부의토록 승인
  - 임원 및 대의원 개선의 건
  - 회장 : 정상원(건축사사무소 시공·형제)
  - 부회장 : 이병일(건축사사무소 유임)
  - 간사 : 이명섭, 박영봉
  - 감사 : 조강목(유임)
  - 대의원 : 이국남, 이명섭, 김화영(유임), 민병협(유임), 김길창(유임)

####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 일시 : '96. 11. 21(목) 10:30
- 장소 : 충남예식장
- 참석인원 : 재직회원 183명중 134명
- 의결내용 :
  - 97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
  - 세입에 있어 월정회비는 10,000원을 상향 조정한대로, 세출에서 사무국의 차량유지에 따른 예산은 삭감하여 96년도 수지예산에 준하게 편성하여 재승인토록 결정
  - 임원개선
  - 회장 : 이영순(영건건축사사무소)
  - 간사 : 김영두, 이철호, 최 진, 이상목(유임), 류창열(유임)
  - 감사 : 석중구(유임)
  - 대의원 : 김종민외 17명

#### ■ 충청북도건축사회

- 일시 : '96. 11. 26(화) 10:30
- 장소 : 청주명안파크호텔 목련홀
- 참석인원 : 재직회원 132명중 79명
- 의결내용 :
  - 96년도 제1회 임시총회 회의록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97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단, 운영회비 산출기준표 조정시행)
- 임원개선내용
- 회장 : 오선교(선 종합건축사사무소)
- 부회장 : 오수복(교례아 종합건축사사무소)
- 간사 : 오덕균, 서항구, 양철호
- 감사 : 김영욱

#### ■ 부산광역시건축사회

- 일시 : '96. 11. 27(수) 11:00
- 장소 : 해운대 그랜드호텔
- 참석인원 : 재직회원 595명 중 476명
- 의결내용 :
  - 97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 승인
  - 임원 개선
  - 회장 : 박충명(박충명건축사사무소)
  - 간사 : 오천복, 이형재, 남진관, 심상복
  - 감사 : 조년순, 강 신
  - 대의원 : 신임 회장에게 위임(21명).

#### ■ 광주광역시건축사회

- 일시 : '96. 11. 27(수) 10:30
- 장소 : 광주광역시 건축사회관(5층) 회의실
- 참석인원 : 재직회원 173명중 150명
- 의결내용 :
  - 97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 일부 수정 승인
  - 임원 및 대의원 선출의 건
  - 회장 : 윤익상(윤건건축사사무소)
  - 부회장 : 안태경(한길종합건축사사무소)
  - 간사 : 문성식, 진경선
  - 감사 : 이창울
  - 대의원 : 윤익상의 10명 선출

#### ■ 전라남도건축사회

- 일시 : '96. 11. 27(수) 11:30
- 장소 : 광주 서구 화정동 추선회관 5층 회의실
- 참석인원 : 재직회원 70명중 61명
- 의결내용 :
  -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승인

- 97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승인
- 임원 및 대의원 개선
- 회장 : 조도인(진남건축사사무소)
- 간사 : 정남조, 황영호, 탁기봉, 윤문곤(유임), 현수호
- 감사 : 김강수, 윤순하
- 목포지역 건축사회장 : 이재필
- 순천지역 건축사회장 : 최윤호
- 여수지역 건축사회장 : 김태주
- 대의원 : 조도인, 노상익, 김인모, 김호신, 장기태, 최상채, 김덕태, 강인수

#### ■ 제주도건축사회

- 일시 : '96. 11. 27(수) 15:10
- 장소 : 제주하늬관광호텔(2층 회의실)
- 참석인원 : 재직회원 53명중 41명
- 의결내용 :
  - 97년도 사업계획(안)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승인
  - 임원 및 대의원 개선
  - 회장 : 강행생(강행생건축사사무소)
  - 간사 : 박정복, 고봉규
  - 감사 : 양창완
  - 대의원 : 강행생, 김석운

#### ■ 서울특별시건축사회

- 일시 : '96. 11. 28(목) 14:00
- 장소 : 서울교육문화회관
- 참석인원 : 재직회원 2,610명중 695명
- 의결내용 :
  - 회장단 선거관리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 원안통과
  - 97년도 일반회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세입항목중 복지회로부터 수령 예정으로 책정한 지원금(대외업무활동보조금) 3천2백만원이 그 지급여부가 확실치 않으므로 일단 예산에서는 유보시키기로 하고 총예산 15억9천40만원을 승인기로 원안통과
  - 대의원 선출 및 개선의 건
  - 현행대로 개선 대의원 20%는 본회에서(전임회장 포함), 80%는 지역건축사회에서 선출하기로 함
  - 임원개선의 건
  - 회장 : 이세훈(세하종합건축사사무소)

소)

- 감사: 홍문유(세경건축사사무소)
- 간사: 신임희장에 위임

#### ■ 경기도건축사회

- 일시: '96. 11. 29(금) 10:00
- 장소: 경기도건축사회관 강당
- 참석인원: 재적회원 617명중 320명
- 의결내용:
  - 97년도 일반회계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승인
  - 임원 및 대의원 선출의 건
  - 회장: 윤영재(건축사사무소 유신건축)
  - 감사: 한진택(한진건축사사무소)
  - 부회장, 간사, 대의원: 신임임원진에게 위임

#### ■ 대구광역시건축사회

- 일시: '96. 11. 29(금) 10:00
- 장소: 대구파크호텔 1층 목련홀
- 참석인원: 재적인원 452명중 329명
- 의결내용:
  - '97 회계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 통과
  - 임원 및 대의원 개선의 건
  - 회장: 이진호(대도건축사사무소)
  - 부회장: 정본진(세아건축사사무소)
  - 간사: 김화자, 김원, 임대규, 박영하, 김형모(유임), 이길웅, 이택봉, 홍기원
  - 대의원: 김형모외 21명(유임8명, 신임14명)

#### ■ 경상남도건축사회

- 일시: '96. 11. 29(금) 10:30
- 장소: 창원호텔 1층 별관 목화홀
- 참석인원: 회원 386명중 221명
- 의결내용:
  - 96년도 제2차 추경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 승인
  - 97년도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 승인
  - 임원 및 대의원 개선의 건
  - 회장: 허필도(중합건축사사무소 마루)
  - 부회장: 백종현(한성건축사사무소)
  - 간사: 고보석, 김재준, 김규인
  - 감사: 윤승목
  - 마·창지역건축사회장: 권경실

- 밀양지역건축사회장: 김중웅
- 대의원: 배동권외 15명

#### ■ 충청남도건축사회

- 일시: '96. 11. 29(금) 10:30
- 장소: 공주 쿠빈에식장
- 참석인원: 재적인원 124명중 65명
- 의결내용:
  - 97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 승인
  - 임원 개선의 건
  - 회장: 이천규(중합건축사사무소 토우)
  - 부회장: 김현용(홍성건축사사무소)
  - 간사: 이광춘, 육이창, 권운근
  - 감사: 김현성, 김중근
  - 대의원: 조석명, 신기현, 권백순, 김길수, 조형식, 이의영

### 이사회 개회

우리협회의 당면 주요현안을 협의하기 위한 제12회 정기이사회가 김영수 회장 주재로 지난 11월 22일 협회 중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보고사항에 이은 전회 회의록 승인과 부의안건 처리 순으로 진행된 이번 회의의 주요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12회

- 제1호 의안: 97년도 봉급기준표(안) 승인의 건
- 상임임원의 봉급은 96년도 수준으로 동결하고 직원의 인건비는 96년도 봉급기준표 대비 9% 인상 조정된 97년도 봉급기준표(안)을 원안대로 승인함.
- 제2호 의안: 건축사연금정산에 대한 세금문제 대책의 건
- 건축사연금정산위원회를 건축사연금대책위원회로 개편하여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고 그에따른 위원 보강 문제는 김무연 부회장에게 위임하기로 함.

### 제1회 경기도 건축문화상 수상작 발표



시상식 광경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건축사회와 한국건축가협회경기도지부가 공동주관한 「제1회 경기도건축문화상」의 수상작이 발표되었다. 준공건축물 26점과 계획건축물 45점 등 총 71점이 출품된 올해 행사에서는 준공건축물부문 대상 수상작인 「비전22」 등 총 22작품이 상을 받았다. 설계자에게는 창작성과 독창성을, 시공자에게는 건실한 시공풍토 조성을, 건축주에게는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을 함양코자 시행된 경기도 건축문화상은 지난 9월에 작품을 접수, 사전검 심사 및 현장심사를 거쳐 각 부문별 수상작을 선정하였으며 심사는 장성준(명시대), 제해성(아주대), 신성우(한양대), 박명언(코아종합건축 대표) 등 각계 인사 14명으로 구성된 부문별 심사위원회가 맡아 하였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10월 30일부터 12월 7일까지 경기도 문화예술회관과 부천시 민회관 등 5개지역을 순회하며 이들 수상작을 전시하였다. 올해의 부문별 수상작 명단은 다음과 같다.

- ▶ 준공건축물부문 (상명/작품명/설계자/시공자/건축주 순)
- 대상 / 비전22 / 다다건축사(사) 이천복 / 신화종합건설(주) / 추정현
- 금상 / 파천 시민회관 / 동남아·태종합 건축 전제우 / (주)태영 / 파천시장
- 은상 / 삼립G.F시화공장 / 건축사(사) 원 박영익 / 두산건설(주) / 삼립식품공업
- 동상 / 일산 22393주택 / 권문성건축사(사) 권문성 / 이백화 / 김동철
- 입선 / 부천 소사구청사 / 동남아·태종합건축 전제우
- 입선 / 새롬어린이집 / 건축사(사) 향린 건축 이원호
- 입선 / 흰구름저편 / 용상건축사(사) 김효중외 1인
- 입선 / 평촌상가조합빌딩 / 다원종합건축 김영택외 1인
- 입선 / 수대동 L씨주택 / 건축사(사) 신도시 조가정

입선 / 경기도박물관 / 공간종합건축 장  
세양

▶ 계획건축물부문 (상명/작품명/출품  
자명)

대상 / 도시의 삶 / 이정숙외 2인 (수원  
대)

금상 / GENESIS / 조두원(경희대)

은상 / 분당중앙공원내 미술관 및 공연  
홀 / 한병학외 1인 (경희대)

동상 / 수원성 200주년기념관 / 정창원  
외 2인 (성균관대)

입선 / 다례 / 장윤희외 2인(대림전문  
대)

입선 / 행양진시판이 있는... / 정재운외  
1인(대림전문대)

입선 / EXCAVATION / 황일봉외 1인  
(한양대학교)

입선 / 21세기 영상정보문화센터 / 이승  
종외 2인(명지대)

입선 / 수원 컨벤션센터 / 김영호(아주  
대)

입선 / 아이들은 순수하다 / 윤은수와 2

인 (수원대)

입선 / 수원역사박물관 / 이현정의 1인  
(경희대)

입선 / New City의 여유 / 정형성의 2  
인(대림전문대)

## 「제2회 부산건축사 회원 작품전」 개최



개막식 광경

부산광역시건축사회(회장 박성길)가 회  
원들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건축에 대  
한 일반의 이해를 증진코자 마련한 『제2회  
부산건축사 회원작품전』이 지난 10월 14일  
부터 19일까지 부산건축사회관 12층 전시  
실에서 열렸다. 이번 작품전에는 부산광역  
시건축사회 소속회원 42명의 작품 59점이  
전시되었는데 특히, 첫날 개막식에는 우리  
협회 김규태 전회장을 비롯해 건축가협회  
한병우 부산지회장, 부산 도시개발공사 서  
종수 사장 등 많은 내빈과 건축인 그리고  
시민 등 70여명이 참석해 큰 성황을 이뤘  
다.

## 「제16회 대구건축대전」 성료



축대전이 지난 11월 12일부터 17일까지

한 국 예  
술문화단체  
총 연 합 회  
대구광역시  
지회가 주  
최하고 대  
구광역시건  
축 사 회 와  
한국건축가  
협회 대구  
지회가 주  
관한 제16  
회 대구건

대구문화예술회관 전시장에서 열렸다.

올해 건축전에서는 건축작가상 수상작  
인『경북산업대학교 도서관 및 본관』(김무  
권+하성훈/현대건축사사무소),『수성구 청  
소년 수련관』(김진식+이창환/토담종합건  
축사사무소),『시지원봉빌딩』(전준배/전건  
축사사무소) 등 총 34점의 건축작가초대전  
작품과 일반작품공모전 부문 입상작(대  
상 : 『명상과 재교육을 위한 문화원』 / 양승  
용+김창섭작) 68점이 전시되었다.

## 충북건축사회 가람산우회, 도락산 등반



충북건축사회(회장 최호진)의 회원 등  
호활동모임 가운데 하나인 가람산우회(동  
호회장 장현석)가 지난 10월 20일 충북 단  
양 소재 도락산을 찾아 회원간 친목을 다졌  
다. 가람동호회는 그동안 매월 세째주 정기  
적으로 전국각지의 산행에 나서왔는데 이  
날 등반에는 회원 20여명이 참석, 아침 7시  
집결지를 출발해 상선암을 거쳐 해발 964  
미터의 도락산 정상에 오른 후 등하사를 거  
쳐 하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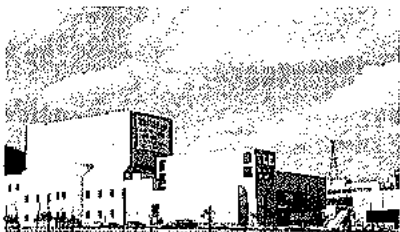
가람산우회는 11월 계룡산 산행에 이어  
오는 12월에는 충북영동에 위치한 민주지  
산 등반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충북건축사  
회는 앞으로 골프회, 낚시회, 산우회 등 회  
원친목 행사를 더욱 활성화해 동호회 활성  
을 통한 회원간 친목과 화합을 다져나갈 계  
획이다.

## 경기도건축사회, 회원친선 체육대회 개최

경기도건축사회(회장 최재남)는 지난  
10월 25일 수원시 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운동장에서 회원친선 체육대회를 개최하였  
다. 회원 상호간 친목과 유대를 다지고자



비전2(대상)



파천시민회관(금상)



삼립G.F.회공장(은상)



일신 22393주택(동상)

열린 이날 체육행사에는 경기도건축사회 소속 회원 379명이 참가, 지역건축사회별 대항전 방식으로 배구, 발야구, 줄다리기, 윷놀이 등 다양한 경기를 펼쳤다. 이번 체육행사에서는 수원지역건축사회가 종합우승을 차지하였으며 안산시역건축사회와 안양지역건축사회가 각각 2,3위를 차지하였다.



## 「제6회 경남학생 건축작품전」 열려



전시회개막식 광경

경남건축사회(회장 이동일)는 지난 11월 13일부터 16일까지 경남은행본점 1층 전시실에서 「제6회 경남학생 건축작품전」을 개최하였다. 출품자 전원에게 기념패가 주어진 이번 작품전에는 전체 출품작 39점 가운데 대상작에 선정된 Normalization(최상진, 전호권/경남대) 등 총 13점이 입상하였다. 한편 전시회 첫날에 있었던 개막식에는 경남건축사회 임원과 내빈, 수상자 등 70여명이 참석해 작품전 개막을 축하하였다. 주요 수상작 및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대상 / Normalization / 최상진, 전호권(경남대)
- 특별상 / 스람불너흔정 훈 제/전민영, 윤기선(울산대)
- 최우수상 / 대구 마린파크 / 김종석, 심현승(경남대)
- 우수상 / 마산시 문예회관 / 양유찬, 이귀봉(창신전문대)
- 우수상 / 지방유선방송국 / 이현영, 장우석(울산대)

## 「제15회 대한민국건축대전 및 건축가 축제」 열려



전시회 테이프컷팅 광경

한국건축의 문화적 위상 고양과 건축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한 한국건축가 축제가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동 예술의전당 미술관에서 개막돼 12월 1일까지 12일동안 열렸다. 한국건축가협회가 주관한 이 축제에는 「제15회 대한민국건축대전」의 수상작 전시회를 비롯해 「제18회 한국건축가협회상 수상작 전시회」, 「제1회 건축사진공모전 당선작 전시회」, 「건설 및 자재업체의 전시물 공개」, 「건축대전 및 건축가협회상 당선작 시상식」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다.

이번 축제기간에 공개된 대한민국건축대전 당선작 전시는 건축을 공부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건축작품 경연대회로 많은 관심을 끌고 있으며 올해 대상은 연세대학교 건축과 4년에 재학중인 이상윤씨의 「중소공장단지 재구성」이 차지했다. 특히 이 건축대전은 매년 10월 우리협회와 건설교통부, 서울경제신문사가 기성건축가들을 상대로 작품의 우수성을 겨루는 「한국건축문화대상」과 함께 국내건축계의 양대 축을 이루는 작품전이다. 한편 동기간중에 열린 「건설 및 자재업체 전시회」는 이들 해당업체들의 신소재 및 기술개발 상황을 패널로 만들어 소개한 행사로 일반 시민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끌었다.

이번 한국건축가협회상은 방철원(연·토건축)씨의 「연남동 STEP」, 김원(광창건축)씨의 「광주은행 학동지점」, 황일인(일건건축)씨의 「농인선원종합사회복지관」, 김인철(아르키움)씨의 「어린이집」, 정진국(한양대 건축공학과)씨의 「열린집 하나」, 배병길(배병길건축)씨의 「갤러리 현대」, 오



건축대전 대상수상작 모형

기수(스페이스·오)씨의 「여주전문대 체육관」 등 7점이 선정되었다.

## 한국건설기술연구원「건설시공 정착을 위한 정책토론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부실공사 방지대책의 성과에 대한 중간점검 및 향후 추진방향 도출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오는 12월 13일 오후 2시 대한건설협회 대강당에서 갖는다.

주최측은 이번 정책토론회가 그간 건설교통부에서 수립·추진하고 있는 각종 부실공사 방지대책의 성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평가함으로써 이들 대책의 가시적 효과를 알리고 건설사업 단계별 문제점을 파악, 전문가와 건설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장·단기 부실방지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주제발표 내용은 「부실방지대책의 성과에 대한 보고 및 평가」(제1주제), 「사업단계별 건설시공 정착 대책」(제2주제)이며 주제발표에 이어 각 분야 전문가와 건설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토론회를 갖는다.

## 경기대건축대학원 「제1회 졸업작품전」

경기대 건축대학원의 「제1회 졸업전시회 및 가을학기 건축전」이 오는 12월 9일부터 18일까지 포스코센터2층 전시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는 각기 개성이 다른 3개 졸업 Design Studio와 1개 Core 그리고 3개 Advanced Design Studio별 학생들의 가을학기 과정작품과 건축, 기술, 구조, 드로잉 과정의 선정작품들이 전시된다. 개막식은 전시 첫날인 9일 오후 4시 30분에 열리며 이보다 앞서 오전 9시30분부터는 민현식(이로재건축), 이성관(한울건축), 이은석(KOMA건축)씨 등이 비평건축가로 참여하는 Open Critique도 개최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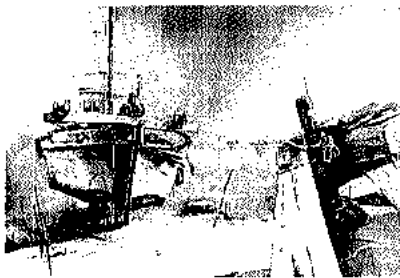
## 「제2회 진주시 건축상」작품공모

진주시가 창조적인 지역건축문화의 창

출과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위해 개최하는 「제2회 진주시 건축상」의 출품작을 공모한다. 95년부터 올해까지 진주시내에 건축되어 사용검사를 받은 건축물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공모전은 대상 1점에 200만원, 우수상 3점에 각각 100만원씩의 상금과 건물부착용 동판이 주어진다. 제출서류는 시 건축과나 제1청사 민원실, 진주시건축사회로부터 소정양식의 신청서를 교부받아 설계개요, 작품설명, 전경사진(30cm×40cm이상 액자), 설계도면 등이 수록된 설계도서 및 작품(42cm×60cm규격의 아트지 4~8매)과 함께 12월 10일까지 진주시청 건축과로 접수하면 된다.

문의 : 진주시청 건축과 0591) 749-2455, 2456

## 강성의 수채화전



건축사로 또 아마추어 미술가로 활발히 활동해 온 강성의(한라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회원이 첫 미술 개인전을 갖는다. 대한민국미술대전, 대한민국예술대전 등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기도 한 강성의회원은 특히 유화보다는 맑은 감각과 정제함을 가진 수채화를 즐겨 그려 왔는데 이번 작품전에서도 100호크기의 대작인 「도시탈출」등 근작 30여점을 선보일 예정이다. 전시회는 서울 잠실 롯데화랑(민속박물관 3층)에서 12월 5일부터 11일까지 열린다.

문의 : 411-4779, 4780(롯데화랑)

## 삼우설계, 창립20주년기념 건축작품전 개최

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은 (주)삼우설계가 지난 11월 22일부터 30일까지 가락동 그린빌딩 1층에서 창립20주년기념 설계 작품전시회를 가졌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그간 삼우가 진행했던 설계 미발표작들이 소개되었으며 특히 27일 오전에는 삼우의 사내연구회원들과 건축인들간에 '새로운 정체성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만남의 자리도 마련되었다. 1976년 설립 이래 대형프로젝트의 구현을 통한 인간정주환경의 개선과 사회적 필요에 부합하는 건축을 위해 노력해 온 삼우는 올해 20주년을 기점으로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고 있다.

## 「창원시 건축대상제」작품공모

창원시가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창원시 건축대상제」의 출품작을 공모한다. 95년 11월 ~ 96년 10월 중 건립된 관내 건축물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공모전의 접수기간은 12월 1일부터 10일까지로 건물전경사진(420mm×594mm)과 패널(594mm×841mm), 도면(297mm×420mm) 25부, 작품설명서(A4) 25부를 제출하면 된다. 입상작에 대해서는 상패 및 동판이 수여되며 대상에게는 상금 3백만원, 금상 2백만원, 은상 1백5십만원, 동상 1백만원, 장려상 50만원씩의 상금이 함께 주어진다.

문의 : 0551-80-2457

## 오스트리아 건축가전

홍익대학교 건축학과에서는 내년 1월 13일부터 25일까지 홍익대학교 현대미술관 4층에서 「오스트리아 건축 전시회」를 개최한다. 주한 오스트리아대사관이 후원하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오스트리아를 대표하는 유명 건축가들의 작품이 소개되며 행사기간중 Hans Hollein의 특강이 있을 예정이다.

문의 : 홍익대학교 건축학과(02-320-1106)

## 건축신간

◇「달팽이는 왜 집을…」

건축설계에 40여년을 바쳐온 원로 건축가 안병의씨가 지난 세월을 회고하며 쓴 에

세이집 「달팽이는 왜 집을…」이 발간되었다. 부산하얏트 호텔, 제주호텔 등의 작품으로 유명한 안병의씨는 1927년 평남 용강군에서 태어나 평양고보를 거쳐 서울대 건축과를 졸업하였다. 이후 김중업건축연구소 등을 거쳐 네덜란드에서 건축을 공부하고 돌아와 설계사무소 「鄉건축」을 개업했으며 현재는 김중업건축연구소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서울대·한양대 공대 건축과 강사를 지내기도 했으며 두 번의 건축작품전을 열었다. 이 책에는 건축가인 저자의 건축에 관한 논평과 함께 가족의 의미, 삶을 바라보는 자세, 자기일에 대한 직업관 등 그동안 살아오면서 겪은 다양한 경험이 솔직담백하게 나타나 있다.

정우사 발행/안병의 저/6천5백원

◇ 컬러 드로잉

이 책은 건축가와 일러스트레이터를 위한 가이드북으로 컬러렌더링 기법의 기초 단계부터 숙련단계까지의 심세하고 아름다운 일러스트레이션을 실제로 보여주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고 있다. 또 건물, 인테리어 자연풍광에 대한 컬러일러스트레이션을 탐구하고 펜, 마커, 에어 브러시, 수채화 물감 등의 각 특성을 설명하면서 이 미디어를 이용한 작품들을 보여주고 있어 건축일러스트레이터들이 컬러 미디어를 창조적으로 응용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출판 발행/오영근 엮음/2만5천원

◇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이 책은 저자가 현장에서 직접 체험한 기술과 지식 및 많은 실무자들에게 강의한 내용, 그리고 관계문과 해외의 우수 서적을 종합하여 엘리베이터·에스

컬레이터의 관계기술을 독자가 쉽게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도록 정리한 것이다. 내용에 있어 승강기 관련법규와 부합시켜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의 개요와 이론」 및 「설비계획과 관리」를 서로 분리하여 수록하였으며 부록으로 승강기의 제작, 안전, 검수 및 관리에 관한 관계 법규를 함께 담았다.

월드산업정보 발행(636-7321)/이지수 편저/448쪽/2만원